



2015년 경기도사서서평단 서평활동 모음집

813.8 사서, 어린이책을 말하다 2015

2015년 경기도사서서평단 저



Global Inspiration
경기도사이버도서관

2015년 경기도사서서평단 서평활동 모음집

813.8 사서,
어린이 책을 말하다
2015

2015년 경기도사서서평단 서평활동 모음집
813.8 사서, 어린이 책을 말하다 2015

발 행 일 2015년 12월 7일
글 쓴 이 2015년 경기도사서서평단
기 획 및 편 집 정은영
발 행 처 경기도사이버도서관
주 소 (16258)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신봉로23번길 68 (신봉동 123-69)
연 락 처 031)252-5237
홈 페 이 지 www.Library.kr / www.BookMagic.kr
디자인및인쇄 (주)가움기획
I S B N 978-89-93395-53-2

※ 이 책의 저작권은 경기도와 경기도사이버도서관에 있습니다. 상업적인 무단전재와 무단복재를 금합니다.

※ 이 책은 2015년 경기도사서서평단 활동의 결과물입니다.

책 속 서평과 목록은 경기도 독서포탈 북매직(www.BookMagic.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목록(CIP)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eoji.nl.go.kr>)와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http://www.nl.go.kr/kolisnet>)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CIP제어번호: CIP2015033795)



2015년 경기도사서서평단 서평활동 모음집

813.8 사서, 어린이책을 말하다 2015

2015년 경기도사서서평단 저



Global Inspiration
경기도사이버도서관



펴내는 글

2015년 9월 30일, ‘사서 1세대’ 백린 선생이 타계하셨다는 소식이 지난 11월에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그는 6.25 전쟁 때 규장각의 고서를 부산으로 옮기고, ‘승정원일기’ 등 국보급 자료 1만여 권을 지켜낸 대한민국 사서죠. 그는 후배들에게 “사서는 단순히 책을 분류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책의 내용까지 파악할 능력이 있어야 진짜 사서”라며 “실력 있는 사서가 돼야 교수들과 대등한 위치에서 제대로 봉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사서라면 “책의 내용까지 파악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백린선생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터이죠. ‘사서’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도,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도 모두 고개를 끄덕이게 할 법한 말입니다.

백린 선생의 말은 대학도서관의 전문 자료의 경우를 염두 해 두고 한 것이겠지만 이는 공공도서관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겠죠. 이용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해, 도서관에서의 소통을 위해 책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어야 진정한 사서라고 하겠습니다.

사서들의 서평 쓰기는 보다 사서답기 위한 경기도 사서들의 자구책입니다. 바쁜 일에 치여 책 읽을 겨를도 없지만 그래도 책을 손에서 놓지 않기 위해서 서평을 씁니다. 도서관이 이용자에게 다가가는 것은 결국엔 ‘책’이라는 신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평을 쓰기 위해서는 신경을 좀 더 많이 써야 합니다. 어떤 책을 고를까, 이 책에 대해 무엇을 이야기 할까, 누구에게 권하면 좋을까를 고민합니다. 수서할 때도, 정리할 때도, 문화행사를 기획하거나 실행할 때도, 보고서를 작성할 때도, 민원에 응대할 때도 말이죠. 그렇게 책에 대한 고민을 계속할수록 이용자들에게 보다 나은 도서관 서비스를

하게 될 것입니다.

보dana은 도서관, 보dana은 서비스를 위해 보dana은 사서가 되기로 작심하고 서평을 쓴다고 표현한다면 너무 과한 표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짐만은 그 못지않기 때문입니다. 사서들이 서평을 쓰는 이유, 스스로 조금씩 더 발전하고 싶은 바람입니다.

그 바람을 담아 올해도 서평집 『813.8 사서, 어린이책을 말하다 2015』을 발간합니다. 벌써 7번째 서평집입니다. 이번에는 약 150여편의 서평이 실렸습니다. 대상도서는 약153편정도가 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나온 신간들 중에서 서평대상 도서 선택하고 있습니다. 새로 나오는 책의 수에는 많이 못미치지만 이 서평들이 책을 고르고 읽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책을 읽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늘고,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서, 책이 우리의 삶에 소통의 매개체로 그 역할을 마땅히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바쁜 와중에도 서평을 써주신 ‘경기도사서서평단’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 오늘도 도서관 현장에서 애쓰시는 모든 도서관 관련자 모든 분들께 응원을 보냅니다.

경기도사이버도서관

Contents



글 심는 순서

퍼내는 글 _ 04

1부 서평, 사서들의 목소리 _ 09

그림책 서평 _ 11

동화책 서평 _ 205

지식정보책 서평 _ 291

2부 서평 쓰는 사서 _ 349

3부 함께 나누는 서평 _ 381

심사평 _ 383

우수 _ 384

장려 _ 392

부록 추천도서목록 _ 409

그림책 목록 _ 410

동화책 목록 _ 419

지식정보책 목록 _ 423

색인 찾아보기 _ 427



813.8 사서, 어린이책^을 말하다₂₀₁₅

1부 서평, 사서들의 목소리

- ◆ 그림책 서평
- ◆ 동화책 서평
- ◆ 지식정보책 서평

813.8 사서,
어린이책^을
말하다 2015



그림책 서평



그림책 서평



서평대상도서명	서평자	소속	페이지
7년 동안의 잠	이시영	군포시 중앙도서관	16
가방 안에 든게 뭐야?	김선옥	남양주시 화도도서관	18
가을 비빔밥	유향숙	성남시 판교도서관	20
꿈의 노래	유향숙	성남시 판교도서관	22
구덩이에서 어떻게 나가지?	유향숙	성남시 판교도서관	24
그게 바로, 너야	유옥환	안양시 박달도서관	26
그림자가 사는 마을	장현명	안성시 진서도서관	28
까치가 물고 간 할머니의 기억	이시영	군포시 중앙도서관	30
꽃살문	김보라	화성시 병점도서관	32
꿈에서 맛 본 톱파리	유옥환	안양시 박달도서관	34
나는 누구일까?	이은주	남양주 오남도서관	36
나는 혼자가 아니예요	이민혜	양평군 용문도서관	38
나와 우리	이시영	군포시 중앙도서관	41
난, 책이 참 좋아	유향숙	성남시 판교도서관	43
내 마음	이수경	평택시 장당도서관	45
팔랑팔랑			
누가나무를심었을까요?	유향숙	성남시 판교도서관	47
누구세요?	이시영	군포시 중앙도서관	49
대단한 밥	이가영	평택시 안중도서관	51
대추 한 알	김보라	화성시 병점도서관	53
도서관에 도깨비가 으히히히	유옥환	안양시 박달도서관	55
도서관이 키운 아이	이시영	군포시 중앙도서관	57

서평대상도서명	서평자	소속	페이지
도시에 사는 우리 할머니	홍미정	화성시 병점도서관	60
동물원 가는 길	손샛별	수원시 대추골도서관	62
동생만 예뻐해!	이은희	남양주시 화도도서관	64
동생이 미운걸 어떡해	이연수	수원시 북수원지식정보도서관	66
돼지 이야기	장현명	안성시 진사도서관	68
롤라와 나	이시영	군포시 중양도서관	70
마음아, 작아지지 마	유옥환	안양시 박달도서관	72
마음의 집	이가영	평택시 안중도서관	74
만약에	이은주	남양주시 오남도서관	76
모래 언덕에서의 특별한 모험	공정자	안성시 진사도서관	78
무엇이든 삼켜버리는 마법상자	유향숙	성남시 판교도서관	80
미영이	이은주	남양주시 오남도서관	82
미영이	이수경	평택시 장당도서관	84
미용실에 간 사자	이 영	평택시 장당도서관	86
바삭바삭갈매기	박지원	안성시 공도도서관	88
발이 더러운 왕	이민혜	양평군 용문도서관	90
방긋 아기씨	강동연	수원시 선경도서관	92
봄을 찾은 할아버지	유향숙	성남시 판교도서관	94
사막의 아이	이연수	수원시 북수원지식정보도서관	96
사자가 작아졌어!	이수경	평택시 장당도서관	98
샘과 데이브가 땅을 뚫어요	손샛별	수원시 대추골도서관	100
선생님은 몬스터	이연수	수원시 북수원지식정보도서관	102

서평대상도서명	서평자	소속	페이지
숲으로 간 코끼리	이수경	평택시 장당도서관	105
슈퍼거북	한선영	군포시 중앙도서관	107
스티나의 여름	이가영	평택시 안중도서관	110
심술쟁이 애완동물 앵그리	박지원	안성시 공도도서관	112
싱크 홀이 우리 집을 삼켰어요!	이연수	수원시 북수원지식정보도서관	114
싱크 홀이 우리 집을 삼켰어요!	박지원	안성시 공도도서관	116
싸움에 관한 위대한 책	이수경	평택시 장당도서관	118
아빠가 좋아요!	이은주	남양주시 오남도서관	120
아빠를 버렸어요	이연수	수원시 북수원지식정보도서관	122
안돼 내 과자야	공정자	안성시 진사도서관	124
앤서니 브라운 코끼리	이은주	남양주시 오남도서관	126
어린 도시농부 소피	이가영	평택시 안중도서관	128
어쩌다 여왕님	권혜림	평택시 시립도서관	130
엄마, 잠깐만!	이수경	평택시 장당도서관	132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라 가면	조수연	가평군 조종도서관	134
엄마가 오는 길	정은영	경기도사이버도서관	136
엄마는 회사에서 내 생각 해?			
에드와르도	유향숙	성남시 판교도서관	140
여우모자	유향숙	성남시 판교도서관	142
옆집 할아버지 관찰 일기	유향숙	성남시 판교도서관	144
오늘은 5월 18일	이가영	평택시 안중도서관	146
오리 가족의 떠들썩한 날들이	유옥환	안양시 박달도서관	148
우리 가족의 비밀	손셋별	수원시 대추골도서관	150
우리는 엄마와 딸	이연수	수원시 북수원지식정보도서관	152
위를 봐요!	이수경	평택시 장당도서관	154

서평대상도서명	서평자	소속	페이지
이건 내 모자가 아니야	박지원	안성시 공도도서관	156
일기 몬스터	정영춘	부천시 원미도서관	158
천천히 도마뱀	홍미정	화성시 병점도서관	161
춤추고 싶어요	유현미	평택시 시립도서관	163
친구를 사귀는 아주 특별한 방법	유향숙	성남시 판교도서관	166
키이의 가출	이가영	평택시 안중도서관	168
텔레비전을 끌 거야!	장현명	안성시 진사도서관	170
파란하늘	이은주	남양주시 오남도서관	173
팔고물 시루떡	이가영	평택시 안중도서관	176
풀꽃	이시영	군포시 중앙도서관	178
하늘꽃이 내 동생을 데려옵니다	이현아	남양주시 진접푸른숲도서관	180
한밤의 선물	김혜진	평택시 팽성도서관	182
할머니 사진첩	이시영	군포시 중앙도서관	184
할머니는 1학년	이시영	군포시 중앙도서관	186
할머니를 기다립니다	이시영	군포시 중앙도서관	188
할머니의 할머니의 할머니의 옷	유향숙	성남시 판교도서관	190
함께 걷는 길	김정옥	평택시 자산초록도서관	192
해적 : 바다에 살던 한 해적의 이야기	이수경	평택시 장당도서관	194
혼자 집 보는 날	이연수	수원시 북수원지식정보도서관	197
흑설공주	이은주	남양주 오남도서관	199
흑설공주	이연수	수원시 북수원지식정보도서관	201
엄마의 품	공정자	안성시 진사도서관	203



매미를 먹을까 말까?

이 시 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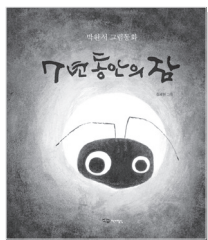
군포시 중앙도서관 사서

박완서는 내가 많이 좋아하는 작가다. 사십이 넘어서야 문단에 데뷔하여 우리시대 대표작가로 자리매김 한 것도 놀라울뿐더러, 옆집 아주머니 같은 푸근한 인상이 친근하기 때문이다. 동화로는 『자전거 도둑』 정도만 알고 있다가 이 책은 이번에 처음 발견했다.

『7년 동안의 잠』 제목이 자못 진지하다.

첫 장을 펼치니 작은 개미 한 마리가 커다랗고 둥그런 애벌레 위에 올라가서 내려다보고 있다. 어린 개미가 싱싱하고 큰 먹이를 찾아낸 것이다. 그림만 보아도 정말 크다는 생각이 든다.

개미마을에 흥년이 계속되어 저녁이 되면 빈손으로 돌아오기 일쑤였다. 마을에 있는 많은 광들이 하나둘 비어가고 있었다. 그렇다고 대대로 내려오며 이룩하고, 늘리고, 가꾸고, 사랑해 온 마을을 버릴 마음은 없었다. 이런 걱정 속에 찾아낸 큰 먹이라 기쁜 마음에 어깨를 으쓱했다. 어린 개미의 소식을 듣고 일개미들이 줄줄이 먹이를 보러 갔다. 새로운 기운을 얻은 개미들은 빠르고 힘찬 행진을 했다. 먹이는 살아 있는지 열심히 꿈틀거렸지만 개미들은 워낙 수가 많아 큰 먹이는 금방 새카만 개미 덩어리가 되었다. 갑자기 늙은 개미가 물러가 있으라고 외친다. ‘왜요?’ 라고 물으면서도, 의젓함과 지혜가 있는 존경받는 늙은 개미이기에 모두들 물러났다. 늙은 개미가 먹이의 둘레를 한 바퀴 둘러보고 그 먹이가 매미라는 것을 알아냈다. 개미들이 한여름 땀 흘려 일할 때 나무 그늘에서 노래나 부르는 팔자 좋은 매미를 보



7년 동안의 잠

박완서 글, 김세현 그림.

어린이작가정신, 2015.

분야 : 그림책 / 추천대상 : 영유아

며 입맛을 다신다. 매미에 대해 젊은 개미들이 이렇다 저렇다 떠들 때 늙은 매미가 알려준다. 매미는 한여름에 노래를 부르기 위해 어두운 땅속에서 오랫동안 기다린다고. 이번에 찾아낸 먹이 매미는 아마 7년은 된 것 같다고 말해준다. 그리고 늙은 개미와 젊은 개미들의 논란이 시작된다. 7년이나 어둠과 외로움 속에서 재주를 갈고 닦은 매미를 옹호해주는 늙은 개미와 노래 따위를 부르기 위해 7년 아니라 10년을 했어도 대단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젊은 개미.

어느 쪽이 옳을까?

굶주렸던 개미들이 찾아낸 큰 먹이 매미는 이제 어떻게 될까?

그림은 황색과 검정색이 주를 이루지만 단조로운 조합임에도 불구하고 더욱 생생한 느낌을 전해준다. 개미들의 표정만 보아도 개미마을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느낄 수 있다. 우리시대 대표작가의 그림책은 그의 철학과 가치관이 고스란히 녹아있다. 단조로울 것 같고 가벼워 보이는 박완서의 그림 동화책 속에서 환경과 생명의 소중함을 찾아낼 수 있다.



“가방 안에 든 게 뭐지?” 궁금하면 펼쳐봐

김 선 옥

남양주시 화도도서관 사서

책의 앞표지와 뒤표지를 한 장으로 이어 보면 개구리가 큰 가방을 짊어지고, 동물들이 개구리의 가방을 탐내며 쫓아오는 그림을 볼 수 있다. 개구리의 빨간 가방 속에는 과연 무엇이 들어 있을까?

이야기는 표제면에서 부터 시작된다. “큰일이야, 서둘러야겠어!” 라는 말과 함께 개구리는 급하게 가방을 짊어지고 달리기 시작한다. 가는 도중에 숲 속에 있는 다람쥐, 토끼, 원숭이, 곰이 가방 속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상상하며 쫓아온다. 절벽 끝까지 몰린 개구리가 떨어지면서 가방 속에 있는 것들이 쏟아져 내린다.

가방 속에 있었던 것들의 정체는 무엇일지 독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며 이야기가 빠르게 진행되다가 가방 안에 있는 것들이 종이 한가득 쏟아져 내릴 때, 독자들에게 통쾌한 반전의 묘미를 느낄 수 있게 해준다. 또한 개구리를 쫓아오는 동물들의 색깔이 신선하다. 다람쥐는 보라색, 원숭이는 푸른색, 가방 속의 호기심뿐만 아니라 동물들의 개성적인 색 표현이 독자들을 더욱 즐겁게 한다.

“가방 안에 든 게 뭐지?” 라는 문구가 반복적으로 등장함으로써 궁금증을 더욱 증폭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한 그림의 일러스트적인 표현이 인상적이다. 동물들이 가방속의 든 것이 무엇일지 상상하며 침을 흘리는 모습을 그린 부분에서는 그 표정이 살아있는 듯하다. 색연필화의 수많은 덧칠과 섬세한 선의 표현이 동물을 더욱 익살스럽고 친근하게 느껴지도록 한다.



가방 안에 든 게 뭐야?

김상근 지음.

한림출판사, 2015.

분야 : 그림책 / 추천대상 : 유아

저자 김상근 작가는 평소에 항상 가방을 들고 다니는데 그 가방 안에는 온갖 비밀스러운 것들이 모여 있어 무게도 상당하다고 한다. 평소 작가가 느껴 온 가방에 대한 호기심이 동화책 속에서 그대로 묻어나온다. 이 책을 읽고 난 후 『999마리의 개구리 형제의 이사』를 연계해서 읽어보면 가방 속 정체에 대해 더욱 깊이 있고 재미있게 알아갈 수 있을 듯하다.

이제 진짜 가방 속엔 무엇이 숨어있는지 한 번 알아볼까?



가을에 밥 비벼먹자

유 향 숙

성남시 판교도서관 사서

얼마 전 입추가 지나 아침, 저녁으로는 가을이 느껴진다. 그쯤에 『가을 비빔밥』이라는 책이 손에 들어왔다.

율이의 할머니 댁은 시골이다. 부모님과 누나, 동생과 함께 할머니 댁에 내려가면서 나무가 노랗고 빨갛게 물들고 있고, 길가에 꽃들이 더욱 선명한 색깔을 뽐내며 서있다. 저 멀리 할머니는 우리를 기다리며 나와 계신다. 마중을 나오신 할머니의 모습에서 글로 다 표현되지 못하는 자식을 향한 사랑과 그리움이 배어나온다.

먹거리가 풍성한 할머니 시골 댁에 점심때가 되어 도착하였다. 마당에는 검푸른 빛, 검보라 빛의 가을 나물들이 잘 마르고 있다. 이것들은 고춧잎, 가지, 송이버섯 등으로 가을빛을 담은 빨간 고추장과 비벼주면 드디어 고향의 향기, 가을을 담은 풍성한 먹거리가 된다.

이 책이 좋은 것은 “가을빛을 담은 빨간 고추장”처럼 오감을 담은 표현을 볼 수 있어서이다. 아이들에게 오감과 그 감각들 사이에서 통하는 융합을 맛볼 수 있게 해준다.

“가을빛을 담은 빨간 고추장”을 엄마, 아빠, 누나, 나, 동생 그리고 할머니가 모여 같이 먹는다면 이보다 더 행복하고 아름다운 그림이 있을까



가을 비빔밥

매이 봄 글, 김윤영 그림.

어썸키즈, 2014.

분야 : 그림책 / 추천대상 : 유아5세~초등2학년

생각된다.

우리 친구들도 할머니나 할아버지를 만나면 반갑게 안길 수 있는 손주들이 되면 좋겠다. 할머니, 할아버지 역시 가을의 꽃과 나무들 보다 더 진한 사랑의 향기를 지녔기 때문이다. 그것은 초년기와 장년기를 거쳐 깊은 인내와 끝없는 사랑의 냄새다.

작가는 풍성한 가을별과 아름다운 사랑과 행복한 그림을 가진 책을 만들어 냈다. 가을향은 글과 그림에서 모두 느낄 수 있고, 조화가 잘되어 있다. 어린이의 시각에서 보는 것이 무엇일까를 깊이 고민한 것 같다. 더불어 내용뿐 아니라 책의 형태에서도 아이를 위한 작은 배려를 느낄 수 있다. 책의 모서리를 부드럽게 둥글렸는데 이야기 속 할머니의 따뜻하고 깊은 사랑이 출판사에 몸담은 사람들의 마음까지 따뜻하고 배려 깊게 만들었나 보다.



아기 꿈은 어디 있을까?

유 향 숙

성남시 판교도서관 사서

이 책의 제목은 『곰의 노래』다. 그러나 나는 이 책의 제목을 ‘아기 꿈은 어디 있을까?’로 다시 붙이고 싶다. 그림책을 따라가며 아기 꿈을 찾는 재미를 제목에 표현하고 싶기 때문이다.

겨울잠을 자려고 누운 아빠와 아기 꿈. 그러나 아기 꿈은 꿀벌이 나타나자 꿀벌을 찾아 동굴 밖으로 나간다. 옆자리가 썰렁하여 겨울잠을 못자는 아빠는 아기 꿈을 찾아 나가 보지만 숲 속 복잡하고 다양한 동물이 있는 공간에서 아기 꿈을 찾기가 쉽지가 않다.

아빠 꿈이 아기 꿈을 걱정하는 마음이 독자들에게 투영되어 함께 아기 꿈을 찾도록 만든다. 그래서 그림 속에서 아기 꿈을 열심히 찾아보려고 하지만 많은 동물들이 등장하고 매우 복잡해 찾기가 쉽지는 않다. 마치 숨은그림찾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복잡한 숲속, 복잡한 도시, 오페라관, 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극장 안까지 매 장을 넘길 때마다 별을 쫓는 아기 꿈이 있는데 찾기가 쉽지가 않다.

『월리를 찾아라』, 『매직북』 등의 책들과 비슷한 유형이다. 작고, 매우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어딘가에 있는 ‘월리’를 찾아야만 하는 것처럼 이 책은 집중력을 가지고 그림책에 빠져들게 하는 묘한 매력에 있다.



곰의 노래

뱅자맹 쇼 지음, 엄명순 옮김.

여유당, 2014.

분야 : 그림책 / 추천대상 : 유아6세~초등2학년

그림책의 형태는 보통의 그림책의 2배 반 정도의 크기인데 반해 그림은 아주 작으면서도 등장인물을 감싼 주변 그림이 복잡하고 많아서 독자들에게 아기 곰을 찾는 숙제를 안겨 준다.

이 책에서는 아빠 곰이 아기곰을 열심히 찾지만 엄마 곰이 등장하지는 않는다. 모든 가정이 같은 모습의 구성이 아니고, 각 가정마다 다양한 구성의 가족이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아빠든 할머니든 함께 사는 가족이 누구이든 아이를 걱정하며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표현한다.

이 책은 ‘2015 어린이도서연구회’ 추천, ‘2015학교도서관저널’ 추천, ‘2015 책둥이’ 추천, ‘2014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추천, ‘2014 이탈리아 안데르센상’ 수상, ‘2013<뉴욕타임즈> 올해의 그림책’ 선정, ‘2012 프랑스 ‘처음 만난 책’에 선정되는 등 다양한 기관에서 추천하고 있는 책이다.



위기를 해결하라

유 향 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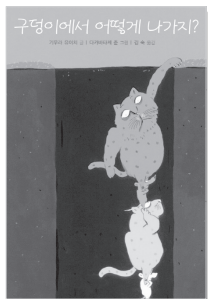
성남시 판교도서관 사서

이 책의 형태는 가로 30cm에 세로 19cm로 가로로 보는 그림책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 그림책을 펼치면 세로로 보아야 한다. 표지부터 세로로 보며 책장을 위로 들어 올리게 되어 있어 좀 어색하고 다르다. 책의 내용을 다 읽고 전달하는 메시지 역시 좀 다르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내용을 물리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고도의 편집술이라고 생각된다.

쥐 세 마리를 고양이 두 마리가 쫓다가 순간 구덩이에 모두 빠져서 다섯 동물들에게 생명의 위기가 찾아왔다. 처음에는 구덩이에 갇혔어도 고양이는 쥐를 잡아먹으려고 했다. 쥐가 ‘나를 잡아먹어도 이 구덩이에서 못 빠져 나가면 궁극적으로는 굶어 죽을 것’이라는 말에 고양이는 잠시 잡아먹는 것을 내려놓고 함께 위기를 빠져나가기로 생각을 모으게 된다.

더 큰 위기를 맞이했을 때 천적은 동지가 되는 것을 배우게 되는 순간이다. 작은 힘도 모아야 위기를 빠져 나간다는 것을 아는 고양이의 지혜가 엿보이며, 쥐 입장에서는 아무리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크게 보면 살아날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좀 다른 생각을 하게 하는 동화책이다.

작은 생각에 갇히면 죽지만, 생각 밖의 생각으로 넓은 시야를 갖는다면 슬기롭게 위기를 벗어 날 수 있다. 적도 때로는 동지가 될 수 있고, 힘을 합하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는 메시지가 강력하다. 이 외에도 독자들은 더 많



구덩이에서 어떻게 나가지?

기무라 유이치 글, 다카바타케 준 그림, 김숙 옮김.

북뱅크, 2011.

분야 : 그림책 / 추천대상 : 유아7세~초등3학년

은 메시지를 찾아 낼 수 있을 것 같다.

구덩이에 갇힌 쥐 세 마리와 고양이 두 마리는 일시적 배고픔보다는 함께 모두 구덩이에서 빠져나가는 데 생각을 같이하고 지혜를 내보자고 한다. 그러나 누가먼저 구덩이를 탈출할 것인가의 문제에 직면한다. 구덩이에서 나가자마자 쥐와 고양이는 먹이사슬의 일상에 놓이게 되기 때문이다. 누가 먼저 나갈 것인가를 갖고 밤을 새며 토론을 했지만 결론은 나지 않는다. 그러는 사이에 비가 와서 물이 불어나 모두 구덩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모두 구덩이에서 빠져 나왔는지도 모르고 있었다. 비가 오는 줄도 모르고 위기를 벗어나고자 절박하고 진지하게 고민하는 그들을 보면서 여러가지 생각을 갖게 한다.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해 그렇게 깊이 고민하며 탈출을 생각해 본적이 있을까?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모책을 짜내기. 둘째,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가볍고 하찮은 것인가를 깨닫기가 절실히 필요한 것 같다.

우리는 자연 앞에서 참으로 작은 존재들이다. 위기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지혜를 모으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작은 것에서도 배우는 겸손이 필요한 것 같아 이 책을 소개한다.



태어나게 해줘서 고마워요.

유 옥 환

안양시 박달도서관 사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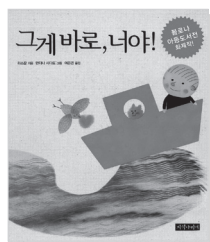
파도치는 물결 위의 작은 배안에 행복한 표정의 꼬마와 고양이가 한 방향을 봅니다. 그곳에는 새가 붉은 색 하트를 부리에 물고는 배를 향해 오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와 붉은 하트는 언제나 미소를 머금게 합니다.

표제지 뒷장의 현사는 작가 라스칼이 자녀와 손주에게, 그리고 그림을 그린 만다나 사다트는 손녀 손자에게 바치는 글이 있습니다. 사랑은 “내리 사랑”이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라스칼은 연극 및 오페라 공연 포스터를 제작하다가 33세의 나이로 어린이책 만드는 일에 뛰어들었고 이후 60여 권의 동화책을 썼으며, 이 책은 볼로냐 아동도서전에서 화제작으로 인기를 받았습니다.

‘네가 태어나기 오래전에.....’로 시작하는 이 책은 작은 아기였던 아빠가 점점 자라면서 실제로 한 아기의 아빠가 되기까지 작은 꼬마에 대한 염원이 글과 그림에 잘 녹아져 있습니다. 옷감 위에 얼룩으로, 빵으로, 사탕과 과자로, 조약돌로, 씨앗으로, 성냥개비로, 철사로, 모래알로 만들기의 소재가 바뀝니다. 유아에서 어린이로, 청소년으로, 성인으로의 모습이 점차 오버랩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멋진 날이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정말



그게 바로, 너야

라스칼 지움, 만다나 사다트 그림, 여은경 옮김.

지식나이트. 2014.

분야 : 그림책 / 추천대상 : 유아

멋진 날입니다. 그리고는 작은 진짜 꼬마가 만들어집니다.

“그게 바로, 너야!”

아빠의 사랑에 힘입어 나는 소중한 존재라는 자긍심이 느껴지는 책입니다. 나를 오랫동안 기다려준 부모님의 사랑이 가슴에 와 닿아 기쁨을 줍니다. 자존감이란 자아 존중감, 즉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특히 성장 과정에서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따라 건강한 자부심을 가지게 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상태로 자랄 수 있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아이는 심리적인 불안, 우울, 분노 등으로 나타나 타인을 불신하고 공격적인 성향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책은 함께 읽으며 자신을 오랫동안 기다려 준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게 함으로써 자존감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는 사랑을 베푸는데도 적극적입니다.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한 책으로 추천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그림자 이야기

장 현 명

안성시 진사도서관 사서

뜨거운 땀방울이 내리쬐는 요즘, 우리와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친구가 하나 있다. 그게 누구냐고? 바로 한 낮의 보디가드 그림자이다. 해가 떠있는 동안 나와 내 그림자는 어딘가에서, 또 무엇인가 하며 함께 시간을 보낸다. 그리고 해가 지고나면 나는 지친 몸을 이끌고 포근한 집으로 향한다. 그렇다면 내 친구 그림자는 어디로 가버리는 걸까?

이 엉뚱한 물음에 대한 답을 유쾌한 상상으로 풀어낸 책이 있다. 『그림자가 사는 마을』, 해가 지고 모두들 집으로 갈 시간이 되면, 그림자들 역시 집으로 간다. 어떤 그림자는 버스를 타고, 또 어떤 그림자는 비행기를 타고, 심지어 고래를 타고 가는 그림자도 있다. 이런 다양한 그림자들이 모인 마을은 생각보다 특별하지는 않았다. 우리들이 사는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옷가게에 들러 옷도 사고, 맛있는 음식점에서 밥도 먹는다. 낮 동안 우리들이 지냈던 하루를 그림자들도 그림자마을에서 똑같이 쉬고, 일하고, 노는 평범한 모습을 보여 준다. 그림자들도 잠을 잘 시간이 왔다. 모든 그림자들이 마을 안에 있는 나무로 모여 잠을 청한다. 우리들이 포근한 집에서 휴식을 취하듯 그림자들도 나무에서 잠을 자며 힘을 얻는다.

『그림자가 사는 마을』은 그림자들이 우리를 따라다니며 고단했을 몸과 마음을 푸는 우리의 집과 같은 곳이다. 누군가는 노래를 부르며, 누군가는 세수를 하며, 또 누군가는 잠을 자는 안식처에서 힘을 얻으며 다시 태양을 맞



그림자가 사는 마을

마이클 바틀로스 글, 그림, 김영미 옮김.

키즈엠, 2014.

분야 : 그림책

으러 힘차게 나갈 수 있는 것이다. 그림자들이 모여 사는 마을은 특별해 보이지만 그 안은 우리의 삶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그림자’를 가지고 재미있게 상상한 이 책은 아이들에게 ‘그림자’를 과학적인 현상으로만 설명하지 않고, 각자 나름대로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게 한다. 또 까맣게 표현된 그림자들은 각자 다양한 모습을 갖고 있다. 이렇게 표현된 그림자들은 아이들의 상상력을 한층 더 자극시킬 것이다.

이제 다시 해가 밝았다. 그림자와 내가 다시 만날 시간, 당신의 그리고 아이들의 그림자는 밤 새 무엇을 하며 쉬다 왔을까?



도둑까치야 내 열쇠 가져갔지?

이 시 영

군포시 중앙도서관 사서

『스틸 앨리스』라는 영화가 있다. 치매의 또 다른 이름인 알츠-하이머 병을 앓게 된 유능하고 멋진 여교수 이야기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치매 앞에서는 유능하고 멋진 여교수라 해서 다르지 않았다. 노령화 시대인 현재에는 치매는 자연적인 병이라고도 한다. 주위에 치매에 걸린 어른들이 있는가. 그분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해야 하는지를 알게 해주는 그림책을 만났다.

할머니는 도둑까치가 자동차 열쇠를 훔쳐가서 곤란에 빠졌다. 할머니는 도둑까치가 다른 사람들의 물건들을 소매치기 한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 특히 도둑까치가 반짝이는 작은 보석이나 열쇠를 슬쩍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자동차 열쇠가 없어서 집에 돌아가기가 막막해진 할머니는 벤치에 앉아 좀 쉬기로 했다. 나무에 앉은 새를 보고 날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할머니는 걷기 시작했다. 걷다보니 기분이 좋아져서 내리막길에서는 깡충깡충 뛰기까지 했다. 걷다가 할머니는 도둑까치가 버렸을지도 모를 자동차 열쇠를 찾기 위해 땅바닥을 살폈다. 그리고 도둑까치는 얼마나 사는지, 나와 같이 늙어 가는지, 훔친 물건을 모았으면 보물창고가 만들어 졌을 거라는 생각을 했다. 할머니의 생각은 고리처럼 계속 이어진다. 그렇게 걸어서 날이 어두워진 해질녘에 집에 도착했다. 걱정하며 기다린 할아버지는 집에 돌아오게 다행이라고 할머니를 꼬옥 안아주신다. 할머니는 저녁으로 피자를 사오기로 한 약속도 잊어버렸다. 할아버지는 밤에도 할머니 걱정에 잠을 못잔다. 할아버지는 언젠가 할머니가 사랑하는 모두를 알아보지 못하게 될까



까치가 물고 간 할머니의 기억

상드라 푸아로 세리프 지음, 문지영 옮김.

한겨레아이들, 2015.

분야 : 그림책 / 추천대상 : 영유아 및 초등저학년

겉이 난다. 그러다가 할아버지에게 좋은 생각이 났다. 할아버지는 집안 곳곳을 바삐 돌아다니고 서랍을 뒤적거리며 무언가를 찾는다. 그리고 며칠 동안 정원에 있는 작은 오두막에서 무언가를 만들었다. 할아버지는 무엇을 만들었을까?

뒷표지 면지에 선물보따리가 붙어 있다. “애드메에게”라고 쓴 할아버지의 쪽지도 보인다. 선물 보따리를 펼쳐 보아야 선물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그 선물은 할머니뿐 아니라 읽는 이들에게도 감동을 준다.

치매를 앓는 어른들은 아무리 가르치고 바로 잡으려 노력해도 좋아지지 않는다. 약을 먹어도 속도만 느려질 뿐이다. 치매를 앓는 어른을 자연스럽게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미학을 보여주는 책이다.



꽃살문 사이의 전통문화

김 보 라

화성시 병점도서관 사서

전통문화를 그린 그림책들을 훑어보자면 대체로 옛이야기나 전통 문화를 소재삼아 이야기를 만들어 한국의 옛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그림들로 만들어진 작품들이 많다. 다른 부류로 옛 소재를 다루되 새로운 방식으로 만들어진 참신한 작품들도 만들어 지고 있다. 이 두 분류로 나누자면 『꽃살문』은 후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책은 한국의 사찰과 고궁에서 볼 수 있는 꽃살문과 장수를 상징하는 십장생이 소재가 되었다. 주인공인 아이가 꽃이 만개한 꽃살문 사이로 해 · 산 · 물 · 돌 · 소나무 · 구름 · 불로초 · 거북 · 학 · 사슴과 함께 숨바꼭질을 하는 환상적인 장면을 그렸다. 책을 보는 아이들은 페이지를 넘길 때 마다 화려한 색채의 사계절을 만날 뿐 아니라 그림 속에 숨어 있는 십장생을 찾아내는 쾌감과 즐거움 느낄 수 있다. 낯설었던 오래된 나무문과 장수를 뜻한다는 전설 속의 생물들과 한층 가까워지게 되는 것은 물론이다.

무엇보다 구성과 그림을 칭찬하고 싶다. 문을 열면 열수록 새로운 세계가 펼쳐져 몰입도를 높여 주며 생동감 넘치는 구성이 멋스럽다. 익살스럽게 표현한 십장생과 짙은 오방색의 그림들은 책을 접하는 아이들에게 시각적인 재미를 선사한다. 또 판화 기법을 이용한 세련되고 아름다운 페이지들은 아이들의 미술적 감성과 상상력을 자극하기 충분하다. 언제 봐도 촌스럽지 않을 현대의 전통문화 그림책이다.



꽃살문

김지연 지음.

느림보, 2014.

분야 : 그림책 / 추천대상 : 유아 및 초등저학년

서양화를 전공한 작가는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않기 위해 전통문화에 더욱 집중하기로 했다고 한다. 전작 『깊은 산골 작은 집』 또한 한국 전통문화인 종이 부적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환상적이면서도 정겨운 그림책이며, 최근작 『한글 비가 내려요』 또한 우리 한글을 조명한 그림책으로 전통문화 카테고리 속 책으로 함께 읽어도 좋다. 또 작가가 영향을 받았다는 신흥사, 성혈사, 내소사 등의 사찰이나 궁에 방문하는 등 연계 학습도 가능하므로 다양한 활용을 권한다.



이 세상의 모든 말에게!

유 옥 환

안양시 박달도서관 사서

『구름빵』, 『장수탕 선녀님』하면 떠오르는 그림책 작가가 있습니다. 바로 백희나 작가입니다. 2014년 신작 『꿈에서 맛 본 똥파리』는 과연 어떤 맛인지 자못 궁금해집니다.

연못가 큰오빠 개구리는 어른 개구리들이 모두 일하러 나가고 없을 때면 동생들을 돌보느라 바빠집니다. 어른 입장에서 보면 큰오빠 개구리 역시 어린 새끼이지만, 다른 올챙이들보다 조금 더 일찍 알에서 깨어난 덕분에 부모님을 대신하여 동생들을 돌봐야하는 책임을 떠맡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날아다니는 똥파리가 맛나 보여 군침을 꿀꺽 삼키며 잡아먹으려고 하는 순간 들려오는 소리, “오빠! 나 배고파”. 큰오빠 개구리는 혀를 길게 쭉 뽑아서는 공중의 똥파리를 멋지게 낚아챵니다. “획~~~ 척!” 그리고는 동생의 입에 넣어주지요. “와~” 동생 올챙이는 신이 납니다. 이어 물려드는 동생 올챙이들이 저마다 “나도! 나도!...”를 외칩니다. 숨 돌릴 틈도 없이 획~ 척!, 획~척! 똥파리를 낚아채어 동생들 입에 물려주는 오빠 개구리는 듬직합니다.

동생들이 맛나게 배불리 먹고 있는 한편, 한 쪽에는 큰오빠 개구리의 지쳐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보기에 안쓰럽기만 합니다. 큰오빠 개구리는 언제쯤 동생들처럼 편히 마음 놓고 맛나게 배불리 먹게 되는 걸까요?



꿈에서 맛 본 똥파리
우리 작가가 쓰고 그린 우리 아이들 이야기
‘그림책이 참 좋아’ 20

백희나 글, 그림.

책 읽는 꿈. 2014.

분야 : 그림책 / 추천대상 : 유아

큰오빠 개구리의 일방적인 희생만 보이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나 동생 올챙이들에게서는 믿고 의지하는 약자의 모습이, 큰오빠 개구리에게서는 약자를 배려하는 마음과 말이 지녀야 할 책임감이 엿보입니다.

모든 모임과 조직에는 리더가 존재합니다. 리더에게는 그에 맞는 역할이 따릅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즉, 책임 있는 자리에 올라서게 되면, 그 만큼의 책임감과 중압감으로 인해, 사람이 성장하고, 결국엔 그 자리에 부합 되는 인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이죠.

말이에게 무조건적인 희생과 책임감만 떠넘기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인식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그 누구도 말이로 태어나길 스스로 원하진 않았을 테니까요.

형제자매간의 우애에 대하여 이야기해줄 때 함께 읽으면 좋은 유아 그림책입니다. 형에 대한 신뢰, 동생에 대한 양보와 배려가 형제애를 돈독히 하는 요소임을 느끼게 합니다.



가슴에 보물을 가득 품은 아이

이 은 주

남양주시 오남도서관 사서

‘나는 누구일까?’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하게 되는 질문일 것이다. 이 책은 ‘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한다. 자녀와 함께 읽으며 생각을 나눠 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겠다.

이 책은 무엇보다 그림과 색감이 예쁘다. 표지는 노란색 배경에 파란색 얼굴, 웃는 얼굴이 표현되도록 여러 개의 행성들이 잘 배치되어 있다. 보고 있으면 절로 미소가 지어진다.

주인공 까망이는 궁금한 것이 참 많다. 그 중에서도 가장 궁금한 것은 까망이 자신이다. 까망이의 친구들은 모두 좋은 점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 까망이 자신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서 좋은 점을 찾기 위해 여행을 떠난다. 볼 수 있는 나무, 들을 수 있는 나비, 말할 수 있는 파도를 만나 자신의 좋은 점을 물어보지만...

아이를 키우다 보면 예쁠 때도 많지만 힘들 때도 많다. 말을 시작하며, 호기심이 왕성할 때는 하루에 수십 번의 질문을 한다. 아이가 자라면서 부모에게 하는 질문이 무려 20만개라고 하니 질문에 맞닥뜨린 부모 중 힘들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성실하게 대답해 주다가, 나중에는 “아직 몰라도 돼”, “바쁘니까 나중에 알려줄게”라며 아이에게 면박을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까망이와 나무, 나비, 파도는 우리 호기심 많은 아이들



나는 누구일까?

박상은 글, 그림.

현북스, 2013.

분야 : 그림책 / 추천대상 : 유아부터

과 항상 바쁜 어른들을 대비한다.

까망이는 과연 자기만의 좋은 점을 찾아낼 수 있을까?

책을 처음 펼쳐볼 때부터 그림이 예사롭지 않다고 생각했더니 역시나 ‘제2회 앤서니 브라운 신인 작가 그림책 공모전’에 당선된 작품이란다. 앤서니 브라운과 한나 바르톨린은 “열쇠 구멍을 주인공으로 삼은 발상이 매우 독창적이다.”라고 추천의 말을 남겼다. 독특한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이야기와 과감한 컬러의 그림이 어우러진 멋진 작품이라고 극찬하기도 했다.

책 뒷부분에는 2013년 5월 한국을 방문한 앤서니 브라운과 한나 바르톨린이 박상은 작가와 작품을 살펴보며 나눈 대화도 나와 있어 마치 ‘작가와 의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느낌이다.

작가 박상은은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서양화를 전공한 뒤, 숙명여자대학교에서 아동미술치료를 공부하고 오랫동안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치고 있으며, 수업하며 만났던 자폐, 다운동후군과 같은 장애가 있는 친구들에게서 놀라운 재능과 사랑을 발견하고 이 책의 스토리를 떠올렸다고 한다. 작가의 후속작이 기다려진다.

● ● ● 혼자여도 괜찮아요!

이 민 혜

양평군 용문도서관 사서

우리들의 처음은 어땠을까요? 혼자가 무서워 울진 않았는지, 아니면 아무 것도 모르고 그저 신이 났었는지도 모릅니다. 처음 학교에 혼자 간 날은 너무 오래전이라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살아오면서 ‘처음’을 처음 겪는 일도 아닌데 항상 두렵기만 한 것은 어른인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엄마가 평생 학교에 데려다줄 수는 없잖아요’

‘생각해봐, 라스. 이 다음에 너도 누군가를 학교에 데려다줄 날이 올 거야’ 하지만 내가 누군가를 데려다준다는 건 상상도 못하겠어요. 라스는 학교에 가기 위해 혼자 집을 나섭니다. 집을 보면서 가면 엄마가 자신을 바라봐 줄 것 같아 뒷걸음으로 걷기 시작합니다. 얼마가지 않아 라스는 어디선가 검은 개가 나타나 자신을 헤칠 것 같고 옆으로 차가 썩하고 지나갈 것만 같아 너무나 무서워집니다. 혼자라서 무서운 건지 누군가가 나타날까 무서운 건지 라스는 온통 두려운 존재들에 대해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소곤이가 나타나 검은 개는 걱정하지 말라며 라스에게 용기를 주고 사라집니다. 그 다음엔 썩썩이가 나타나더니 “똑바로 걷지 않으면 학교에 못 갈거야.”라고 꾸짖듯 말하고 사라집니다. 하지만 라스는 계속 뒤돌아 걷습니다. 얼마가지 않아 이번엔 휘청이가 나타납니다. 휘청이는 라스에게 자신처럼 자전거를 타고 가면 빨리 갈 수 있을 거라고 잘난체를 합니다. 제시 간에 못 갈 거 같아 두려운 라스는 다시 한 번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



나는 혼자가 아니에요

콘스탄체 외르벡 닐센 글, 아킨 두자킨 그림, 정철우 옮김.
분홍고래, 2015.

분야 : 그림책 / 추천대상 : 초등 저학년

어집니다. 엄마도 자신을 이해할거라고 말이죠. 그때 째깍이가 나타납니다. 1부터 60까지 열 번만 세면 학교에 도착한다고 포기하지 말고 가라고 말합니다. 라스는 다시 마음을 다잡고 학교로 걸어갑니다.

‘소곤이, 뽕뽕이, 휘청이, 째깍이’ 이들은 라스가 걸어가는 내내 그의 곁에서 계속 말을 걸어 줍니다. 용기를 주기도 하고 재촉하기도 합니다. 앞만 보고 걸어갔으면 라스는 이 친구들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의 존재는 라스의 뒤에서 항상 지키고 있는 요정이거나 두려워하는 라스가 만들어낸 환상일지도 모릅니다. 결국 숲에서 나오자 엄마와 함께 있음에 위안을 얻지만 엄마의 보호보다는 스스로 걸어가는 것을 택하게 됩니다.

그림을 그린 작가 아킨 두자킨은 이 그림책으로 노르웨이 ‘가장 아름다운 그림책 표지’에 선정되었습니다. 이 책에서 표현하는 그림은 배경과 인물, 색감은 매우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림들을 그저 보이는 대로 보고 지나치면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책을 다시 읽으면 그림에서는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라스가 걷는 길 옆 나무 사이에는 유령들이 귀엽게 숨어 있습니다. 더 재밌는 것은 크게 보면 숲과 호수 자체가 얼굴로 보입니다. 라스가 두려워할 때는 무서운 표정으로 라스를 쳐다보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어두운 배경이

독자로 하여금 라스의 심경에 공감하고 과연 라스가 학교에 무사히 도착할지 궁금하게 합니다.

책에서는 두렵지만 두려워하면서도 그것을 극복하는 아이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현실에서 라스보다 더 많은 두려움과 무서움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럴 때 마다 엄마가 항상 자신과 함께 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합니다. 또한 부모도 자식의 앞에서 걷기보다 뒤에서 믿고 지켜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라스가 엄마를 안심시키고 더 밝은 곳으로 나가듯이 말입니다.

우리 모두 친구야!

이 시 영

군포시 중앙도서관 사서

고무줄을 쥐고 있는 뽀뽀머리 소녀가 눈길을 당기는 책이다. 펼쳐보니 서울시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선정도서, 국가인권위원회 추천도서, 한국교육문화진흥회 선정 ‘으뜸책’이라는 작지만 큰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책이다. 초판이 2013년이며 2014년에 3쇄 발행의 이력을 가지고 있다.

세심한 연필 스케치로 어느 마을 공터에 고무줄놀이 하는 네 명의 소녀가 보이고 이삿짐을 실은 트럭이 가고 있다. 뽀뽀머리 소녀가 이사 온 것이다. 이사 온 소녀는 고무줄놀이를 구경한다. 함께 하고 싶지만 구경만 하다가 조그만 소리로 노래를 따라 부른다. 놀이 하던 아이들은 까까머리 소녀가 신발을 거꾸로 신었다고, 남자애인지 여자애인지 모르겠다며 이상하게 쳐다본다. 소녀는 눈물을 찔끔 흘리고 방 안에서 혼자 고무줄놀이를 한다. 다음날은 신발도 똑바로 신고 머리띠도 예쁘게 하고 아이들에게 다가갔다. 그러자 한 아이가 ‘안녕’ 하며 인사를 한다. 놀이에 끼지 못한 소녀는 또 서글퍼지는데 한 아이가 화장실 간 사이 영이가 고무줄을 잡아 달라고 해서 함께 놀게 된다. 다섯 소녀의 동그란 얼굴에 가득한 미소가 예쁘다. 마침내 아이들은 동그랴게 모여 노는 모습이 보인다.

다음 장을 넘기니 책이 거꾸로 되었다. 편집이 잘못된 책인데 도서관에 들어 온 줄 알고 검수자를 찾았다. 앞 뒤 동시 펼침 구성의 책이란다. 다시 뒤집어 처음부터 읽게 된다.

화자가 ‘우리들’이 되어 이야기가 시작된다. 우리는 신나게 고무줄놀이를 한다. 그러는 중에 고무줄놀이를 구경하는 낯선 아이가 보였는데 친구가 신



나와 우리

이선미 글, 그림.

글로연, 2014.

분야 : 그림책 / 추천대상 : 유아 및 초등저학년

발을 거꾸로 신었다고 귓속말을 한다. 힐끗 쳐다보고 다시 고무줄놀이를 한다. 재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불쑥 말한 친구 말에 살짝 미안한 마음이 든다. 그러다가 갑자기 뽀뽀머리 소녀가 사라진 것을 알고 아이들은 놀린 거 아닌데 바보 같다고 한마디씩 한다. 다음날에도 모두 모여 고무줄놀이를 하는데 영이가 먼저 인사를 건네자 뽀뽀머리 소녀도 인사를 한다. 고무줄놀이에 끼워주고 싶는데 짝이 맞지 않아 망설이다가 현옥이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고무줄을 잡아 달라한다. 현옥이가 돌아오자 친구들은 뽀뽀머리 소녀를 깎두기로 끼워주자고 하며 다섯 명의 소녀들이 신나게 논다.

어느 쪽을 먼저 읽든 상관없다. 하나의 스토리를 나와 우리의 시각에서 엮은 것이다. 그래서 서로 다른 입장에서 이해하는 방법을 보여준다. 친구를 사귀는 방법, 따돌림을 없애는 방법, 모두 함께 소통하며 사는 방법 등의 가치 있는 관계 맺기를 알게 해주는 책이다.



읽히는 것 외에 책은 어떻게 쓰일까?

유 향 숙

성남시 판교도서관 사서

이 책에는 겁 많은 토끼, 먹보 곰, 사이좋은 생쥐, 똑똑한 여우, 너무나 느려 슬픈 지렁이와 마지막에 해결사 어린이가 등장한다. 모두들 책이 무엇인지 몰라 저마다의 해석으로 그늘막도 되고, 모자도 되고, 식탁이나 침대도 되지만 책은 무엇보다도 그 내용이 읽혀질 때 의미가 있다.

책을 처음 접하는 아이들에게는 여기에 나오는 많은 동물들처럼 만지고, 놀고, 먹는 대상처럼 처음에는 친근한 물건이 되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읽혀지는 과정으로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책은 책이 다양한 놀이감이 될 수 있다는 점과 그 과정을 재미있게 보여주고 있으며 그러나 책은 역시 책읽기가 주요 목적임을 알게 해준다.

그림은 따뜻하고, 글은 단순하다. 0세 ~5세의 유아들이 처음 접하는 책이라고 볼 때 스쿨 라이브러리 저널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이제 막 책을 접하기 시작한 어린 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적당하고 멋진 책이다.

어른들의 눈에는 너무나 단순하다고 볼 수 있으나 어린독자(유아)에게는 빠져들기에 좋은 구성을 가지고 있다. 그림은 화사하고 단순하게 그려졌다. 이야기의 내용과 그림의 내용이 절묘하게 잘 전달되는 것은 글쓰이와 그림이 가 같기 때문인 것 같다.

보통은 글을 잘 쓰는 분은 그림을 그리지 못한다든가, 그림을 전공하신 분은 글과 친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 작가는 책을 출판하기에 좋은 재능을 두



난, 책이 참 좋아

레오니드 고어 글, 그림. 감상미 옮김.

베틀북, 2014.

분야 : 그림책 / 추천대상 : 0세~5세

루 검비했다. 아무래도 그림을 먼저 전공한 경우가 유리할 것 같다. 창작적 숙련도가 그림에 더 많이 투자해야 한다고 보는 부분에서 그렇지 않을까?

레오니드 작가는 러시아 민스크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자랐다. IRA(국제도서협회)에서 아이들의 선택을 받았고, 『잠자는 소년』이란 작품은 퍼블리셔스 위클리 올해 최고의 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팔랑팔랑 내 마음

이 수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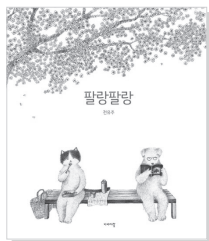
평택시 장당도서관 사서

천유주의 그림책 두 권을 소개합니다. 『내 마음』(창비), 『팔랑팔랑』(이야기꽃)입니다. 천유주의 그림은 봄날입니다. 그림책의 크기는 22×26cm로 작지 않은 그림책임에도 작고 섬세하게 느껴집니다. 나무 한 그루, 화단 하나가 화면을 가득 채운 그림 때문일 것입니다.

『내 마음』의 배경은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목에 놓인 화단이고, 『팔랑팔랑』은 분홍빛 큰 벚나무 아래 벤치입니다. 두 책 모두 간결한 글과 그림은 찬찬히 보아온 무언가를 그린 듯 편안하고 아름다운 색을 입었습니다. 『내 마음』의 더벅머리 아이가 걸어옵니다. 노랑, 주황, 하얀 꽃들이 소담스레 피어있고 초록 나무는 싱싱합니다. 화단은 봄이거나 초여름처럼 보이지만 아이의 옷차림은 가을입니다.

화사한 꽃들과 달리 아이는 표정이 없습니다.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꾸지람을 듣거나 친구와 싸웠을까요? 그저 기분이 좋지 않은 하루 일까요? 집으로 가지 않고 화단 중간에 있는 계단에서 도넛을 먹는데 비둘기들이 달려듭니다.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자 아무도 없는 줄 알았던 화단 여기저기 동물들이 고개를 내밉니다. 아이는 비둘기와 한바탕 하느라 화단에 누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전거를 타고 아는 척도 하지 않고 지나가는 새침한 짝궁. 강아지를 찾는 아이도 혼자 있는 아이에게 말 걸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바람 부는 계단에 고즈넉이 앉아있다 뭉게구름 떠다니는 말간 하늘을 바라봅니다. 혼자 있기 싫어 여기 저기 말 걸던 아이는 고개 들어 하늘



내마음

천유주 글, 그림. 창비. 2015.

팔랑팔랑

천유주 글, 그림. 이야기꽃. 2015.

분야 : 그림책 / 추천대상 : 영유아부터

과 바람을 느껴봅니다.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이제 집으로 가는 아이의 입매에 슬쩍 웃음이 걸려있습니다.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화단 구석구석숨은 그림 찾기를 할 수 있습니다. 착한 사람들 눈에만 보이는 걸까요? 썩 좋은 하루는 아니었지만 또 그렇게 나쁜 하루는 아니구나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혼자여도 괜찮은 『내 마음』에 이어 둘이 있어 좋은 『팔랑팔랑』을 만납니다.

『팔랑팔랑』은 벚나무의 분홍꽃잎이 마음에 남습니다. 혼자 소풍 나온 나비와 책 읽으러 나온 아지는 벤치에 툇 떨어져 앉아 각자 할 일을 합니다. 꽃잎 한 장이 스르르 떨어지며 둘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흐릅니다. 나비와 아지 사이에 놓인 꽃잎은 어떻게 될까요?

큰 사건도 없고 등장인물이 많지 않은 천유주의 그림책을 보고 있으면 봄별을 쬔는 느낌입니다. 차디찬 겨울이 지나고 맞은 봄의 생기에 잠시 마음을 뺏기듯 그림 속 꽃과 나무를 바라보게 됩니다. 혼자라는 느낌이 드는 날 『팔랑팔랑』, 『내 마음』을 보고 있으면 ‘혼자여도 괜찮아’, ‘어, 뭐 혼자도 아니야, 꽃과 나무, 바람과 푸른 하늘이 이렇게 내 몸을 따뜻하게 감싸고 있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간결한 글밥이 그림에 더욱 집중하게 됩니다. 그림을 세심히 봐야하니 6~7세부터 적당할 것 같습니다.



자연의 비밀 한 가지 알려줄까?

유 향 숙

성남시 판교도서관 사서

자연의 비밀 한 가지 알려줄까요? 이 책을 읽는 동안 나도 궁금했는데, 다른 사람들도 궁금할 것 같아요. 산이나 들에는 누가 나무를 심는 것도 아닌데 나무들은 자라고 쓰러지고 번성하며 자라고들 있어요. 우리 인간들이 매년 4월 5일을 식목일이라고 나무를 심는다지만, 그것은 자연 세상에 울창하고 방대하며, 인간의 손이 닿지 않는 곳까지 자라는 나무나 식물을 볼 때면 우리가 기념일 단 하루로 나무를 심어 그렇게 유지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을 정도로 지극히 작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궁금한 마음에 책을 펼쳐보았어요. 이런 호기심을 갖고 보면 책 읽는 것이 즐겁습니다.

다람쥐는 자신이 겨울에도 먹겠다고 땅에 도토리를 저장해 두지만, 정작 너무나 많이 묻어 두어서 어디에 묻었는지 몰라요. 그것들이 이듬해 싹을 틔우게 되지요. 또 털 많은 곰이 맛있게 사과를 먹고는 씨앗이 털 속에 들어갔다가 흔들며 노는 사이 씨앗이 땅에 떨어져 사과나무로 싹을 틔워요.

배나무 가지가 말코손바닥사슴 뿔에 걸려 한참을 늙은 초원을 지나다가 가지에서 배하나가 떨어져 배나무가 자라게도 된답니다.

인간의 손이 닿지 않는 아마존 강에서 파쿠(물고기이름)가 물에 둥둥 떠다니는 수많은 작은 열매들을 먹고는 씨앗을 똥으로 배설하여 나무가 자라는 계기를 만든다던데, 그렇게 하기로는 꼬끼리 똥이 최고 효과가 좋을 것 같아요. 꼬끼리는 많은 식물들을 한꺼번에 많이 먹어치우니깐요. 게다가 꼬끼리



누가 나무를 심었을까요?

제리 팔로타 글, 톰 레오나드 그림, 포 움김.

어썸키즈, 2014.

분야 : 그림책 / 추천대상 : 유아5세~초등3학년

의 똥은 식물들이 엉켜 섬유질 덩어리로 초원에 여기 저기 뿌려져 있겠죠.

그것들이 비가 오면 땅속으로 스며들 거예요. 그렇게 식물은 동물의 먹이로 유인을 하고 자신의 씨앗을 퍼트리는 방법으로 사용이 되는 것이군요. 가만히 책을 읽다보면 식물과 동물의 먹이 사슬 관계를 통해 우연을 가장한 필연성이 들어 있다는 진리를 깨닫게 된답니다. 그것은 놀라운 자연의 순환이지요.

이 책에는 비밀 같지 않은 비밀이 다양한 소재로 우연인 듯 우연 아닌, 우연을 가장하여 아름다운 색채와 섬세한 세밀화로 사실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 도서관협회 전문가 책 리뷰에서도 추천된 책입니다.

● ● ● 못쓰는 고철 덩어리가?

이 시 영

군포시 중앙도서관 사서

이 책은 이탈리아 작가 엠마누엘레 베르토시가 만들었다. 그의 수상 이력은 2011년 프리올리 베네치아 줄리아 세계민속축제 일러스트레이션 공모전 대상, 2009년 파도바 국제아동도서전 올해의 일러스트레이터, 2003년 볼로냐국제아동도서전 올해의 일러스트레이터, 2000년 보르다노 내셔널 일러스트레이션 공모전 심사위원 대상, 1999년 볼로냐 국제아동도서전 올해의 일러스트레이터, 1998년 보르다노 내셔널 일러스트레이션 공모전 프리올리 언어 부문 대상 등 매우 화려하다.

이렇게 화려한 수상 이력을 가진 작가의 그림책은 어떤 내용일까?

책장을 여니 “우리는 한때 삽이었고, 펜치였고, 톱, 망치, 못, 나사, 그물, 흙받기, 자물쇠, 양동이 손잡이, 파이프, 손톱깎이, 모자, 돌이었던다.” 장문의 시 같다. 우리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그래서 제목이 『누구세요?』인가 보다.

다음 장에는 시커멓고 차가운 느낌의 고철덩어리지만 누구의 눈처럼 보이는 사진이 나오는 데 “지금은 무엇이 되었냐?”고 묻는 것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철공예의 물고기가 돌멩이 위에 있다. 그리고 해적선이 보인다. 배도 있고 그물도 있고, 육지가 보이며, 돈키호테처럼 보이는 의리의 사나이도 있다. 그는 배가 고파 양을 잡아먹으려 한다. 양의 살려달라는 다급한 소리도 들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가는 그림들에게 누구냐고 물으니 “한때 돌이었고, 자물쇠였고, 망치였고, 양동이 손잡이였다.”고 답한다.



누구세요?

엠마누엘레 베르토시 지음, 이순영 옮김.

북극곰. 2013.

분야 : 그림책 / 추천대상 : 초등저학년

한때는 사람들을 편리하게 해주었던 도구들이 낡고 녹슬어 못쓰게 되어 버려졌다. 버려진 고철덩어리가 된 것이다. 그 고철 덩어리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 넣어 주었더니 물고기도 되고 배도 되고, 양도 되고...

짧은 그림책 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를 안겨준다. 낡고 못 쓰는 고철 덩어리지만 창의적인 생각에 의해 다시 태어나는 이야기다. 미술관에서 작품을 감상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책이다. 그렇다고 화려하고 예쁘다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고철덩어리가 차갑게 느껴지고 볼품없어 보이기도 한다. 따뜻한 느낌의 책만을 찾는다면 아이들의 그림책으로 적당하지 않다. 하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생명력이 돋보인다. 작가 스스로가 쓰레기장이나 쓰레기통, 창고에서 만난 고물들을 모아 새로운 예술품으로 만들어낸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아이의 창의적인 생각을 이끌어주기에 적당한 책이다.



산 넘고 바다 건너 너에게 온 특별한 밥상이야기

이 가 영

평택시 안중도서관 사서

몇 달 전 케이블TV에서 한 빌라에서 이웃으로 사는 다양한 독신들이 모여서 함께 밥을 먹는 것을 드라마로 방영한 적이 있다. 밥 먹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해서 드라마까지 제작하나 싶다. ‘혼밥’이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밥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은 듯하다.

이 드라마의 이야기와는 다르지만 『대단한 밥』이라는 그림책에서도 밥, 더 정확하게는 우리 밥상에 오르는 음식들에 어떤 사람들의 노고가 묻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하면서 밥의 중요성에 대해 다루고 있다.

『대단한 밥』에서는 한 어린이가 밥과 다양한 반찬, 우유, 씨리얼 등이 차려진 식탁에 시무룩하게 앉아 있는 장면에서 시작한다. 그 뒷내용은 밥상에 차려진 것들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어떤 사람들의 노력으로 우리 밥상까지 와 있는지에 대해서 쓰고 있다. 아침부터 부지런히 음식을 만드는 엄마의 노고, 마트에서 장을 보는 아빠의 노고, 물고기를 파는 경매사의 노고, 잘 익은 사과를 트럭으로 운반하는 운전사의 노고 등등 우리와 가장 가까운 것에서 시작해서, 쌀을 기르는 농부의 노고, 대지를 촉촉하게 적시는 비와 속이 짝 들어찬 알곡을 만들어 내는 햇빛의 노고까지 우리의 밥상에 오르는 것들이 손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려내고 있다.

이 이야기를 담은 『대단한 밥』이라는 책은 대체적으로 원색으로 그려내



대단한 밥

박광명 글, 그림.

고래벳속(아지북스). 2015.

분야 : 그림책 / 추천대상 : 유아 이상

어 사람들과 밥을 만들어 내는 재료들에게 생동감을 불어넣고 있다. 상자를 들고 가다가 휘청거리는 사람, 포장을 하다가 스트레칭을 하는 사람, 감자를 연구하는 연구원을 흠쳐보는 사람 등 군데군데 익살스러운 사람들을 그려 넣어 『월리를 찾아라』와 같이 삽화 안에서 그런 사람들을 찾아보는 재미도 느껴볼 수 있다.

특히 이 책에서 재미있다고 생각했던 것은 겉표지를 넘겼을 때 오른쪽과 왼쪽 아래 구석에 그려진 그림이다. 노란 바탕에 검은색 테두리로 그려진 이 조그마한 그림은 앞, 뒷표지를 넘기기 전 면지에 그려져 있는데, 이 책을 읽기 전의 어린이의 모습과 읽은 후의 어린이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참 귀여운 발상인 듯하다.

일상적으로 우리 밥상에 오르는 밥에 대해 다룬 이 책은 일상적인 우리들의 생각을 다시 되돌아보게 해준다는 점에 있어서 어린이들은 물론 어른들도 한 번쯤 읽어보면서 우리의 식탁을 알차게 꾸려주는 분들에 대한 감사함을 느껴보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추 한 알의 비밀

김 보 라

화성시 병점도서관 사서

오래된 집 마당 귀퉁이에 대추나무 한 그루가 있는 듯, 없는 듯 서 있다가 여름이 되면 슬슬 푸르러지며 존재감을 드러낸다. 아이들이 하릴없이 마당에서 시시한 장난을 치며 뛰어다니다가 익지도 않은 푸른 열매를 아그작 거리며 따먹느라 한창이다. 손이 닿는 부분만 겨우 따먹느라 아래쪽 대추들만 자취가 없다. 그런 일들이 몇 해 간 반복된다. 내가 꼬마였던 시절의 일이다.

그 때의 집도, 마당도, 작은 키로 양껏 대추서리를 못한 그 꼬마도 이젠 없지만 아삭하고 들큰한 대추의 맛만은 생생하다. 온통 초록인 열매가 있었는데 가하면 점점이 갈색으로 물들어가는 대추도 있었고, 짙은 갈색으로 변해 꽤 달았던 것도 있었다. 그 때는 이유가 궁금하진 않았다. 그런 대추에 대한 기억이 있다.

시인 장석주는 『대추 한 알』이라는 시를 썼다. 시도 짧고 대추도 한 알이지만 꽤나 많은 것이 담긴 시다. 시의 구절이 어떤 대형 서점의 입간판에 쓰인 적이 있어서 더욱 잘 알려진 시이기도 하다. 그 때에도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려 여러 번 회자되었다고 한다. 이번 가을에는 그림책 『대추 한 알』로 발간되어 색다른 감동을 주고 있다.

한 알의 대추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진지하게 그리는 것은 아이에게는 다소 무거운 주제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가을이 되면 곡식이 익는다는 당연한 사실에 ‘어떻게?’라는 물음을 가져보는 것은 자연스러운 생태계 이해 시도



대추 한 알

장석주 글, 유리 그림.

이야기꽃. 2015.

분야 : 그림책 / 추천대상 : 유아 이상

가 된다. 이런 책이라면 아이들도 쉽게 접근하기에 어색하지 않다.

책 속 낚시는 유리 작가의 세밀하고 빛나는 그림들과 어울려 더욱 맵시가 살아난다. 탁 트인 별판을 배경으로 천천히 대추가 익어가는 장면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그림들이 대추 한 알이 성숙해지기까지의 온 과정을 풍요롭게 전달하고 있다. 특히 지면의 여백과 사계절을 그린 배경은 글로 쓰여지지 않은 부분을 설명해준다. 한 중간을 가득 차지하고 익어가는 대추 알맹이는 마음을 더없이 싱그럽게 만들기도 한다.

농촌 배경은 도심 속에서 자란 요즘 아이들에게는 낯설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엄마가 어릴 때는...’ 혹은 ‘대추가 저절로 저렇게 되었을까?’ 정도의 질문들과 함께 읽으며 생각을 발전시켜나가는 시간을 가져보기에 좋은 책이다.

생각 없이 대추를 따먹던 때와는 달리 이제는 대추 한 알의 비밀을 하나둘씩 알아가고 있는 어른에게도 사색의 시간을 선사하기에 충분하다.

이야기를 좋아한 거인

유 옥 환

안양시 박달도서관 사서

거인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가 궁금한 거인은 밤만 되면 마을로 내려옵니다. 몰래 숨어서 이야기를 듣다가 재채기도 하고 물건들을 건드리기도 하는데 이때 사람들이 깜짝 놀라지요. 거인이 당황해서 넘어지고 얼떨결에 집도 부수게 되면서 한바탕 소동이 일어납니다. 마을 사람들은 거인을 두려워하고 겁에 질린 나머지 모두가 힘을 뭉쳐 거인을 숲으로 몰아내는데 성공합니다. 마을에서 쫓겨난 거인이 불쌍합니다. 거인은 단지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것뿐이었는데 말입니다.

어느 날 밤, 한 아이가 연못위의 달을 보며 돌아가신 엄마가 들려주던 이야기를 더듬더듬 중얼거립니다. 이야기에 홀려 나온 거인은 아이를 만나게 되고 아이에게 계속 이야기해달라고 협박하네요. 아이는 거인에게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 매일 밤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날이 지나면서 이야기가 바닥이 났어요. 이제 아이는 자신의 집으로 거인을 데려가 책을 보여줍니다.

어린이가 거인에게 책을 설명하는 문장이 돋보입니다.

“책은 이야기를 적어놓은 물건이에요. 어떤 책에는 하나의 이야기가 들어 있고, 어떤 책에는 많은 이야기가 들어 있기도 해요.”

아이의 집에서 거인은 책 속의 이야기를 들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소문을 들은 동네 아이들도 모두 모여듭니다. 심시일반 아이들이 가져온 책들이 많아지게 되자 아이들과 거인이 힘을 합쳐 새 도서관을 짓습니다. 새로



도서관에 도깨비가 으히히히

심자휘 글, 양완징 그림, 심윤섭 옮김.

국민서관, 2008.

분야 : 그림책 / 추천대상 : 유아

운 좋은 도서관을 갖게 된 마을에는 축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거인 도깨비가 책과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즐거운 비명을 지르는데 바로 ‘으히히히~~’

작은 서재에서 도서관으로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과정이 흥미로움을 더해 줍니다. 몸집이 커다란 거인의 등장으로 호기심을 자극하고 이야기를 좋아하는 거인을 통해 책 읽기의 즐거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책을 개인적 소유에서 벗어나 여럿이 공유하는 모습은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알게 합니다.

이 책은 심자휘가 영국 런던의 도서관에서 아이들이 즐겁게 책 읽는 걸 보고 처음 생각해 냈다고 합니다. 대만 정부와 시립도서관이 선정한 ‘좋은 책 함께 읽기’ 수상작입니다. 이야기 속으로 함께 가보지 않을까요?



사서선생님들이란?

이 시 영

군포시 중앙도서관 사서

도서관 르네상스 시대라 할 만큼 해마다 많은 도서관이 생기고 있다. 그만큼 도서관이 현대인들에게 자아를 계발하고 삶을 풍요롭게 해주며 영혼을 살찌우는 중요한 기관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서다.

여기에 미국의 한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사서가 쓴 동화책이 있다. 표지에는 행복한 아침독서 추천도서, 2007년 미국 북센스 어린이 도서상 수상의 스티커가 자랑스럽게 붙어 있다.

그림은 미국의 어느 도서관의 모습이다. 밤에도 낮에도 책을 읽는다는 표어를 붙이고 책 읽는 성을 지키는 철가면 로드 샬러드 경이 모습이 진지하다. 어린이들이 책 읽기 편해 보이는 특별한 쇼파에 가방을 발 밑에 내려놓고 책 읽기에 빠진 한 아이가 있다. 멜빈이다. 멜빈은 도서관을 많이 좋아해서 학교 수업이 끝나면 매일 도서관에 간다. 대출대에서 만난 사서선생님들은 멜빈을 볼 때마다 반가워한다. 멜빈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고 학교가 재미있었는지 날씨 좋은지를 묻는다. 멜빈 역시 관심 있는 것을 물어보면 세명의 사서가 적극적으로 도와준다.

어느 날 오후 멜빈이 뱀에 대한 책을 찾자. 마즈 사서는 뱀을 키울 때 보는 책을 권하고, 베티선생님은 뱀을 이용한 공예품 내용이 있는 책을 권한다. 또 리올라 사서는 ‘뱀에 대한 시와 노래’ 책을 찾아 주었다. 그리고 이렇게 쓰여 있다. “사서 선생님들이란 이런 분들이예요. 아이들을 도와주지 않고



도서관이 키운 아이

칼라 모리스 글, 브래드 스미드 그림, 이상희 옮김.
그린북, 2015.

분야 : 그림책 / 추천대상 : 초등전학년 및 성인

는 못 배긴답니다. 그래서 멜빈은 사서 선생님들을 좋아했어요,”라고... 작가가 스스로 사서에 대한 자부심이 나타나는 것 같아서 빙그레 웃음짓게 한다.

서가 꼭대기에 꽂힌 책을 넘어질 것같이 아슬아슬한 자세로 찾고 있는 베티 사서의 평퍼짐한 엉덩이 그림이 우습다. 세 명의 사서선생님들은 멜빈과 함께 곤충에 대한 분류와 목록 만들기를 시작한다. 책 찾기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학습으로 진행해주는 사서선생님들이 고맙다. 그래서 멜빈은 도서관 행사라면 빠지지 않는다. 멜빈이 참여하는 도서관 행사들은 여름독서교실, 방과 후 특별 프로그램, 청소년 독서모임, 영화의 밤, 도서관에서 밤새워 책 읽기 등등이다. 그 중에서 밤새워 책 읽기를 가장 좋아한다.

도서관에서 유익한 시간을 많이 보낸 멜빈은 4학년 때는 철자 알아맞히기 대회에 나가 1등을 하고 5학년 때는 ‘태양계에 있는 모든 마을·도시·나라 이름 맞히기 지리 대회’에서 금상과 은상을 받았다. 이렇게 멜빈은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어른이 되어간다.

몇 년 후 리빙스턴 공공도서관에 비슷한 일이 생긴다. 한 아이가 찾는 자료를 정성스럽게 찾아주고 함께 분류하는 공부를 하는 사서 선생님들, 바로 마즈, 베티, 리올라 사서선생님들이다.

단팍을 이루어 마음 따뜻하고 성실하게 근무하는 사서3총사 선생님들이 고맙게 느껴진다. 마찬가지로 도서관의 역할을 잘 알고 이를 잘 활용하여 성장하는 어린이가 대견하게 느껴지는 책이다.

도서관에 와서 공부만 하고 가거나 도서를 대출 또는 반납하는 것에만 중점을 드는 경우가 많다. “사서”라는 숨은 조력자들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유는 ‘사서’를 찾으려는 노력도 적고, ‘사서’를 찾기 힘든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도서관들에는 사서직들이 많지 않다. 공공도서관 특히 자료실이 근무하는 사람들이 모두 사서들은 아닌 현실이라 질문한 내용에 불만족스러운 답을 얻고 실망하는 이용자도 있다. 불만족스런 답변에 그것이 전체 사서들의 문제인 냥 민원이 뜨는 경우도 많다. 사실은 규모가 작은 공공도서관에는 전체 직원 중 1~2명만이 사서인 경우도 있고, 규모가 큰 도서관이라도 각 자료실에 1명 정도 만 사서인 경우가 많다.

경기도 공공도서관에는 이 책에 나오는 사서들의 모습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지만 정작 이용자들을 만나기에는 어려운 현실이다. 도서관의 사서들이 제2의 마즈, 베티, 리올라 선생님이 되어서 도서관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풍부한 조력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때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 책은 도서관에서 꿈을 키우고 그 꿈을 키우는 자양분이 되어줄 사서 선생님들에 대해 알 수 있는 책이다. 가끔 장래 희망이 ‘도서관 사서’라고 하는 아이들을 만난다. 그런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과 처음 도서관에 방문한 사람들까지 두루두루 도서관과 그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높여줄 안내서와 같은 친절한 책이다.



도시에서는 빨간 망토가 필요해요!

홍 미 정

화성시 병점도서관 사서

어린 시절, 할머니가 계시는 시골에 종종 놀러가곤 했다. 앵두를 따다가 벌에 쏘여 할머니가 된장을 발라주시던 기억, 성난 듯 한 밤송이에 연신 손을 찢려가며 알밤을 까던 기억, 땀이 줄줄 흐를 만큼 한창을 뛰어놀다가 시원한 우물물로 등목을 했던 기억, 그리고 시원하고 정갈한 백김치 하나로 밥 한 그릇을 푹딱 해치웠던 기억, 겨울에는 난로에 둘러앉아 고구마를 호호 불어먹던 기억 등 시골 할머니 댁에서의 기억은 지금도 즐겁고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있다.

『도시에 사는 우리 할머니』는 일러스트와 순수미술을 공부한 작가 로렌 카스티요의 작품으로 2015년 칼데콧 아너 상을 수상한 그림책이다. 이밖에 미국 학교 도서관 저널 선정 ‘꼭 읽어야 하는 책 100’ 중 Top 20에 올랐고, 허핑턴 포스트 선정 ‘가족’에 대한 최고의 책으로 찬사받기도 하였다.

어린 시절 기억때문인지 ‘할머니’ 하면 자연스럽게 전원(田園)을 떠올리게 된다. 그렇지만 이 할머니는 아마도 도시에 살고 계시나보다. 표지그림을 보니 도시 할머니답게 꽤 멋쟁이시다. 빨간색 핸드백과 빨간색 부츠로 한껏 멋을 내셨다. 그 옆에는 빨간색 망토를 두른 한 꼬마가 있다. 언뜻 어린왕자의 모습을 연상케 한다. 할머니의 손자일까? 꼬마는 마치 우주의 행성 어딘가를 헤매다가 잃어버렸던 할머니를 만난 것처럼, 애뜻하고 정감어린 눈망울로 할머니를 바라보고 있다. 꼬마의 손을 잡고 어딘가로 이끄는 멋쟁이 할머니! 과연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을지 사뭇 설레고 기대된다.



도시에 사는 우리 할머니

로렌 카스티요 글,그림, 이상희 옮김.

재능교육, 2015.

분야 : 그림책

할머니를 무척 좋아하지만 도시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꼬마는, 할머니를 만나기 위해 도시로 간다. 34번가에서 할머니를 만나 복잡한 지하철을 타고, 공사장과 자동차 소음, 그리고 악당과 걸인들이 가득한 무서운 도심을 지나 드디어 할머니의 아파트에 도착한다. 꼬마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있고 몸은 잔뜩 위축되어있다. 꼬마는 도시가 도저히 할머니들이 지낼 만한 데가 아니라는 생각을 한다.

집에 질려 잠 못 이루는 손자를 위해 할머니는 이마에 뽀뽀를 해주고 담요를 따뜻하게 덮어주며 이렇게 말한다.

“이 도시가 얼마나 굉장한 곳인지, 내일 보여줄께”

책의 말미에, 처음과 달리 부쩍 밝아진 꼬마의 얼굴을 볼 수 있다. 꼬마는 도시가 할머니들이 지내기에 좋은 곳임을, 그리고 도시에서 할머니들이 할 일이 아주 많음을 순순히 인정한다. 이 놀라운 변화를 이끈 것은 대체 무엇일까? 복잡하고 무서운 도시를, 특별한 일이 아주 많은 활기찬 곳으로 느낄 수 있게 만들어준 할머니의 마법이 자못 궁금하다.

어쩌면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도시’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을 뜻하고, ‘할머니’는 사랑과 격려를 통해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가족 또는 지혜로운 선배를 상징할 수도 있겠다. 점점 더 메마르고 삭막해져가는 이 사회에서 지혜로움 가득한 멋쟁이 도시 할머니를 어서 만나러 가보자. 그리고 조금만 더 용기를 내어보자.

● ● ● 밤마다 동물들은 실비와 함께 가고 싶어 했어요.

손 셋 별

수원시 대추골도서관 사서

어린이들은 아무도 모르는 자기만의 세계를 갖고 싶어 한다. 나만의 공간, 나만의 이야기, 나만의 세계... 그 안에서 다양한 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행복을 느낀다. 이 책은 이러한 모든 아이들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녹여낸 그림책이다.

매일아침 일어나서 학교에 다녀오면 집에서 얌전히 지내다 잠드는 하루하루. 매일 똑같은 일상생활 속에서 지루함을 느끼던 실비는 방 안에 난 조그만 문을 열고 비밀 동물원 속으로 빠져들어가 새로운 일탈을 꿈꾼다. 그것은 밤마다 동물원에 있던 동물을 하나씩 데려와 방에서 재우기 시작하는 것이다. 코알라, 아기곰, 아기호랑이 등등. 펭귄들을 데려와서는 욕실에서 물장구를 치며 놀기도 하고, 작은 통로를 나오지 못하는 코끼리를 위로하기도 하지만, 매일 밤 작은 동물들을 방에 데려와 함께 잠드는 나날이 계속된다. 그러던 어느 날, 비밀 동물원에 있던 온갖 동물들이 실비네 집 거실을 점령하게 된다.

이 책은 동물들을 방에 데려오는 실비의 선한 마음씨가 드러나는 그림책이다. 현실과 상상의 세계를 오가며 동물과 교감하고 싶은 아이들의 심리를 잘 표현해냈고, 따뜻하고 편안한 글과 그림, 상상력을 자극하는 내용에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도 그림책 속으로 폭 빠져들 것만 같다. 연필로 쓱쓱 그린 스케치 위에 수채화로 살짝 물들인 그림이 친근하게 다가오고 배경을 없



동물원 가는 길

존 버닝햄 글, 그림. 이상희 옮김.

사공주니어. 2014.

분야 : 그림책 / 추천대상 : 유아이상

애 이야기가 더 잘 전달되는 느낌이다.

이 그림책을 읽으며 작은 문을 열면 상상했던 모든 세계가 펼쳐지는 어린이들의 무의식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즐거운 시간이 될 것이다.



나만 혼내고!

이 은 희

남양주시 화도도서관 사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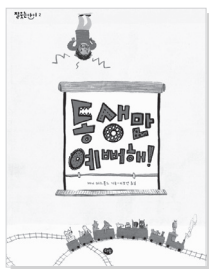
『동생만 예뻐해!』는 동생 앨리스 때문에 늘 엄마, 아빠에게 꾸지람을 듣는 오빠 에릭의 이야기로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림책이다.

“엄마, 아빠는 알지도 못하면서 나만 혼내고...” 첫째아이라면 입에 벤 말일 것이다. 어릴 적부터 커가면서 자신의 말은 듣지 않고 동생만 두둔하는 부모에게 속상한 마음을 대변하는 말일 것이다.

그림책 속에 모습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가족의 일상으로 낯설지 않은 풍경이다. 에릭은 자꾸 자신의 놀이를 방해하는 동생에게 화가 나지만 더 화가 나는 것은 동생은 혼내지 않고 늘 자신만 꾸중하는 엄마, 아빠 때문에 화가 난다.

“다들 너무해! 모두 앨리스편만 들잖아!” 에릭은 정말 엄청 화가 났고 화를 참지 못해 그만 집 밖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마침내 에릭은 동생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그 동안 쌓였던 감정폭발 표현이 재미있고 “우와! 멋지다!”라는 에릭의 말에서 참 속 시원하겠다. 라고 공감을 하게 만드는 장면이기도 하다.

하지만 동생에게서 벗어났다는 흥분분한 마음도 잠시, 혼자 있는 것이 무섭고 가족이 그리워지고 그렇게 알미웠던 동생 앨리스까지도 보고 싶어진다. 에릭과 에릭을 찾아나서는 가족의 모습은 아무리 밉고 알미워도 가족 밖에



동생만 예뻐해!

제니 데스몬드 지음, 이보연 옮김.

다림, 2015.

분야 : 그림책 / 추천대상 : 유아

없다는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게 한다.

동생이 생기는 순간 첫째아이는 그 동안 독차지 했던 부모의 사랑을 동생에게 빼앗겼다고 생각하게 되고 늘 동생만 두둔하는 것 같아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따라서 부모님도 첫째아이의 마음을 이해하고 상처가 되는 말이나 행동을 삼가 해야 할 것이다.

『동생만 예뻐해!』는 동생이 생기면서 첫째아이가 느끼게 되는 감정변화를 알 수 있는 그림책으로, 유아를 둔 부모라면, 특히 형제, 자매를 둔 부모라면 한 번쯤 읽어보면 첫째아이의 감정이나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낮선 녀석을 동생으로 인정하기

이 연 수

수원시 북수원지식정보도서관 사서

책 제목만 봐도 알 수 있다 ‘새로 태어난 동생을 질투하는구나.’ 주인공 엘모어는 외동아들로 집안에서 사랑을 받고 자라다가 새로 태어난 동생으로 생긴 변화 때문에 불만이 가득하다. 엘모어는 새로 태어난 동생을 ‘낮선 녀석’으로 표현할 정도로 경계심을 갖고 불편해한다. 동생은 엘모어의 장난감, 젤리, 옷 등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지만 부모님은 작고 어리다는 이유로 이해해야한다고 한다. 대부분 부모님들이 이 부분에서 공감하고 반성할 것이다. 나 또한 그랬으니까...

그러던 어느 날 엘모어가 나쁜 꿈을 꾸며 힘들어할 때 낮선 녀석은 엘모어를 안아주며 다독여주는 일이 생기고, 엘모어는 조금씩 낮선 녀석에게 마음을 열어주게 된다. 마침내 엘모어는 아끼는 젤리를 주면서 ‘낮선 녀석’이 아닌 ‘동생’ 앨버트로 인정하게 된다.

싫어하는 동생을 낮선 녀석으로 표현하다가 동생에 대한 마음을 열었을 때 마침내 동생이라고 이름을 소개한 점 등도 눈 여겨볼만하다.

이 책은 동생에 대한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는 만이들, 동생과 보이지 않는 경쟁심을 갖고 질투하면서도 동생을 인정하려고 애쓰는 어린이들에게 권해주면 좋은 책이다.

작가 로렌 차일드는 아이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아이들 시각에서



동생이 미운 걸 어떡해

로렌 차일드 지음, 김난령 옮김.

국민서관, 2015.

분야 : 그림책 / 추천대상 : 유아

재미있게 그려낸 작가로 아이와 부모 모두에게 사랑받는 작가이다. 콜라주 기법을 자주 사용하는 작가가 이번에는 콜라주 기법을 사용하지 않고 대신 주인공 엘모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건과 생각을 글자 크기를 크게 부각시켜 강조한 점이 재미있다.

오늘도 ‘낯선 녀석’들과 선과 악 사이에서 마음의 갈등을 하는 작은 천사들을 돌보는 부모님들도 읽으면 좋을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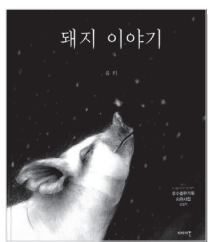
돼지들의 처음이자 마지막 외출

장 현 명

안성시 진사도서관 사서

돼지는 우리에게 더할 나위 없이 친숙하다. 때로는 더러움의 상징으로, 때로는 귀여운 애칭으로 대표되는 돼지. 우리들의 편견과 달리 본래 돼지는 갈끔해서 잠자리와 배설할 곳을 구분한다고 한다. 또한 진흙 목욕을 좋아하며, 군집생활을 하는 사회적인 동물이기도 하다. 하지만 돼지고기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공장식 축산업에선 이런 돼지의 본성이 무시당하고 있다.

어미돼지는 평생을 폭 60센티의 길이 2미터의 사육틀에서 보내야 하고, 새끼를 낳고선 분만틀에 갇혀 젖을 먹는 제 새끼를 한번 훑아보지도 못한다. 새끼돼지의 상황은 어떨까? 태어나자마자 꼬리와 이빨을 잃고, 어미젖을 떼고 나면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서 약 6개월의 생활, 그 후 도축장으로 향한다. 이런 환경에선 전염병이 필연이자 악연일 수밖에 없다. 2010년 겨울에도 그렇게 구제역이 찾아왔다. 구제역은 발굽이 두 개로 갈라진 동물이 걸리는 아주 전염성이 높은 질병이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치사율이 높은 편도 아니고 사람이 허락한다면 감염된 동물들은 대부분 회복할 수 있다. 하지만 돼지고기를 다른 나라로 수출하거나 유통하는 데, 큰 타격을 입기 때문에 정부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을 만들어서 관리한다. 그 관리라는 것은 돼지 한 마리가 구제역에 걸리면 그 주변 돼지까지 살처분 한다는 것이다. 단어로만 보면 그저 행정상의 처리정도로 보이지만, 돼지들을 전부 죽여서 매장하는 것이다. 규정엔 산채로는 절대 묻어서는 안 된다고 써있지만, 2010년 그땐, 너무나 많은 돼지들을 살처분 해야 했기에 지켜지는 경우는



돼지 이야기

유리 글, 그림.

이야기꽃, 2013.

분야 : 그림책 / 추천대상 : 초등고학년

거의 없었다. 정말 끔찍한 일이었다. 돼지에게도 사람에게도...윤리와 존중은 지켜지지 않았다. 그 이듬해 4월까지 831만 8천 마리 돼지들이 처음 이자 마지막 외출을 했다.

처음 이 책을 마주했을 때 선블리 한 장 한 장을 넘기기가 어려웠다. 그동안 막연히 떠올렸던 돼지의 생활하고는 전혀 매치할 수 없는 돼지의 현실이 너무 무겁게 다가왔기 때문이다. 창백하다 못해 서늘한 축사를 배경으로 하얀 돼지가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그저 초라할 뿐. 힘이 없는 눈빛이 조용히 응시하는 건 하얀 눈. 처음으로 맞았을 눈송이였다. 담담하게 그려낸 그림들 속엔 돼지들의 두려움과 슬픔이 콕콕 담겨있었다.

사람은 다른 동물을 길들여 사육하는 유일한 동물이다. 그래서 돼지를 폭 60센티 길이 2미터의 사육 틀에 가둘 수 있고, 새끼돼지의 꼬리와 이빨을 잘라 버릴 수도 있다. 병이 걸리면 살아있는 돼지를 물어버릴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게 과연 당연하고 괜찮은 걸까? 너무 극적으로 쓰여 졌다면 차라리 외면하고 싶었을 이야기.

『돼지 이야기』

오늘도 수많은 식탁위에 돼지고기가 오를 것이다. 어차피 우리는 다른 생명을 먹고 살아야만 하는 인간이다. 그렇다면 그 생명을 위해 이제 윤리와 존중을 생각해야하는 것도 인간일 것이다.



별처럼 너를 지켜줄게

이 시 영

군포시 중앙도서관 사서

첫 장을 열면 소녀와 덩치 큰 애완견이 보인다. 책 속의 ‘나’는 검은 털을 지닌 애완견이다. 개의 시각에서 쓴 동화책. 어떤 내용일까?

롤라와 나는 제일 친한 친구다. 공원이 보이는 예쁜 집에서 산다. 학교생활을 성실히 하며 시골에서 가족과 정답게 살다가 몸도 약하고 외로워 보이는 롤라를 본 순간 영원히 지켜주기 위해 롤라가 사는 도시로 왔다. 늘 우울한 롤라. 하루 종일 쇼파에 만 앉아 있어가 밖에 나가도 항상 움츠려 있었다. 별것 아닌 소리에도 깜짝 깜짝 놀라고 특히 자동차 소리에는 온 몸을 바들바들 떨었다. 롤라와 나는 조금씩 멀리나가는 연습을 했다. 롤라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이제 복잡한 시내도 나와 함께 돌아다닌다. 사랑하는 사이라 해서 1년 내내 잘 지내는 것은 아니다.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는 나와 밴드음악을 좋아하는 롤라와 싸울 때도 있다. 식성도 다르다. 롤라는 생선을 좋아하지만 나는 마리오 아저씨네 정육점에서 파는 소시지를 좋아한다. 화창한 봄날 공원에 나가 지지 아저씨네 매점에서 크림빵과 레모네이드를 시켜놓고 느긋하게 앉아 있으면 세상 부러울 것 없이 행복하다. 피자 먹기, 영화보기, 롤라와 함께하는 시간들은 달콤하다. 여행 가서 눈싸움도 하고 썰매도 타고 장작불에 고기랑 옥수수랑 마시멜로우를 구워먹는 것도 좋았다. 바다에서 파도를 보고 모래사장을 뛰어다니는 추억도 신났다. 그 곳에서 구레나룻 수염을 기른 아저씨가 둘의 모습을 그려 작업실에 걸어놓았다. 바닷가의 아름다운 날은 바다내음, 산들바람, 햇살 때문이 아니라 내가 있어서다.

롤라는 몇년전 크리스마스 이브에 자동차 사고로 시력을 잃었다. 나는 안



롤라와 나

키아라 발렌티나 세그레 글, 파올로 도메니코니 그림, 길상호 옮김.
씨드북, 2015.

분야 : 그림책 / 추천대상 : 초등저 · 중학년

내전 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롤라와 만나게 되었다. 만나기전엔 사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별이란 뜻의 스텔라가 되었다.

나는 단순한 애완견이 아니라 안내견이다. 장애 아이를 돌보고 긍정적인로 살아가는 힘을 키워준 동반자인 안내견. 이 책은 안내견으로서 충실하게 장애 아이를 보호하고 지켜주고 친구가 되어주는 내용이다. 이로써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나 역시 누군가의 스텔라가 되어 주고 싶다는 마음을 일으키는 책이다. 그리고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 함께 두려움을 극복하고 힘과 용기를 키우는 것이 소중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이 책은 국제어린이도서평의회(IBBY)로부터 2015년 장애 어린이를 위한 우수도서로 선정되었다. 이탈리아 유화로 그려진 아름다운 삽화가 들어 있고, 모두 36쪽으로 가로23cm, 세로 30cm의 비교적 큰 그림책이다.



긍정의 아이

유 옥 환

안양시 박달도서관 사서

아이의 긍정적인 면을 강화해주고 싶은가요?

“어부바”는 어린아이에게 등에 업히라고 할 때 쓰는 감탄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인공 ‘부바’라는 이름은 연약하기 만 한 작은 아이를 떠올리게 됩니다.

표지에는 흑백 그림 중앙에 보호색인 노란색 티셔츠에 파란색 바지를 입은 작은 아이 ‘부바’와 역시 작은 꽃이 눈에 띕니다.

어른들은 부바에게 많이 먹고 얼른 크라고 독려합니다. 그러면 부바는 마음이 작아집니다. 사람들이 짝궁을 칭찬하자 글씨도 잘 쓰지 못하는 자신이 더욱 작게 느껴지나 봅니다. 왜 친구들은 달리기도 잘 할까요? 달리기에서 꼴찌한 부바는 어디론가 숨고만 싶어집니다. 마음이 한없이 작아진 게지요.

마음이 작아진다는 것은 자신감이 없다는 말입니다. 스스로 위축되고 자신이 별것 아니라는 감정에 휩싸여 슬퍼집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작아서 좋은 점이 있어요. 느리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것들도 있지요. 내가 가진 장점을 하나하나 발견할 때마다 작아졌던 마음도 덩달아 커집니다. 내 마음이 말합니다. 마음은 자존감이라고요. 커진 마음만큼이나 자신감이 커지고 자존감도 높아집니다.



마음아, 작아지지 마

신혜은 글, 김효진 그림.

시공주니어, 2015.

분야 : 그림책 / 추천대상 : 유아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마음이 작아졌다가 커졌다가를 수도 없이 반복하지요. 누구나 다 같을 수는 없습니다. 잘하는 것이 있으면 못하는 것이 있게 마련이고, 못하는 것이 있으면 잘 하는 것도 있지요. 자존감과 열등감은 상대적이어서 어느 한쪽이 강화되면 나머지 한쪽은 위축됩니다. 놀이터의 시소게임처럼 말입니다. 열등감은 비교당하거나, 꾸중을 들었을 때 높아집니다. 반면 자존감은 격려와 칭찬을 들었을 때 높아집니다.

이 책을 낸 출판사 네버랜드에서는 행복, 화, 무서움, 부끄러움, 외로움, 질투심, 슬픔, 열등감 등 다양한 감정 그림책을 출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열등감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을 지은 신혜은 작가는 아동발달을 전공한 아동심리학자로서 ‘행복은 내 앞에 있어요’ 등 다수의 책을 출간했습니다. 언제 마음이 작아지는지? 또 마음이 커지는 때는 언제인지 이야기를 나누어보고 자존감이 높은 아이, 긍정적인 아이로 성장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찾아 시도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받기에 충분한 고유한 존재입니다.



내 마음은 나도 몰라

이 가 영

평택시 안중도서관 사서

‘마음이 아프다’, ‘마음을 쓰다’, ‘마음이 가볍다’, ‘마음을 줄이다’ 등과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마음’에 대한 관용어가 참 많다.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마음에 대해서 다양하게 생각하고 있는 지를 반증하고 있는 증거라고 생각한다. 마음이란 것은 보이지 않지만 누구나 하나씩은 가지고 있다고 이 책에서는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누구나 하나씩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밥을 혼자 먹는 아빠, 구석에서 혼자 노는 것을 좋아하는 친구, 눈이 보이지 않는 장애인에게도 하나씩 주어진 마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이 세상의 누구도 ‘마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을 듯하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마음에 대해서 어렵듯이 짐작할 수는 있을 것이다. 이 책에서는 ‘마음’을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 비유해서 말한다. 문을 열어두는 정도를 사람마다 마음을 여는 정도에 비유하기도 하고, 넓은 방은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지만, 좁은 방은 자기만 들어갈 수 있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여기서 가장 마음에 와 닿았던 부분은 마음의 집은 주인이 바뀔 수도 있다고 표현한 부분이다. 나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은 나의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지만, 나의 감정이나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을 같이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해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내 마음이 불안하거나 슬프면 그 감정을 느낄 당시의 나의 마음은 불안의 것이기도 하고 슬픔의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마음의 집

김희경 글, 이보나 흐미엘레프스카 그림.

창비, 2011.

분야 : 그림책 / 추천대상 : 초등 중학년 이상

이런 상황이라면 나의 마음이 정말로 나의 것인가 하는 본질적인 의문이 생긴다. 마음의 주인은 언제나 바뀔 수 있고, 그 상황은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이나, 같이 사는 사람에 따라 내 마음이 변한다면 서로를 이해하는 만큼 내 마음의 집은 점점 커지고, 마음의 집이 커지면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왕래를 하게 되어 내 마음을 공유하는 부분이 점점 더 커지게 될 것이다. 나에게 부족한 마음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나누다 보면 나의 마음의 집의 빈 부분을 다른 이의 마음의 집이 채워주게 되면 어느 샌가 내 마음의 집은 완전한 ‘나’ 그 자신이 되어 있을 듯하다.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마음이란 것은 바로 그런 것이 아닐까?



아들아, 너 자신을 믿어라!

이 은 주

남양주시 오남도서관 사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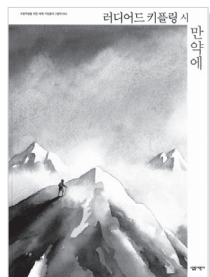
모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지만 삶을 대신 살아 줄 수는 없고,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히게 된다. 그럴 때 기댈 수 있는 부모님의 말씀이 있다면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지 않을까?

노벨문학상을 받은 영국의 시인 러디어드 키플링이 1910년에 12세가 된 아들에게 보내는 형식으로 발표된 시 『IF』(만약에)가 그림책으로 출간되었다.

모든 사람들이 이성을 읽고 너를 탓할 때
네 자신을 믿을 수 있다면
네 주위의 사람들이 너를 믿지 않더라도
네 자신을 믿으며
그들의 의심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다면

. . .

그러면 온 세상과 세상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네가 진정한 남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나의 아들아.



만약에

러디어드 키플링 시, 조반니 만나 그림, 최영진 옮김.
살림어린이. 2015.

분야 : 그림책 / 추천대상 : 초등학교학년부터

이 책에는 삶을 살아가는데 힘이 될 주옥같은 글들이 실려 있다. 이 시는 영국에서 가장 애송되는 시로 이 시가 적힌 액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선물된다고 한다.

표지의 그림을 살펴보면, 한 아이가 높은 산을 홀로 오르고 있다. 구름 사이로 여러 개의 산봉우리가 보인다. 산을 오르는 것은 우리의 삶일 것이다. 정상에 올랐다 생각하면 또 다른 산봉우리가 나타난다. 안데르센 상 수상 화가 ‘조반니 만나’가 그린 그림은 키플링의 사랑이 가득한 노래를 부드러운 묘사로 잘 표현하고 있다.

작가 러디어드 키플링은 『정글북』을 쓰고, 최연소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로도 유명하다.

이 책은 그림책이지만 내용이 인생에 대한 철학을 담아 다소 어려울 수도 있어 초등학교학년이나 청소년에게 적합할 것 같고, 아빠와 함께 보며, 아빠가 읽어준다면 더 큰 감동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

아이와 함께 책을 읽은 후, 내 자녀에게 하고 싶은 말을 시로 작성해 보면 어떨까?



낮선 개와 함께 한 돌고래 구하기

공 정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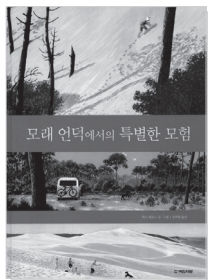
안성시 진사도서관 사서

한 폭의 풍경화를 보는 것 같은 멋진 그림이 아름답다. 프랑스 필라 모래 언덕과 해변에서 돌고래를 구하게 된 이야기이다. 실제 프랑스 해변가에는 자주 돌고래가 파도에 밀려오는데 구조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가족과 여행을 떠난 남자 주인공은 개 짖는 소리에 잠이 깬다. 힘들게 멀리 개를 따라 간 곳은 모래 구덩이에 갇혀 죽게 된 돌고래가 있는 바닷가였다. 소년이 돌고래를 발견하기까지 그동안 만났던 사람들이 개의 SOS 목걸이를 보고 도와주러 오고,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서 돌고래를 마침내 바다로 돌려보낸다. 1인칭 ‘나’가 주인공이 되어 겪은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어 이야기가 더욱 생생하게 다가온다. 처음 보는 개를 따라가는 ‘나’는 무슨 중대한 일이 있다고 생각한다. 개를 쫓아가며 배경이 바뀌고 모래 속에 놓여진 고래를 발견하며 이야기가 절정에 이른다.

글과 함께 그림 또한 훌륭하다. 이야기에 그림이 더 풍성한 이야기를 전달한다. 모래언덕, 하늘, 바다, 숲 등 그림이 현재의 풍경과 사물을 보는 것처럼 세로로 긴 판형에 아름답고 명확하게 그려져 있다. 모래 색, 바다 색, 나무 색 등 자연풍경을 색을 통해 사실적으로 잘 표현했다. 책을 넘기면서 양쪽 페이지를 가득 채운 바닷가 풍경을 그린 그림이 눈을 사로잡는다.

작가의 또 다른 작품으로는 『비밀의 집 불워빌리스』, 『비밀의 정원』, 『잃어버린 천사를 찾아서』등이 국내에 번역되어 있다. 작가는 『비밀의 집 불워빌리스』와 『비밀의 정원』으로 프랑스 어린이들이 직접 선정하는 프랑스 아동청소년문학상인 ‘앵코 티블 상’을 두 차례 수상했다고 한다. 이들 책도 세



모래 언덕에서의 특별한 모험

막스 뒤코스 글, 그림, 길미향 옮김.

국민서관, 2014.

분야 : 그림책 / 추천대상 : 초등 저학년부터

로로 긴 판형으로 보통 그림책보다는 크게 만들어졌다. 이 책은 56페이지의 분량으로 이야기도 보통의 다른 그림책 보다 많다. 표지와 면지도 전체적인 그림책의 구성을 이루고 있다. 앞면지에는 프랑스 해변 지도, 뒷면지에는 고래를 소개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 점도 특이하다. 초등 저학년 이상이 볼 수 있는 그림책으로 추천한다.



마법 상자는 선물일까? 독일까?

유 향 숙

성남시 판교도서관 사서

내 주변은 나를 심술쟁이로 만든다.

“내 잘못이 아니야……. 아침에 시끄러워서 짜증이 났는데 동생이 날 귀찮게 하잖아.”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한다. 학교에 가는데 개한테 물리고, 시끄럽다고 선생님에게 벌 받고, 이렇게 자아가 완성되어 가는 주인공이 있다. 이제 주변 환경과 나와의 관계에 대하여 혼돈스럽지만 관계정립과 가치관을 정립하는 시기가 온 것이다. 그것이 아마 초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 사이에 생기게 되지 않을까 한다.

주변만 탓하면 나만 힘들어 진다.

동생을 울려 엄마에게 혼난 것은 동생이 귀찮게 군 탓이고, 수업시간에 시끄럽게 해서 혼난 것은 재수가 없어서이다. 제발 누구도 나를 간섭하지 않는 마법의 상자가 생겼으면 한다. 세상을 제압할 수 있는 엄청난 마법의 상자. 무엇이든 삼켜버리는 마법의 상자를 갖고 시끄럽고, 귀찮게 하고, 혼내고 미워하는 존재들은 모두 마법 상자에 넣어버리면 행복할 것 같다.



무엇이든 삼켜버리는 마법상자

코키루니카 글, 그림, 김은진 옮김.

고래이야기, 2007.

분야 : 그림책 / 추천대상 : 초등학교 1 ~ 2학년

사회는 더불어 사는 공간이다.

마법을 부리면 한동안은 즐겁고 좋다.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으니 참으로 좋다. 그러나 점점 외로워지고 힘들어지고 사람이 필요하다.

자신을 고립시켜보았으나, 결국은 많은 사람들과 관계성 속에서 자신이 존재함을 깨닫고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

짧은 그림책은 철학적이기까지 하다. 한 장면에 한마디 말에 담긴 의미가 매우 깊이 느껴보면 생각할수록 의미심장하다. 억울함이 가득 할 때 꺼내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다.



엄마, 어디 가?

이 은 주

남양주시 오남도서관 사서

하얀색 배경에 시무룩한 표정의 한 여자아이가 있다. 보는 사람도 시무룩하고 슬퍼진다. 이 아이의 이름은 ‘미영이’. 잠에서 깬 미영이는 화장실에만 엄마를 기다리지만 엄마는 오지 않는다. 미영이 생일에도 엄마는 돌아오지 않았다. 식구들이 많은 집으로 더부살이를 가게 되고, 학교에 가는 또래 아이를 말없이 바라보는 미영이는 혼자 글씨 연습을 하며 글자를 틀리게 쓰는 자신의 모습을 부끄럽게 여긴다. 하지만 미영이를 가장 괴롭히는 것은 학교에 가지 못하는 것이나, 주인집의 단란한 모습이 아니라 엄마에게 버림받았다는 사실이다. 상심이 더욱 커 갈 무렵 미영이는 뜻밖의 친구를 만나게 된다. 길 잃은 강아지가 주인집 아들을 따라온 것이다. 주인을 찾아 주려고 해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게 되자 강아지를 산책시키고 밥을 주고 똥을 치워 주는 일은 미영이 몫이 된다. 미영이는 강아지를 돌봐야 하는 게 귀찮지만 자신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강아지를 살뜰히 돌봐 준다. 이렇게 강아지와 미영이는 마음 둘 곳 없는 집에서 서로를 의지하는 좋은 친구가 되어간다.

『미영이』는 ‘2015년 볼로냐 아동도서전 올해의 일러스트레이터’에 선정된 전미화 작가의 그림책이다. 간결한 글과 여백이 많은 흑백 그림은 엄마와 헤어진 미영이의 상실감과 그리움을 이해하고, 내면에 집중할 수 있게 한다. 혼자 남겨져 방에 우두커니 앉아 엄마를 기다리는 미영이를 표현할 때는 미영이를 멀리 두어 여백을 통해 아이의 두려움과 쓸쓸함을 표현했고, 좋은 것이 하나도 없어 웃지 않는 미영이를 두고 누군가 수군댔을 때는 미영이를 클



미영이

전미화 글, 그림.

문학과지성사, 2015.

분야 : 그림책 / 추천대상 : 초등중학년 이상

로즈업해서 그 내면의 심리를 그대로 전해 주고 있다. 다행히 엄마가 찾아와 강아지와 함께 엄마를 따라가는 마지막 장면은 읽는이에게 안도감을 준다. 뒷표지에는 강아지와 함께 미소 짓고 앉아 있는 미영이가 행복해 보이기까지 한다. 이 책 전체에서 유일하게 채색되어 있는 뒷표지의 분홍색 미영이의 볼은 안도감과 행복감을 더 잘 표현하고 있다.

첫 페이지에 적혀있는 “어른이 된 미영이에게”로 보아 과거 어려웠던 시절의 실제 이야기를 모티브로 한 이야기로 보인다. 하지만 ‘미영이’의 이야기는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은 가정이 해체되는 현대 사회에서도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이 책을 계기로 이 땅의 많은 미영이들에게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 책은 글과 그림이 간결하여 형태로 보면 유아용이나, 내용을 이해하려면 초등 중학년 이상은 되어야 할 것이며, 더부살이 삶을 이해하는 어르신들에게도 좋은 위로가 될 듯하다.

전미화 작가가 쓰고 그린 『눈썹 올라간 철이』, 『씩씩해요』, 『달려라 오토바이』도 함께 비교하며 읽어보면 재미있을 것이다.



세상의 모든 미영이들에게

이 수 경

평택시 장당도서관 사서

무표정한 미영이는 뒤표지에서 볼을 살짝 붉히며 웃고 있습니다. 미영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 책을 펼쳐봅니다. 화장실에 간다던 엄마는 생일에도 오지 않고 미영이는 식구가 많은 집에 살려갑니다. 일도 많고 글자를 틀리게 쓰는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엄마랑 있을 때와 달리 미영이의 미간은 늘 주름져 있습니다. 화가 납니다. 아프지만 아무도 오지 않고 이마도 짙어주지 않습니다. 주인 없는 강아지 한 마리가 집에 들어오자 미영이가 밟주고 똥도 치우고 산책도 시킵니다. ‘강아지가 예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온 날 입은 옷이 작아진 어느 날 엄마가 옵니다. 엄마 손에도 미영이처럼 설거지 냄새가 납니다.

“엄마, 어디 갔다 왔어?”

미영이의 말에 엄마는 옵니다. 미영이가 돌봐 준 강아지가 쫓아왔습니다. 미영이 혼자 버스를 기다리던 그곳에 두 사람과 개 한 마리가 정답게 버스를 기다립니다. 미영이와 엄마는 여전히 살림살이가 어렵겠지요. 그래도 미영이의 주름졌던 미간은 펴 질 테지요. 미영이는 강아지와 함께 웃고 있습니다.

여백이 많은 화면에 흑백 묵선 같은 느낌의 그림과 간결한 대화가 도드라집니다. 여백 많은 화면이 미영이가 느꼈을 외로움, 슬픔, 두려움, 불안, 상실감과 소외감을 책을 보는 이들도 느낄 수 있도록 합니다. 설명을 덧붙이지 않아도, 그림으로 더 말해주지 않아도 미영이가 얼마나 아플지 짐작하게 합



미영이

전미화 글, 그림.

문학과지성사, 2015.

분야 : 그림책 / 추천대상 : 초등저학년 (특히, 상실을 겪고 있는 아이들)

니다. 돌봄을 받아야 할 나이에 미영이는 집안일을 하고, 오해를 감내하고, 주인 없는 강아지를 돌보며 한 사람 몫의 삶을 살아갑니다. 자신이 부끄러울 때도 있지만 지은이의 『씩씩해요』의 주인공처럼 삶이 준 큰 상실과 결핍을 매일 매일 성실함으로 메꾸고 곁에 있는 엄마와 함께 극복해나갈 것입니다. 미영이는 사랑할 줄 아는 아이입니다. 자신처럼 엄마가 없어 찾는 이도 없는 강아지를 ‘예쁘지 않다’고 하면서도 살뜰히 보살핍니다. 미영이는 강아지를 보살피듯 자신을 사랑하고 엄마를 사랑합니다. 슬프고 외로웠던 미영이, 어른이 된 미영이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나를 나답게!

이 영

평택시 장당도서관 사서

주인공 사자는 덩수룩한 머리 때문에 모두가 자기를 싫어한다고 생각한다. 머리모양을 바꾼다면 모두가 사자를 좋아하게 될까? 『미용실에 간 사자』는 누구나 한번쯤 맞닥뜨리게 되는 이런 질문에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담은 그림책이다. 사자는 원숭이가 하라는 대로 미용실에 가서 파마머리, 갈래머리, 염색머리 등 계속해서 머리모양을 바꾸게 된다. 하지만 화려하고 재미나게 바뀌는 머리모양에도 불구하고 사자의 표정은 내내 어둡다.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모두에게 사랑받길 원한다. 이는 너무나 당연한 인간의 욕구이며 지극히 보편적인 심리다.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전혀 나쁠 것이 없다.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에 과하게 민감하고 자신의 정체성까지 흔들릴 정도의 변화를 계속한다면 그것이 과연 옳은 변화일까?

우리 모두는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자!’ 라고 당당하게 외치지만 그 생각을 실천에 옮기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나의 의지대로 나를 표현하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기준에 맞추어 살아가기에 급급하다. 덩수룩한 머리를 부끄러워하는 사자가 바로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원숭이의 요구대로 이리저리 머리모양을 바꿔보지만 전혀 만족스럽거나 행복하지 않은 사자에게서 지금 우리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보인다.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 현대사회에서 ‘남들과



미용실에 간 사자

브라타 테켄트럽 지음, 이선오 옮김.

키즈엠, 2014.

분야 : 그림책 / 추천대상 : 유아 이상

다른 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나와 다른 너'를 인정하게 된다. 지저분하고 헝클어진 머리의 사자가 자신의 모습을 사랑하고 아낄 수 있어야 또 다른 지저분한 머리의 동물을 똑같이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다. 진정한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책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자 핵심이다.

『미용실에 간 사자』는 남들이 자신을 싫어하는 이유를 자신의 덩수룩한 머리모양 때문이라고 단정 짓고 미용실에 가서 머리모양을 바꾸는 사자의 모습을 유쾌하게 표현한 그림책이다. 어찌 보면 단순하고, 글자 수도 많지 않아 몇 장 안 되는 이 그림책 한 권에 수많은 의미와 철학이 담겨있는 것이다.

아이와 함께 구멍 뚫린 사자 얼굴에 다양한 여러 머리 모양을 덧대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져보길 바란다. 어떤 머리가 제일 마음에 드니? 사자는 어떤 머리를 제일 마음에 들어할까? 사자가 진짜 하고 싶은 머리는 뭘까? 아이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생각해보면서 진정한 나를 표현하는 법,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법 등을 배워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완벽한 나'를 보여 주기 위해 급급한 것이 아니라 '조금 부족하지만 행복한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재미와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그림책이다.



갈매기야, 바삭바삭이 맛있지(?)

박 지 원

안성시 공도도서관 사서

한 번쯤 배를 타거나, 바닷가에 갔을 때 갈매기에게 과자를 주면 갈매기들이 우리 곁에 머무는 것을 경험했을 것이다. 그 모습이 즐거워 계속 주고 바다에도 던져주었었다. 특별히 깊은 생각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행동들인데 그림책을 읽게 되면서 다시 생각해 보았다.

이 그림책은 바위섬에서 물고기를 먹으며 살던 갈매기가 바삭바삭 맛있는 과자가 좋아 바다를 버리고 사람들 곁으로 오는 이야기로, 애니메이션 콘셉트 디자이너로 활동했던 작가의 개성이 묻어난 작품이다.

바삭바삭 맛있는 과자에 빠져드는 갈매기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욕망과 자유에 대해, 또 환경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인간은 자극적이고 간편한 음식들을 끝내 발명해냈다. 햄버거, 팝콘, 과자 등... 사람들은 그 자극적이고 간편한 것들을 들고 어디든 다녔다. 인간이 만든 화합물 덩어리를 먹은 동물들은 시름시름 앓고, 병에 걸려서 죽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전 세계의 수많은 동물들이 죽어나갔고, 사람들은 이 행동이 잘못 됐다는 것을 깨닫고 동물들에게 인간의 먹거리를 주는 것을 금지시켰다. 하지만 사람들은 아직도 동물들에게 자신의 먹거리를 내어준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 동물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 책은 그러한 예 중 하나인 갈매기에 대해 썼다. 갈매기가 사람들이 주



바삭바삭갈매기

전민걸 글, 그림.
한림출판사, 2014.
분야 : 그림책

는 과자에 길들여지고 시름시름 앓는 이야기인데, 다른 딱딱한 환경 문제에 대한 책이 아니라 어린이들도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환경 동화책이다.

이 책을 읽게 되면 동화 한 편을 읽게 되는 동시에 환경문제에 저절로 생각하게 되는 자신을 돌아볼 수 있다.

이 책은 친숙하고 귀여운 그림책 또한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이야기에 더 빠져들게 한다. 더불어 갈매기의 입장에서 이야기가 진행되다보니 책을 읽는 자신 또한 갈매기의 입장에 동화되어 동물들의 입장에서의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된다. 이 책을 읽고 아이들이 환경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키워 환경문제를 더 키우지 않고 조금 더 자연친화적이게 살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



다르게 생각하기

이 민 혜

양평군 용문도서관 사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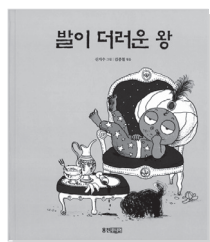
왕은 마치 미운 4살 아이 같다. 씻기 싫어하는 왕을 억지로 씻기니 이제 발이 더럽다고 투정을 부린다. 누구보다 더러웠던 왕이 몸을 씻고 나니 점점 결벽증에 걸린 왕으로 변신하여 당황스럽지만 나름 기상천외한 방법을 고안해 내는 것은 꽤 귀엽게 느껴진다.

갑자기 왕이 명령을 내린다.

“바닥을 깨끗이 하라!”

착한 백성들은 왕이 시키는 모든 것을 착실히 수행한다. 왕은 처음으로 바닥을 깨끗이 하기 위해 바닥의 모든 먼지를 쓸라고 한다. 그러자 사방이 먼지투성이 되어버렸고 왕은 다시 모든 바닥에 물을 뿌리라 명령을 하였다. 그러자 마을이 모두 물에 잠기게 되었다. 왕은 이쯤에서 더욱 기이한 방법을 생각해낸다. 마을의 모든 것을 가죽으로 덮는 것이다. 철없는 왕의 명령으로 고생하는 백성들의 모습은 귀여우면서도 안쓰럽기만 하다. 그때 한 기특한 아이가 왕의 발에 맞는 가죽신을 만들어 주게 되면서 왕의 발에는 더 이상 더러운 먼지가 묻지 않게 되었다.

간단히 읽어봐도 이 그림책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발상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순수한 아이를 등장시킴으로 문제를 해결하지만 누구나 알다시피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도 작가는 이 책을 읽는 아이로 하여금 앞으로 이 아이처럼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기



발이 더러운 왕

김중철 글, 신지수 그림.

웅진주니어, 2013.

분야 : 그림책 / 추천대상 : 유아

회를 주고 싶었을 것이다.

이 책이 사용하고 있는 색상의 종류는 검은색, 황토색, 하늘색으로 3가지의 색으로만 그림을 표현했다. 단조로운 색 표현이 어찌보면 알밋기도 하고 폭군으로 비취질 수 있는 왕의 모습을 만화적으로 표현하여 독자로 하여금 귀여운 눈빛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한다. 화려하고 알록달록한 그림책을 기대한다면 실망할지 모르나 우스꽝스러운 상황을 표현하기에 모자라지도 넘치지도 않는다.

이 책의 장점은 어린이들뿐만이 아니라 어른들이 읽어도 좋은 책이라는 것이다.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제멋대로 휘두르는 왕의 모습을 보면 흡사 우리의 행동을 거울로 보고 있는 듯 한 착각을 들게 한다. 책을 읽는 어린이에게는 신발을 만든 아이에 자신을 이입하여 창의적이고 용감한 생각을 하고자 다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고 어른은 왕의 역할에 이입하여 자신만을 생각하며 이기적이게 행동한 적은 없나 반성할 기회를 갖게 해줄 것이다.



따뜻한 행복을 나누고 더하고

강 동 연

수원시 선경도서관 사서

『방긋 아기씨』는 태어나서 한 번도 웃어본 적 없는 아이에게 웃음과 행복감을 전달하고자 노력하는 왕비님의 모습을 담고 있다. 육아가 서툴기만 한 왕비님은 웃지 않는 아이를 기쁘게 하기 위해 일류 요리사의 최고급 음식, 비단으로 꽃수를 놓은 아름다운 옷, 흥미로운 공연을 준비한다. 하지만 어른의 시각이 아닌 아이의 입장에서 이 모든 것들은 의미가 없었다.

결국 아이가 웃음을 찾고 행복한 감정을 느낄 수 있게 한 최고의 선물은 우연히 터져 나온 왕비님의 웃음이었다. 아이가 처음 웃던 벽찬 감동의 순간은 왕비님의 차가운 푸른빛 얼굴이 따뜻한 살구빛으로 변하며 극적이게 묘사된다. 아주 단순하고 사소할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메시지를 감각적으로 전달하는 데 효과적이다. 왕비님은 웃음이 없는 아이에 대한 걱정과 불안으로 늘 근심이 가득했다. 아이의 행복을 위하지만 정작 자신의 행복을 돌볼 기회가 전혀 없었던 것이다. 이를 통해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는 부모 먼저 행복해야한다는 의미와 부모와 아이 간의 관계를 넘어 사람들 간에는 상호관계와 교감이 필요하다는 보편적인 진리를 표현한다. 사람관계의 기본이지만 너무 당연해서 소홀해지는 경향이 있지 않나 생각하며 행복의 조건을 되짚어 볼 수 있는 시간이다.

그림책 『방긋 아기씨』는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섬세하고 우아한 표현 기법을 곁들여서 눈으로 읽는 재미를 더하기도 한다. 전반적인 색채는 짙은



방곳 아기씨

윤지희 글, 그림.

사계절, 2014.

분야 : 그림책 / 추천대상 : 영유아

회색빛의 무채색이지만 연필의 세밀한 질감을 잘 표현했으며, 동화 전반부와 후반부의 반전된 스토리를 색채를 이용한 극적대비로 풀어나갔다. 행복이 교감되지 않은 전반부의 등장인물들은 온기가 전혀 없는 차가운 파란빛 얼굴로 표현된다. 하지만 아이가 웃음을 찾은 이후의 상황부터는 따뜻한 온기가 가득한 분홍빛 색감으로 그림책이 가득 찬다. 특히 엄마와 아이가 함께 웃으며 행복이란 감정표현이 교감되는 순간은 평온하고 신비스럽게 그려진다.

굳이 많은 글을 통하지 않고서도 감정이입을 충분히 할 수 있으며, 그림책 속 인물과 주변 배경 등을 느끼고 감상하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고 소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봄을 찾은 할아버지

유 향 숙

성남시 판교도서관 사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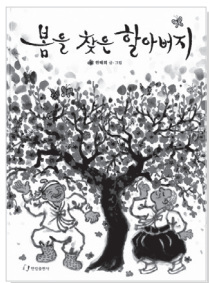
그림이 예쁜 책이다. 이 서평을 쓰고 있는 지금은 2월이다. 나 역시 봄을 기다리고 있어서 그런지 제목에 마음이 끌렸다.

『봄을 찾은 할아버지』

긴 겨울을 보내며 우리는 봄을 기다린다. 세상만사 모든 만물이 봄을 기다리는 듯하다. 혹독한 겨울을 보낸 사람이나, 지루한 겨울을 보낸 사람이나 겨울은 참으로 긴 것 같다. 바깥 활동보다는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 우리는 더욱 봄이 오기를 기다린다. 우리는 이렇게 봄을 기다리고 있는데 할아버지는 봄을 찾아 나섰나 보다. 무엇이 할아버지를 움직이게 했을까? 어떻게 봄을 찾았을까?

할머니께서 문득 던진 말 “빨리 봄이 와서 환하게 핀 꽃을 볼 수 있으면 좋으련만.....”이 말에 할아버지는 봄을 찾아 나선다. 할머니에게 어여쁜 꽃이 핀 봄을 안겨주고 싶었나보다.

할아버지의 봄을 찾는 모험은 힘겹기만 했다. 추운 겨울, 어디에도 봄을 찾을 길이 없었다. 개울가나 언덕에 올라도 눈보라만 칠 뿐. 겨울잠을 자는 곰에게 물어보고, 꿩에게 물어봐도 모두들 모르겠다는 대답뿐이다. 강에서 천년을 살아 지혜로울 것 같은 이무기 역시 봄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채 얼음이 녹는 봄을 기다리고 있다. 할아버지는 봄을 찾다 지쳐 쓰러져 잠이 들고 말았다. 그때, 꽃향기가 어디선가 풍겨왔다. 뽕이 밭그레한 소년과 함



봄을 찾은 할아버지

한태희 글, 그림.

한림, 2014.

분야 : 그림책

께..... 할아버지는 봄을 찾은 걸까?

우리의 인생도 이렇듯 무엇인가를 간절히 찾아 헤매다 결국 지쳐 포기상태가 되었을 때 바라는 바가 슬며시 다가옴을 깨달을 때가 있다.

예쁜 그림에 재미있는 이야기를 지은 작가가 궁금해졌다. 한태희 작가는 응용미술학과를 졸업하고 어린이 그림 작업을 해오고 있다. 1998년 『도솔산 선운사』, 『대별왕 소별왕』등 많은 작품을 남겼다.

작가는 우리처럼 긴 긴 겨울이 지루해서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사랑이 담긴 봄을 소재로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든 건 아닐까?



지금은 나를 들여다 볼 때

이 연 수

수원시 북수원지식정보도서관 사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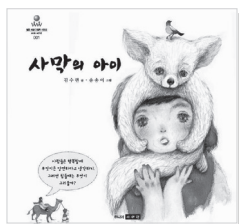
사막낙타 물이꾼 아이 수와리와 천상 도시남으로 혼자 여행 중인 빈센트가 함께 동행하며, 일어나는 이야기를 그린 철학 동화이다.

사막의 아이 수와리는 남들 보기엔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사막에서 생활하고 있다. 낙타와 함께 모래바람에 눈이 아프고, 뜨거운 더위로 울고 싶은 사막 생활이지만 그 모든 것을 행복하게 생각하는 소년이다. 반면 빈센트는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도시에서 살아왔기에 모래와 뜨거운 태양의 사막을 여행하는 것을 쉽지 않아한다. 본인이 선택한 여행이지만 불편한 환경에 불만이 가득한 천상 도시인이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무엇을 느낄 수 있는지 궁금하다는 빈센트의 말에 수와리는 “사막은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아무것도 없는 곳이 아니”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한다. 이 구절을 읽는 순간 나 자신도 ‘사막에 도대체 무엇이 있기에?’ 라는 궁금증으로 책장을 빨리 넘기게 되었다.

빈센트는 여행하는 동안 계속 투덜거린다. 힘들어서 여행을 이만 포기하려 할 때마다 수와리가 질문을 던진다. 그 질문에 명쾌한 답변을 하지 못한 채 여행을 계속하게 된다.

수와리가 물어본 질문이란 것은 빈센트가 살고 있는 곳은 행복한 곳인가? 정말 가고 싶은 곳인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 살던 곳에서는 항상 계획한 대



사막의 아이

김수련 글, 송송이 그림.

주니어이서원, 2014.

분야 : 그림책 / 추천대상 : 초등고학년, 성인

로 살아갔는가? 행복한가? 등이다.

이 질문들은 빈센트에게만 하는 것이 아닌 내 자신과 이 책을 읽는 독자 모두에게 물어보는 것 같다. 빈센트가 명쾌한 답을 못하듯, 나 역시 질문에 답하지 못한 채 책장을 넘겨갔다.

작가는 임상심리학을 전공하고 임상심리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그래서 일까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듯 글을 쓴 것 같다. 작가는 진정한 나를 찾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 동화책을 쓰게 되었다고 한다. 책을 읽으면서 한 줄, 한 줄 구절을 음미하고 생각하게 해 준다. 그런 면에서 어린이에게도 좋겠지만 어른을 위한 동화로 추천하고 싶다.



미안하다고 말 할 수 있는 용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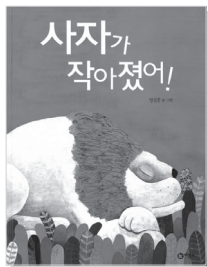
이 수 경

평택시 장당도서관 사서

진은영 시인은 “우리가 타인에게 마음을 쓰고 자기의 마음을 건네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고민하는 일이 민주주의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민주주의가 진정한 정치이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우리 일상에서 삶의 태도로 나타나야 한다는 뜻이겠지요. 민주주의적인 삶의 태도는 ‘공감’에서 비롯될 것입니다. 내가 너는 아니나 내 고통과 너의 고통이 다르지 않음을 안다는 것이지요.

초원의 왕 사자는 결코 알지 못했습니다. 사자에게 쫓기는 가젤의 심정을, 사자에게 엄마를 뺏긴 가젤의 슬픔을 말이에요. 아주, 아주 작아지기 전까지는요. 사자가 아주, 아주 작아지자 ‘나무도, 풀숲도, 들쥐도 개울도 너무, 너무, 너무’ 커져버립니다. 꼬맹이 사자가 개울물에 빠져 허우적대자 가젤이 구해줍니다. 꼬맹이 사자가 큰 사자였을 때 가젤의 엄마를 잡아먹었다고 합니다. 엄마를 잃은 슬픔으로 우는 가젤에게 너무나 미안한 사자. 미안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살다보면 누군가에게 사과해야할 때가 있습니다. 기회를 놓치면 사과 한마디면 될 일이 점점 커져버릴 때도 있습니다. 고마워 vs 미안해. 세 음절 단어지만 미안해는 참 말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보통 ‘뭘, 내가 그렇게 잘못하진 않았지.’, ‘난 원래 그래’ 또는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기 싫어. 내가 진 것 같잖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울고 있는 가젤에게 꼬맹이 사자는 이것저것 제안합니다. 꽃을 줄까? 노래를 불러줄까? 아프리카에서 가장 멋진 가



사자가 작아졌어!

정성훈 글,그림.

비룡소, 2015.

분야 : 그림책 / 추천대상 : 영유아부터

젤로 만들어줄까? 그 어떤 방법도 가젤의 슬픈 마음을 달래주지 못합니다. 꼬맹이 사자는 마침내 말합니다. ○○○. 이윽고 가젤은 슬픈 마음을 달래며 집으로 향하고 사자도 ‘느릿느릿’ 집으로 향합니다.

『사자가 작아졌어!』는 예쁘고 귀여운 그림책입니다. 알록달록 예쁜 그림 속에 삶과 죽음, 슬픔과 고통, 갈등과 성장의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경쾌하게 진행되지만 주제를 허투루 다루지 않습니다. 들쥐보다 작아졌던 사자는 진정으로 가젤에게 사과 한 후 점점 커져갑니다. 진정 큰 사람은 진심어린 사과를 할 줄 아는 이라는 뜻으로 읽힙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유아부터 초등 전학년까지 갈등과 화해를 함께 생각해보는 자료로 활용하기 좋은 그림책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잘못을 저지르고, 변명하고, 핑계를 대며 순간을 모면하고자 하는 이들을 자주 봅니다. 드물게 사과하는 이들을 바보 취급할 때도 있습니다. 진정 어른이 된다는 것은 ‘타인에게 마음을 쓰고 자기의 마음을 건네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고민하는’ 이들을 가려 판단하는 혜안을 가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진정어린 사과가 용서보다 먼저입니다.

p.s. 마지막 장면. 사자는 사자답게, 가젤은 가젤답게, 쫓고 쫓깁니다. 다만 생긴대로 살면 서로에게 미안할 일은 별로 없을 듯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멋진 것

손 셋 별

수원시 대추골도서관 사서

지루한 일상을 벗어나 어마어마하게 멋진 것을 찾기 위해 땅을 파기 시작한 샘과 데이브는 땅 파는 것을 ‘숙명’이라 여기며 끝도 없이 땅을 판다.

정말로 땅 속에는 크고 작은 보석들이 숨어있지만, 샘과 데이브는 보석을 요리조리 피해 땅을 파내려가다가 결국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한다. 샘과 데이브를 따라나선 강아지만이 무심한 표정으로 보석이 있는 곳을 가리키지만 두 사람은 강아지에게는 관심도 없고 오로지 땅만 열심히 파다가 온몸에 흙먼지만 까맣게 뒤집어 쓴 채 집으로 돌아오고 만다.

그런데 빈손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실망하기는커녕 ‘정말 어마어마하게 멋졌’ 다며 감탄한 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초콜릿 우유와 과자를 먹으러 집으로 들어간다. 샘과 데이브가 ‘숙명’ 이라고까지 여기며 찾아 헤매던 ‘어마어마하게 멋진’ 무언가를 찾아서일까? 그건 샘과 데이브만이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책을 읽는 우리들은 잠시 자신을 돌아보며 누구나 샘과 데이브가 된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을 떠나 뭔가 화려하고 깜짝 놀랄만큼 즐거운 일을 꿈꾸지만, 조금만 시선을 돌리면 그 지루하다고만 생각했던 일상 속에 보석같은 일들이 펼쳐지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한다.

성공의 결실이 맺어지기를 욕망했던 두 사람이 빈 손으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마어마하게 멋졌다’ 고 말하는 그들의 달라진 모습은 일상의 소소한 행복에 대한 애정에서 위로와 위안을 받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인지를 보여준다.



샘과 데이브가 땅을 팠어요

맥 바넷 글, 존 클라센 그림, 서남희 옮김.

시공주니어, 2014.

분야 : 그림책 / 추천대상 : 유아 이상

흙투성이로 돌아온 샘과 데이브의 집 마당에는 여전히 꽃과 나무가 자라고 있다. 많은 시간이 흘렀고, 샘과 데이브의 모습이 변한 것처럼 그들의 마음도 변했다는 것을 상징하듯 꽃과 열매도 모두 변했다.

집을 떠나기 전 마당에 심어져있던 사과꽃의 꽃말은 성공, 욕망, 결실인 반면 집에 돌아온 후 마당에 심어진 배꽃의 꽃말은 온화한 애정, 위로, 위안이다.

작가 맥 바넷과 존 클라센은 아이들이 이 책을 보고 자신의 뒷마당에 숨겨져 있는 보물들을 직접 찾아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소소한 일상 속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를 새삼 깨닫게 해주는 유쾌한 그림책이다.



누구도 완벽하지 않아!

이 연 수

수원시 북수원지식정보도서관 사서

이 그림책은 2013년 칼데콧 아너 상을 수상한 피터 브라운의 작품으로 주인공은 학생인 바비와 담임인 커비 선생님과 이야기의 다뤘다.

표지 그림은 학생 바비는 책상위에 벌을 서며 “선생님은 몬스터”라고 말을 하고, 다소 무섭게 생긴 선생님은 불만스런 표정으로 “아니라니까”라며 대꾸를 하는 모습으로 그려져 독자로 하여금 ‘왜 바비는 선생님을 몬스터라고 했을까?’ 라는 호기심을 갖게 한다.

바비에게는 커비선생님이 불편한 존재다. 목소리도 발소리도 모두 크고 찌렁찌렁하여, 잘못을 저지르면 부드럽게 감싸기보다는 큰 목소리로 지적하기 때문이다. 바비는 커비선생님이 영 불편하다.

어느 날 바비는 자주 가던 공원에서 커비선생님을 만나게 되었다. 공교롭게도 공원은 커비선생님도 자주 쉬러오는 공원이었던 것이다. 바비도 커비선생님도 생각지도 못한 어색한 만남에 어쩔 줄 몰라 찢찢매던 때, 선생님이 아끼는 모자가 바람에 날라 가게 되고, 바비는 바람에 날라 다니는 모자를 잡아주려고 애를 쓴다.

이것을 계기로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친해지게되고 학교에서 봤던 선생님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선생님과 가까워질수록 선생



선생님은 몬스터!

피터 브라운 글,그림, 서애경 옮김.

사계절, 2015.

분야 : 그림책

님 모습은 불편한 몬스터에서 점점 아름답게 변하게 된다.

이 그림책에서 가장 멋지고 독특했던 장면은 바비와 커비선생님이 친해지면서 변화되는 선생님의 모습이였다. 푸르스르한 점박이 얼굴과 찌진 눈. 갈퀴같은 손들은 바비와 소통하면서 핑크색 얼굴, 둥그란 눈과 손으로 바뀌는 장면은 그림책의 특유의 장점이 아닐까? 이 책은 그 장점을 인상깊게 잘 살렸다.

글을 모르는 아이들이라도 그림을 보며 이해 할 수 있는 그림책의 본연의 의도가 돋보였다. 몬스터에서 다정하게 변화된 선생님의 모습은 바비 마음속에 선생님에 대한 생각이 변화한 것을 보여준다. 여전히 선생님의 목소리와 발소리는 크고 찌렁찌렁했지만, 바비 마음속에 선생님은 예전의 괴팍한 선생님이 아니였다.

학교 다니는 아이들에게 담임선생님은 편안한 존재는 아니다. 아이 입장에서 초등학교 담임선생님은 어려운 교과목을 가르쳐주는 학습 지도 선생님과 더불어 관찰하고 통제하는 감시관처럼 생각되기도 한다. 담임선생님이 학생과 잘 맞으면 행복한 시간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학교는 가고 싶지 않은 곳이 된다. 학생과 선생님이 잘 맞으려면 서로에 대하여 알아가는 경험이 필요할 것이다. 바비와 커비 선생님이 공원에서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함

게 하는 시간을 보냈기에 서로에 대하여 오해하였던 부분들이 줄어들고 이해하는 마음이 생긴 것처럼...

이 그림책은 서로간의 소통이 얼마나 많은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보여준다. 배경 그림과 주인공의 모습이 단순하게 반복되며 조금씩 변화되는 커비 선생님과 바비의 모습이 재미를 더해준다. 변화를 하나씩 발견해 가는 즐거움도 있다.

책 뒷 표제지에 피터 브라운처럼 보이는 남자는 “나도 가끔은 몬스터가 돼. 누구도 완벽하지 않아”라는 말 속에 이 책을 통해 무엇을 알려주고 싶은지를 나타낸 점도 재미있다. 작가와 독자가 대화하는 것 같다.

이제 곧 스승의 날이다. 나는 이 책을 아이들과 좀 더 가까워지고 싶은 선생님, 아이들에게 이해받고 싶어 하는 선생님들에게 선물하고 싶다.



숲 속을 뛰어다니고 싶어 단 한 번만이라도

이 수 경

평택시 장당도서관 사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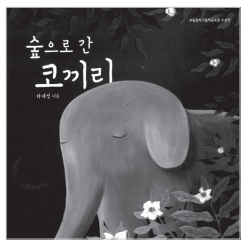
아빠는 “이 세상에서 과연 뭘 해야 좋을지 모르겠구나.”라고 했다. 세상에! 그런 바보 같은 말이 어디 있지? 하긴 뭘 해? 그냥 걸어 다니고, 놀고, 공부하고, 웃고 그러면 되지. 진짜 문제는 이 세상에서 뭘 할 지가 아니라, 뭘 하지 말아야 하는 지다. 예를 들어 상아 때문에 코끼리를 죽이는 짓은 하면 안 된다.

이 세상에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정말 많다.

— 『엄청나게 시끄러운 폴레케 이야기 2.』 중에서

상아를 얻기 위해 또는 사람들의 재미를 위해 서커스단이나 동물원에 갇힌 코끼리들, 재미나 과시를 위해 이용되는 생명이 많습니다. 당연하다 여기다 그림책을 보니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글밥은 제법 있지만 그림도 글도 편안해서 5세부터 함께 보면 ‘생명’ 있는 존재를 소중히 해야 한다는 마음이 스르르 생깁니다.

생명존중과 더불어 어른들은 코끼리의 고단한 삶에 감정이입할 듯합니다. 가보지 않은 길, 가볼 수 없는 길, 스스로 묶여 묶인 줄도 모르는 삶, 헤어나올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삶을 산 코끼리. ‘작은 코끼리’가 어떻게 서커스단으로 오게 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이제부터 이곳 사람들과 함께 지내야 할’ 것이고 코끼리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지요. 오고 싶어 온 것은 아니지만 왔으니 생의 순간순간에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내야 합니다.



숲으로 간 코끼리

하재경 글, 그림.

보림, 2007.

분야 : 그림책 / 추천대상 : 영유아, 성인

서커스단에서 동물원으로 팔려갈 처지에 놓인 코끼리는 요정을 따라 숲으로 갑니다. 그 곳에서 처음으로 하고 싶은 일, 진흙목욕을 합니다. 요정과 숨바꼭질도 하고 달빛내리는 나무아래서 편안한 잠에 빠져듭니다. 코끼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책을 읽는 동안 우리도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나는 무엇을 하고 싶었지?’ 코끼리와 함께 생각해봅니다.



나다운 게 행복한 거야!

한 선 영

군포시 중앙도서관 사서

이솝우화 『토끼와 거북이』의 뒷이야기로 만든 그림책 『슈퍼 거북』은 ‘토끼를 이긴 거북’으로 벼락스타가 된 거북이 꾸물이의 이야기이다.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경주하여 낮잠 자는 토끼를 이긴 거북 꾸물이는 ‘느릿느릿’의 상징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슈퍼 거북으로 불리며 빠른 아이콘이 되었다. 느린 자신의 모습에 다른 동물들이 실망할까봐 걱정이 된 꾸물이는 진짜 슈퍼 거북이 되기로 마음먹고 방법을 연구하며 더욱 빨라지려고 안간힘을 쓴다.

어느덧 꾸물이는 진짜 슈퍼 거북이 되어 비행기, 기차만큼 빨라지지만, 몸과 마음은 너무나 지쳤다. 엄청나게 빠른 슈퍼거북이 되었지만, 너무 지쳐서 피곤이 한가득하고 거울에 비친 모습은 두 눈이 쾅하니 찌든 모습이다. 딱 하루만이라도 예전처럼 느긋하게 지내고 천천히 걷고 싶다고 소망을 하면서 말이다. 그러던 중 토끼가 찾아와 재경주를 신청하고, 꾸물이는 마지못해 경주에 나서기로 한다. 이겨야 한다는 강박감에 잠도 못 이루던 꾸물이는 경주가 시작하자 바람처럼 달려 토끼를 제쳤고 안도감에선지 잠깐 쉬어간다는 것이 잠이 들어 눈을 떴을 때는 이미 토끼가 결승점을 지난 뒤였다. 재경주의 승자인 토끼가 새로운 슈퍼 토끼가 되고, 꾸물이는 축 처진 어깨로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갔지만 아주 오랜만에 단잠에 빠져들었다는 이야기다.

느림보 거북이가 날쌔 토끼를 이기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전래동화 같은



슈퍼 거북

유설화 글, 그림.

책읽는곰, 2014.

분야 : 그림책 / 추천대상 : 7세 이상

이야기가 아니라, 빠른 거북이로 살아야 했던 꾸물이의 처지를 생각해보며 진정한 행복이 무엇까 고민하게 하는 이야기이다.

표지는 샛노란 바탕에 빠르게 살자는 머리띠를 매며 마음을 다잡는 꾸물이의 모습이 그려져 있고 반짝이는 글자 『슈퍼 거북』이라는 서명이 왓지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어 읽고 싶은 의욕이 절로 생긴다.

표지를 넘기면 우리가 아는 이솝우화 속 『토끼와 거북이』 장면들이 그려져서 이솝우화를 모르는 어린이들이 읽더라도 무리가 없다. 뒤표지 안쪽으로는 재경주 후의 꾸물이의 삶이 그려져 느릿느릿 거북이로서의 꾸물이의 행복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웃음 띤 얼굴로 여유롭게 일상을 즐기는 꾸물이의 모습이 읽는 이도 기분 좋게 만든다.

하루아침에 스타가 되어 빠른 슈퍼 거북의 모습을 보여야 했던 꾸물이의 스트레스는 어땠을까? 이런 상황이라면 어떨까? 나의 본모습을 들킬까 봐 불안하고 사람들이 보는 시선에 맞추고자 진짜 나를 잃어버리게 된다. “더 노력해! 더! 더! 더!” 누군가 등 뒤에서 이렇게 말하며 지켜보는 느낌이 들것이다. 찬찬히 그림책을 넘기며 꾸물이의 표정을 살펴보니 슈퍼거북으로써의 꾸물이는 웃는 모습이 없다. 오직 이를 악물고 노력을 한다. 정상의 모습을 지키기 위해 꾸물이의 사소한 행복들은 사라져버렸다. 자고 일어나 아침에

거울을 보는 장면에서 두 눈은 충혈되고 다크서클이 입까지 내려온, 천 년은 늙어버린 듯한 꾸물이의 모습은 슈퍼 거북을 향한 훈련으로 힘든 몸도 이루어졌지만 빨라져야 한다는 스트레스로 인한 것은 아닐까?

토끼와의 재경주는 기존 『토끼와 거북이』 내용의 반대로 꾸물이가 원래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경주로 빠른 거북이 되어 슈퍼거북으로 살아야 했지만, 재경주를 통해 슈퍼거북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슈퍼거북으로 주위의 부러움 속에 사는 것을 멋지지만 원래 꾸물이의 모습을 지키며 다시 느릿느릿 꾸물이로 산다는 것, 그것이 꾸물이가 바라는 행복이 아닐까? 마지막에 그려진 꾸물이의 모습은 “그래 이게 꾸물이야! 이게 행복이지”라고 생각하며 웃음짓게 한다.

『슈퍼 거북』은 2014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사서가 추천하는 여름방학에 읽기 좋은 책, 2015 학교도서관사서협의회 추천도서, 책동이 추천도서로 선정되었던 책이라 벌써 많은 어린이가 읽어봤겠지만 다가오는 여름 방학 다시 한 번 읽어보며 나다움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바란다.



마법 상자를 열 때처럼 설레는 나날

이 가 영

평택시 안중도서관 사서

방학 때마다 할아버지 댁으로 놀러 오는 스티나의 모습은 현재와 과거를 각각 살고 있는 우리 나라의 어린이들을 떠올리게 한다. 10여 년 전에 초등학교 시절을 보냈던 사람들에게는 방학 때 시골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놀러가서 계곡에서 물장구 치고, 할머니가 찌주신 옥수수도 먹으며 방학을 보내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것 같다. 하지만 현재를 살고 있는 어린이들은 방학의 여유로움을 느끼지 못하고 보내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할아버지, 할머니 댁도 아파트이고, 도시인 경우가 많은 듯 하다.

스티나의 여름방학은 우리네 어린이들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외파로 떨어진 섬에서 할아버지와 단 둘이 지내지만, 외로움과 쓸쓸함은 찾아볼 수 없다. 섬 곳곳에 버려져 있는 잡동사니들이 스티나에게는 좋은 장난감이 되어 주기 때문이다. 여기저기에서 할아버지가 살고 있는 외딴 섬으로 흘러들어온 잡동사니들을 모아서 자신만의 예술세계를 만들어 가는 스티나의 모습이 보기 좋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없이는 여가시간을 보내기 힘들어하는 현재 우리나라의 어린이들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기 때문이다.

모험을 좋아하는 스티나는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에 할아버지 몰래 밖으로 나가고 할아버지는 침대에 없는 스티나를 발견하고 놀라서 스티나를 찾으러 밖으로 나간다. 폭풍우 치는 위험한 밤에 몰래 나간 손녀를 따끔하게 혼낼 수도 있지만 할아버지는 스티나를 혼내는 대신 폭풍우가 얼마나 무섭고 위험



스티나의 여름

레나 안데르손 글, 그림, 김동재 옮김.

청어람아이. 2015.

분야 : 그림책 / 추천대상 : 유아 이상

한지, 그리고 이렇게 거친 날씨엔 가족과 함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스티나와 함께 우비를 입고 같이 나간다. 자연 속에서 이런 저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하는 할아버지의 모습이 따뜻하게 느껴진다.

자연 속에서 많은 것들을 자연스럽게 배워가는 스티나의 모습과 그런 스티나의 옆을 지켜주는 할아버지의 모습은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교과서 속에서만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듯하다.

학교에서, 도서관에서 책에 파묻혀 지내면서 글자가 전해 주는 지식을 받아들이는 것도 좋다. 하지만 작열하는 태양과 위아래 모르고 휘몰아치는 폭풍우 속에서 직접 몸으로 부딪히면서 책에서 배울 수 있는 것과는 다른 지혜를 배워볼 수 있는 기회가 어린이들에게 주어진 어린이라면 그렇지 못한 어린이들보다 한 뼘은 더 성장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심술쟁이 애완동물 앵그리

박 지 원

안성시 공도도서관 사서

이 책은 주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던 심술쟁이 샘이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애완동물 “앵그리”를 통해 화를 다스리는 방법을 알고, 성장해 가는 이야기를 담은 책이다.

애완동물 “앵그리”는 우리가 내는 화를 비유한 것이다. 이 애완동물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해서 샘이 앵그리 때문에 자꾸 화가 나는 일이 생긴다. 샘의 사건을 통해 화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 그로 인해 일을 그르칠 수도 있고, 주변 평판도 안좋아지고 결국엔 좋지 않은 일만 계속 생기게 된다는 걸 알게 된다.

이 책은 어린아이들이 읽는 동화책으로서 재미난 그림, 재치 있는 표현 등으로 화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화를 잘 다스리지 못 하면 어떻게 되는지, 화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동화책에서 애완동물인 앵그리는 까맣고 큰 솜뭉치와 4개의 다리와 꼬리를 가지고 있는 심술궂은 동물로 묘사되어 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이 추상적인 개념의 ‘화’를 이해하기 쉽도록 도와준다.

이 책의 그림들은 화려하고 귀여워 아이들의 눈길을 끌어내기에 부족함이 없다. 이야기도 재미있고 몰입감도 좋아서 쉽게 술술 읽어낼 수 있다.



심술쟁이 애완동물 앵그리

상기타 바드라 글, 마리온 아보나 그림, 이태영 옮김.
키다리, 2015.

분야 : 그림책

아이들이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화에 대해 조금이나마 잘 알게 되고 화를 다스릴 수 있도록 노력하게 될 것이다. 심술궂고 화를 잘내는 어린이뿐 아니라 어린 자녀를 둔, 특히 자녀가 화를 잘 내거나 좀 심술궂은 아이를 둔 부모님에게도 권한다. 이 책을 통하여 아이들은 한 층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싱크 홀은 마음의 구멍이 됩니다.

이 연 수

수원시 북수원지식정보도서관 사서

싱크 홀! 요즘 심심치 않게 사건 사고 뉴스로 접하며 들었던 단어이다.

이 책은 싱크홀로 인해 가족을 잃게 된 얼룩무늬 고양이 얼룩이가 떠돌이 고양이로 된 사연을 사람들에게 말하듯 풀어내고 있다. 개발로 인해 폐허가 되다시피 한 동네에서 가족과 함께 지낸 얼룩이는 매일 공사로 땅을 파헤치는 모습에 불안한 마음을 느껴 다른 곳으로 옮기려는 엄마를 졸라 며칠만 더 지내자고 했다. 그런데 그 며칠 동안 싱크 홀이 생겨 엄마 동생, 그리고 집까지 모두 잃게 된다는 내용이다.

주인공 고양이가 고양이처럼 느껴지지 않고, 주변의 이웃들로 느껴지는 것은 잊을만하면 터지는 재해로 가족을 잃은 인재 사고들로 인해 가슴 아픈 사연들을 종종 접해서인가보다.

우리가 재해에 무방비로 노출되었다는 것을 다시 인식하게 해주고, 싱크 홀과 더불어 인간이의 욕심으로 인한 환경 파괴가 다시 인간에게 피해로 돌아오는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동화책이다.

책을 읽는 내내 마음이 무거운 것은 내용도 마음 아픈 내용이지만 그림책 전반이 검은색과 회색으로 채색되고, 책에 나온 사람들의 모습도 얼굴의 윤곽을 드러내지 않은 점, 하반신의 모습만 표현되어, 혼자 감당해야 되는 고양이의 절박함 등이 우울함을 더한다. 그림이 주는 무게감이 더 전달되어지는 책이다.



싱크홀이 우리 집을 삼켰어요!

김수희 글, 이경국 그림.

미래아이, 2015.

분야 : 그림책 / 추천대상 : 초등학교

그림책 마지막 구절 ‘구멍은 아직 메워지지 않았어요. 머지않아 흔적도 없이 사라지겠지요. 하지만 내 마음에 난 구멍은 결코 메워지지 않을 거예요’란 말이 마음속에 계속 울린다. 앞으로는 도로위의 구멍으로 마음의 구멍이 생기는 일이 없기를 희망한다.



모든 것을 삼켜버린 거대한 싱크 홀

박 지 원

안성시 공도도서관 사서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싱크 홀’을 주제로 쓴 미래 환경 그림책이다. 아름답고 정교한 연필화는 홀로 남겨진 얼룩이의 슬픔을 잘 전하고 있다.

싱크홀은 지하 암석이 용해되거나 원래 있던 동굴이 무너지면서 생기는 구덩이로, 바닷 속에 생긴 싱크홀은 블루홀이라고 한다. 싱크홀은 지하수가 빠져나간 자리에 빈 공간이 생기면서 지반이 약해졌기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요즘에는 무분별한 개발로 땅 속에 있는 지하수를 마구 끌어다 쓰고 있기 때문에 싱크홀이 생긴다. 이 책은 그렇게 생긴 싱크홀로 인해 집과 가족, 그리고 이웃을 잃은 얼룩무늬 수고양이 얼룩이의 이야기이다.

얼룩이는 엄마와 두 동생 아롱이, 다롱이와 함께 사람들이 떠나 버린 낡은 집의 뒷마루 아래에서 살고 있었는데, 옆집에는 날마다 얼룩이네 가족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주는 착한 할머니도 살고 있었다. 그렇게 행복하고 한적히 살고 있던 도중 어느 날부터인가 근처에서 땅을 파헤치며 공사를 하다 보니 햇볕이 따듯한 한낮에 마당에 큰 구멍이 나며 얼룩이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이 모두 그 구멍에 빠져 죽고 말았고 옆집 할머니는 그 구멍에 빠졌다가 구조되었다. 얼룩이는 큰 소리로 사람들에게 물어봤지만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고 떠났고, 얼룩이는 길고양이가 되어 혼자 살고 있다.



싱크홀이 우리 집을 삼켰어요!

김수희 글, 이경국 그림.

미래아이, 2015.

분야 : 그림책

이 이야기에서처럼 싱크홀로 인한 피해가 요즘 속속들이 늘고 있어서 세계적으로 싱크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우리부터 무분별한 개발을 멈추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수자원 관리에 힘쓰며 자연을 사랑하고 아끼며 어린이들에게 이처럼 환경파괴가 가져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야 한다.

이 책은 어린이들에게 고양이 얼룩이의 이야기를 빗대어 우리는 환경오염을 막고 자연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이 책을 소개해주며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그 아이들이 자라났을 때도 되풀이하는 것을 막기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싸움에 관한 위대한 책

이 수 경

평택시 장당도서관 사서

『싸움에 관한 위대한 책』은 27×34cm로 시원한 크기입니다. 표지에 둥그란 얼굴에 빨간 반창고, 팔깁스 한 녀석이 헤벌쭙 웃고 있습니다. 화살표로 뒤표지를 보라고 안내까지 했습니다. 녀석의 뒷모습에 이 책과 싸움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책을 들춰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 장면부터 초등학교 교실의 난장판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노는 건지 싸우는 건지 분간이 안 되는 이 장면. 이제 시작입니다.

도대체 싸움은 언제 어떻게 시작된 걸까?(인류 탄생과 함께 태어난 싸움, 여전한 사소함)

싸움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싸움의 효능에 대한 상세설명이 글과 그림으로 이어집니다) 싸움은 어떻게 시작되는가?(길거리의 혼한 눈싸움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절묘한 설명입니다)

싸움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는 말로 싸움의 종류를 가릅니다. 정의롭지 못한 싸움, 공정하지 않은 싸움,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진정한 싸움에 대해 알려줍니다. 그리고 어른의 입장에서 씩씩한 웃음이 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장난 끝에 싸움난다고 아이들을 타이르는 어른들이 아이들 운동 경기에서 숨넘어가는 경쟁심을 보입니다. 싸움의 원인을 짚어보기도 하고 여자아들도 싸움을 하는지 궁금해 하기도 하고 싸움을 하려면 몇 명이 필요한지 언제 끝나는지,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던지는 답 없는 질문을 보여줍니다. 자 그럼, 싸움이 끝난 뒤, 뭘 얻나요? 책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싸움에 관한 위대한 책

다비드 칼리 글, 세르주 블록 그림, 정혜경 옮김.

문학동네, 2015.

분야 : 그림책 / 추천대상 : 초등전학년

다비드 칼리와 세르주 블록이 함께 만든 『위대한 책』은 투닥투닥 대는 아이들의 싸움을 통해 무엇이 정의이고 공정한 것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책은 아이들보다 어른들이 보아야 합니다. 어른들의 뒤를 쫓으며 크는 아이들은 어른들이 제대로 싸울 줄 안다면(싸움의 유형 중에서 정의롭지 않는 싸움과 공정하지 않는 싸움을 하지 않아야겠죠) 아이들도 선을 넘을 이유가 없겠지요. 에너지 넘치는 아이들이 구르고 넘어지고 깨지면서 크는 모습을 여유롭게 볼 필요를 느끼는 책이기도 합니다.

주변에 에너지 넘치는 아이들이 있다면 잠시 혈떡이는 숨을 고를 때 읽어 주기 딱 좋은 책입니다. 그 녀석들은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부분 공감하고 더 넣고 싶은 이야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싸움에 관한 더 위대한 책이 나올 수도 있겠지요.

기왕에 아이들과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서 전쟁과 평화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 나누고 싶다면 다시마 세이조의 『내 목소리가 들리나요』와 하마다 게이코의 『평화란 어떤 걸까?』를 권합니다. 전쟁터의 참상을 그림책을 통해서나마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평화란 어떤 모습일까요? 평화는 전쟁 없는 상태일 뿐 아니라 ‘잘못을 저질렀다면 잘못했다고 사과하는 것’이며 ‘너와 네가 태어나길 잘했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너와 내가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싸움에 대한 가장 위대한 책은 평화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책입니다.



아빠하고 나하고

이 은 주

남양주시 오남도서관 사서

요즘 인기 있는 TV프로그램으로 아빠들이 육아를 하고, 아이들과 여행을 다니는 프로그램들이 대세다. 그 영향인지 요즘에는 아빠들이 육아나 함께하는 놀이에 많이 신경을 쓰게 된 것 같다. 주말이면 아빠와 함께 도서관을 찾는 아이들도 많아졌다. 아빠들은 더 힘들어 졌을까? 평일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주말에는 아이들과 놀아주고...

표지에는 아이와 아빠가 너무나 행복한 모습으로 자전거를 타고 있다. 이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저런 표정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며 책을 펼쳤다.

예준이 아빠는 잠꾸러기다. 예준이는 아빠랑 축구도 하고, 자전거 타며 놀고 싶은데, 아빠는 쉬는 날에는 쿨쿨 자거나 텔레비전만 보고, 밤에는 책을 읽어 주다가 예준이보다 먼저 잠이 든다.

어느 날 예준이와 실컷 놀아주기로 약속하고 아빠는 또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만 본다. 예준이는 목이 말라 부엌에 갔다가 컵을 떨어뜨려 발을 다치게 된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을까? 아빠는 이제 예준이와 잘 놀아 준다. 아빠에게 두발 자전거도 배우고, 다리가 아플 때는 아빠의 자전거 뒤에 올라타 허리를 끌어안고 기대기도 한다.

“아빠 등은 넓고 편안해요. 뽕뽕 달려도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눈을 감자 자전거가 두둥실 날아오르는 것 같았어요.” 예준이는 아빠와 행복한 시간을



아빠가 좋아요!

한은선 글, 천필연 그림.

지경사, 2015.

분야 : 그림책 / 추천대상 : 유아

보내며 아빠의 사랑을 느끼게 된다.

이 책은 아빠와 아이의 심정을 사실적으로 잘 묘사하고 있다. 아이와 놀아줘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몸이 피곤한 아빠, 아빠가 피곤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아빠와 함께 놀고 싶은 아이. 미안함과 고마움과 사랑스러움.

내용도 재미있지만 그림이 재미있다. 얼굴표정을 보면 감정을 읽을 수 가 있다. 피곤에 지쳐 코를 골며 자는 아빠, 놀아주기를 바라는 아이, 미안해하는 아빠, 고마워하는 아이, 행복해 하는 아이와 아빠 등 익살스러운 표정과 재미있는 그림이 책 읽는 즐거움을 더 해 주고 있다.

아이와 아빠가 함께 읽으며,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

아빠의 소중함은 어느 정도일까?

이 연 수

수원시 북수원지식정보도서관 사서

그림 첫 장부터 호기심이 생긴다. 아빠에게 “양념 반 프라이드 반”을 주문한 주인공 아리,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치킨으로 첫 장을 열었으니 이권 역시 생활밀착형이다. 생활 속 사소한 부분을 잘 끌어낸 소중에 작가의 매력이 엿 보인다.

책 제목이 다소 어마 무시한 『아빠를 버렸어요』였기에 왜 아빠는 왜, 어떻게 버림을 받을까 궁금했다. 딸에게 버림받은 이유는 몇 번이나 부탁한 치킨 주문을 아빠가 까먹었기 때문이다. 고작 치킨 주문하는 것을 까 먹었다고 아빠를 버리다니..., 처음엔 너무 어처구니없었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 유아들에게는 그럴 수도 있겠다. 게다가 어른들에게는 심각하게 다가온 ‘버린다’라는 단어를 아이들은 조금 다른 의미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 관계의 단절이나, 헤어짐의 개념보다는 단순한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벼운 ‘싫어’ 일 수도 있을 테니깐 말이다.

아빠에게 불만이 생긴 아리는 ‘아빠를 버리겠다’고 하고, 그런 아리에게 엄마는 가정에 아빠가 없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알게 해주려 한다. 아리는 아빠가 없다는 사실에 처음엔 불편해하다가 차츰 아빠의 필요성을 알게 되고, 결국에는 아빠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다는 내용이다.

내용도 짧고 그림도 아이들이 보기에 재미있게 그려졌지만 무엇보다 이



아빠를 버렸어요

소중애 글, 고우리 그림.

봄봄. 2015.

분야 : 그림책 / 추천대상 : 유아

책의 장점은 웃음 속에 깨달음을 주는 것이다. 가족의 소중함, 특히 아빠의 소중함을 아리 토래의 유아나 저학년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재미있게 알게 해준다.

책을 읽고 나서도 계속 미소가 번지게 된다.



과자를 또 먹고 싶어, 건드리지 마

공 정 자

안성시 진사도서관 사서

표지의 남자 주인공이 ‘안 돼, 내 과자야!’ 라고 외치는 장면과 함께 크기가 다른 제목 글씨체와 상단에 있지 않고 중간에 있는 제목의 위치가 과자가 내 것이라는 것을 더욱 강조한다.

주인공은 아빠가 사온 과자가 너무 맛있어서 더 먹고 싶다. 학교에 간 사이 동생이 남은 과자 3개를 다 먹을까 걱정이다. 집에 도착해 과자를 갖고 있는 동생에게 화를 버럭 낸 주인공은 부끄럽다. 작가는 어렸을 때 아빠가 해외출장에 돌아오면서 사온 과자를 몰래 꺼내먹던 경험이 있었다고 한다.

인물을 세밀하게 그린 그림은 아니지만, 과자를 너무 먹고 싶어 하는 남자 주인공의 심리를 잘 표현했다. 수학시간에 과자 생각에 군침을 흘리고 빨리 집에 가기 위해 달리는 주인공의 모습이 현실감 있게 그려져 있다. 빨강색, 파란색, 노란색, 주황색 등 다양한 색깔로 주인공의 심리를 잘 표현한 그림도 인상적이다.

맛있는 과자를 또 먹고 싶은 마음, 과자를 빼앗기고 싶지 않은 오빠의 마음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어서 책을 보면서 저절로 웃음이 나온다. 여동생도 과자를 먹고 싶었겠지만, 오빠가 올 때까지 기다린다.

나 하나, 동생 하나, 나머지는 동생과 반으로 나눠먹는 끝 장면은 마음을 훈훈하게 한다.



안 돼, 내 과자야!

백주희 글,그림.

책읽는곰, 2014.

분야 : 그림책 / 추천대상 : 5~7세

윤지희의 『뽕가맨』에서 온통 로봇에 마음이 빼앗겨서 모든 것이 ‘뽕가맨’으로 보였던 어린이의 마음과 같이 과자를 먹고 싶은 어린이의 간절한 마음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도록 잘 표현했다. 어린이들에게 읽어주기에 좋은 책이다.



집으로 가는 길을 물어보았어요.

이 은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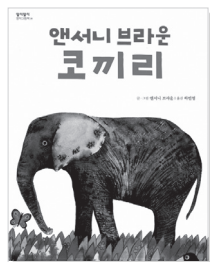
남양주시 오남도서관 사서

앤서니 브라운의 신작 『코끼리』, 아니 이것은 엄밀히 말해 신작이 아니다. 그가 처음으로 그리고 쓴 그림동화책으로 영어로 썼지만, 영국보다 한국에서 한국어로 처음 출판된 책이다. 그의 첫 그림책으로 알려진 『거울 속으로』보다 먼저 썼으나 출판사의 거절로 몇 십 년 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출간하게 되었다고 한다.

호기심 많은 새끼 코끼리가 알록달록한 식물들을 신기해하며 숲 속으로 들어갔다가 길을 잃어 사자, 고릴라, 악어, 하마, 뱀, 표범에게 집으로 가는 길을 물었으나 도움을 받지 못하다가, 작은 생쥐 한 마리가 집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어 무사히 집에 돌아올 수 있었다는 이야기이다.

앤서니 브라운의 이야기에는 크고 강해 보이는 존재와 작고 약해 보이는 존재를 대조해서 보여준다. 『킹콩』에서는 거대한 킹콩과 연약한 여인이, 『고릴라』에서는 아빠를 대신하는 고릴라와 어린 여자아이인 한나가 나온다. 또한 작고 약해 보이는 존재가 크고 강해 보이는 존재를 도와준다. 『터널』에서는 겁 많아 보이는 여동생이 오빠를 구해주고, 『헨젤과 그레텔』에서는 여동생이 무서운 마녀를 물리친다. 『코끼리』에서도 코끼리가 작은 생쥐에게 도움을 받는 것처럼, 그는 겉보기와는 다른 면을 보여주려고 한다.

이 작품의 그림은 앤서니 브라운의 요즘 작품과 조금 다르다. 밝고 화려하



앤서니 브라운 코끼리

앤서니 브라운 글,그림, 하빈영 옮김.

현복스, 2015.

분야 : 그림책 / 추천대상 : 유아

다. 책 뒷부분에 인터뷰 기사에 의하면 “이 첫 작업은 요즘 작업과 비교하면 더 즉흥적이고 단순한 특징이 있습니다. 단순하다는 게 부정적이란 의미는 아니에요. 수채화 기법으로 마음이 이끄는 대로, 영감이 떠오르는 대로 재빨리 작업했어요. 색조도 더 밝고 다양하게 했지요. 그런데 요즘은 배경 하나 하나도 글과의 연관성을 생각하며 상징적 기법을 차용하곤 합니다. 『코끼리』를 그렸던 당시에는 좀 더 순간적 영감에 의존을 많이 한 셈이지요.”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림책이기에 밝고 화려했고 즉흥적이고 단순해도 좋다. 화려한 숲속은 한참을 살펴봐도 질리지 않는다. 새끼 코끼리를 따라 숲속을 깊숙이 따라가게 된다. 숲속에서 만난 사자는 졸린 듯 하고, 고릴라는 언짢아 보이고, 하마는 행복해 보이고, 화려한 뱀은 잘 나 보인다.

세계적 그림책 작가 앤서니 브라운의 첫 책을 한국에서 한국어로 처음 출간하여 한국의 어린이들이 먼저 볼 수 있었다는 것에 감사함과 기쁨을 느끼며, 세계 다른 나라에서도 출판되어 기쁨을 함께 했으면 하는 마음과 작가의 다음 작품도 기대해 본다.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

이 가 영

평택시 안중도서관 사서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케이블 TV 프로그램이 하나 있다. 그 프로그램의 배경은 강원도의 시골인데, 등장인물들이 직접 지은 농산물을 가지고 하루 세 번씩 밥상을 차리는 것이 프로그램의 주된 내용이다. 농사와 요리라는 아주 단순하고 일상적인 주제를 가지고 만들어 낸 것이 뭐 그리 특별할 것이 있나 싶지만, 요즘의 우리 사회에서는 특별하다. 수도권에 살고 있는 사람의 수가 전체 인구의 절반에 육박하는 대한민국에서 직접 농사지은 채소를 가지고 요리를 해 먹는 사람은 시골에서 살고 있는 사람을 제외하면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어린 도시농부 소피』는 특별하다.

도시에서 살고 있는 소피는 방학을 맞이해서 할아버지 댁이 있는 시골로 내려간다. 할아버지 댁에서 계절마다 바뀌는 채소들을 직접 기르고 수확하며 즐겁게 지내는 것이 이 책의 주된 내용이다. 계절마다 바뀌는 밭의 변화와 농사지를 때 주의할 점, 작물마다 다른 재배법은 『어린 도시농부 소피』를 보는 독자로 하여금 나도 한번 농사를 지어보고 싶다는 욕구를 샘솟게 한다.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많은 어린이들도 책에 나오는 도시농부 소피처럼 채소는 마트에서만 살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어린이들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채소의 재배법, 채소가 재배되는 모양, 뿌리를 먹는 것인지 꽃을 먹는 것인지 잘 모르는 어린이들이 이 책을 읽어보고 직접 길러볼 수도 있다면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 생명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어린 도시농부 소피

제르다 뮐러 글,그림. 이효숙 옮김.

내인생의책. 2015.

분야 : 그림책

생각한다. 게다가 이 책에서는 채소의 실제적인 모양이나 계절, 낮과 밤의 변화를 생생한 색감과 직관적인 그림체로 그려내고 있어서 어린이들이 이해하기에 쉬울 듯하다.

우리 민족은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고 해서 농사를 모든 일의 뿌리로 생각하고 살아왔다. 농사가 만사의 기본이라는 것은 비단 우리 민족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모든 인간은 먹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요즘은 기술이 발달하여 다종다양한 공산품들을 통한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고 있는 우리지만, 『어린 도시농부 소피』를 읽으면서 자연의 소중함과 고마움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어쩌다 여왕님

권혜림

평택시 시립도서관 사서

만약 우리가 여왕이 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 우리나라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만 한번쯤은 왕이나 여왕이 되는 꿈을 꾸 적이 있을 것이다. 이런 판타지를 충족시켜주듯 왕족이었던 아빠의 존재를 알게 되며 여왕이 되어야만 하는 영화도 있지 않은가. 어렸을 때도 우리는 공주님이나 왕자님 놀이를 하며 자신이 정말 왕족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끼기도 한다. 우리는 왜 이런 꿈을 꾸는 것일까? 아마도 이러한 자리는 원한다고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닌 태어날 때부터 선택 받은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권력의 중심에서 모든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자리이기에 이러한 상상을 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어쩌다 여왕님』은 바로 우리가 꿈꾸어 오던 자리에 앉게 된 개구리의 이야기이다. 그들의 세계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평범하게 살아가던 개구리들의 연못에 어느 날 빛나는 무언가가 떨어진다. 모든 개구리들이 그곳을 향해 달려가지만 쟁취하는 개구리는 단 한 마리. 그 개구리가 얻게 된 것은 바로 빛나는 왕관이었다. 왕관을 차지한 개구리는 그 날로 여왕에 자리에 오른다. 하지만 여왕을 가져 본 적이 없는 개구리들은 어찌해야할지를 모른다. 심지어 왕관을 가진 여왕개구리조차도 말이다. 그러나 개구리들은 곧 여왕을 받아들인다. 자청하여 신하가 된 개구리들은 여왕개구리를 물이 닿지 않는 널따란 연잎위에서 쉴 수 있게 하고 물도 닿지 않게 하며 통통한 파리를 바쳐 여왕개구리가 편안히 있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그리고 여왕개구리는 자신이 가진 권력으로 다른 개구리들에게 명령하고 그 명령에 따르



어쩌다 여왕님

다비드 칼리 글, 마르코 소마 그림, 루시드 폴 옮김.

책읽는곰, 2014.

분야 : 그림책 / 추천대상 : 유아 이상

지 않는 개구리에게 벌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이런 여왕 개구리와 그를 모시는 신하들에게 끊임없이 파리를 잡아다 바치게 된 다른 개구리들은 힘이 들어 더 이상 노래를 부리지 않게 된다. 개구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게 된 상황에 온 것이다. 이때 한 개구리가 의문을 갖는다. 어쩌다 저 개구리가 여왕님이 된 것일까 하고 말이다. 신하개구리는 대답한다. 왕관을 찾은 개구리기 때문이라고. 왜 왕관을 찾은 개구리가 여왕이 되는 것이냐고 되묻자 여왕은 누구보다 빠르고 모든 면에서 뛰어나야하기 때문에 가장 빨리 왕관을 찾은 개구리가 여왕이 되어야한다고 말한다. 이렇게 여왕을 모시게 된 개구리들은 과연 끝까지 여왕에 충성하는 개구리가 될까? 그리고 여왕이 된 개구리는 여왕의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

이 책의 개구리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된다. 여왕개구리와 그 신하들 같이 권력을 가진 자와 그 권력에 편승하는 자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그들은 권력의 힘을 알기 때문에 권력을 가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며, 심지어는 권력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그리고 권력을 가지는 순간 자신의 예전모습은 잊어버리고 권력을 가지지 못한 자들을 하찮게 여기고 정당하지 못한 권력을 행사한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다. 권력은 영원하고 무한하지 않으며 정당하지 못한 권력에 따르는 책임은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권력을 부여해줄 수 있는 것은 바로 권력을 가지지 못한 자들이라는 것을 말이다.



잠시 멈춤!

이 수 경

평택시 안중도서관 사서

최근 미국 뉴욕타임스에 ‘잔디깎기 맘’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자녀의 성공에 방해가 되는 걸림돌을 미리 없애주는 부모를 일컫는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헬리콥터 맘, 켄거루 가족 등 자녀의 교육과 성공에 모든 것을 거는 부모들을 일컫는 신조어들입니다. 이 관계는 부모가 자녀의 성공에 모든 것을 거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자녀 또한 부모의 말에 무조건 따른다는 전제가 붙습니다. 탈무드의 ‘진실은 무거워 젊은이들만이 옮길 수 있다’라는 말은 기성세대의 농익은 처세와 달리 젊은이들의 선부름과 열정이 세상을 바꾸는 길이 될 수도 있음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부모 말을 잘 듣는 ‘착한 아이’들이 진짜 문제아들일 수도 있겠습니다. 탈무드에 따르면 세대 간 다른 의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기성세대의 말을 잘 듣는 젊은이들이 무거운 진실을 옮길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엄마, 잠깐만!』의 아이는 세상 신기한 것들에 빠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반짝이는 동그란 눈, 웃음 가득한 입매, 바쁜 엄마와 다른 세상을 볼 채비를 단단히 한 아이의 마음은 벌써 어딘가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거리에서 만난 개와 인사를 나누고 위험한 공사장의 아저씨 모습에 감탄하고 어항의 알록달록 물고기, 맛난 길거리 음식에 빠지다 때마침 오는 비. 아이는 빗방울을 먹고 느끼느라 빨리 가자고 조르는(?) 엄마와 실랑이를 벌입니다, 엄마에게 거의 끌려가다시피 하는 아이. 아이가 외칩니다.



엄마, 잠깐만!

앙트아네트 포티스 글, 그림, 노경실 옮김.

한솔수북, 2015.

분야 : 그림책 / 추천대상 : 영유아와 보호자가 함께 읽는 책

“엄마, 진짜, 진짜로 잠깐만요.”

방송 뉴스에 무표정한 어른들의 조급하고 바쁜 발걸음을 비출 때가 있습니다. 순간의 목표와 약속에 묶여 경주마처럼 뛰는 어른에 비해 아이들은 매 순간 오감을 열고 세상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늘 명령하는 어른들이지만 아이가 ‘진짜, 진짜 잠깐만’을 외치면 ‘진짜, 진짜 잠깐만’이라도 아이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만 아이가 발견한 놀라운 그 무엇과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다행스럽게도 엄마는 아이와 늘 다른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었지만 결정적인 순간 말합니다.

“그래, 우리 잠깐만…….”

아이와 엄마가 소통하는 순간입니다. 아이와 함께 한 이 순간들이 쌓여 삶을 수놓습니다. 앙트아네트 포티스의 경쾌하고 담백한 그림은 ‘빨리 빨리’ 엄마와 ‘잠깐만’ 아이의 입장을 조화롭게 드러냅니다. 엄마도, 아이도 할 일을 합니다. 늘 같은 입장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갈등하고 화해하고 결정적 순간을 함께 하며 살아갑니다.

● ● ● 자연의 품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서정적인 모습

조 수 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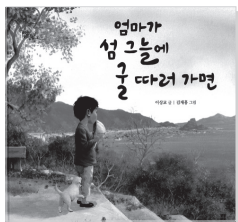
가평군 조종도서관 사서

“엄마가 섬 그늘에~”로 시작되는 동요. 누구나 한번쯤 불러 본 노래일 것이다. 내가 초등학교 시절 정겨운 리듬으로 반 친구들과 합창으로 불렀던 노래, 이 작품은 「섬 집 아기」라는 시 한 편을 그림 동화책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해당화 피어있는 바닷가를 연상하게 하고 집에 혼자 남은 외로운 아이의 모습이 떠오른다. 멀리 바다에서 파도 소리와 갈매기 나는 소리도 들려 오고 있다. ‘그림 동화책을 이렇게 아름다운 색채로 표현해 낼 수 있구나!’ 그림 책을 보고 새삼 감동이 전해 왔다.

한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펼쳐지는 아름다운 그림들, 저절로 심신이 평화로워지는 느낌들, 귀여운 동이를 그림 속에 들어가 꼭 안아주고 싶은 충동이 일어난다.

엄마랑 단둘이 사는 동이네 집은 바다가 내려 보이는 언덕에 덩그러니 자리하고 있다. 웬지 쓸쓸해 보이는 엄마와 아들, 바다 물떼에 맞추어 엄마는 굴을 따러 나가고 동이 혼자 집을 보게 된다. 바닷바람 따라 미역 냄새, 파래 냄새가 마당까지 들어오고 혼자 남은 동이는 조개껍데기로 동산을 만들어보고 강아지와 고양이랑 평상에 누워 소라껍데기에 귀를 대어 보다 잠이 든다. 그러는 동안 엄마는 쉴 새 없이 굴을 따다 동이 걱정으로 집을 향해 내어다 보고 엄마를 기다리고 있을 동이를 생각하며 서둘러 집으로 돌아온다. 평상에서 잠을 자고 있는 동이에게 엄마는 볼에 뽀뽀를 해준다. 철썩 거리는 파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라 가면

이상고 글, 김재홍 그림.

봄봄, 2013.

분야 : 그림책 / 추천대상 : 유아~초등저학년

도 소리를 들으며 엄마는 동백나무 아래에서 동이를 안고 자장가를 불러 준다. 이 동화는 어른들은 잘 알고 있는 「섬 집 아기」 노래를 각색한 동화이다. 책을 읽고 동요를 한 소절 불러준다면 아이들에게는 더 인상깊게 남을 것이다. 동요를 그림동화책으로 바꾼 거라기보다는 아름다운 시 한 편을 동화로 옮겨놓은 듯하다.

동화책 뒤쪽에 동요 소개와 작가의 글이 실려져 있다. 부산에서 피난살이를 하던 작가는 부산 앞바다의 작은 섬에 갔다가 오두막에서 홀로 잠자는 아기를 보고 이 시를 지었다고 한다. 아직 어린 아이를 남겨 두고 일을 나가야 했던 어머니의 애절한 마음과 엄마를 기다리다가 파도 소리를 자장가삼아 잠이 든 아기의 모습에서 소박하고 자연의 품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엿볼 수 있었다고 한다. 바닷가 사람들의 모습을 구슬프면서도 아름답고 서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즐겨 듣고 부르면서 떠올렸던 풍경들을 그림동화책으로 만들어 더욱더 아름다운 색채로 표현해 준 이 책을 어른이나 아이나 꼭 한 번 읽어봤으면 좋겠다.



하지만 걱정 마

정은영

경기도사이버도서관 사서

‘월요병’, 직장인들에게 일상으로 향하는 월요일 아침은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오죽하면 ‘월요병’ 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이 월요병은 직장인들에게만 있는 건 아닙니다. 학생들에게도, 유치원생들에게도, 어린이집에 가는 유아들에게까지도 이 ‘월요병’ 이 있습니다.

『엄마는 회사에서 내 생각 해?』에서의 ‘은비’도 ‘월요병’이네요. 유치원에 가기 싫은 것에서 더 나아가 “엄마, 오늘 회사 안가면 안 돼?”라면서 엄마의 치맛자락을 붙들입니다. 엄마는 ‘월요병’ 같은 건 앓을 새도 없다는 듯이 은비를 먹이고, 씻기고, 입혀서 데리고 나갑니다. 유치원에 제일 먼저 도착하는 일은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 친구들 없는 교실은 허전하기 그지 없으니깐요. 아무리 선생님이 웃어준다고 해도 웃음이 날 턱이 없죠.

엄마의 퇴근이 늦어지는 것도 쓸쓸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들이 다 집으로 돌아가서 놀 친구도 없고, 선생님은 내일을 위해 어린이집 청소하기 바쁘죠. 어쩌면 유치원에 제일 먼저 도착한 ‘은비’보다 어린이집에 마지막으로 남게 된 『엄마가 오는 길』의 ‘연이’가 더 쓸쓸할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아이 ‘연이’에게는 ‘곰돌이’ 뿐입니다. 창밖엔 햇살이 기울고, 어린이집 실내도 조금씩 어두워져 갑니다.

“엄마는 회사에서 내 생각 해?”라는 질문에 그림책이 답을 합니다. 유치원에 내려주고 회사를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회사에 도착해서도, 점심을 먹



엄마가 오는 길

모토시타 이즈미 글, 오카다 치아키 그림, 김소연 옮김.
천개의바람. 2015.

엄마는 회사에서 내 생각 해?

김영진 글, 그림. / 길벗어린이. 2015.

분야 : 그림책 / 추천대상 : 유아와 부모

으면서도 은비를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퇴근이 늦어질 것 같으면 마음이 급해지죠. “엄마는 회사에서 내 생각 해?”라고 당돌하게 묻는 아이는 어떤 모습일까요?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신나게 놀기도 하고, 싸우고 억울해 하기도 합니다. 엄마와 딸이 같은 시간대를 지내며 하루를 보냅니다.

『엄마가 오는 길』의 연이는 조금 더 씩씩합니다. 엄마가 왜 늦는지에 대해 곰돌이와 이야기를 나눕니다. 엄마가 예전에 했던 말, 행동을 하나하나 떠올립니다. 그 안에서 엄마와 연이가 얼마나 끈끈한 유대감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더불어 그 이야기 사이에 연이를 향해 오는 길을 재촉하는 엄마의 모습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엄마와 딸이 서로를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엄마는 회사에서 내 생각 해?』는 밝고 경쾌합니다. 고대영의 『지하철을 타고서』등 ‘지원이와 병관아’ 시리즈의 그림을 그렸던 김영진 작가가 쓰고 그린 책입니다. 그 전 작의 그림책에서도 작은 숨은 그림을 찾을 수 있었는데 이번 작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여운 핑크 돼지를 찾는 재미가 솔솔합니다. 그림은 좌우면이 대칭됩니다. 좌측엔 엄마의 삶이, 우측엔 딸의 삶이 드러납니다. 엄마가 회의할 때 은비는 발표를 합니다. 엄마도 점심을 먹고, 은비도 점심을 먹지요. 엄마가 회사에서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때 은비도 울고 싶지만 꼭 참아냅니다. 엄마와 딸이 무척 닮았군요. 그렇게 딸은 엄마를 닮아가게 되겠지요.

『엄마가 오는 길』은 그림책의 시제가 해질 무렵이라서 그런지 그림의 톤이 차분합니다. 해질 무렵을 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실내와 실외의 차이 일까요? 아니면 엄마의 부재 차이일까요? 똑같이 어둑어둑하지만 엄마가 오는 길 장면은 좀 더 밝고, 연이가 있는 어린이집 실내는 그림자가 좀 더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래도 노을빛의 따뜻함이 그림책 전반에 펼쳐있습니다. 다음 날을 준비하는 듯 깨끗이 정리된 어린이집의 풍경이 차분합니다. 엄마가 오니 연이의 얼굴에도 화색이 들고, 어린이집도 좀 더 화사해 보입니다. 연이도 적극성을 띄고요. 엄마의 존재하는 힘의 크기가 그림에 느껴집니다. 그림책 마지막에 붙어 있는 ‘작가의 말’도 참 따뜻합니다. “한없이 안심이 되곤 했다.”는 심정이 어떤 것인지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한껏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엄마는 회사에서 내 생각 해?』의 은비가 밝고 쾌활한 아이로 느껴진다면, 『엄마가 오는 길』의 연이는 차분하고 따뜻한 아이로 느껴집니다. 글의 내용도 그렇지만 그림을 그린 재료의 차이에서도 그렇게 느껴집니다. 연필이나 색연필은 따뜻한 느낌을 주니까요. 자칫 차갑고 쓸쓸할 법한 저녁과 밤의 모습이 사뭇 따뜻하게 느껴지도록 한 그림 작가의 세심함이 돋보입니다.

사회가 다각화되어가고, 모든 사람의 경제적 활동이 자연스러운 일이 되면서 일하는 엄마들의 고민이 커져갑니다. 아이를 다른 사람 손에 맡기고 회사를 향해가는 발걸음이 가벼울 일 없겠죠. 벌써부터 개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아이들도 고단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제일먼저 유치원 교실에 들어서면서, 때론 가장 늦게까지 어린이집에 남아있으면서도 엄마와 아빠를 이해하곤 합니다. 이런 고단한 현대의 삶 속에서도 사랑은 꽃 피우고 있습니다. 일하는 틈틈이 자녀를 떠올리면서 걱정하면서도 안심하고, 미안해하면서도 감사해하는 엄마, 아빠들이 있습니다. 엄마랑 좀 더 놀고 싶지만 헤어질 줄도 알고,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사이좋게 놀기도 하고, 때로는 싸우고, 억울해 하면서도 씩씩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엄마가 왜 늦을 수밖에 없는지

나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말이죠.

『엄마는 회사에서 내 생각 해?』가 엄마를 대변해 준다면, 『엄마가 오는 길』은 아이를 대변해 줍니다. 두 가지 책 모두 엄마와 딸 사이에 흐르는 애절한 마음을 잘 표현해 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엄마, 아빠와 헤어져야 하는 아이들과, 그 아이들을 떠올릴 때마다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드는 바쁜 부모들에게 이 책을 권합니다.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차분히 읽어준다면 더욱 좋겠지요. 아니 책을 읽어주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두 손을 맞잡고, 서로를 꼭 안아주며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서로의 따뜻함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말이에요.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면 지금 어려워 보이는 이 시기도 건강하게 잘 넘길 수 있을 겁니다. 부모와 아이 모두를 응원하는 이런 그림책을 환영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못 된 아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아이가 되는 방법

유 향 숙

성남시 판교도서관 사서

세상에서 가장 못된 아이는 어떤 아이일까?

세상에서 가장 못된 아이는 없다.

어른들의 시각에서 아이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바라볼 뿐이다. 아이들은 불친절하다. 자신의 행동에 일일이 설명하지 못한다. 단지 본능적으로 타고난 기질로 움직이고 반응할 뿐이다.

에드워드도는 꾀나 말썽을 피우는 아이인가 보다. 그러나 자아가 완성될 시기(유아 5세에서 초등 2학년)에 소리를 지른다거나, 버릇없이 군다거나, 동생을 괴롭히고, 찢지 않는 등의 일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말썽을 피우며 어른들과의 관계성을 계속 갖게 된다는 것은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하며 배우는 중이라고 생각한다.

이 책은 그런 면에서 아이들의 말썽은 성장기 진통으로 꼭 필요한 시기임을 알려주는 가이드 책이라고 할 수 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아이는 어떤 아이일까?

아무 말썽을 피우지 않고 어른들이 하라는 대로만 자라는 아이가 사랑스러운 아이일까? 그렇지 않다고 본다. 지금은 착실해 보여도 커가면서 또 다른 말썽을 더 크게 피울 수 있다.

수많은 실수와 말썽 속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자라는 아이가 건강한 아이일 것이다. 어른들의 작은 칭찬 한 마디로 아이의 긍정성을 끌어 내 줄 수 있을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못된 아이) 에드워드도

존 버닝햄 글,그림, 조세현 옮김.

비룡소, 2006.

분야 : 그림책 / 추천대상 : 유아6세 ~ 초등2학년

사랑스러운 아이는 어른들의 손에 달려 있다. 작은 칭찬과 쓸모 있는 일들을 책임감 있게 주어줄 때 아이들은 스스로 놀라운 잠재 능력을 찾아 낼 것이다. 이 사실들을 어른들은 잊지 말아야 할 것 이다.

눈높이를 맞추는 작가 존 버닝햄

개인적으로 존 버닝햄의 책을 좋아한다. 그림도 단순하여 아이들이 쉽게 접할 수 있다. 주인공들은 언제나 엉뚱하고 어른의 눈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기도 하지만 아이들의 표현법을 잘 묘사하고 있다고 생각이 든다. 실제로 아이들도 존 버닝햄의 작품들을 좋아한다. 다른 많은 책들 중에서도 우리 아이는 유독 버닝햄의 책을 읽어달라고 졸랐다. 아마도 아이들의 일반적 성향을 잘 표현했기에 아이들에게 인기가 있는 것 일 테다. 존 버닝햄처럼 아이들의 마음을 읽어주고 알아주는 부모가 된다면 참 좋을 것 같다.



세상 밖으로

유 향 숙

성남시 판교도서관 사서

‘아이들은 꼭 친구들과 놀아야 하나요?’
‘좋아하는 장남감이 하나쯤은 있어야 하나요?’
‘그렇지 않은 아이는 이상한 아이인가요?’
첫 장을 펼치면 이런 질문들이 던져진다.

아이들은 꼭 친구들과 놀아야 할까? 돈으로 살 수 있는 어떤 물건 하나쯤을 가지고 친구들에게 자랑을 하며 친구 세계에 들어가야만 되는 건가? 그렇지 않으면 난 왕따가 되는 건가?

한 번쯤은 이런 고민들이 있었을 것 같다. 아니 어쩌면 한 번이 아니고 사는 동안 계속 되는 질문들이다. 이 책은 작가만의 방식으로 성장하면서 생길 수 있는 고민을 아기여우라는 또 다른 생명체와 친구가 되면서 세상 밖으로 나가는 방법을 찾고 있다.

여우라는 존재는 우리가 어린왕자 읽으면서도 알게 된 현명한 친구였다. 그러나 이 책에 아기여우는 나와 같이 ‘여리고 약한 존재’로 서로의 아픔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는 친구였다.

친구는 서로 외롭고 약하기 때문에 의지하며, 의지가 되니까 관계가 돈독 해졌을 뿐인데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없는 것을 가졌다며 관심과 칭찬을 한다. 아기 여우도 외롭고 엄마를 못보게 되어 소녀의 머리위에 올라갔을 뿐인데 멋진 소녀의 모자가 되어주어 소녀와 여우는 서로 칭찬과 관심을 받으며



여우모자

김승연 글,그림.
로그프레스, 2014.

분야 : 그림책 / 추천대상 : 유아 7세~초등3학년

세상 속으로 조금씩 들어가는 법을 배우게 된다.

단지 이 책에 아쉬운 점이 있다면 글자체가 작다. 왕따를 경험했거나 경험하고 있거나 소심함과 외로움에 겪고 있는 친구 모두에게 조용히 겸손하게 다가가고픈 생각에서 그렇게 글씨체가 작은 것은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지만 일반적으로 읽기에 가독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특히 유아와 함께 보기에는 글자를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내 잠옷 세 번째 단추 바로 밑이 아프다

유 향 숙

성남시 판교도서관 사서

낯설과 이웃

옆집 할아버지네 동물조각에게 관심을 가지다가 점차 할아버지에게까지 호감 갖게 되는 소녀의 이야기다. 우리에게는 이웃사촌이라는 말까지 있었는데 이제는 이웃이라는 단어가 낯설게 느껴진다. 막혀버린 이웃과의 소통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소녀에게서 배우면 좋을 듯하다.

갑자기 보이지 않는 할아버지 때문에 소녀는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다. 처음엔 마음이 아프고 걱정스럽고 그러다가 좋은 생각을 해낸다. 손편지를 써 보내는 것이다. 경솔하지 않고 진심을 담아보면 방법이 생기고, 행동하게 되면 이웃도 우리에게 화답을 할 것이다. 이웃과 가까워지는 법을 우리도 배워야겠다.

관심과 우정

이렇게 예쁜 소녀가 옆에 산다면 할아버지는 참 행복해 질 것 같다. 이 책을 읽는 동안 할아버지와 소녀, 혹은 할머니와 소년은 잘 통하는 친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동물 조각들이 있는 정원을 소유한 할아버지네 집도 구경하고 싶어지고, 앵두와 딸기를 따먹어 보고싶기도 하고, 할아버지는 어떻게 동물 조각들을 모으시게 되었을까? 아님 만드셨을까? 할아버지는 아이들은 있을까? 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할머니는 안 계신듯 한데, 어떤 분이셨을까? 궁금해 진다.

할아버지의 동물조각을 만드는 계기는 할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슬픔



옆집 할아버지 관찰 일기

알리스 뒤마 글, 마르틴 라퐁 그림, 양진희 옮김.
교학사, 2007.

분야 : 그림책 / 추천대상 : 초등학교 2 ~ 3학년

을 잊기 위해, 울지 않으려고 만들기 시작하신 건 아닐까? “내 잠옷 세 번째 단추 바로 밑이 아프다.” 이렇게 예쁜 표현을 할 수 있는 어린소녀가 참 멋지다.

인성과 감성

현대사회는 이웃과 단절 된 듯 살아간다. 우리 아이들은 어느 시기가 되면 타인과 관계 맺기를 배워야 한다. 바로 유아 7세에서 학창시절 내내 타인과의 관계성과 의사소통을 배워야 하는 시기가 아닐까한다.

이웃, 친구, 형제자매, 부모, 조부모 등... 그것의 시작은 관심일 테고, 관심은 사랑의 시작이다.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좋은 인성을 갖게 하는 것 같다. 좋은 인성은 부모님에게서 받는 것도 있겠지만 길들여지는 것도 있다고 본다.

이 책은 그런 면에서 주변에 관심을 갖고,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해 내는 것에 대한 방향성을 부드럽게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 책의 소녀처럼 일기를 써보는 것도 자신의 감성을 그대로 대면할 수 있고 표현하는 것을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방법일 것 같다.



지나간 5월 18일의 기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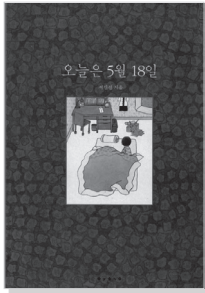
이 가 영

평택시 안중도서관 사서

1980년 5월. 우리에게 1980년 5월은 참으로 슬픈 기억으로 남아있다.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던 많은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고, 그 사건을 시작으로 민주주의 쟁취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오늘은 5월 18일』은 초등학교 어린이의 시선으로 5.18민주화운동을 서술하고 있다. 이 때문인지 민주화운동에 대한 직접적인 묘사는 없지만 초등학교생 어린이가 개인적으로 느꼈을법한 감정이 묵직하게 다가온다. 5.18민주화운동이 아니었으면 학교가 일찍 끝나는 것을 좋아하고, 누나가 만들어준 고무줄총을 갖고 노는 모습이 마냥 좋아보였겠지만, 이 책에서는 그 시절의 시대상을 투영해서 볼 수 있게 만든 장치라고 생각된다. 때문에 이 책의 독서대상은 어린이지만, 부모님도 같이 읽어보고 자녀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볼 거리가 많은 책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이 책은 초등학교생 어린이의 일기형식으로 페이지가 구성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다룬 많은 도서들이 담고 있는 거창한 역사적 의의나 배경을 언급하지 않는다. 오히려 순수하고 천진난만한 어린이의 목소리로 1980년에 광주에서 살고 있던 평범한 한 가족이 겪었던 일들을 서술하고 있기에 사건의 현실감이 직접적으로 다가온다. 책 속에서 누나가 죽었다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어린 주인공은 나지막이 누나가 오지 않는다고, 보고 싶다고 말한다. 이 책이 우리의 가슴 깊숙이 저릿함을 느끼게 하는 이



오늘은 5월 18일

서진선 글,그림.

보림. 2013.

분야 : 그림책

유 또한 여기에 있다. 이 사건의 당사자가 우리의 가족, 친구, 지인이 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달력을 보면 5월 18일은 항상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이라고 적혀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공기와 같이 너무도 당연하게만 생각하고 있는 민주주의라는 권리를 지키기 위해 희생하신 많은 분들을 기리기 위한 날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숭고한 날인 만큼 5월에는 자녀와 함께 ‘오늘은 5월 18일’을 같이 읽어보고 역사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인간과 동물의 행복한 공존

유 옥 환

안양시 박달도서관 사서

길고 긴 섬의 한쪽 끝에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는 작은 마을에 있는 예쁜 연못에 사는 오리 가족이야기입니다. 든든하고 포근한 엄마 오리와 귀엽고 앙증맞은 피비티디조 라는 다섯 마리의 아기 오리가 있습니다. 피핀, 비핀, 티핀, 디핀, 그리고 조입니다. 어느 산책하기 좋은 날 엄마 오리를 따라 다섯 마리의 아기 오리가 푸른 공원을 가로질러 마을로 들어섭니다. 그런데 즐거운 산책길, 엄마 오리 뒤를 쫓던 아기 오리들이 한 마리, 두 마리... 눈앞에서 없어졌어요.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배수구 작은 틈으로 빠져버린 아기오리들은 마침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한 사람에게 의해 발견되고 소방대에 알려집니다. 배수구 아래에서는 살려달라는 아기 오리들의 울부짖음, 위에서는 엄마 오리의 당혹감, 두려움이 엉킵니다. 연락을 받고 급하게 달려온 소방대원과 페리 아저씨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배수구 위로 구조된 아기 오리들은 사람들의 환호성을 들으며 엄마 품으로 돌아옵니다. 아기 오리를 한마음으로 걱정한 많은 사람의 염원이 이들을 구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2006년 6월 뉴욕 롱아일랜드의 등대마을 문탁에 실제로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이후 배수구 뚜껑의 작은 틈을 더욱 작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작은 오리라도 더 이상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한 것이지요. 인간과 동물의 행복한 공존을 보여주는 잔잔한 감동이



오리 가족의 떠들썩한 나들이

에바 무어 글, 낸시 카펜터 그림, 마음물꼬 옮김.
국민서관. 2013.

분야 : 그림책 / 추천대상 : 유아

있습니다.

글쓴이 에바 무어는 40년 이상 책을 쓰고 만들었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 낸시 카펜터는 자신만의 독특한 그림으로 이야기를 더욱 흥미롭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차례의 크리스토퍼상과 제인 에덤스 아동도서상을 받았습니다.

각종 시설 또는 구조물은 어린이나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여 설계한다면 이 세상 누구나 불편을 느끼지 않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방을 통유리로 마감한 어느 공간이 있다고 상상합시다. 무심코 달려와서 부딪히는 일을 없도록 눈높이에 예쁜 꽃무늬 문양의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띠지를 붙여놓음으로써 유리를 인식하게 하는 것도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마음이 내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유아들에게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비밀

손 셋 별

수원시 대추골도서관 사서

어린 시절, 집안에 행사가 있으면 온 식구들이 다 모이곤 했는데 그때마다 캄캄캄캄 놀라곤 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형제가 많아 한번 모였다 하면 집안이 북적북적하고, 처음 만나는 친척들도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다. 친척도 많은데다가 한 분 한 분의 호칭도 다 다르니... 어린 아이의 입장에선 머릿속이 어지러운게 당연하지 싶다.

요즘 세대는 형제자매가 많지 않고, 많다고 해도 왕래가 뜸해 가까운 가족이 아닌 친인척을 만나는 일이 적다.

이 책은 주인공 여자아이가 꼬리에 꼬리를 물듯 이어지는 가족호칭의 연결에 대해 파헤쳐 가계도를 작성해 가는 과정을 그린 그림책이다.

각 장마다 플립북 형식으로 되어있어 오른쪽 장에는 조금씩 완성되는 가계도가 제시된다. 가족들의 호칭, 촌수를 확인할 수 있고, 점차 가족의 비밀은 하나씩 불을 밝힌다.

배경에는 여러 가지 색과 다양한 패턴을 사용했고, 주요 소재는 콜라주 기법을 사용하여 실제사물의 사진이나 스웨터, 머리카락 등의 질감을 그대로 표현하여 흥미를 끈다.

나를 기준으로 한명씩 소개될 때마다 점점 넓어지는 가계도를 보며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이해하게 되고, 친구나 이웃, 공동체와의 관계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우리 가족의 비밀

아나 만소 글, 수사나 델 바뇨 그림, 박지영 옮김.

북스토리아이. 2015.

분야 : 그림책 / 추천대상 : 유아이상

자칫 딱딱한 주제일 수 있는 가족의 촌수라는 개념을 어린이의 시선으로 하나씩 풀어놓아 재미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고, 특히 마지막 장에는 책을 읽는 독자들의 가계도를 직접 작성하게 함으로써 독후활동까지 제시하고 있다.

촌수나 친척과의 관계를 설명하기가 너무 어렵다면 이 책을 추천한다. 혹시 정말 오랜만에 친척을 만날 일이 있다면 그 전에 이 책을 읽도록 하여 아이들에게 그분과의 관계를 알 수 있도록 배려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따로 똑같은 엄마와 딸

이 연 수

수원시 북수원지식정보도서관 사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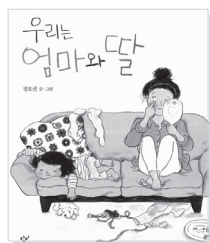
책 첫장을 펼치면 ‘우리 엄마예요.’라는 글과 함께 엄마의 모습을 자세하게 묘사해 놓았다. 어지러진 화장대 위, 엄마의 한 손에는 노트북으로 작업을 하며 또 한손에는 스마트폰으로 통화를 한다. 첫 장에서 느낄 수 있듯이 요즘 엄마의 모습이 현실감 있게 묘사되어있다. 집 안 청소를 하거나 음식을 만드는 전형적인 예전 엄마들의 모습이 아닌 일과 살림을 병행하는 듯한 바쁜 엄마의 모습이 현실적이다.

두 번째 장에서는 ‘우리 딸이에요’라는 글과 함께 딸의 모습이 자세히 묘사된다.

이 책은 딸 입장에서 엄마를 묘사하기도 하고, 엄마 입장에서 딸의 모습을 가감 없이 보여주기도 한다. 이는 딸과 엄마가 서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흥미로운 장치가 된다.

그림책에 나온 딸과 엄마의 모습은 마냥 아름답게만 포장되어 있지 않아서 좋다. 흐트러진 엄마 모습, 부족한 딸의 모습이 가볍게 그린 듯 깊은 듯 묘한 느낌을 주게 된다. 정호선 작가의 무심한 듯 그린 그림 속에는 글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많은 모습을 보여준다.

그림책 속에는 아이와 함께 생활하는 싱글맘이자 가장으로서 모습, 또한 주부로서의 모습이 어둡지 않고 씩씩하고도 담백하게 그려져 있다. 문득 아이가 아빠를 그리워하는 모습, 아빠와 닮은 곳을 찾아내는 딸의 모습에서 아빠의 부재를 알아채지만 아빠가 안 계셔서 안되었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아마도 그림책에서 보여주는 아이와 엄마, 모두가 씩씩하고 명랑하기 때문이



우리는 엄마와 딸

정호선 글, 그림.

창비, 2014.

분야 : 그림책 / 추천대상 : 엄마와 딸

다.우리는 둘 뿐이지만 셋이나 넷보다도 더 크게 사랑하는 그녀들의 모습이
진심으로 다가오기 때문일 거이다.

책의 지은이 정호선은 『쪽!』, 『우리 누나, 우리 구름이』의 작가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다 한국일러스트레이션 학교에서 일러스트를 공부하였다.
정호선의 그림책은 애니메이션 같은 그림으로 소박하고 담백하게 묘사하는
데 이런 그림의 특성이 책을 더욱 친숙하게 한다.

이 책은 한 부모 가정 뿐 아니라 엄마와 딸 사이라면 따뜻함과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책으로 꼭 한번 읽어보라고 권해주고 싶은 책이다. 엄마와 딸
사이의 생생한 일상을 진솔하게 접할 수 있을 것이다.



일상이 마법이 되는 순간

이 수 경

평택시 장당도서관 사서

수지는 교통사고로 다리를 잃습니다. 휠체어 탄 모습이 싫어 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저 창가에 앉아 내려다봅니다. 오가는 아이들과 강아지, 어른들의 머리꼭지가 ‘개미’ 같아 보입니다. 수지는 누구라도 자기를 봐 주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위를 봅니다. 수지가 잘 볼 수 있도록 길바닥에 눕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수지가 볼 수 있도록 “모두 위를 봐요!” 늘 아래를 내려다보는 수지도 다른 사람들처럼 위를 봅니다. 오랜만에 위를 보는 수지는 활짝 웃습니다.

어른들이 아이와 이야기할 때 시선을 맞추려 합니다. 같은 시간과 공간에 있어도 시선이 달라 아이들은 어른들과 사뭇 다른 세상에 있는 듯 느껴집니다. 어떤 경우는 자기만의 생각에 빠져 그것 외의 다른 것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수지도 그렇지요. 휠체어를 탄다고 사람들이 오가는 길에서 사라질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도로 사정을 보면 장애인들이 편안하게 다니기는 힘든 구조이긴 합니다. 수지는 다리를 잃은 충격과 휠체어를 탄 자신의 모습을 남들에게 보여주기 싫습니다. 한 아이가 수지에게 내려오라고 할 때 수지는 내려갈 수 없다고 합니다. 수지가 잘 볼 수 있도록 아이가 길에 눕는 순간, 수지는 자기를 옥죄고 있던 마음의 틀을 깨고 나와 남들처럼 위를 올려다봅니다. 수지는 휠체어를 옆에 놔두고 그 아이와 나란히 앉아 하늘을 바라봅니다. 봄이 올 것 같지 않더니 나무는 꽃을 피우고 사람들이 오가는 길에는 분홍 꽃잎이 흩날립니다.



위를 봐요!

정진호 글,그림.

은나팔.(현암사). 2014.

분야 : 그림책 / 추천대상 : 영유아부터

정진호의 그림이 남다르게 느껴지는 이유는 시선의 높이 때문입니다. 늘 보던 나무지만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니 무척 낯설게 느껴집니다. 블록 간 길바닥은 담벼락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익숙한 세상에서 낯선 느낌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 예술의 역할이라고 할 때 정진호의 그림책은 탁월합니다. 시선을 바꾸자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수지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니 무척 낯설게 느껴집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수지의 낯선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림책의 예술성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위를 봐요!』는 2015 볼로냐 라가치상을 수상했습니다.

이건 내 모자가 아니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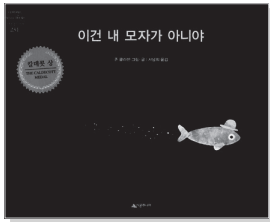
박 지 원

안성시 공도도서관 사서

『이건 내 모자가 아니야』는 어린이뿐 아니라 어른들도 읽으면 생각이 많아질 법한 책이다. 책을 다 읽고 나니 괜히 칼데콧 상을 받은 게 아니구나 싶다. 처음 부분은 작은 물고기가 “이건 내 모자가 아니야. 그냥 몰래 가져온 거야.”라는 대사부터가 도발적이다. 두 번째 장에서는 작은 물고기가 말한 대로 큰 물고기가 쿨쿨 잠만 자고 있어 평화로운 상태였다. 하지만 세 번째 장부터는 작은 물고기의 말과 상반되는 그림을 보여주며 긴장감이 고조되었다. 계속 상반되는 가운데 표현된 그림들은 절제되고 어두워서 이 책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듯하다. 책 중반에 작은 물고기를 본 계가 작은 물고기의 행방을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겠다던 약속을 어기고 큰 물고기에게 말해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는 초반에 깔아두었던 긴장감을 극대화시킨다. 그리고 후반, 마침내 큰 물고기는 작은 물고기가 숨어있던 물품들이 뻑뻑하게 우거진 곳으로 간다. 그리고 큰 물고기는 자신의 작은 모자를 되찾는다.

이 사이에 물품 그림들은 물품 사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예상하게 한다. 오히려 직접적으로 그림을 그려 표현한 것보다는 이렇게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훨씬 많은 생각이 들게 했다. 이 책을 읽고 나면 굉장히 생각이 많아지는 것 같다. 단순히 도둑질에 대한 인과응보 뿐 아니라 조금 더, 심오한 그런 생각들 말이다. 마치 내면의 세계에서 명상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고나 할까. 이 책을 보면서 팬스레 소름이 돋았다. 그만큼 이 책은 무언가를 깨닫게 했다. 나 뿐 아니라 이 책을 읽는 사람이 공감할 것이다.

절제된 그림의 표현력으로 독자가 이 책에 빠져들게끔 한다. 『내 모자는



이건 내 모자가 아니야

존 클라센 글, 그림, 서남희 옮김.

시공주니어, 2013.

분야 : 그림책

『어디 갔을까?』라는 책과 함께 읽으면 또 다른 느낌이 든다. 함께 또는 따로 읽어보기를 추천한다. 아이의 생각이 깊어지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수작이다.

● ● ● 내 일기는 보여주지 않을래요.

정 영 춘

부천시 원미도서관 사서

‘오늘 하루는...’으로 시작했던 일기 쓰기는 학창시절 중요한 일과 중 하나였다. 마지못해 써야 했던 일이 잦아서 즐겁지 않은 일로 기억하고 있다. 방학동안 제일 난감한 것이 한꺼번에 휘몰아 쓰던 일기숙제가 아니었을까. 한 페이지를 채우기 위해 하루는 동시 베껴쓰기, 신문기사 오려 붙이기, 또 어떤 날은 첫눈이 왔다고 날씨 이야기만 주구장창 늘어놓던 에피소드는 풀어놓으면 한 보따리다.

올해 1월 도서관에서 ‘일기는 사소한 숙제가 아니다’라는 주제특강을 한 적이 있다. 강의실에 빼곡하게 들어찬 학부모들을 보면서 뜨거운 관심을 확인했다. 일기를 써야 하는 이유, 일기쓰기 습관, 일기를 쓸 때 알아두면 좋은 점에 대한 내용을 다뤘다. 특강에 대한 열기에 ‘일기가 결국엔 엄마들 숙제’라는 생각이 든 것은 비단 나뿐일까? 이 글을 쓰신 김해등 선생님은 일기 쓰기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을까 궁금했다.

동구네 반 아이들은 매주 화요일을 손꼽아 기다린다. 매주 한 번 일기 검사 후 선생님은 일기를 가장 잘 쓴 아이에게 ‘살다 살다 칭찬’을 해주시기 때문이다. 모든 관심과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살다 살다 칭찬’ 주인공은 태우가 된다. 태우는 “나는 오늘”이란 표현을 한 번도 쓰지 않고도 길고양이를 구해 준 이야기를 실감나게 잘 썼단다. 반면 동구는 글씨도 삐뚤빼뚤 엉망진창에 ‘나는 오늘’ 밖에 없는 일기로 선생님의 댓글만 잔뜩 달린 일기를 돌려



일기 몬스터

김해등 글, 경하 그림.

주니어김영사, 2015.

분야 : 그림책 / 추천대상 : 초등학생 및 학부모

받고 기운이 없다. 그도 그럴 것이 동구는 일기만 쓰려면 지우개를 먹는 먹보 몬스터, 연필심을 부러뜨리는 이빨 몬스터, 소리를 지르는 악기 몬스터가 나타나 괴롭히기 때문이다. 뭐든 먹는 것처럼만 하라는 엄마의 불호령에 급기야 친구 태우에게 일기쓰기 과외를 받게 된다.

일기쓰기 과외를 받으면서 또 다시 동구와 태우 앞에 몬스터가 나타난다. 아이들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작가는 한때 글방에서 아이를 가르친 적이 있다고 한다. 매일 일기 검사를 하고 가르쳐주어도 실력이 늘지 않던 아이가 스스로 쓰고 싶을 때 쓸수 있게끔 내버려뒀더니 오히려 더 잘해내는 것을 목격했단다.

살다 살다 칭찬을 한 번만이라도 받고 싶은 마음. 잘하고 싶은데 잘하지 못해서 웅크려드는 마음. 일기 몬스터 때문에 괴로운 상황을 조금이라도 이해받고 싶은 마음이 어른들에게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다.

“너나 나나 하루하루 똑같은 일뿐이잖아. 학교, 집, 학원, 학교, 집, 학원... 그렇다고 일기에다 똑 같은 일만 쓸 수도 없잖아. 난 뭐든 잘하는 애로 소문났으니까 일기까지 잘 쓴다는 칭찬이 듣고 싶었던 말이야.”

학교, 학원, 집을 오가는 아이의 되풀이되는 일상에서 비밀스런 공간 하나 쬼은 허락하는 어른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런 일기쓰기가 가능하다고,

그것이 너를 멋지게 성장시킬 거라고 가르쳐 주고 싶다.

이 책은 일기 몬스터와 싸워야 하는 아이와 일기쓰기 비법이 따로 있어서
배울 필요가 있다고 믿는 어른들이 읽으면 좋겠다.



느림보가 아냐. 차근차근 천천히 할 뿐이야

홍 미 정

화성시 병점도서관 사서

그림책의 첫 장을 넘기면, 초록색 도마뱀 한 마리가 등장하여 이렇게 말한다. “친구들은 나를 느림보라 부르지만 나는 느림보가 아냐. 무엇이든 차근차근 천천히 할 뿐이야.”

아하! 바로 ‘천천히 도마뱀’ 이로군! 자신의 느림을, ‘빠르다’의 반대 ‘느리다’와 ‘굼뜨다’가 아닌, ‘차근차근’이라 해석하는 여유와 당당함이 멋있다. 『천천히 도마뱀』이 궁금해졌다.

‘천천히 도마뱀’은 색종이를 천천히 접고, 퍼즐도 천천히 맞추고, 책도 천천히 읽는다. 또 피아노도 천천히 치고, 밥도 천천히 먹고, 산책도 천천히 한다. 늘 친구들보다 뒤처지지만 크게 개의치 않는다. 왜냐하면 자신만의 속도로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까.

반면 도마뱀의 친구들은 뭐든지 빨리빨리 한다. 남들보다 빨리 했음에 우쭐해하고, 급히 서두르다 일을 그르쳤을 때 짜증내는 모습들은 외양적 성공에 목매어 바쁘게 살아가는 어른들의 모습을 얼핏 닮아있다.

이 책은 결코 빠름을 폄하하는 책이 아니다. 그렇다고 느림을 무조건 찬양하는 책도 아니다. 남들과의 경쟁을 지나치게 의식하며 사는 바쁜 현대인들에게 자신의 마음속 이야기에 가만히 귀기울여보라 조언하는 책이다.

일 때문에 조급하고 짜증이 났을 때, 우연히 만난 도마뱀과 같이 해바라기



천천히 도마뱀

윤여림 글, 홍정선 그림.

웅진주니어, 2015.

분야 : 그림책

를하며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는 작가는 ‘천천히 도마뱀’을 탄생시켜 우리에게 뭐든지 천천히 해도 괜찮다며 위로의 말을 건넨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천천히 도마뱀’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즐거움과 행복감에 환한 미소 머금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봄이 천천히 와도 괜찮아. 그래도 봄은 꼭 오니까.”

본문 말미에 제시된 이 독백은, 거센 비바람과 눈보라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서있는 단단한 나무를 연상시킨다. 목표만을 향해 맹목적으로 달려가는 어리석은 세태를 경계하고 있는 듯도 하다. 부디 이 세대가 목적을 간과하지 않으며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단단한 세대이기를 희망한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바로! 나만의 숨고르기를 시작해보자.



마음껏 춤춰도 좋아

유 현 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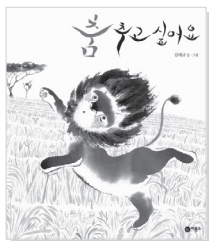
평택시 시립도서관 사서

그림책을 펼치면 광활한 대지를 가로질러 달려오는 바람과 골고루 내리 쬐는 햇살, 풀잎들 사이로 언뜻언뜻 동물들의 모습이 비치는 초원이 펼쳐진다. 또 한 장 넘기면 흡사 춤을 추는 듯한 『춤추고 싶어요』라는 제목 글씨 아래로 지그시 눈을 감고 무아의 경지에서 춤을 추고 있는 사자의 고요한 표정이 보인다.

‘사자가 춤을 춘다니 한심하다’며 놀려대는 사자 무리를 피해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선보이는 가벼운 춤사위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은 얼마나 자유로운가? 고요한 달빛 아래 날아갈 듯 유영하는 사자를 보는 것만으로 우리의 마음은 또 얼마나 따뜻해지는가?

불이 뱅뱅해지도록 피리에 혼신을 불어넣고 있는 소년의 뺨은 얼마나 사랑스러운가? 소년이 피리 불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볼만 보아도 이마에 송글송글 맺힌 땀방울만 봐도 금방 알아 챌 수 있다. “사냥꾼은 피리 따윈 불지 않는다”고, “시끄럽다” 수군대는 사람들을 피해 아무도 없는 들판에 나가 피리를 부는 소년의 모습은 보는 이로 하여금 절로 불에 바람을 채우게 만든다.

바람까지 잠재우는 고요함과 박진감 넘치는 장면들이 서로 교차하며, 초원의 갈등은 점점 고조되어 간다. 결국, 일촉즉발, 위기일로로 치닫던 초원



춤추고 싶어요

김대규 글,그림.

비룡소, 2012.

분야 : 그림책

의 갈등을 잠재우고 평화를 되찾은 건 멸시받던 ‘소년의 피리’와 ‘사자의 춤’이었다.

삐릿삐릿 뿔릴리
사자들도 들썩들썩
뽀롱뽀롱 뿔릴리
사람들도 덩실덩실
모두들 밤새 춤을 추었어
모두들 밤새 꿈을 꾸었지

다시금 평화가 찾아오자 초원의 식구들은 밤새도록 춤을 춘다. 꿈을 꾸듯
신비한 밤 하늘엔 쏟아질 듯 별이 총총하다. 모든 것을 품은 듯 대지는 평화
롭게 잠이 든다. 마지막 책장을 덮는 내 마음에도 잔잔한 위로가 찾아온다.

작가는 그림책을 통해 춤추고 싶으면 춤을 추고, 그림을 그리고 싶으면 마
음껏 그리라고 응원한다. 부모의 야망이나 세상의 틀에 자신을 끼워 맞추지
말고 내면 깊숙한 곳에서 들려오는 자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도 좋다고 이
야기 한다.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정성껏 해내는 일이 오히려 가장 가
치 있는 일이 될 수 있다는 무언의 지지를 보낸다.

이 책이 가진 또 다른 미덕은 우리 삶에서 예술이 지닌 가치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한다는 점이다. 이 그림책을 보며 예전에 읽었던 김형경의 『좋은 이별』이 떠올랐다. 그는 ‘학대 받는 아동이 갖게 되는 예술 취향은 불행 속의 오아시스다.’라는 베레나 카스트의 말을 인용하며 “글쓰기, 그림 그리기, 춤추기 등 내면을 표현하는 모든 예술행위가 동시에 마음을 치료하는 직접적인 방법들이다. 그러므로 예술은 동시대인들의 무의식적 집단 애도 작업을 대신하거나 도와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목마른 우리 아이들의 삶에 ‘예술’이라는 오아시스를 남겨두는 것이 얼마나 절실한지, 우리 아이들이 어린 시절 충분히 예술을 누릴 수 있는 환경에 있는지 자문하게 된다.

이 그림책을 보면서 느꼈던 위로, 그것 또한 예술이 가진 힘일 것이다.



친구를 부르는 특별한 방법

유 향 숙

성남시 판교도서관 사서

낮선 환경에 놓이면 혼자인 듯 한 생각이 든다. 여기에도 갑자기 이사를 하는 바람에 낯설고 두려워서 위축된 아이가 있다. 친구를 어떻게 사귄지 응답하기만 하다. 주눅 들어 앉아있는 모습을 본 엄마는 짐정리를 하는 동안에 동네를 한 바퀴 돌고 오라고 한다.

아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동네를 돌다가 그냥 큰소리로 “네빌”이라고 불러본다. 이에 반응하는 아이들이 한 두명 늘어 동네 아이들은 모두 나와 함께 잃어버렸을 것 같은 “네빌”을 불러댄다. 그렇게 “네빌”을 부르는 것은 놀이가 되고, 호기심이 생기고, “네빌”에 대한 호감으로 바뀐다. “네빌”은 이 책의 주인공이며 친구를 찾는 어린이다. 때로는 ‘내’가 된다.

사람들의 반응은 참으로 신기하다. 미래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함께 하는 것을 좋아하며, 호기심이 많고, 또한 군중심리가 작용하는 듯하다.

우리는 특별히 친구사귀는 방법을 알지는 못한다. 그러나 사람친구들도 나와 같다는 생각을 하면 두려움이 사라질 것 같다. 함께 하기를 좋아하며 호기심이 있고, 즐거움이 내 속에 많다는 것이다. 친구는 그러한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면 좋을 것 같다는 사실을 이 책에서는 말해주고 있다.



친구를 사귀는 아주 특별한 방법

노트 저스터 글, G. 브라이언 카라스 그림, 천미나 옮김.
책과콩나무, 2012.

분야 : 그림책 / 추천대상 : 유아6세~초등4학년

누구나 혼자인 것은 싫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픈 모든 어린이와 어른들에게 추천하고 싶다. 친구를 사귀는 게 어렵고 힘들다는 이들은 가끔 이 책과 같이 뜬금없는 행동을 해보면 어떨까? 함께 하는 친구들이 나타날 수도 있겠다.

작가는 칼데콧 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고, 미국 매사추세주에 살고 있다. 그림을 그린 작가 역시 많은 상을 받은 어린이 책 전문 화가다.

그림은 네빌의 황량함을 표현하듯 주변의 배경그림이 없다. 이사 온 집, 혼자 걸어야 하는 길 등 꼭 필요한 것만을 표현하고 있다. 네빌을 불러대는 많은 친구들이 모여 있는 그림장에도 배경이 없다. 네빌의 심리상태가 그렇지 않을까? 마치 여기가 어디든 상관없이 친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해 주는 것 같다.



가출? 과자는 먹고 나가면 어때?

이 가 영

평택시 안중도서관 사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자신이 처해있는 현실에 불만을 가질 수 있다.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은 현재의 환경으로부터 회피하는 행동일 것이다. 이 책의 관찰 대상인 ‘키이’라는 어린이 또한 엄마에게 야단을 맞고 현재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가출이라는 귀여운 도피를 꿈꾸지만, 쌍둥이 자매의 의도적인 행동으로 결국은 가출에 실패하게 된다.

가출을 하겠다던 키이는 어떻게 된 일인지 쌍둥이 자매의 책을 같이 읽자는 말, 저녁만 먹고 가라는 말에 고분고분 따르면서 조금 이따가 가겠다는 뜻을 내 비친다. 하지만 그 의도를 받아들이는 키이의 모습은 하는 행동과는 좀 다르다. 눈 밑이 벌겋게 부어 있고, 입은 땀 발 나와서 뽀루퉁하게 앉아 있기 때문이다. 키이는 가출을 꿈꾸지만 나가지 않는다. 키이는 결국 귀여운 흰둥이, 귀염둥이 막내 동생, 그리고 쌍둥이 자매로 형성되어 있는 따뜻한 가정을 벗어날 마음이 없는 것이다. 순간적으로 엄마의 야단에 뽀루퉁해져 있지만 결국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우리 집이라는 것을 키이가 말하고 있는 듯하다.

『키이의 가출』은 키이의 쌍둥이 자매의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그려내고 있어 좀 더 어린이의 마음을 잘 표현해 내고 있는 듯하다. 또한 아주 섬세한 표정의 묘사도 주목 할 만하다. 키이의 표정이 이야기가 진행되면 될수록 풀어지는 것이 보이고, 서술자의 표정 또한 처음에는 키이가 가출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로 직후에는 걱정이 가득한 표정이었지만, 키이가 자신의 제안



키이의 가출

다네무라 유키코 글,그림, 강방화 옮김.

한림출판사, 2014.

분야 : 그림책

을 받아들이면서는 표정이 부드러워 지는 것이 보인다. 색감에서도 인물묘사에 색연필을 주로 사용하고 테두리를 진하게 그리지 않아서인지 가정의 따뜻함이 물씬 느껴진다. 쌍둥이 자매의 전체적인 모습은 비슷하지만 둘의 스웨터 색으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엄마에게 야단을 맞은 키이의 옷이 빨간색이어서 색감만으로도 키이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이다. 쌍둥이 자매가 원하는 대상의 색 또한 키이가 그 대상을 받아들였을 때와 차이가 난다. 키이가 받아들이기 전에는 무채색의 대상이었지만, 다음 페이지에서 키이가 그 대상을 받아들이는 장면에서는 본연의 색으로 그려진다. 작가는 이런 부분에서도 가정의 따뜻함, 자매간의 우애 같은 것을 나타내려는 세심함을 보이려 노력한 것 같다.

결국 키이는 집에서 쌍둥이 자매와 잠이 든다. 키이는 내일 가출을 할 수 있을까? 키이의 내일이 궁금하다.



걱정마세요! 전 누구보다 토드를 잘 아니까요.

장 현 명

안성시 진사도서관 사서

“ㅇㅇ아, 텔레비전 그만 보고 와서 밥 먹어야지.”

“아~ 엄마, 이것만 보고 먹을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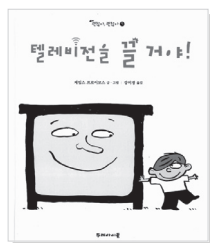
식탁에 엮지로 앉은 아이는 밥을 든 손이 무안할 정도로 고개를 뒤로 젖히고 어느새 눈은 텔레비전을 향하고 있다. 아이를 둔 집에선 흔하디흔한 풍경, 우리아이 버릇고치기 등의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단골 소재.

요즘은 이 상황이 스마트폰으로 옮겨갔다고는 하나 텔레비전은 여전히 우리아이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도무지 텔레비전과 떨어지려고 하지 않는 아이. 말을 듣지 않는 아이. 그런데 이 아이들을 처음 그 앞으로 데려간 이들은 누구일까?

조금만 다르게 생각해보자. 여기 엄마, 아빠를 무지 사랑하는 토드라는 아이가 있다. 그런데 어쩐지 토드는 텔레비전과 붙어서 떨어질 줄 모른다. 여기까진 어른들이 생각하는 흔한 아이. 하지만 토드에게도 사정은 있었다. 밖에 나가놀고 싶지만 비가 많이 오던 때, 혹은 ‘어른들끼리의 어떤 할 말’이 있을 때에도 엄마, 아빠는 토드에게 같은 말을 했다.

“토드야, 텔레비전 보고 있어”

어린 토드는 부모님의 복잡한 사정을 알 리 없다. 그냥 텔레비전 앞에 앉을 수밖에. 그렇게 여차여차한 사정으로 텔레비전은 토드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다.



텔레비전을 끌 거야!

제임스 프로이모스 글, 그림. 강미경 옮김.

두레아이들. 2014.

분야 : 그림책

제임스 프로이모스는 그림책 『텔레비전을 끌 거야!』를 통해 바쁘다는 핑계로 자신의 역할을 텔레비전에게 미뤄버린 부모와 텔레비전과 친할 수밖에 없어진 아이의 모습을 그려내었다. 텔레비전 육아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어른들은 울고 떼쓰는 어린아이에게 뽀로로를 보여주고, 놀아달라며 귀찮게 하는 조금 큰 아이에게 토봇을 틀어주며 손쉽게 어려운 육아를 해결한다.

그림책 『텔레비전을 끌 거야!』는 텔레비전에 빠져 사는 아이들을 꾸짖을 게 아니라 어쩌면 그 상황을 만든 어른들이 반성해야한다는 메시지를 책 전반에 걸쳐서 드러내었다.

다시 토드의 이야기. 어느 날, 너무 바빠 학부모회의에 갈 수 없는 토드부 모님에게 구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제가 갈게요!”

바로 텔레비전이 한 말이다. 토드의 친구 텔레비전은 토드와 아주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래 맞아 텔레비전은 누구보다 토드를 잘 알아야.” 바쁜 엄마, 아빠는 어쩔 수 없지. 텔레비전이라도 보낼 수밖에. 그때부터 텔레비전은 토드의 친구이자 부모이며 선생님까지 다방면으로 활동을 시작한다. 토드는 바쁘다는 부모와 꼭 휴가를 갈 필요가 없었다. 텔레비전이 있으니까. 텔레비전과 밥도 먹고, 잠도 자고, 놀이도 하며 모든 시간을 보낼 수 있으니까!

한 번에 그은 듯한 거친 선, 흑백에 가까운 단순한 그림 속에 토드와 텔레비전은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다. 그렇지만 그 모습을 바라보는 이는 조금 불편한 마음이 들지도 모른다.

과연 토드는 행복한 걸까? 상황은 결국 텔레비전이 토드를 입양하겠다는 선언을 하는 지경까지 가고 만다.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든 엄마와 아빠는 제자리로 되돌리기 위해 온갖 노력을 해보지만 쉬울 리가 없다. 토드는 텔레비전 흉내까지 내는 최선을 다하는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며 다시 사랑받는다는 기분을 느낀다. 그래서 텔레비전을 이기려는 부모님을 돕기 위해 묘안을 떠올리는데...

토드의 엄마, 아빠는 과연 텔레비전을 이길 수 있을까? 토드가죽은 다시 화목해질 수 있을까?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의 결말은 이제 책을 읽을 당신의 몫이다.

유쾌한 상상과 단순한 선 안에 날 선 풍자를 담은 그림책 『텔레비전을 끌거야!』 이 책은 아이들 보단 아이들을 사랑하는 엄마, 아빠에게 추천하고 싶다. 그림책을 한 장 한 장 넘기다 보면 누군가의 마음 속은 뜨끔 아니 따끔거릴지도...



엄마, 보고 싶어요!

이 은 주

남양주시 오남도서관 사서

파란하늘에 하얀 뭉게구름, 아니 하얀 하늘에 푸른 뭉게구름을 배경으로, 한 소녀가 눈을 감고 있다. 코끝에는 파랑새 한 마리가 있다. 소녀가 새의 뱃새를 맡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파란색과 흰색을 주로 사용하여 하늘을 그린 유희풍의 삽화는 깨끗하고 시원하고 아름답다. 그러나 이토록 아름다운 하늘과 구름이 누군가에게는 서글프고 슬픔을 자아내는 공간이 되기도 한다.

어느 도시의 하늘 높이 솟은 건물에 부모를 잃고 혼자 남겨진 한 소녀가 살고 있었다. 소녀는 누구에게도 따뜻한 관심과 정을 받지 못했고, 사방이 막힌 자기 방 안에서 조용히 자기 자신과 놀 뿐이었다. 소녀는 엄마가 구름 속 어딘가에 있을 거라는 누군가의 말을 믿었다. 그래서 엄마의 모습을 찾아 매일 구름을 바라보았다. 구름 속에는 엄마와 함께 이야기하고 만나고 구경했던 달팽이, 토끼, 거북이, 코끼리가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소녀의 방 창가에 엄마와 함께 구해주었던 검은 새 한 마리가 찾아왔다. 새의 가슴에는 문 하나가 있었다. “넌 누구니?” 소녀가 그 새에게 물었다. “오늘 나는 길 잃은 한 소녀를 엄마에게 데려다 주러 왔어. 이 문으로 들어와 계단을 올라가면 엄마를 찾을 수 있을 거야.”

과연 소녀는 새의 가슴에 난 문을 통해 엄마를 만났을까?

아이에게 부모는 온 세상이다. 가장 큰 사랑을 주는 존재이며,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부모를 잃고 혼자 남겨진다면, 그리고 누구도 아이를



파란하늘

안드레아 페트릭 글, 그림, 이구용 옮김.

정인출판사, 2015.

분야 : 그림책 / 추천대상 : 초등중학년부터

돌보아주지 않는다면 그 아이의 심정은 어떨까? 그 아이에게 세상은 어떤 곳으로 보일까? 주위의 부모 없는 아이들을 돌아보게 하고, 아이와 함께 있을, 부모님과 함께 있음에 감사함을 느끼게 한다.

이 그림책은 우리에게 조금은 낯설은 동유럽에 속한 크로아티아의 그림책 작가인 안드레아 페트릭의 작품이다. 안드레아 페트릭은 1966년 크로아티아의 수도 자그레브에서 태어나 11살에 부모님을 잃어 고아가 되었고, 이 책은 작가 스스로의 경험으로부터 태어난 이야기라고 한다. 현재 삽화가이자 작가로 활동하며, 수많은 그림책과 어린이 잡지에 그림을 그리고, 이 책과 더불어 『My Family』, 『Ciconia Ciconia(White Stork)』, 『Maleni』, 『러브』 모두 다섯 권의 그림책을 썼고, 이 책들은 여러 국가의 언어로 번역되어 출간되었다. 『파란 하늘』과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그린 삽화의 원본은 일본 나가노현 아즈미노시의 치히로 미술관에서 소장하여 전시하고 있다고 한다.

역자 이구용은 해외의 많은 어린이 그림책을 번역해 국내에 소개한 번역자이다. 『태국에서 온 수박돌이』, 『베트남 설날 장대 이야기』, 『베트남 왕이 된 양파 장수』, 『후아 로 푸우』, 『겨울을 이겨 낸 나무』등을 번역해 출간했다. 또 에이전트로도 활동하며 황선미, 신경숙, 공지영, 조정란 등 우리나라 여러 작가의 문학을 해외에 소개해오고 있다. 직접 쓴 책 『소설 파는 남

자』는 바로 그 경험을 담은 이야기이다.

책 뒷부분에는 영어로 출간된 원문이 실려 있다. 그림책이지만 내용을 이해하려면 초등 중학년이상은 되어야 할 것 같다.



이사떡 돌리기

이 가 영

평택시 안중도서관 사서

우리의 민속신앙에 등장하는 신들 중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 터를 잡고 지내면서 집을 지켜주는 조왕신과 성주신이 있다. 『팔고물 시루떡』 속 이야기는 그 성주신과 조왕신이 나누는 대화로 진행이 된다. 성주신은 집안의 평안과 부귀를 관장하는 가택 신이고, 조왕신은 부역을 맡아보는 신으로 불과 물, 재물을 관장하는 신으로 인식된다. 옛날 우리의 어머니들은 가족의 생일, 집안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면 그릇에 물을 담아놓고 기원했는데 그 대상이 바로 조왕신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팔고물 시루떡』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도 쉽게 이해가 된다.

마당이 너른 주택으로 네 식구가 이사를 온다. ‘정미 어멈’은 이삿짐을 풀자마자 붉은 팔으로 시루떡을 만들고, 갓 찌낸 시루떡을 접시에 정갈하게 올려서 집을 지켜주는 조왕할멈과 성주영감에게 기도를 올린다. 집에 새로 사람이 들어왔으니 모든 일이 잘 풀리게 해달라는 의미의 의식일 것이다. 잊지 않고 이웃집에도 시루떡을 골고루 돌린다. 집에 살고 있는 가신들에게 기도를 올리고, 앞으로 자주 얼굴을 보고 살 이웃들에게 시루떡을 돌리는 것은 우리나라의 오래된 전통이자 풍습이다. 우리가 그동안 잊고 살았던,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들에게는 어색하게만 느껴질 수 있는 이러한 민속신앙과 전통을 이 책에서는 귀엽고 재미있는 삽화로 그려내어 이사를 가면 한 번쯤 따라해 보고 싶게 만든다.

엄마와 함께 이 책을 읽을 수 있다면 같이 책을 읽고 집에 있는 쌀가루와



팔고물 시루떡

이월 글, 홍우리 그림.

키즈엠, 2014.

분야 : 그림책

붉은 팥을 이용해서 떡을 만들어보는 활동을 해보아도 좋을 듯 하다. 또한 『팔고물 시루떡』에서는 조왕할멈과 성주할배의 시선으로 이사 온 가족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여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그러면서 조왕신과 성주신의 역할을 객관적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우리나라의 가신의 역할을 쉽게 알 수 있을 듯 하다.

좀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항상 빨리빨리를 외치며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21C 대한민국의 어린이들은 추석, 설날 이외의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이나 이사 온 후에 이웃들에게 떡을 돌리는 것과 같은 전통을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직접 경험해 보는 것이 어렵다면, 『팔고물 시루떡』과 같이 우리나라의 전통을 이야기 하고 있는 재미난 책들을 같이 읽으면서 간접적인 체험을 해보는 것이 한국인의 얼과 긍지를 갖고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풀꽃처럼 예쁘고 사랑스런 아이들

이 시 영

군포시 중앙도서관 사서

이 책은 나태주 시인의 「풀꽃」을 삽화와 글로 엮은 동화책이다. 나태주 시인이 현직 교사시절 수업 중 아이들의 모습에서 꽃을 떠올려 이 시를 쓰게 되었다고 한다.

숲속마을에 초등학교가 있다.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제일 먼저 온 유명한 시인 교장선생님은 어떤 날은 시를 짓고 어떤 날은 그림을 그린다. 4학년 수업시간에 아이들은 선생님께 풀꽃 그리기 수업을 하자고 조른다. 초론 들판을 걸어가는 아이들 중 백지나는 한참 뒤쳐져 따라오질 않는다. 노래 부르기를 좋아해서 혼자 노래를 부르고 따라오느라 늦어진 것이다. 모두 흠어져 풀꽃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교장선생님은 지나에게 할미꽃의 꽃말은 ‘슬픈추억’, 수선화는 ‘자기사랑’, 패랭이 꽃은 ‘순결한 사랑’이라고 알려주신다. 아빠가 없는 준혁이는 날마다 함께 책읽기를 해주시는 친구 같은 교장선생님께 왕눈이 사탕 한 알을 드렸다. 몸이 약해 일년 중 반은 병원에서 지내는 엄마를 가진 예나는 제비꽃을 골똘히 보고 있다. 교장 선생님은 예나에게 제비꽃 꽃말은 ‘겸손’인데 색깔별로 달라서 흰색은 ‘소박함’, 하늘색은 ‘성실’, 노란색은 ‘행복’이라고 알려준다. 숲속 학교 아이들은 풀꽃으로 행복한 하루를 보냈다. 교장선생님은 오늘따라 아이들이 풀꽃처럼 예쁘고 사랑스러웠다. 모두 집으로 돌아간 빈 교실 칠판 한 귀퉁이에는 그날 교장선생님이 지은 시가 적혀 있었다.



꽃

나태주 시, 윤문영, 위정현 글, 윤문영 그림.

계수나무, 2014.

분야 : 그림책 / 추천대상 : 초등학생

꽃

- 나태주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아이들 하나하나 모두를 소중하고 사랑스럽게 보는 마음이 아름답게 전해진다. 시를 짓는다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것, 느낌을 담아낸다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책이다.

가로 세로 길이가 25mm*25mm으로 정사각형 모양으로 도감처럼 연필화로 그려진 삽화가 이쁘다. 나태주 시인은 ‘흙의 문학상’, ‘박용래문학상’, ‘편운문학상’, ‘한국시인협회상’, ‘정지용문학상’ 등 많은 상을 수상하였고 지은 책으로는 『대숲 아래서』, 『돌아오는 길』 등의 시집과 동화집 『외톨이』가 있다.



하늘 꽃을 따라 올테니까

이 현 아

남양주시 진접푸른숲도서관 사서

“만약 사랑하는 내 동생이 세상을 떠난다면?”이 책은 동생의 죽음이라는 상처를 극복해가는 한 소녀의 이야기를 소재로 한 그림책이다. 꽃과 나비를 좋아하는 에밀리와 동생 벤은 단란한 가정의 오누이다. 난생 처음으로 본 나비를 하늘 꽃이라고 얘기하는 사랑스런 벤! 하지만 건강이 좋지 못해서 밖에서 맘껏 뛰어놀 수 없다. 밖에서 놀지 못해도 에밀리는 동생 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좋다. 동생의 네 번째 생일에는 나비 모양의 베개까지 만들어 주었지만 결국 벤은 가족의 품을 떠나고 만다.

죽음이란 단어는 어린 시절에 감당하기에 너무나 무섭고 힘든 말이다. 특히 사랑하는 동생의 죽음은 부모님이 느끼는 상실감과 또 다른 성격의 상처와 아픔이 된다. 이 책의 에밀리 역시 동생의 죽음이라는 현실을 부정하고 시커먼 먹구름과 짙은 집안 그림자 그리며 자신의 슬픈 심리상태를 표현한다. 하지만 동생 벤이 너무나 좋아했던 나비를 통해 자신의 상처를 극복한다. 아픈 동생을 구할 수는 없었지만 웅덩이에 빠져 허우적대는 하얀 나비를 살려내는 과정에서 에밀리 마음 속에 있던 동생에 대한 죄책감과 미안함이 조금은 사라지지 않았을까? 이제 에밀리는 벤이 보고 싶으면 눈을 감고 나비를 떠올릴 것이다. 벤이 하늘 꽃을 따라 올 거니까...

이 그림책은 배경을 특별한 채색 없이 선으로만 표현하고 있으며, 이와 반대로 에밀리와 벤 가족들 그리고 나비들에 화려한 색채를 사용해서 그림과



하늘 꽃이 내 동생을 데려옵니다.

잉거 마이어 저, 마리아 보가데 그림, 길상호 옮김.
씨드북, 2015.

분야 : 그림책 / 추천대상 : 유아 및 초등저학년

스토리를 강하게 연결시켜주고 있다. 대부분의 페이지 하단에는 아름다운 들꽃들과 나비를 그려 넣어 슬픈 주제를 너무 우울하지 않고 아름답고 밝게 그려내고 있다.

그림책 작가이자 임상심리학박사인 작가 잉거 마이어는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을 통해 어린이가 느낄 수 있는 좌절과 아픔 그리고 여러 가지 불안함을 이야기하고 이를 긍정적으로 극복하는 과정을 그림책으로 잘 표현하고 있다. 이 책은 에밀리와 같은 경험이 있는 어린이들에게는 마음의 평안과 희망을,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게는 형제·자매의 소중함을 알려주는 좋은 책이 될 것이다.



모두의 선물

김 혜 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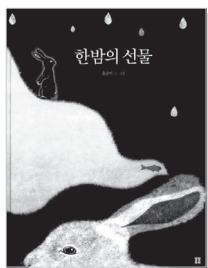
평택시 팽성도서관 사서

어느덧 저녁 어스름이 일찍 찾아오는 계절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쌀쌀한 가을날, 잠자리에 들면서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따뜻한 그림책 『한밤의 선물』을 소개합니다. 빛과 어둠의 토끼 같은 다섯 아이들, 그중에서도 특별히 다섯째 ‘한밤’의 이야기입니다. 각각 하얀색,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 검은색 토끼 그림으로 등장하는 새벽, 아침, 한낮, 저녁, 한밤. 다섯 아이들은 시간의 귓속말을 듣고 깨어나자마자 자연의 아름다움과 마주하게 됩니다.

새벽의 고요한 물안개, 상쾌한 아침 바람, 따사로운 한낮의 햇살, 곱게 물든 저녁노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라지는 자연의 모습이 화면을 풍성하게 채웁니다. 청아하게 피어오르는 물안개와 대비되는 빨간 물고기들이 새벽의 아름다움을 더욱 빛내줍니다. 맑은 아침의 하늘은 파랑새들이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아침의 초롱초롱한 눈망울과 수줍은 미소가 싱그러운 장면입니다. 한낮의 들판은 환하고 또 환합니다. 만발한 꽃들과 애벌레, 화려한 나비들이 자연의 생명력을 더해줍니다. 저녁의 풍경은 노을의 포옹만큼이나 따뜻합니다. 잎사귀인지 구름인지 모를 꿈들이 다람쥐들과 저녁을 안아줍니다.

하지만 한밤이 일어났을 때는 아무것도 없고 어둡기만 합니다. 슬퍼하는 한밤은 다른 아이들과 달리 깊은 잠을 자고 있던 나무 구멍을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속상해 우는 한밤에게도 시간은 흐르고, 나머지 네 명의 형제들은 자신이 가진 것들을 한밤에게 나누어줍니다.

새벽의 고요함과 아침의 바람, 한낮의 밝은 빛, 저녁의 꿈은 한밤에게



한밤의 선물

홍순미 글,그림.

봄봄. 2015.

분야 : 그림책 / 추천대상 : 유아 이상

와서 텅 비어있던 공간을 가득 매워줍니다. 형제들에게 고마움을 느낀 한밤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대신 자신의 일부분을 나누어줍니다. 모두에게 그림자를 선물로 준 것이죠! 가진 것이 없어도 나눌 줄 아는 한밤의 너른 마음이 아이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을 나누어 주고 받고 나니 한밤은 홀로 있어도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새벽, 아침, 한낮, 저녁, 한밤은 우리나라 전통 색상인 오방색으로 표현되었습니다. 백(白), 청(靑), 황(黃), 적(赤), 흑(黑)의 다섯 가지 색은 우리 생활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는 기본 색상으로 만물이 조화를 이루게 하는 선조들의 철학을 엿볼 수 있습니다. 책장마다 담겨있는 오방색의 아름다운 색감이 아이들의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또한 한지를 오리고 붙여 만든 그림에서는 부드러운 솜털 같은 한지 특유의 질감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깜깜한 밤에 홀로 남아 속상한 한밤의 눈물은 하얀 한지로 투명하고 맑게 나타나고, 형제들과 선물을 나누어 받은 한밤의 꿈은 몽글몽글하고 포근하게 그려집니다. 오방색이나 한지의 사용에서 한국적인 색채를 띠고 있지만 결코 어렵거나 무겁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다채롭지만 부드러운 색과 재질에서 파스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침내 한밤은 행복한 꿈을 꾸면서 잠이 들고, 그림책을 끝내는 뒷장의 면지는 반짝이는 별들로 가득합니다. 자기 전에 함께 그림책을 보면서 아이들에게도 아름다운 꿈을 그릴 수 있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파도소리보다 컸던 웃음소리

이 시 영

군포시 중앙도서관 사서

고향을 떠나 도시에서 사는 어른들은 고향에 계신 부모님이 늘 걱정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함께 도시에서 살자고 청해도 부모님들은 살던 곳이 좋다며, 홀로 시골을 지키시는 경우가 많다. 그리운 마음을 어떻게 달래며 지내실까.

뱃고동 소리에 할머니는 먼 바다를 바라보며 꿈에 본 진아를 기다린다. 아이들이 자랄 때는 집안이 파도소리보다 더 시끄러웠지만 아이들이 자라 모두 도시로 떠난 지금은 파도소리만 가득하다. 큰아들의 결혼식 사진을 벽에 붙여놓고 날마다 들여다본다. 손주가 생기고 손주사진을 받던 날은 감격스런 날이었다. 그리고 손주 사진을 결혼식 사진 옆에 걸었다. 그 뒤 자녀들이 차례로 결혼을 하고, 예쁜 손주들도 하나 둘 태어났다. 자식들은 손주들을 사진에 담아 할머니에게 보냈다. 할머니는 사진 하나, 하나에 정성을 담아 벽에 걸었다. 날마다 사진이 늘어났다. 처음엔 사진을 액자에 넣어 걸었지만 액자가 부족해져서 벽에 차례로 사진을 붙였다. 이제 할머니 방은 텔레비전 있는 곳을 빼고는 온통 사진으로 가득 찼다. 할머니는 날마다 사진 속 손주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어느 날은 한없이 사진을 바라보다 물때를 놓쳐서 바지락을 캐지 못하는 날도 생겼다. 유치원 방학을 맞아 큰손녀는 할머니와 함께 지냈다. 방학이 끝나기 전 손녀는 할머니 미술 숙제를 해주겠다며 색종이 액자를 만들어 장식해주었다. 이제 할머니 방은 아름다운 꽃밭처럼 보였다. 할머니 칠순 날 서른 한명의 대가족이 모였다. 손주들은 커다란 사진첩이 된 할머니 방을 보고 모두 놀란다. 가족 사진을 찍으며 활짝 웃는 가족들의 웃



할머니 사진첩

김영미 글, 전수정 그림.

책먹는아이. 2015.

분야 : 그림책 / 추천대상 : 초등저학년

음소리가 바다 멀리멀리 퍼진다.

자주 만나지 못하지만 자식을 향한 사랑과 그리움은 한결같다. 어른들에게는 번잡한 일상에서 잠시 떠나 고향을 그리며 부모님의 사랑을 되새길 수 있게 해주고 아이들에게는 할머니의 따스한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책이다.

저자 김영미는 황금펜문학상,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된 이력이 있으며 지은 책으로는 『다른 건 안 먹어』, 『내 똥에 가시가 있나 봐!』, 『신기한 바다 치과』, 『싱글벙글 쫓리 신부님』, 『아기 하마야 어디 가?』, 『새내기 부부의 새 둥지』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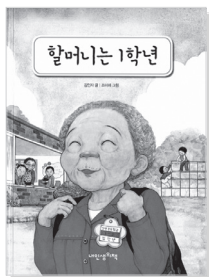
양면초등학교 1학년2반 김간난

이 시 영

군포시 중앙도서관 사서

가끔 텔레비전을 보면 할머니가 초등학생 되어 학교에 다니는 모습, 할아버지가 중학교 교복을 입고 교실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 반 아이들이 불편하지 않을까? 걱정스레 보다가 자신이 해보고 싶은 일들을 나이와 상관 없이 도전하고 이루어내는 어르신들의 모습에 빙그레 웃음 짓게 된다.

양면초등학교 1학년2반은 여덟 살 학생 네 명과 할머니 학생 세 명 모두 일곱 명이다. 그림 속 여덟 살 아이들은 고개를 숙여 결눈으로 할머니 학생들을 보고 있다. 아마도 어르신들 눈치를 보며 기가 죽어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중 간난할머니가 제일 나이가 많다. 받아쓰기 시험에서 간난할머니는 40점을 맞고 꼴등을 했다. 할머니는 지난 밤에 받아쓰기 공부를 하지 않고 잔 것을 후회한다. 간난할머니집에 담임선생님이 가정방문을 했다. 할머니는 도토리묵을 쭈어주고 묵은지를 한통 싸드린다. 체험학습 가는 날 간난할머니 며느리가 반 친구들이 다 먹고도 남을 만큼의 김밥을 산더미처럼 쌓아 오고 할머니 주머니에 맞난 것을 사드시라고 돈도 넣어 드린다. 박물관에 간 간난할머니는 유리전시관에 붙은 유물이름을 읽는 재미에 푹 빠졌다. 점심을 먹고 난 후 수건 돌리기에 걸려서 엉덩이 이름쓰기 벌칙도 했다. 여덟 살 친구들은 우유를 먹고 할머니들은 커피를 마신다. 친구들과 먹는 점심도 꿀맛이다. 학교에서 돌아와 일기쓰기를 하는데 먼저 연습장에 쓰고 다시 일기장에 옮겨 적는다. 다 적고 나면 할아버지께서 검사를 하시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벽에 비친 할아버지 모습은 호랑이 모습이다.



할머니는 1학년

김인자 글, 조미애 그림.

내인생의책, 2014.

분야 : 그림책 / 추천대상 : 초등저학년

마음은 여덟 살 아이들 못지않다. 숙제를 힘들어하고 벌칙을 받으면 창피하다. 떼를 쓰다 혼나기도 한다. 그 속에 순수한 마음이 숨어있다. 어른들도 아이들도 다 같은 마음이다.

할머니는 밭일 하느라 숙제를 못해서 할아버지께 숙제해달라고 조르지만 숙제는 학생이 하는 거라며 한마디로 거절한다. 할아버지에게 마늘 까기 일을 맡겨놓고 학교에 가는 할머니는 학교생활이 마냥 즐겁다. 일기쓰기, 꼬부랑 글씨 영어 배우기, 받아쓰기 시험, 구구단 외우기 등이 쉽지는 않지만 학교 가는 길이 즐겁다. 그 길은 할머니의 고운 꿈길이기 때문이다.

옛 선현의 말씀 중에 아이들은 양의 기운이 많아 할아버지나 할머니와 함께 하는 생활이 좋다고 한다. 음기운과 양기운이 만나 조화를 이루기 때문이란다. 그래서 양면초등학교 1학년2반 아이들은 한참 어른들과 함께 학교생활을 해서 불편하고 어렵겠지만 알게 모르게 푸근한 기운이 감돌아 마음 편한 학교생활이 될 수 있겠다.

학교에는 모두 같은 나이의 학생들과만 학년을 이루고 또래만 친구가 될 수 있을 거라는 편견을 버리고 누구나 친구가 되어 함께 할 수 있다는 인성을 키워주는 책이다.



달님 속 할머니

이 시 영

군포시 중앙도서관 사서

연필로 그려진 그림을 보면 친근한 기분이 든다. 그림을 못 그린 듯 해도 나름의 아름다움이 숨어있고 뽀뽀뽀 그린 것은 그것대로 내가 그렸거나 옆 친구가 그린 것처럼 느껴서 빙그레 웃음 짓게 하기 때문이다. 누구의 그림일기를 보는 듯한 연필 삽화는 편안한 마음으로 책 속으로 끌어들인다. 회색빛 연필 그림에 빨간색만 톡 튀어나오 듯 선명하다. 책 속 아이는 병원에 가신 할머니 생각을 하며 할머니의 빨간 구두를 신어보고, 빨간색 전화기를 보며 할머니의 전화를 기다린다. 아이의 침대 옆 어항 속에도 빨간 붕어가 들어있다. 빨간 무당벌레를 보고도 할머니를 떠올리고 온통 할머니 생각뿐이다.

할머니는 언제 오실까?

한 밤중에 전화가 울리고 전화를 받은 엄마는 울음을 터뜨린다. 할머니 전화였을까? 영문을 모르고 아이는 잠에 빠져 든다. 아침이 되어 아빠는 할머니가 하늘나라로 가셨다고 알려준다. 아이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하늘에 할머니가 없다. 주위를 돌아봐도 할머니가 없어서 기다려 보기로 했다. 할머니는 오시지 않는다. 집안 모든 것이 그대로지만 할머니 모습만 없다. 이제 아이는 달님을 보며 할머니께 인사한다.

아이들은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슬픔과 분노의 감정이 채 익숙해지기 전의 아이들은 애완견의 죽음이나 할머니 할아버지 또는 주위 친지들의 죽음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이 책에서는 아이가 죽음을 이해하는 것이 아



할머니를 기다립니다

세베린 비달 글, 세실 방구 그림, 박상은 옮김.

푸른숲주니어, 2014.

분야 : 그림책 / 추천대상 : 영유아

나라 느껴지는 과정을 보여준다. 할머니가 안 계셔도 주위는 아무 변함없이 그대로라는 것과 보고 싶어도 이제 볼수 없다는 것 그래서 마음속에 고이 담는다.

작가 세베린 비달은 프랑스에서 태어났으며 다른 저작물로 『잔소리는 이제 그만』이 있다. 이 책을 따라 가다 보면 죽음과 이별 앞에서 아프지만 담담하게 받아들이게 된다.

모두 32쪽으로 가로가 세로에 비해 13mm 길다. 하얀 여백에 연필로 부드럽게 그리고 할머니를 떠올리는 특징적인 사물에 만 빨간색을 칠한 삽화가 여운으로 남는다.

할머니의 할머니의 할머니의 옷들

유 향 숙

성남시 판교도서관 사서

상식과 우리문화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는 그림책이다. 어떤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림을 통해 우리 전통 의복과 시대의 삶을 엿볼 수 있는 책이다. 이 출판사가 표방하고 있는 정신 역시 ‘온고지신’이라고 쓰여 있다. 즉 어제를 헤아리며, 오늘을 살고 내일을 열어갈 수 있도록 안내하고자 하는 뜻을 담고 있다.

이 책과 비슷한 소재의 이야기인 『아씨방 일곱동무』라는 책을 함께 읽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두 그림책의 공통점은 그림을 잘 그리면서도 옛날 것에 대한 흥미를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류직물학 박사인 김소현 선생님이 감수한 책이기에 시대에 따른 복식의 역사적 사실이 검증되었다. 문화관광부의 우수교양도서로도 선정되기도 했으니 믿고 보는 책이라 하겠다.

60년대부터 거슬러 과거로 가면서 조선후기, 전기, 고려시대, 삼국시대, 청동기, 신석기, 구석기 시대까지 어떤옷을 입었으며, 어떤 기술을 탄생했는지를 한 장의 그림에 표현을 해 주어서 간단하면서도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게 만들었다. 그러면서도 어린이들이 읽는 책이기에 유머와 위트, 어린이들의 감성(따라하고 싶고 동경하는 마음)이 곳곳에서 느낄 수 있었다.

그 시대의 최고의 멋쟁이들이 입었던 옷이기도 하고 유행하기도 했으며, 시대를 반영하는 옷이기에 알아두면 상식이 늘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옷들은 편리하고 실용적인 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먼 미래



할머니의 할머니의 할머니의 옷

홍선주 지음, 김소현 감수.

책읽는곰. 2009.

분야 : 그림책 / 추천대상 : 초등2~6학년

에서 오늘을 바라보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옷은 어떤 옷을 대표
옷으로 여길 것인지 개인적으로 궁금해지기도 하며, 또 미래에는 어떤 옷을
왜 입게 될 것인지 미래의 생활은 어떻게 펼쳐질지 과거를 보니 미래도 궁금
해진다.



함께 걸어가야 할 길

김 정 옥

평택시 지산초록도서관 사서

『함께 걷는 길』은 이 땅에 살아가는 아이들의 현실을 담은 그림책을 만들고자 고민하는 김서정, 한성옥 작가의 작품이다. 진실한 이야기로 큰 울림을 준 『나의 사직동』의 글과 그림을 그렸던 두 작가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을 위한 초등 대안학교인 아시아공동체학교를 방문하고, 이 학교를 모델로 아이들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냈다.

책의 첫 장면은 아이들이 손에 손을 잡고 낙동강 길을 걷는 모습이다. 아이들의 뒷모습을 그린 머리색과 피부색이 다양하다. 학교에서는 한 달에 한번씩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모두 함께 길을 걷는 날이 정해져 있다. 때로는 걷기 좋은 날도 힘든 날도, 뒤통지는 아이도 있다.

주인공인 나의 이름은 이리나로 한국 아빠와 재혼한 엄마를 따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왔다. 아빠는 친절했지만 한국에 오자마자 다니게 된 학교생활은 이리나에게 힘들었다. 그러다 옮기게 된 아시아공동체학교에는 다양한 나라에서 온 친구들이 많았고, 안나와 단짝이 된다. 세계사 시간에 자기가 태어난 나라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에는 선생님이 된 기분이 들기도 하고, 학교의 다문화축제에서는 사물놀리와 연극을 멋지게 해낸다. 살을 빼려고 수영을 시작했는데 수영 국가 대표가 꿈이 된 알렉을 포함하여 이리나의 친구들은 꿈이 많다. 넓은 세상을 보며 살라고 부모님이 다문화 학교에 보낸 수정이와 여름 캠프에 와 본 후 이 학교에 꼭 다니고 싶어 오게 된 종현이 등 한국 친구도 있다. 그 친구들의 손을 잡고 아이들은 오늘도 걷는다. 우리가



함께 걷는 길

김서정 글, 한성옥 그림.

웅진주니어, 2010.

분야 : 그림책 / 추천대상 : 유아 이상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이다.

‘多문화’는 이제 우리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문화이다. 이런 문화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같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어른들의 역할인 것은 두 말 할 나위가 없다.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 뿐 아니라 부모들도 그들 없이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같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 우리들에게 물음표를 던지는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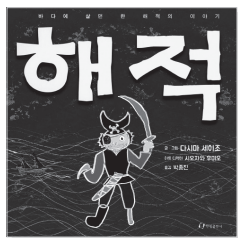
해적선, 달나라로 가다

이 수 경

평택시 장당도서관 사서

다시마 세이조의 『해적』을 보았습니다. 거친 바다에서 홀로 상어와 싸우고, 문어와 친구 하고, 낮잠도 마음대로 자는 해적. 다시마 세이조가 그려 낸 해적은 그야말로 거칠 것 없는 자유로움 자체입니다. 갓 태어난 어린 파도와 놀 때는 아이 같지만 성한 한 쪽 다리를 탐내는 상어를 한 눈으로 제압하는 해적은 용감합니다. 해적이 먹고 놀기만 하는 건 아닙니다. 섬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괴롭히는 괴물과 용감하게 싸워 잡아먹기도 합니다. 제 몫의 일을 툭툭히 하는 해적입니다. 어느 밤 해적은 뱃머리에서 울고 있는 인어를 보고 사랑에 빠집니다. 사랑하는 인어를 찾아다니며 해적은 바다 속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알게 됩니다. 바다가 병들어가고 있고, 인어 또한 아프다는 것을... 사랑하면 알게 되는 걸까요? 바다 위에서 자유로이 살던 해적이 바다 속을 들여다보자 바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게 됩니다. 바다 속은 병들고 여울은 메워져 인어가 살 곳이 사라집니다. 해적은 바다를 살리고 인어를 살리기 위해 용감히 맞서지만 이내 쫓기게 됩니다. 섬사람들이 해적을 숨겨주어 드디어 바다 밑에 쓰러진 인어를 발견한 해적은 달을 향해 소리칩니다. 그리고 ‘해적선은 조용히 날아’ 갑니다. 까만 밤하늘을 밝히는 달나라로.

다시마 세이조는 해적과 인어의 예쁘고 슬픈 사랑 이야기 속에 개발로 병든 바다 이야기를 펼쳐 놓았습니다. 병들어버린 바다에서 인어도 병들어갑니다. 해초 셀러드를 나누며 사랑을 키운 해적과 인어는 사랑싸움을 해보기도



해적 : 바다에 살던 한 해적의 이야기

다시마 세이조 글, 그림, 시오자와 후미오 아트 디렉터, 박종진 옮김.
한림출판사. 2015.

분야 : 그림책 / 추천대상 : 초등저학년부터

전에 병든 바다에서 죽어갑니다. 해적과 인어만의 슬픈 사랑 이야기일까요? 자연이 병들어가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오래 오래 행복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개발로, 쓰레기로 병들어가는 바다를, 자연을, 지구를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터전이 무덤이 될 수도 있습니다. 환경오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어떤 이들은 인류가 늘 해결책을 찾아왔기에 발달된 기술력으로 오염된 지구도 구할 수 있을 것이라 말합니다.

급속도로 생태계 동식물들이 멸종되는 지금, 우리는 ‘stop’을 눌러야 합니다.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 전, 각 나라들이 개발 이윤에 대한 탐욕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들도 생활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품을 살뜰히 모아야겠지요. 나 하나 한다고 뭐가 달라질까라는 의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부터 시작해야겠지요.

다시마 세이조가 이야기를 건네는 방식이 참 좋습니다. 바다를 살리자 소리치지 않아도 바다에 독을 푸는 큰 배와 맞서 싸우는 해적을 응원하고 인어의 죽음에 가슴 아파 합니다.

슬프고 아픈 이야기를 품었지만 화면 분할과 장면 구성이 신나는 해적 영화 한 편을 보는 듯 합니다. 다양한 채도의 푸른빛을 배경으로 원색을 사용하여 인물의 성격이 잘 드러나도록 선과 면을 구성하고, 대비되는 색상으로 그 장면에 몰입하도록 합니다. 영화를 보는 듯 한 느낌은 다양한 구도의 화면 분할, 푸른색과 원색의 과감한 사용, 등장인물에 확실한 성격 부여 등이

어우러진 결과겠지요. 다른 그림책에서는 볼 수 없는 아트 디렉터 시오자와 후미오의 역할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글로 적혀있지 않아도 그림으로 해적이 참으로 유쾌하고, 몸도 마음도 건강한 용감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다가 건강해져서 달나라로 날아간 해적선이 다시 지구로 돌아오길 바랍니다. 아이들과 환경오염이나 우리의 역할 등에 대해 이야기 할 때 활용하기 좋은 그림책입니다.

● ● ● 혼자 집을 보는 건 용기가 필요해

이 연 수

수원시 북수원지식정보도서관 사서

『혼자 집 보는 날』. 그림책 제목을 읽는 순간 어릴 때 처음 혼자 집을 보던 생각이 났다. 유치원생 아짱의 이야기는 마치 나의 경험을 들춘 듯 하다.

표지에서 알려주듯 엄마는 문밖을 나가며 아이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아이는 그런 엄마를 집안에서 배웅하는 데 아이의 표정이 무언가 겁 먹은 듯한 표정이다. 주인공 아짱의 엄마는 할머니가 갑작스레 편찮으시다는 연락에 할머니 댁을 방문하러 가고, 유치원생 아짱은 혼자서 집을 보게 된다. 아짱은 혼자 있는 동안 간식도 먹고, 인형에게 말도 걸고, 블록 쌓기도 하고, 책도 읽지만 점점 집안이 어두워지자 두려움을 느낀다. 물을 먹으려고 들어선 주방에서 주방도구와 채소들이 일제히 눈을 뜨고 아짱을 바라보자, 놀란 아짱은 탁자 속으로 기어들어간다. 탁자 밑에서 몸을 움크린 아짱에게 곰인형이 안심을 시킨다. 주방도구들은 녹슬지 않기 위해, 채소들은 더 맛있어지기 위해 체조를 하고 노래를 부른다는 것이다.

어렸을 적 혼자 집을 볼 때면 두려운 마음에 누구라도 빨리 오길 기다렸다. 늘 보던 익숙한 집안의 가재도구도 다르게 보이고, 방안의 시계추 소리도 유독 크게 느껴지며, 방에 비친 내 그림자조차도 무섭고, 영원히 가족들이 돌아올 것 같지 않은 두려움의 기억이 나에게 있다.

이 책은 그 실체없는 두려움을 다루며, 두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혼자 집 보는 날

모리요코 글, 그림, 김영주 옮김.

북스토리, 2014.

분야 : 그림책 / 추천대상 : 유아

작가는 주로 펜과 연필을 사용하여 작품을 그리는데 이 책 또한 연필 고유의 질감을 살려 흑백으로는 짙어와 모습과 현실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절제된 몇 가지 색으로는 짙어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판타지한 세계를 그려 대비시킨 점이 특징이다.

이 책은 아이의 두려운 마음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그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법도 새롭게 보여주어 아이들이 혼자 집을 보면서 생기는 두려움과 해소방법을 미리 학습할 수 있는 용기를 보여준다.

요즘은 맞벌이가정이 많다보니 혼자서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이 많다. 아이들이 두려움 없이 혼자서 집을 보낼 수 있도록 부모는 용기와 시간 보내는 방법을 미리 알려 줘야 될 필요가 있다. 그들을 위한 책으로 권해본다.



거울아, 거울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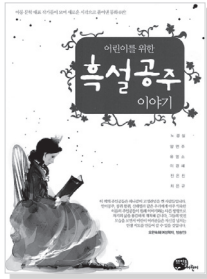
이 은 주

남양주시 오남도서관 사서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누구나 한 번쯤 읽어보았을 백설공주에 나오는 대사다. 여자아이가 6~7세가 되면 공주이야기에 빠져든다. 백설공주, 인어공주, 신데렐라 등. 그런데 서양에서 시작된 공주들은 모두 피부가 하얗다. 하얀 피부에 쌍꺼풀진 눈을 가지고, 큰 키와 날씬한 몸은 어느새 모든 사람들이 선망하는 미의 기준이 되어 있다. 그런데 과연 미의 기준은 절대적이며, 변하지 않는 것일까? 아이들에게 하얀 피부의 공주이야기를 읽어주고, 보여주며 미의 기준을 강요하지는 않았는가? 이러한 조금은 다른 생각을 하게 해주는 『흑설공주』가 반갑다.

백설공주는 하늘에서 내리는 검은 눈을 보며, 검은 눈처럼 아름다운 아기를 원하여 까만 피부를 가진 공주를 낳고 죽게 된다. 그 공주의 이름이 바로 흑설공주. 흑설공주는 태어나면서부터 주변 사람들의 놀림과 편견 속에서 자라나지만, 진실의 거울 만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흑설공주라고 말한다. 시샘 많은 새 왕비는 진실의 거울이 한 말을 믿고 흑설공주를 나쁜 꾀에 빠뜨린다. 위험에 처한 흑설공주는 일곱 난쟁이와 정원사의 도움으로 다시 궁궐로 돌아오고, 흑설공주의 모습을 본 주변 사람들은 비로소 흑설공주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깨닫고 자신들의 잘못된 생각을 뉘우치게 된다는 이야기다.



흑설공주

이경혜 글, 주리 그림.

뜨인돌어린이. 2015.

분야 : 그림책 / 추천대상 : 유아

이 동화는 백설공주를 패러디한 그림동화로 검은 피부를 가진 흑설공주가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는 과정을 통해 아름다움에 대한 고정 관념을 바꿔 주고, 미에 대한 바른 생각과 기준을 심어 준다. 작가는 결국 자신만의 독특한 개성과 아름다움을 만드는 것은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자존감과, 세상의 편견에 맞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용기임을 흑설공주 이야기를 통해 말하고 있다.

‘아름다움’이란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것!, 내 안의 가치를 발견하자!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누구니?” 진실의 거울은 우물쭈물 말했지요. “모르겠어요. 저마다 나름대로 아름다우니 누가 가장 아름다운지 알 수가 없어요.” 그 대답에 공주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답니다. “그래, 모두들 정말 아름답지? 짙레꽃은 짙레꽃대로, 제비꽃은 제비꽃대로, 나비는 나비대로, 나방은 나방대로,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말이야.”

아이들이 좋아하는 대표적인 공주이야기에 “흑설공주”를 추가해야겠다.



아름다움의 기준은?

이 연 수

수원시 북수원지식정보도서관 사서

『흑설공주』 책을 보는 순간 자연스럽게 백설 공주가 생각난다. 백설 공주의 패러디물인가 싶어서 읽어보았다. 흑설 공주는 왕자와 결혼한 백설 공주가 하늘에서 내린 검은 눈을 본 순간 검은 눈처럼 아름다운 아기를 소망하여 낳은 아기이다. 얼굴은 예쁜데 마음씨 나쁜 계모 마녀도 등장하고 난장이도 등장하고, 다시 살아나 결혼하는 내용도 비슷하나 독 사과를 먹어 죽은 백설 공주와는 다르게 흑설 공주는 책장에 묻은 독에 의해 죽는다. 원전 『백설공주』와 비교해서 읽으면 재미있다.

우리 한국에 많은 다문화인들이 살아가고 있음에도 백인과 백인 아닌 사람들에 대한 생각은 다양하지 못한 것 같다. 그건 우리가 많이 접하는 외국 동화 속 주인공뿐 아니라 외국 영화 속 주인공은 늘 하얗고 눈도 크고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사람으로만 그려지고, 아름다운 외모는 우수한 유전자를 가진 사람으로 이어져 백인은 아름답고 귀하게 표현된 것을 보았기 때문은 아닐까? 그와 비교하여 흑인은 아름답지 않고 무지하다고 무시하는 인식도 있다. 책을 읽고 나면 그런 관념을 뒤집어 볼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재미까지 선사한다.

작가는 이 책을 통해 언제든 바뀔 수 있는 아름다움의 기준에 매달리지 말고 자신만의 독특한 아름다움을 찾아내 자신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동화 속 내용은 단순하지만 아름다움에 대하여 다시한번 생각할 수 있



흑설공주

이경혜 글, 주리 그림.

뜨인돌어린이. 2015.

분야 : 그림책 / 추천대상 : 유아

는 흥미로운 책이다.

작가의 새로운 시각에서 아름다움을 접근하는 것은 의도가 참 신선했는데 개인적으로 아쉬운 것은 동화 속 흑설 공주의 얼굴색이 흑색이 아닌 회색이라는 것이다. 흑색과 회색은 엄연히 다른 것인데 진정한 흑색의 아름다움이 제대로 표현되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



여름날, 장대비를 맞으며 찾아간 엄마

공 정 자

안성시 진사도서관 사서

그림책으로 박철 시에 김재홍 작가가 그림을 그렸다. 고무신을 신던 시절, 여름 장마철의 농촌을 배경으로 한다. 철이는 피살이를 위하여 논으로 일하러 간 엄마에게 빵과 물을 갖다 주기 위해 집을 나선다. 엄마를 만날 생각에 기쁘지만 갑자기 하늘이 시커매 지고 장대비가 쏟아지자 철이는 다시 집으로 돌아갈지, 엄마에게 갈지 고민한다. 결국 철이는 비를 맞으며 엄마에게 뛰어간다. 엄마는 집으로 가지 않은 철이의 등짝을 때리고 혼내지만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글을 통해 듬뿍 담겨있다. 엄마의 품이 넓고 따뜻했음을 회상하는 ‘엄마의 품에는 세상 모든 파사로운 햇살이 다 담겨 있다’라는 마지막 글이 인상적이다.

지금의 어린이들은 걸어 다니지 않고, 차를 타고 다니고, 학교 오가는 길도 짧기 때문에 이런 여름날 풍경이 생소할 할 것이다. 시골 농촌에 살았던 나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시커먼 먹구름에서 쏟아지는 장대비를 맞았던 적이 있다. 유난히 몸이 왜소했던 나에게 굵은 빗줄기는 참 아팠던 기억이 있다. 그 때의 느낌 때문일까? 이 책 속 철이의 이야기가 공감이 갔다.

김재홍 작가는 이 책에서 여름날 하늘에 갑자기 시커먼 먹구름이 끼고 장대같은 비가 내리는 풍경을 사실적으로 잘 표현했다. 그림 속 배경만 아니라 철이와 엄마의 표정도 실감 있게 그렸다. 흰 색 테두리를 두른 액자식 그림



엄마의 품

박철 시, 김재홍 그림.

바우솔. 2015.

분야 : 그림책(동시)

이 글과 함께 풍성한 이야기를 전한다. 2000년에 출간된 『숲 속에서』, 『동강의 아이들』에서와 같이 우리나라 풍경과 인물을 사실적으로 그려온 그림 작가이기에 이 책에서도 아름답게 표현되었다. 책의 마지막에는 시를 번역한 영문이 함께 수록되어 있다.

813.8 사서,
어린이책^을
말하다 2015



동화책 서평



동화책 서평



서평대상도서명	서평자	소속	페이지
강아지가 아니어서 미안해	이연수	수원시 북수원지식정보도서관	208
고래가 뛰는 이유	유현미	평택시 시립도서관	210
고작해야 364일	이은주	남양주 오남도서관	212
광대 달문	송은희	평택시 시립도서관	214
꿀까닥꿀까닥, 내 명줄 줄어든다!	이현아	남양주시 진접푸른숲도서관	217
꿀뚜기	최미송	안양시 만안도서관	219
나리야 미안해	조수연	가평군 조종도서관	222
날아라 삼겹살	박지원	안성시 공도도서관	224
내 이름은 아임소리	박지원	안성시 공도도서관	226
너 딱 걸렸어	송은희	평택시 시립도서관	229
달빛도시 동물들의 권리 투쟁기	이가영	평택시 안중도서관	232
(부자가 되는 어린이 경제동화) 또봉이 통장	이은주	남양주시 오남도서관	234
마지막 이벤트	유옥환	안양시 박달도서관	236
막난 할미와 로봇 곰 덜덜	이연수	수원시 북수원지식정보도서관	238
모르는 아이	이수경	평택시 장당도서관	240
반쪽엄마	이민혜	양평군 용문도서관	243
빨리 놀자 삼총사	이연수	수원시 북수원지식정보도서관	245
삼촌은 길박사	이연수	수원시 북수원지식정보도서관	247
소년 명탐정 정약용	박지원	안성시 공도도서관	249
수상한 로봇 가게	유향숙	성남시 판교도서관	251
시골 꼬마 만복이	박지원	안성시 공도도서관	253

서평대상도서명	서평자	소속	페이지
아베 히로시와 아사히야마 동물원 이야기	송은희	평택시 시립도서관	255
엄마 나를 포기하세요!	박지원	안성시 공도도서관	258
엄마~ 5분만~	박지원	안성시 공도도서관	261
우리 엄마 바꾸기	이연수	수원시 북수원지식정보도서관	263
우리집 위층엔 킹콩이 산다	이은주	남양주시 오남도서관	265
이대로그가 아닌 이대로	유옥환	안양시 박달도서관	267
이상한 편지	박지원	안성시 공도도서관	269
장자못 이야기	이시영	군포시 중앙도서관	271
청국장, 똥국장	이현아	남양주시 진접푸른숲도서관	273
피카이아	박지원	안성시 공도도서관	275
할머니가 사라졌다	이가영	평택시 안중도서관	277
햄버거랑, 피자랑, 맛있는 것만 먹을래!	박지원	안성시 공도도서관	279
〈청소년소설〉			
모두 갇힌	유현미	평택시 시립도서관	281
우정 지속의 법칙	유현미	평택시 시립도서관	284
희망을 부르는 소녀 바리	이수경	평택시 장당도서관	287



토끼라서 고마워

이 연 수

수원시 북수원지식정보도서관 사서

성남 모란시장에 팔려나온 새끼 토끼는 최근에 아빠가 돌아가신 딸만 둘 있는 집으로 들어가게 된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딸들은 무척 새끼토끼를 사랑하여 캄동이란 이름을 만들어주고 귀여워한다. 새끼토끼는 행복한 일상을 보내지만 가끔 작은 딸이 토끼가 아닌 강아지였으면 하는 바램이 마음에 걸린다. 작은 딸이 강아지를 소망하는 것은 돌아가신 아빠가 살아계실 때 작은 딸에게 강아지를 사주려고 했던 것을 기억하기 때문이다. 강아지를 원하는 것이 돌아가신 아빠에 대한 그리움이란 것을 안 토끼 캄동이는 강아지가 아니어서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고, 토끼인 자신을 강아지처럼 행동하려고 노력한다.

강아지처럼 부르면 달려가고 혀로 핥고, 사람을 깨우는 등, 가족들에게 그 마음을 전달해 보려고한다. 그러나 캄동이는 몸짓이 커감에 따라, 혹시라도 동물세균을 전염시킬까봐 염려하는 엄마의 걱정으로 가족과 함께 지내던 곳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옮기게 된다. 토끼의 새로운 집은 두 딸이 다니는 학교의 동물 사육장이다. 가족과 떨어져 새로운 학교 사육장으로 가게 된 캄동이는 걱정이 많았지만 사육장에는 잿빛토끼도 있고, 오리, 칠면조, 병아리, 청공작 등 다른 여러 동물들이 함께 있어 마음이 놓인다. 그러나 어느 곳에서나 텃새를 부리는 것이 있었으니 그 건 몸짓이 유난히 큰 늙은 수탉이다.

힘을 자랑하여 무리에서 잘난척하려는 늙은 수탉에게 공격을 당하지만, 캄동이는 다른 동물들의 열띤 응원과 자신을 사랑해준 누나들을 생각하며 수



강아지가 아니어서 미안해

이상교 글, 유명희 그림.

현북스, 2015.

분야 : 동화책 / 추천대상 : 초등 중학년

닭을 이기게 된다. 싸움에 이긴 까동이는 즐거운 날을 보내게 되고 사육장의 잿빛토끼와 결혼을 하고 아기토끼가 생기면서 행복한 일상을 보내며 동화는 끝난다.

반려동물하면 대부분 강아지, 고양이를 키우던 예전과 다르게 요즘은 그 종류가 다양해져서일까

토끼를 반려동물로 설정한 것도 특별하며, 이야기를 이끄는 화자가 사람이 아닌 토끼가 이끌어간다. 토끼는 전지적 시점에서 동화를 구성하여 사람의 입장에서 동물을 바라보던 것에서 벗어나 동물입장에서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된 점도 신선하다.

시인이자 동화작가인 이상교는 토끼와 함께 살았던 경험을 살려 토끼가 가족이 되기까지 삶과 사랑, 이별을 섬세하고 재미있게 그려내고 있다. 애완 동물을 키우고 싶어하는 어린이들이 꼭 한번 읽어보길 추천한다.



고래가 뛰는 이유

유 현 미

평택시 시립도서관 사서

이 책은 우정과 관계 그리고 이별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초등학생의 우정과, 죽음이 갈라놓는 노년의 우정이 함께 등장한다. 관계가 깊을수록 이별의 고통은 커지고, 이별 후 서로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고 싶은 욕망도 커진다.

평화학자 정희진은 이에 대해 “이별은 정산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 이익만 남기려고 하는 것은 망상이죠. 좋은 인상으로 남으려는 것, 이것은 인간의 가장 추잡한 욕망입니다.”라고 일갈한다. 이 책은 이런 철학적 물음들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하는 책이다.

친구 도영이와의 이별에 대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믿는 원섭은 그에 대한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던 중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고 오히려 친구에게 배신감을 느낀다. 그러나 원섭은 친구를 원망하기 보다는 좋은 기억으로 남고 싶었던 친구의 욕망을 이해하고 누구나 잊힐 권리가 있다는 성숙한 깨달음을 마주한다.

한편, 소꿉친구와 평생을 함께 이어왔던 노년의 우정은 조금 더 애뜻한 울림을 안겨준다. 겉으로 드러난 그들의 불화가 오히려 상대를 위한 속 깊은 배려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가슴이 먹먹해 진다. 오랜 시간 세월의 풍파를 견뎌낸 곱삭은 우정만이 가지는 깊이를 가늠케 하는가 하면 유쾌한 이야기들을 통해 이웃과 우리 삶에 대한 따뜻한 신뢰를 보여준다.



고래가 뛰는 이유

최나미 글, 신지수 그림.

창비, 2014.

분야 : 동화책 / 추천대상 : 초등 고학년

무엇보다 이 책이 가진 가장 큰 미덕은 사람들을 착하거나 나쁜 사람으로 정확하게 이분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각자의 상황과 이유에 따라 전혀 다른 입장이 될 수도 있음을 보여 준다.

또 아이들을 순진무구한 천사가 아닌 욕망의 주체이자 한편으로는 아이다운 천진함과 타인에 대한 공감을 넘어 삶에 대한 나름의 이해를 지닌 다층적인 존재로 다루고 있다. 특히 이 작품에서 눈여겨 볼만한 부분은 어른다운 어른들의 존재이다. 내 아이가 조금이라도 손해볼까봐 영악하게 계산하고 자신의 치마폭에 아이를 감추는 대신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고 한발 짝 물러나 지켜볼 줄 아는 어른다운 어른 말이다. 이웃의 아이를 거두고 홀로 된 노인을 보살피며 공동체 안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어른들을 보고자란 아이들은 자연스레 공동체에서 제 몫을 하는 구성원으로 성장하게 될 터이다.

어른다운 어른들이 있다는 것은 아이들의 욕망이 서로 부딪칠 때 충격을 완화하는 안전장치가 작동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 안전장치 안에서 아이들은 때로는 싸우며 때로는 서로 도우며 ‘모든 일에는 끝이 있다’는 것과 ‘시간이 지나면 달라지는 것’들이 있다는, 삶의 진리를 하나씩 터득하며 성장해 나갈 것이다. 그렇게 우리의 아이들은 고래처럼 뛰어 오르며 먼 바다로 나아갈 것이다.



동생은 서러워!!

이 은 주

남양주시 오남도서관 사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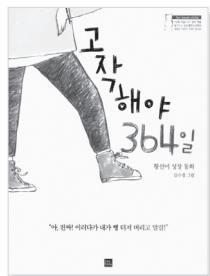
“고작해야 364일, 늦게 태어난 게 뭐가 잘못이라고!”

책 내용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주인공 명조는 형 윤조보다 364일 늦게 태어난 동생이다. 명조는 새 것을 별로 가져보지 못했다. 옷도 학용품도 하다못해 유모차에 딸랑이까지 윤조가 쓰던 걸 얻어 쓰는 신세였다. 겨우 364일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아빠도 엄마도 할머니도 늘 형 윤조가 첫 번째다.

어느 날 할머니가 형 윤조의 운동화(명조가 평소에 신고 싶어 하던)만 사 오자, 명조는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라 운동화 한 짝을 집어 아파트 베란다 창밖으로 떨어뜨린다. 화김에 ‘일’을 저지르고 난 후 후폭풍이 두려웠던 명조는 1층으로 내려가 찾아봤으나 운동화는 종적도 없이 사라졌다.

동생으로 태어난 억울한 심정을 아이의 솔직한 어조로 표현하여 독자로 하여금 이해하고 공감하게 한다. 황선미 작가의 전작 ‘나쁜 어린이표’에서 주인공 건우의 억울한 심정도 연상된다.

또한 동생을 생각하는 윤조의 속 깊은 마음과 명조가 그런 형의 마음을 조금씩 깨달아가는 과정, 결핍의 시대에 유년기를 보낸 아버지와 풍요의 시대에 살고 있는 아들의 입장에 대해, 개성을 존중받아야 할 아이들에 대해, 학원이나 성적으로 고달픈 아이들의 우정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다. 황선미



고작해야 364일

황선미 글, 김수정 그림.

포북차일드, 2015.

분야 : 동화책 / 추천대상 : 초등중학년이상

작가 특유의 현실적 감각으로 성장기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세상을 바라보고, 아이들도 나름대로 아픔을 겪으며 그걸 통해서 배우며 성장해 나간다는 얘기다.

세상은 환타지가 아니라는 것, 때로 아프고 억울하고, 화가 나지만 가족과 친구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며 이해해 나가는 아이들의 모습이 건강하고 든든하다.

이 책은 작가의 조카들 이야기가 작품의 모티브가 되었다고 한다. 또한 ‘날라리 보이스카우트’라는 별명을 얻은 장본인은 바로 작가의 장남이자 『나쁜 어린이표』의 주인공 이견우라고 말한다. 머리말에서도 밝혔듯 작가 언저리의 사람들은 조심해야 한다. 작가들의 시선은 그냥 봐 넘기는 게 없다. 스펀지처럼 빨아들여 언제든 기어이 작품에 써먹기 때문이라고 한다.

가족이 함께 읽고 서로의 마음을 이야기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



보잘 것 없어도 값어치 있는 삶

송 은 희

평택시 시립도서관 사서

‘한쪽으로 뺄어진 입, 어찌나 큰지 얼굴의 반이 입인, 찌진 눈에 눈자위가 짓무르고 머리도 엉망으로 헝클어진 모습, 추악한 외모에 천하디 천한 거지’ 사람들이 달문에 대해 하는 말이었다. 그런 달문이 아이들에겐 영웅이었고 장터에선 싸움을 잊게 하는 춤사위로 화해의 장을 만들어내는 화해꾼이었다. 달문이 가는 곳엔 언제나 사람들이 모였고 사는 게 버거운 서민들에게 기쁨과 위로의 장이 되었다.

작가의 말을 빌면, 달문은 조선 후기 거지 출신으로 의리와 신용의 상징이었던 인물이자 연암 박지원의 광문자전의 주인공, 홍신유가 지은 달문가라는 장편 시의 주인공이기도 한 실존 인물이다. 천민이면서 한 시대를 풍미했던 광대 달문의 이야기가 몹시 궁금해진다.

청계천변에 움막을 짓고 사는 거지들의 왕초였던 달문, 어느 날 어린 천석깡이 병에 걸려 죽자 왕초 자리를 노리던 동갑나이 춘배는 달문이 천석깡을 죽였다고 아이들을 선동하여 왕초를 움막에서 내쫓는다. 달문이 나가자 춘배와 일당은 천석깡의 시체를 다리 아래로 던져버리고 이를 지켜보던 달문은 천석깡의 주검을 수습하여 공동묘지에 잘 묻어준다. 거지로 살았지만 사람들에게 신용을 잃지 않았던 달문은 한 상인의 도움을 받아 약방일을 돕게 되는데, 약방일을 하면서도 정직함과 현명함으로 사람들의 인심을 얻은 달문은 점차 장안에서 의리와 신용의 상징이 되어 간다. 박문수와의 인연으로 사대



광대 달문

김영주 글, 홍선주 그림.

문학과지성사, 2015.

분야 : 동화책 / 추천대상 : 초등 4~6학년

부들의 연회를 다니며 달문의 재주는 더욱 입소문이 났고 움막집을 나온 개똥이와 4명의 아이들을 만나면서 연회를 소개하고 기방의 잔심부름을 하는 조방꾸니로 지내게 된다. 달문을 아는 이들에게 조방꾸니는 의외의 선택이었지만 이는 아이들에게 용기를 북돋우며 풍물과 팔풍무, 칠괴무와 같은 재주를 가르치고 함께 지내기 위해서였다.

달문이 마흔을 넘긴 어느날, 4명의 아이들과 함께 길을 나서고 전국 방방곡곡 사람들이 오가는 길목이나 장터에 한바탕 놀이판을 펼쳤다. 사람들은 누구나 달문의 익살과 해학에 감탄했고 위로를 받았다. 달문과 아이들은 양반이던, 천민이던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을 큰 낙으로 삼으며 더욱 열심히 재주를 부렸다. 전국을 누비며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동안 달문은 어느새 유명인사가 되어 있었다. 그 사이 연암 박지원선생은 ‘광문자전’을 펴내 달문의 신의와 허욕을 부리지 않는 삶을 알렸고 백성들은 그런 달문을 칭송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이태정이라는 자가 달문의 인기를 이용하여 역모에 가담한 사람들을 모았고 달문은 영문도 모른 채 역모 가담자로 몰려 온갖 고문을 당하게 된다. 영조는 달문이 모함 당했음을 알았지만 왕의 위신을 세우고자 함경도로 유배를 보내 오랫동안 고초를 겪게 했다. 이듬 해 달문은 병이 든 만신창이의 몸이 되어 풀려났다. 산사람의 도움을 받아 일어 선 후 달문은 서대문 안으로 향했다. 어느 때처럼 사람들로 붐비고 있을 거리는 텅텅 비어

있었다. 무슨 일이 있는 걸까? “달문이닷!” 누군가의 외침으로 향한 곳엔 달문이 풀려났다는 소식으로 달문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달문과 아이들, 사람들이 뒤엉켜 열씨구 지화자를 외쳤다.

달문은 못 생겼고, 보잘 것 없는 거지였지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았다.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었지만 달문은 자신이 가진 재능에 감사하며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어려운 이의 주린 배를 채우는 인생을 삶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신뢰를 얻어 지금까지 회자되고 있다.

굶주림의 시기를 겪지 않고 크는 지금의 아이들,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는 시대, 돈이면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물질 만능시대를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광대 달문의 삶이 어떻게 받아들여질 지 몹시 궁금하다. 아이들에게 진지한 고민과 함께 나눌 이야기 거리가 있는 『광대 달문』이다.



남을 도울 때마다 명줄이 늘어난다!

이 현 아

남양주시 진접푸른숲도서관 사서

어느 누구도 삶과 죽음 앞에 의연하고 자유로울 순 없다. 특히 내 명줄이 달린 문제라면 더욱더 그럴 것이다. 지극히 개인주의자이지만 부지런하고 성실한 김노인이 요즘시대에 태어났다면 그리 나쁜 평가를 받지 않는 것일 것이다. 하지만,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던 농경시대에는 아주 유별난 깍쟁이라 불리며 주변과의 왕래도 없이 혼자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남이 뭐라던 조금도 개의치 않고 부지런히 농사일을 한 덕분에 김노인네 들판은 어느 논밭보다 기름지고 수확이 풍성하다. 어느 날, 이웃 황노인의 상여를 보고 자신도 갑자기 죽어버리면 어쩌나 하는 불안한 생각이 든 김노인은 염라대왕을 만나 명줄을 늘리고 왔다는 낯선 이의 말을 듣고 자신도 염라대왕을 찾아가 명을 늘려 달라는 부탁을 하게 된다. 김노인의 명줄을 늘리기 위한 유쾌한 소동을 따라 이야기는 전개된다.

이 책은 우리나라 전래동화에서 많이 보여지는 전형적인 ‘권선징악’ 모티프를 사용하고 있다. 남을 구해주는 착한 일을 하면 명줄이 늘어나는 상을 받을 것이요, 반대로 그렇지 못하면 명이 줄어드는 벌을 받게 된다. 혼자 사는 독단적인 삶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어울려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이라는 교훈을 이 책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

책의 표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수묵채색화의 배경 그림과 꽃분이, 막둥이, 천석·만석이 등 우리말의 정겹고 익살스러운 표현들을 적절히 사용하여 한



꿀까닥꿀까닥, 내 명줄 줄어든다!

신니우 저, 장경혜 그림.

낮은산

분야 : 동화책 / 추천대상 : 초등학교 이상

국적인 정서를 잘 표현하고 있다. 작가의 첫 작품이라 그런지 소재와 표현의 신선함 또한 느껴진다.

이 책을 읽고 나는 갑작스런 의문이 들었다. 지금 우리나라 노인들은 자신의 명줄을 늘리고 싶을까, 아님 반대로 줄이고 싶을까? 동화 속 과거의 노인들은 농사일로 몸은 비록 고단하고 힘들지만 지금의 노인들보다 더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 같이 보인다. 농사와 혼례 등 집안의 큰일을 관장하고 젊은이들의 존경과 보살핌을 받으니 말이다. 그러나 지금 현실은 어떠한가.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인해 노인 빈곤률 OECD 1위, 노인 자살률 세계 1위라는 부끄러운 통계치가 우리의 현재를 말해주고 있다. 초고령화 사회로 엄청난 속도로 진입하고 있는 지금, 동화 속 김노인처럼 염라대왕을 찾아가 명줄을 늘리고 싶을 만큼 노인들이 즐겁고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우리 젊은 세대가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닐까 생각한다.

우리도 어김없이 노인이 될 것이므로!

꿀 두 기

최 미 송

안양시 만안도서관 사서

6편의 동화로 이루어진 『꿀두기』는 5학년 3반 아이들의 좌충우돌하는 일상을 경쾌하게 그려낸 작품집이다. 작가의 전작 「기호 3번 안석뽕」이 그랬듯 이번 작품도 처음부터 끝까지 유쾌한 유머가 흐른다. 표제작 「꿀두기」는 「꿀두기」라는 별명으로 불리지 않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그린다. 「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의 주인공 길이찬은 특공무술도장 수련비를 여자친구와의 데이트 비용으로 쓸지 말지 고민에 빠진다. 분명 이야기 속 인물들에게는 난감한 상황이었으나, 이를 보는 사람은 슬며시 웃음을 깨물게 된다. 이처럼 「꿀두기」의 유머는 현실의 어린이들이 살면서 처할 법한 상황을 생생하게 묘사하는 데서 비롯된다. 어린이들에게 교훈을 주려고 하기보다는 능청스런 유머와 함께 아이들의 현실을 가감 없이 그려낸 것이 「꿀두기」의 가장 큰 매력이다.

이 작품이 더 흥미로운 이유는 유머 속에 아이들의 매우 현실이 오롯이 묘사되어 있기 때문이다. 작품은 아이들을 마냥 무구한 존재로 그리지 않는다. 그들은 각자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문제에 봉착해 있으며, 때로는 이기적이거나 잔인한 존재가 되기도 한다.

「축구공을 지켜라」에서 박용주는 일찍이 ‘개개면 개깟수록 인생은 피곤해진다’는 삶의 진리를 깨달은 바 있다. 그래서 엄마에게든, 선생님에게든, 축구공 때문에 반 친구를 괴롭히는 상급생에게든 ‘개개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꿀뚜기

진형민 글, 조미자 그림.

창비, 2013.

분야 : 동화책 / 추천대상 : 초등 고학년

라고 생각한다. 어렸을 때부터 권위에 순응하는 태도를 체득한 것이다. 한편 상급생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당사자인 길이찬은 학교에서는 해결해 주지 못하는 자신의 문제를 풀기 위해 고민을 거듭한다. 의도한 바는 아니었지만 결국 그를 향한 괴롭힘은 끝이 난다. 흥미로운 것은 자기도 모르게 상급생들과 닮아버리는 이찬의 모습이다. 그는 후배의 축구공을 반강제로 빌려가고는 공주인의 애가 타는 것도 모르고 해질녘까지 신나게 공을 찬다.

『오! 특별 수업』에서 5학년 학생들이 텃밭을 가꾸고 작은 농장을 만들어야만 했던 이유는 일부 학생들이 새끼 고양이를 학대하다가 교장선생님에게 걸렸기 때문이다.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는다는 목적 아래 동식물을 기르던 아이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자신들이 키우는 ‘생명’을 위해 남들의 그것에 해를 입히기도 한다. 자기네 농작물에 진딧물을 옮겼다면 진원지인 고추밭에 화풀이를 하거나, 우리 밭을 망쳤다는 이유로 옆 반에서 키우는 닭을 괴롭히는 것이다. 그들은 닭 앞에서 일부러 프라이드 치킨을 먹기까지 한다!

『꿀뚜기』에서는 아이들의 현실을 통해 한국 사회의 단면을 엿볼 수 있기도 하다. 사회의 빛과 그늘은 아이들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다.

『인생 최대의 위기』의 장백희는 집안 형편이 어려워 학원에 가지 못한다. 백희의 집안이 어려워진 이유는 아버지의 빵집이 문을 닫았기 때문이다. 빵집 바로 옆에 프랜차이즈 제과점이 생긴 뒤 내내 재정난에 시달려 왔던 것이

다. 또한 「뛰어 봤자 벼룩」에서 어린이 벼룩시장에 참여한 구주호와 길이찬은 부익부 빈익빈의 부조리를 몸소 체험한다. 몸고생 마음고생하며 자잘한 물건들을 가져와 푼돈을 버는 자신들과, ‘기분파 부자 아빠’를 둔 덕에 새거나 다름없는 물건을 팔아 쉽게 돈을 버는 친구는 자연스레 대립된다.

아이들은 이렇게 삶이 녹록치 않다는 것을 조금씩 배워 나간다. 어쩌면 이 아이들은 ‘꼴뚜기’ 일지도 모른다. 아무리 커져도 오징어보다는 작은 꼴뚜기. 그러나 오징어와는 다른 특유의 풍미를 가진 꼴뚜기. 아이들은 이런 것도 배운다. 거창하진 않아도 나름의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면 된다는 것을. 아침부터 밤까지 용감할 수는 없지만 어쩌다 한 번씩 용감하면 충분하다는 것을.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는 결국 나 자신이라는 것을.



마음이 훈훈하고 따뜻해지는 아름다운 동화

조 수 연

가평군 조종도서관 사서

어린 시절, 누구나 한번쯤은 애완동물을 길러 보고 싶어 한다. 그러한 추억을 되새길 수 있는 아름다운 동화 한 편을 읽었다. 그림을 보면 파스텔 톤으로 은은하게 그린 잔잔한 그림은 읽는 이의 눈을 편안하고 평화롭게 한다. 이러한 그림과 잘 어우러진 창작동화는 나의 어린 시절 감수성을 기억하게 하는 작품을 만나게 해주었다. 글쓴이는 친구와의 우정과 애완동물을 기르면서 겪게 되는 에피소드를 간결한 문체와 매끄러운 문장으로 만날 수 있다. 다정한 친구를 만나는 느낌이다.

해나는 단짝 친구인 규리로부터 고양이 한 마리를 선물 받아 키우게 된다. 새끼 고양이를 품에 안고 학교에까지 데리고 갈 만큼 애지중지 키우던 어느 날 옆집 소희네 개 점순이에게 물려 죽고 만다. 갑작스런 나리의 죽음으로 해나는 나리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으로 슬픔에 빠져 지낸다. 그러다 나리를 죽게 만든 친구 소희와 점순이에게 복수를 할 결심을 한다. 점순이에게 흥시를 던져 얼굴을 상하게 만들고 수학점수 30점 맞은 소희를 골탕 먹이려 하지만 소희는 이 위기를 재치로 넘긴다. 그날 밤, 소희네 집 점순이가 어디가 아픈지 소란스러워진다. 다음날 아침, 해나는 소희네 집 점순이가 낳은 새끼들이 젖 먹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다. 점순이가 새끼를 배고 있는 예민한 상태여서 나리에게 그랬던 것이었다. 소희 엄마는 해나가 점순이를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면 강아지를 한 마리 주기로 한다. 해나는 소희와 화해를 하고 함께 학교에 간다.



나리아, 미안해

유지은 지음, 오정림 그림.

봄봄, 2014.

분야 : 동화책 / 추천대상 : 초등 3~4학년

내가 초등학교 다닐 적에도 이런 동화를 읽으면 마음이 훈훈해지고 밝아지곤 했던 기억이 난다. 요즘 많은 어린이들도 애완동물을 길러 보고 싶어한다. 동물을 기르는 건 정성을 다해 돌봐야하는 번거로움도 있지만 사랑과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줄 수 있는 일이 되기도 한다. 애완동물을 키우고 있거나, 키우고 싶어하는 어린이들에게 읽혀지면 좋은 책이 될 것이다.



진정한 친구가 되려면

박 지 원

안성시 공도도서관 사서

『날아라 삼겹살』은 어려운 형편을 가진 아이들이 서로 친구가 되어가는 과정을 그린 가슴 아프며, 동시에 따뜻한 성장을 담은 책이다.

윤호는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잃고 할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다. 책장을 넘길수록 슬픔을 딛고 희망을 향해 나아가는 두 친구의 따뜻한 이야기가 가슴 뭉클하게 다가온다.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상대를 마음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서로에게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음을 전하고 있다.

윤호는 덩치가 큼에도 불구하고 폭력을 쓰지 말라고 한 부모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괴롭히는 같은 반 아이들에게 폭력을 쓰지 않는 착한 아이이다. 그런 윤호에게도 좋아하는 여자아이가 있는데, 그 은지라는 아이는 집도 풍족하고 공부도 잘하고 예쁘며 인기도 많았다. 소위 말하는 ‘엄친딸’ 같은 아이이다. 그런 은지가 어느 날 갑자기 결석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파산 때문이었고, 은지의 어머니는 윤호네 삼겹살집에서 일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윤호와 은지는 여러 사건들로 오해와 갈등을 딛고 서서히 친구가 되어간다.

이 책은 아이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너무나 무겁고 암담한 현실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와 동시에 그 무거운 현실을 넘으며 성장하는 주인공들을 통해 아이들에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과 믿음을 심어준다.



날아라 삼겹살

배봉기 지음, 장연주 그림.

별숲, 2015.

분야 : 동화책

주인공들을 통해 위안을 얻으며 동기부여를 하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이를 통해 자신보다 어렵고 가정이 힘든 아이들을 이해하는 마음을 기르게 될 계기가 생기는 아이들도 있을 것이다.

이 책은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읽어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파산’ 등의 개념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책을 읽으며 어려워하는 개념은 부모가 설명해주며 같이 읽는다면 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와 공감도가 커질 것이다.



우리 아이들에게 따뜻함을 주고싶다면...

박 지 원

안성시 공도도서관 사서

각기 다른 뜻을 가진 총 5개의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이 책은 현재 우리나라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책이다.

우선 첫 번째 이야기인 「내 이름은 아임 쏘리」는 성호가 같은 반의 몸이 아픈 친구인 영식이를 괴롭히다가 여름방학이 되고 성호는 여름방학 캠프를 가게 되는데, 성호는 영어를 잘 하지 못해 누군가가 말을 걸기만 하면 “아임 쏘리”라고 외치기만 한다. 조용히 지내던 성호는 계단에서 다리를 다치게 되는 데 이 때 평소에 일명 킹카 같던 녀석에게 도움을 받고 영식이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가 되고 여름 방학이 끝나자 영식이와 화해를 하는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는 요즘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 폭력과 관련이 깊다. 반의 약자를 찾아 공격하는 곳이 되어버린 약육강식의 세계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는 아이들에게 추천해 주고 싶다. 특히나 그런 학교폭력을 저지르는 가해자들이 이 책을 읽게 된다면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는 「꽃이 된 작은 돌」이라는 이야기로서 수선화와 돌이 만나 다른 존재이지만 서로 보듬으며 성장하는 과정을 아름답게 그려냈다. 알뿌리가 돌의 주위에서 자라나 수선화가 되어 돌의 오랜 꿈을 이루어주는 장면은 정말 아름다웠다.



내 이름은 아임소리

장수명 글, 김품창 그림.

한림출판사, 2007.

분야 : 동화책

세 번째 이야기 「술 빛는 날」은 어렸을 적 한 번 있었을 듯 한 이야기를 정겹게 그려내 감성을 일으킨다. 창민이와 경수, 영진이 세 아이가 술지게미를 훔쳐 달디 단 술지게미를 몰래 먹다가 셋 다 술에 취해 열병이 나 병원에 가서 낫는 이야기인데, 아마 어린이들이 읽고서는 ‘우리 엄마, 아빠는 나만 한 나이일 때 이렇게 놀았구나.’ 라고 생각할 것이다.

네 번째 이야기는 「행복한 손수건」이라는 이야기로 손수건의 이야기이다. 한 번 버려진 손수건은 ‘아름다운 가게’의 아주머니에게 다시 주어져 깨끗이 빨아지고 예쁘게 손질되어 가게에서 새로운 주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마저도 새 주인이 손수건을 잃어버리게 되어 손수건은 다시 한 번 버림받게 된다. 하지만 손수건은 버려진 곳에서 강낭콩을 따뜻하게 품게 되고, 그 덕분에 강낭콩은 싹을 틔우게 된다. 그렇게 지내던 손수건과 강낭콩은 어느 할머니가 강낭콩과 손수건을 같이 가지고 자신의 집으로 가져가서 키우게 되어 둘은 행복하게 지내는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를 읽다 보면 손수건은 비록 2번이나 버려지고 힘들었지만 오히려 그 덕분에 끝내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었던 것 같다. 이 이야기를 읽은 어린이들이 컸을 때 자신에게 어려운 시기가 닥치게 되면 긍정적으로 생각하여 넘길 수 있을 것 같다.

다섯 번째 이야기는 「할머니 가꾸기」라는 이야기로 외할머니께서 치매에

걸리시고 그 이후로 생기는 일들로 인해 주인공인 금호가 성장해 가는 과정을 그렸다. 금호가 엄마와 아빠의 바빠짐, 그 때문에 할머니의 치매 사실을 알게 되고 그로 인해 금호는 할머니를 위해 엄마가 시키는 심부름 같은 것이 부끄러워진다. 하지만 엄마와 아빠가 싸우시는 모습을 보고 생각이 바뀌게 되고 그 다음날부터 할머니를 위해 여러 가지 일을 금호가 책임지고 맡기로 한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를 읽고 아이들은 이런 가족을 둔 아이들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자신이 그 상황에 처하게 될지라도 조금 더 성숙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딱! 걸렸어!

송은희

평택시 시립도서관 사서

혼자 있을 때는 내가 느려도, 무엇을 떨어뜨려도 비웃는 사람이 없어.

몸이 불편한 장애인 친구 ‘효진’ 이와 친구 도우미 역할을 하게 된 ‘다솔’ 이의 이야기이다. 3학년이 된 다솔이는 교통사고로 몸 반쪽이 마비된 장애인 친구, 효진과 같은 반이 되었다. 학급 친구 중 누군가는 효진의 도우미 친구가 되어야 하는데 어느 누구도 나서지 않는다. 누군가 자청하길 기다리는 숨막히는 메신저 톡방. 이를 참지 못한 다솔이는 ‘내가 할게’ 라고 자신도 모르게 내뱉는다. 모두들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다솔인 앞으로 닥칠 일이 두렵기만 하다.

마음은 효진을 위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지만 느릿느릿 계단을 내려가고 밥을 천천히 먹고, 물도 혼자 떠먹지 못하고, 화장실도 혼자 가지 못하는 효진을 챙기느라 다솔인 다른 친구들과 어울릴 수도 없고 온종일 정신이 하나도 없다. 다솔이 엄마는 장애인 친구를 챙기는 다솔이가 대견해 교회에서도, 친척들에게도 자랑을 한다. 담임도 다솔을 칭찬하고 주변에서는 마치 다솔이가 세상에서 가장 착한 아이인 듯 여기는 분위기다. 하지만 친구를 도와야 한다고 잔소리하는 엄마와 효진을 도와줘 고맙다는 효진의 엄마, 자신의 딸에게 다솔이가 어떻게 하는 지 관찰하기까지 하는 효진 엄마의 눈빛은 어린 다솔이에게 너무 버겁고 짜증이 난다.



너 딱 걸렸어

이상권 글, 박영미 그림.

단비어린이. 2015.

분야 : 동화책 / 추천대상 : 초등 고학년(4~6학년)

다솔이 입장에서 효진의 행동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다. 다솔이가 자신을 챙기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하인 부리듯 이것저것 시킨다. 눈치가 없는 걸까? 하루는 효진의 긴박한 요청에 효진의 집으로 간 다솔인 반려견이 싼 똥도 치우고 목욕을 시켜주는 효진을 보고 놀란다. “야, 너 혼자서도 잘하네. 근데 왜 나랑 있을 때는 안 하는 거야?”, “나 혼자 있을 때는 누구의 눈치도 안 봐. 내가 느려도, 뭘 떨어뜨려도 비웃는 사람이 없어. 근데 내가 느린 거 보면 사람들마다 병신이라고 중얼거리고, 불쌍하다 그러잖아 다들. 나도 처음엔 이러지 않았어” 비로소 다솔인 그동안 느린 효진 때문에 답답해하고 짜증을 냈던 자신을 돌아보며 효진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래도 계속 이렇게 지낼 순 없다. 마음의 병이 생긴 다솔인 결국 용기를 내어 “너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돕지 않을 거야” 답아두었던 말을 후련하게 내뱉는다.

이 책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떻게 서로를 이해해 가는 지, 진정한 친구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 지, 심리적 갈등 과정을 잘 보여주는 책이다. 기존에 발간된 책들과 달리 장애인보다 그를 챙겨야 하는 친구 내면의 갈등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진행하고, 어른들이 기대하는 ‘선행’과 ‘배려’가 때때로 아이한테는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음을 세밀하게 그려냄으로써 감정 면에서 공감을 자아낸다.

장애인을 배려해야 한다는 걸 잘 알지만 막상 실천은 피하는 학급 친구들, 착한 다솔이의 마음에 이는 갈등과 스트레스를 솔직하게 묘사함으로써 장애인을 대하는 보통 사람들의 내면을 들킨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책이다. 빨리, 내 의지대로 몸과 마음을 통제하며 살 수 있는 행운아, 비장애인들에게, ‘장애인을 특별하게 대하라는 게 아니라 그들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여유와 특별하지 않은 배려, 시선’을 요청하는 책이다.



“아! 흠냄새를 맡으니 살 거 같아!”

이 가 영

평택시 안중도서관 사서

운전을 하다보면 철창으로 둘러싸인 트럭 짐칸에 실려 어딘가로 가는 동물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좁디좁은 직육면체 철창에 빼곡하게 실려 있는 닭들, 소, 돼지, 심지어는 말까지도... 이러한 풍경은 우리들에게 생소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러한 현실을 애써 외면하며 살아가고 있는 듯하다. 『달빛도시 동물들의 권리 투쟁기』는 우리가 그동안 외면하며 살아가고 있는 동물들의 권리에 대해 ‘동물들이 말을 할 수 있다면?’이라는 가정을 통해 통쾌하게 현실을 꼬집은 책이다.

어느 날 갑자기 말을 할 수 있게 된 동물들은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우리를 뒤흔치나와 투쟁을 시작한다. 이 상황에서 가장 아이러니 하면서도 이 책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문장이 있다면 “사람 제 일주의 달빛도시”라는 문장일 것이다. 이 책이 아니라면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문장으로 하여금 독자들이 동물들의 권리에 대해 생각이나 하고 있었는지 한번쯤 생각해 볼 수 있게 만든다.

우리가 사용하는 화장품은 흰 쥐나 토끼 등의 동물실험을 거쳐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게 만들어 주는 오리털, 거위털 파카, 모피 제품은 동물들의 털과 가죽으로 만들어진단다. 뿐만 아니라 식생활에 있어서도 동물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다.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동물들의 권리와 그들의 삶을 우리는 한번이라도 생각해 보았을까? 텔레비전 프로그램인 ‘TV동물농장’이 15년째



달빛도시 동물들의 권리 투쟁기

김향금 글, 이갑규 그림.

사계절, 2015.

분야 : 동화책 / 추천대상 : 초등중학년이상

방영되고 있는 이유도 이와 관련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동물들의 권리 문제는 환경, 생명존중, 교육 등 사회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자칫하면 무겁게만 느껴질 수 있는 주제이다. 하지만 『달빛도시 동물들의 권리 투쟁기』에서는 어린이 책인 만큼 적당히 가볍고, 적당히 무겁게 그려지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사실적이면서도 익살스러운 삽화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동물들이 철창을 탈출하기 전의 화가 난 표정, 틀에 갇혀 목만 내 놓고 별절게 충혈 된 눈을 뜨고 있는 토끼의 모습이 사실적이지만 부담스럽지 않게 느껴진다. 주된 독자 대상이 어린이이기에 당연한 것일 수도 있지만, 동물 권리에 대한 문제를 처음 접하는 성인들이 읽는다고 해도 다른 책들에 비해 쉽게 다가설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이 책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그림책이 그렇기는 하지만 이 책은 특히 더 어른과 아이가 함께 읽으며 생활방식을 하나씩 바뀌어나가면 좋을 동화이다. 그동안 동물들에게만 전가되어 온 고통을 우리 인간들이 하나씩 나누어 분담하며 살아가야 할 때인 듯 하다.



열한 살에 부자가 된 또봉이

이 은 주

남양주시 오남도서관 사서

아이들 경제교육은 어떻게 시켜야 할까? 20대 신용불량자들이 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할 때면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어른들이 올바른 경제교육을 시키지 못한 것도 한 가지 원인이 아닐까싶다. 어려서부터 돈의 가치와 중요성을 제대로 알려주고, 저축의 즐거움을 알게 했다면, 현명한 소비를 통해 20대 신용불량자가 되지는 않았을 텐데...

열한 살이 된 또봉이는 처음으로 용돈을 받았다. 하지만 장난감도 사야 되고, 친구들과 영화도 보러 가야 되는 또봉이에게 부모님께서 주시는 용돈 이만 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용돈을 다 써 버려 친구들과 스के이트장에 갈 수 없었던 날, 용돈을 올려 달라는 또봉이의 부탁에 부모님은 새로운 제안을 한다. 바로 스스로 용돈을 벌어 보라는 것이다. 그날 이후 집안일 돕기에서 재 활용품 수거함 뒤지기까지 부자가 되기 위한 또봉이의 여정이 시작된다.

초등학교 3, 4학년은 보통 용돈을 받기 시작하고, 돈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시기다. 이때 익힌 경제 지식은 평생의 경제 습관을 좌우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된다. 하지만 많은 부모들이 아이에게 얼마의 용돈을 줘야 할지, 어떤 식으로 용돈을 관리하라고 가르쳐야 할지 고민하게 된다. 『또봉이 통장』은 금융 전문가가 쓴 어린이 경제 동화로 아이들에게 어떻게 경제 교육을 해야 할지 망설이는 부모에게 명쾌한 해답을 주는 책이다. 초등학교 4학년 또봉이가 용돈으로 부자가 된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아이들에게 돈에 대한 체계적인 감각을 익힐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부자가 되는 어린이 경제동화) 또봉이 통장

박종기 지음, 이미진 그림.

알에이치코리아(RHK), 2015.

분야 : 동화책 / 추천대상 : 초등중학년부터

어린이들에게 전달하기 쉽지 않은 돈에 대한 개념과 가치관을 매우 적절하고도 설득력 있게 이야기 하고 있다. 더욱이 재미있는 동화형식으로 주인공 또봉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돈에 대한 소중함, 꿈을 구체화하고 실천하는 생활이 매우 의미 있는 삶이라는 사실, 절약과 저축의 힘 등을 스스로 깨닫게 하고 있다. 또한 중간 중간에 나오는 ‘삼촌의 경제 궁금증 상담소’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경제용어, 경제상식, 구체적 경제지식을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고 있다.

저자 박종기 선생님은 사람들에게 돈을 다루는 능력을 키워 주는 머니 트레이너로, 많은 어린이에게 어릴 때부터 스스로 터득하는 경제 습관이 가장 훌륭한 경제 교육법이라는 것을 알려 주고 싶어 이 책을 쓰셨다고 한다. 매년 어린이를 위한 쉽고 재미있는 경제 교육 세미나도 열고 있다. 현재 또봉이 같은 두 아이를 둔 아빠로 평소 자녀들의 경제 습관을 교육할 때 실제 사용한 용돈 관리법을 이 책에 모두 담았다. 한양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경제 교육 전문 기관 머니앤리치스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집필한 책으로 『지중해 부자』, 『부자 통장』, 『부자들의 가계부』등이 있다.

독일 작가 보도 쇠퍼가 쓴 경제동화 『열두 살에 부자가 된 키라』와 비교해 보며 읽으면 더 재미있을 듯하다. 부모님이 먼저 읽은 후 자녀와 함께 읽고, 같이 용돈 관리를 해 보면 어떨까?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서

유 옥 환

안양시 박달도서관 사서

이 책은 죽음과 장례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동화에서 보기 드문 무거운 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슴 찡한 감동과 유머를 담아 풀어내었습니다. 읽다보니 저도 모르게 빵 하고 웃음이 터집니다. 죽음 이야기에 웃음이 라니요? 궁금증이 더해질 밖에는요. 흔히 어른들은 애도의 자리에서 아이들을 배제하지만, 아이들에게도 애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저자의 생각에 공감합니다.

할아버지와와 정이 유난히 돈독했던 12살 영옥이는 어느 날 갑작스레 79세 되신 할아버지의 죽음과 당면합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잘 모이지 못하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고 할아버지의 면모 하나 하나를 새롭게 알아갑니다. 영옥이의 눈에 비친 장례식 모습은 비단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몽클함이 있습니다. 영옥이에게 아버지는 할아버지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느끼는 아들과 영옥이가 생각하는 아버지는 동일인임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다릅니다. 왜일까요?

할아버지가 준비한 이벤트, 그것도 마지막 죽음 이벤트는 지나온 삶에 대한 회환과 내생에 대한 염원이 그대로 전해져서 보는 이로 하여금 눈물 나게 하기도 하고 가슴 한편이 짙해 움을 느끼게 됩니다. 인생이 아름다운 것은 죽음이라는 유한함에 있다고들 합니다.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는가 봅니다. 죽음은 그렇게 무섭지도 두려워할 일도 아니라는 생각을 하



마지막 이벤트

유은실 글, 강경수 그림.

비룡소, 2015.

분야 : 동화책 / 추천대상 : 초등 고학년

게 합니다. 노래, 상자, 가족, 빨래, 꽃, 수의, 유서, 친구, 신문, 휴대폰이라는 주요 키워드를 통해 할아버지의 내면세계를 조금씩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특히, 삽화가 강경수님의 그림이 독특하면서도 위트가 넘칩니다. 2011년 『거짓말 같은 이야기』로 볼로냐 아동도서전 논픽션 부문 라가치상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79세의 주름진, 검버섯 가득한, 그리고 탈모가 진행됨에 따라 한층 넓어진 할아버지의 이마를 배경으로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엔 계수나무 한 나무 토끼 한 마리~”를 찾는 영육이와 말없이 자신의 이마를 내어주는 할아버지의 인자한 모습에서 따뜻함이 느껴집니다.

비록 12살 어린나이이지만 할아버지의 죽음과 장례식장에서의 진지한 성찰을 통해 성숙해지는 영육이를 만나러 가볼까요?



친구로서 로봇은 어떨까?

이 연 수

수원시 북수원지식정보도서관 사서

이 책을 읽기 시작할 즈음 함께 일하는 직원이 물어본다. “간병보험 가입 하셨어요?” 직원은 40대 초반인데 간병보험을 이달부터 불입한다고한다. 난 50대 초반인데 아직 가입은 커녕 보험에 대하여 관심도 없었다. 그런데 책을 읽으면서 간병 보험과 더불어 늙어감에 대하여 생각하게 되었다.

이 책의 주인공 막난할머니는 어린 시절 겪은 6.25때 고아가 되었고, 어렵게 살다 장성해 결혼해서는 남편은 병으로, 아들은 사고로 죽어서 가족의 정을 모르고 시골에서 혼자 사는 독거노인이다. 나라에서는 독거노인 돌봄을 위해 로봇곰 털털이를 할머니의 친구로 보내주고, 이 로봇곰 털털이와 막난 할머니와 함께 지내는 이야기가 이 책의 주된 내용이다.

‘막난 할미’는 자신의 아픈 과거로 매일 혼자 집안에만 있으며 다른 노인들과 교류도 하지 않아 감정표현이 서툴다. 그런 할머니에게 로봇곰 털털이는 할머니의 감정을 읽어내며 친구로서 듣기 좋은 소리 뿐 아니라 듣기 싫은 소리도 하며 지낸다. 할머니 표정 보이는 대로 솔직한 말을 하다 보니 할머니는 자존심 상하고, 털털이가 싫다. 귀찮은 존재로 구박을 하였다. 그렇지만 털털이 곰 인형이 할머니 생각에 털이 툭툭 빠지는 고통을 참고 진심으로 대하는 모습을 알게 되면서 조금씩 속내를 보이고 진정한 친구로서 한발씩 다가간다는 이야기다.

막난 할미의 감정변화를 감지하면서 말동무를 해주는 로봇곰 털털이의 이



막난 할미와 로봇 곰 뽀뽀

안오일 글, 조경규 그림.

뜨인돌어린이, 2014.

분야 : 동화책 / 추천대상 : 초등중학년

야기는 곧 우리에게도 일어날 이야기라고 생각 된다. 이미 노인 인구가 많은 일본에서는 노인을 위한 말동무 로봇이 활동하고 있다니 노인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뽀뽀 같은 로봇이 친구가 되어 노후를 함께 보낼 수 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친구로서 로봇은 어떨까? 노인 가정에 반려견으로 개와 고양이가 함께하는 모습은 이제 익숙한 풍경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로봇이 그 자리를 대신할 수 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니 마음 한켠이 씁쓸해졌다. 그러나 말도 안되는 이야기라고 부정할 수는 없다. 간병보험 빨리 알아봐야겠다. 로봇이 대신 해주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테니...



우리가 알던 모르는 아이

이 수 경

평택시 장당도서관 사서

책도 인연이 있는 듯합니다. 장성자의 『모르는 아이』는 제목이 유난히 마음을 잡아끌었습니다. 모르는 아이? 누가 모르는 걸까? 그럼 누군가는 아는 걸까? 몇 장 읽으니 책을 덮고 싶어집니다.

연화와 민구가 놓여있는 상황은 절망적입니다. 밥을 구하러 나간 어머니와 마을 사람들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열세 살 연화는 동생과 살아남기 위해 사투를 벌입니다. 마을 어른들마저도 아이들의 울타리가 되어 줄 수 없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연화는 있는 힘을 다해 눈치를 보고 뛰고 달리고 훔쳐야 합니다. 남매를 돌봐주고 있는 아버지의 친구에게도 연화는 순간순간 경계를 늦추지 않습니다.

동생을 보살피고 살기 위해 연화는 바다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태어난 곳과 이름을 버려야하고 혹시 산으로 갔을지 모르는 오빠를 모른 척 해야 합니다. 연화와 동갑인 순열이는 물질을 해서 오빠와 동생을 먹여 살립니다. 어린 아이들의 어깨에 놓인 짐이 무척이나 무겁습니다. 마을 어른들도 편치 않습니다. 옆 마을이 불타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상황에서 누가 내 목숨을 보장해 줄 수 있을까요? 비위를 맞추고, 살기 위해 다른 이들을 좀 더 모질게 대할 뿐입니다. 위기가 턱까지 차오르는 현실에서 연화는 ‘나는 쫓겨나는데 그 사람들은 잘 살 것 같았다. 내 행복을 뺏어 간 것처럼 성천리 사람들이 미워졌다.’ 연화가 미움을 배웁니다. 원망이 가득 찹니다. 그러나 끝까지 미워할 순 없습니다. 바다 마을 사람들은 물질을 할 수 있도록 해주었고 성천리 사람들은 장에서 사탕 하나 쥐어주고 아기가 생기지 않는다고 함께 걱정하던



모르는 아이

장성자 지음, 김진화 그림.

문학과지성사, 2015.

분야 : 동화책 / 추천대상 : 초등고학년

이웃입니다. 열세 살 연화는 깨닫습니다.

‘아, 이제야 알 것 같았다. 한라산의 너른 품은 바다와 하나라는 것을. 아무리 사람들이 갈라놓으려 해도 갈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살아서 민구와 오빠를 찾아야하기에 연화는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을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모르는 아이’가 되었기에 연화는 ‘돌아오는 그날, 나는 물옷을 입고 푸른 바다 깊숙이 자맥질 할 것’이라 다짐합니다. 연화가 끝내지 않았기에 제주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주 말이 낯설어도 읽기에 무리가 없고 힘 있는 이야기에 끝까지 책을 놓지 못합니다. 변하지 않는 역사적 사실이지만 연화와 민구가 어찌될까 가슴 졸이며 끝까지 책을 보게 합니다.

김진화의 풀라주 그림은 제주를 배경으로 마을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을 보여줍니다. 글이 긴박한 상황을 전하면 그림은 사람들이 살기 위해 숨겨놓은 속마음을 드러냅니다. 김진화의 그림은 삶의 고비를 건너는 사람들의 초상화입니다. 연화의 사투, 순열이의 선택, 끝내 갈라지지 않는 마을 사람들의 슬픔과 고통스런 선택이 글과 그림으로 묵직하게 전해집니다.

『모르는 아이』는 제주 4.3사건을 열세 살 연화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1947년부터 1954년까지 7년 7개월 동안 민간인 14,00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념 논쟁을 떠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마땅히 죽을 이유는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비롯해 많은 죽음이 우리 곁에 왔습니다. 더 이상의 비극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 죽음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반쪽 엄마, 완벽한 사랑

이 민 혜

양평군 용문도서관 사서

엄마는 나만의 엄마로만 남아줬으면 하는 바람은 누구에게나 있다. 친동생이 생겨서 내가 받을 사랑이 반으로 줄어드는 느낌을 받을 때, 내가 아닌 다른 형제만 예뻐하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서럽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다. 그래서 나를 더 봐달라고 떼를 부리고 고집을 피우게 된다. 엄마는 우리에게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엄마의 관심을 다 가져가버린 루미란 아이는 나의 자매도, 엄마의 딸도 아니다. 어린아이의 지능으로 살아가야하는 루미의 등장으로 송주는 매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자진해서 루미를 돌보겠다는 엄마를 보며 마치 나만의 엄마를 뺏긴 것 같았다. 게다가 부잣집 딸에 하고 싶은 것은 다하고, 갖고 싶지 않아도 어른들이 모든 다 사주는 루미가 알뜰기도 하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바보 같고 순진하기만 한 루미가 안쓰러워 누구에게 털어놓지 못하고 속앓이 만 하게 된다.

나만의 엄마가 되어 줄 수 없나요? 울어도 웃어도 초승달이 되는 눈, 울 때도 다물어지지 않는 입. 무엇하나 나랑 닮은 구석이 없는 루미의 얼굴이에요. 그런 루미와 내가 엄마를 반씩 나눠 가지게 되었어요. 내 평생, 엄마는 나만의 엄마였는데 말이에요.

나의 상처는 남의 아픔을 보듬어주는 시간을 통해 치유 받을 수 있다. 남



반쪽엄마

백승자 지음, 정지혜 그림.

밝은미래, 2015.

분야 : 동화책 / 추천대상 : 초등학교

의 자녀를 자기 몸처럼 돌보는 엄마가 사실 이해가 가지 않을 수도 있다. 그저 동화 속 착한 이상적인 엄마라고 생각했지만 숨겨진 엄마의 이야기를 읽었을 때 엄마를 오롯이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게다가 어느새 눈가가 촉촉해진 자신을 발견 할 수 도 있을 것이다.

루미를 미워하지 않고 인정하는 것은 사랑일까 포기일까? 결국 그 어떤 사람이 엄마의 관심을 가져가도 엄마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송주는 점점 더 엄마만큼이나 루미를 가슴으로 안기 시작한다. 게다가 송주는 루미에게 사랑을 주기 시작하면서 엄마에게 받는 사랑에 주는 사랑까지 더해져 한층 더 성숙한 아이가 되어가게 된다.

상대방을 사랑해주고 양보하고 이해해야하지만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은 어른인 우리 스스로도 잘 알고 있다. 사랑 주는 법을 아이들에게 직접 설명하는 것은 생각보다 효과적이지 않다. 부모가 몸소 실천함으로써 아이에게 보여줄 때 아이가 스스로 받아들이고 깨달을 수 있게 하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사랑을 주는 방식을 배우고 싶다면 이 책을 아이와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한다.



아이들의 놀 권리를 찾아주세요

이 연 수

수원시 북수원지식정보도서관 사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해령이, 수미, 예은이는 친한 친구 삼총사이다. 날마다 모여서 놀고, 싸우고, 또 다시 함께 뭉쳐 노는 아이들이다. 아이들은 매일 함께 놀면서 새로운 놀이를 생각해내고 또 직접 해본다. 그 놀이란 이불을 김 삼아 김밥의 속이 되어 둘둘 말면서 노는 김밥놀이, 의사와 환자가 되어보는 병원 놀이, 집을 어지럽히고 다시 정돈하는 정리정돈 놀이, 이사놀이, 속된말로 ‘뽐’ 친다는 말처럼 서로 누가 허풍이 센가 경쟁하는 허풍 떨기, 엄마놀이, 눈사람놀이, 공부놀이, 승강기 귀신놀이 등 생각하지도 못한 다양한 놀이를 읽다보면 “와우! ‘빨리놀자삼총사’ 녀석들 창의력 짱이구나.”란 생각이 들고, 더불어 이렇게 노는 방법을 다른 또래 아이들은 생각해봤을까?하는 생각도 든다. 아마도 생각조차도 못했을 것 같다. 그럴 시간이 없었을 테니까...

요즘 아이들은 노는 시간이 부족하다. 아파트 놀이터는 늘 텅텅 비어있다. 요즘 아이들은 학원, 학원, 학원으로 가고, 잠시 시간이 나도 스마트폰, 컴퓨터, 텔레비전과 함께 하다 보니 친구들과 노는 시간도 없고, 어느 새 놀 줄도 모르는 현실이 되어버렸다.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 명시된 아이들의 놀 권리를 우리 어른들은 얼마나 지켜주었을까? 작가는 지금의 아이들의 현실적인 환경을 안타까운 마음에 글을 쓴 것 같다. 작가는 말한다. 어른들에게 “저녁 있는 삶”이 필요하듯 아이들에게는 “실컷 노는 유년시절”이 필요하다고...



빨리 놀자 삼총사

채인선 글, 한지선 그림.

논장. 2015.

분야 : 동화책 / 추천대상 : 초등중학년

책을 읽다보면 이제는 이름도 기억이 안나는 친구들과 어릴 적 놀던 생각이 난다. 삼총사들이 놀았던 비슷한 놀이도 있고 생소한 놀이도 있지만 땀을 뻘뻘 흘리면서 놀았던 시간들에 잠시 예전을 추억하게 된다. 추억할 수 있는 유년시절이 있어 행복한 어른들은 어른이 될 아이들에게 그 시간을 선물로 주어야 될 의무가 있다.



길에 대한 생각을 넓혀줘요

이 연 수

수원시 북수원지식정보도서관 사서

『삼촌은 길박사』라는 책 제목을 보고 ‘삼촌이 길에 대한 전문가인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막상 다 읽고 나니 길박사는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외국에서 오랫동안 공부를 하고 한국에 돌아온 현우 삼촌, 김준수 박사는 귀국하는 날 동네잔치를 열만큼 집안의 자랑거리였다. 현우할머니는 현우 삼촌이 집안을 빛내주는 그런 인물이 될 거라고 기대했지만 삼촌은 귀국 후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산에서 생활하게 된다.

현우할머니는 그런 아들의 행동에 가슴앓이를 하다가 도시의 큰 병원에 입원한다. 현우 엄마가 할머니 병간호를 해야해서 현우는 산 속에 들어간 삼촌과 생활하게 된다. 아주 깊숙한 산 속 오두막집에서 문명과 단절된 채 생활하는 삼촌은 산에서 돌을 고르고, 꽃도 심고, 샘도 파면서 길을 만들게 된다. 새로운 길을 만들어 생활하는 삼촌의 생활이 세상에 알려지고, 길에 대한 전문가로 명성을 얻고, 삼촌도 자신의 길을 찾게 된다는 이야기다.

이 책은 3, 4학년 사회교과 마을, 지도, 도시와 촌락 등 다소 딱딱할 거 같은 교과내용을 자연스럽게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시중에 나온 교과연계도서 중에는 정보를 주지시키기 위해 내용을 억지로 연결시키거나 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책은 스토리와 정보를 무리 없이 전개시키고 있다. 이 책의 장점이라 할 수 있다.



삼촌은 길박사

양연주 글, 권민정 그림.

킨더랜드, 2014.

분야 : 동화책 / 추천대상 : 초등중학년

책 마지막 부분에 〈사회가 쑥쑥〉이란 부분을 구성하여, 길과 역에 대하여 사진자료를 첨부하여 설명한 것은 어린이들이 길에 대하여 확장시켜 사고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책을 읽는 어린이 뿐 아니라 나 같은 어른들도 누구나 한 번 짚은 생각해보았을 내 인생의 길에 대하여 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진실을 밝혀 억울함이 없게 하라

박 지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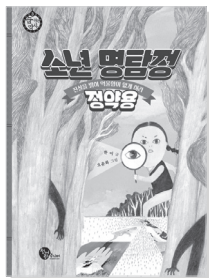
안성시 공도도서관 사서

정약용, 그는 현재 공무원에게도 필요한 목민관이 가져야 할 가치, 도리 등등을 적어 모은 『목민심서』를 쓰신 분으로 『목민심서』로 유명한 조선시대의 청렴결백 목민관이다.

그는 어렸을 적부터 영특하기로 소문이 나 있었다고 한다. 그가 네 살 때 이미 천자문을 익혔고, 열 살 이전에 자작시를 모아 시집을 펴낼 정도였다고 하니, 과연 영재였다. 그렇게 영특한 그가 어렸을 적에는 여러 사건들을 해결하고 다녔다고 하는데, 이 책은 그가 어렸을 적 해결했던 사건들을 모아 두었다. 그는 현재 의과학에서 ‘방어흔’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반응을 보아 그 사람이 자살을 한 것인지 혹은 타살 당한 것인지 판단했고, 물살과 상처의 부위로도 자살과 타살을 판정했다. 또 소금과 달걀로 사기 행각을 포착했고, 진짜 유산을 찾아주기도 하는 등 매우 똑똑했다.

읽는 내내 이것이 그가 어린 시절에 해결한 사건이라고 하여 ‘그가 자랐을 때에는 또 어떤 대단하고 호기심 넘치게 할 사건들을 해결했을까?’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다. 그가 해결하기 전의 사건은 매우 어렵고, 복잡해 보이지만 그가 내리는 명쾌한 해답에 가슴 언저리가 시원해지는 기분이다.

글을 읽으며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장 서리가 자신의 아들 장수를 위해 몰래 뒷돈을 받고 살인을 두 번이나 저질렀고, 남은 것은 자신과 장수의 얼마



소년 명탐정 정약용

한이 지음, 오윤화 그림.

청어람주니어. 2015.

분야 : 동화책

남지 않은 목숨 뿐이라는 것이다. 좋다는 약을 쓰기 위해 돈을 더 벌어야 했지만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잘못 되었던 장 서리. 그렇게 해서라도 아들이 건강해 지는 것을 바랬지만 끝끝내 얼마 살지도 못하고 죽은 장수. 그리고 그 슬픈 진실을 자신의 손으로 밝혀내야만 했던 정약용의 결단. 모두의 마음이 공감되어 매우 슬펐다.

이 부분을 읽으며 ‘만약 저 상황이라면 나는 그걸 막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러한 사건들이 있었기에 후에 정약용이 무슨 일이 있더라도 청렴결백한 목민관으로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 책을 초등학교 고학년에서부터 중학생까지의 아이들에게 추천한다. 정약용이 풀어내는 흥미로운 사건, 그 안의 진실들을 책을 읽으며 같이 파헤쳐 나가다 보면 진실을 밝혀 억울함이 없게 하라던 정약용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 ● ● 욕심이 과한 로봇 귀신

유 향 숙

성남시 판교도서관 사서

열 살 탐정을 꿈꾸는 진진이의 부모님은 공학자다. 아빠는 로봇공학자로 ‘진진로봇병원’을 운영하고, 엄마는 로봇 관리를 위해 화성 탐사를 갔다. 첨단과학을 연구하는 과학자인 아빠는 망치, 톱, 대패질을 좋아한다. 질 좋은 원목을 만나면 반가워서 어쩔 줄을 몰라 한다. 그러면서도 역동적 운동을 좋아했는데, 운동중 그 바람에 사고로 다리 한쪽은 로봇으로 교체되었다.

엄마는 화성 탐사를 떠나기 전에 진진이를 위해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 줄 “봇맘”을 만들어 줬다. 로봇에는 말투와 자상한 마음까지 모두 엄마를 닮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 엄마가 화성에 간지 3년이나 되었지만 봇맘의 따뜻한 보살핌으로 진진이는 그리움을 덜 느끼며 씩씩하게 지내고 있다.

진진이의 친구 로미는 로봇강아지를 갖고 싶어 한다. 어느 날 로봇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이상한 아저씨의 중고가게에서 강제로 로미는 로봇 강아지를 사게 되었다. 가게 아저씨는 괴팍한데다가 둔한 사람귀 보다 1km 밖에서 홍보는 소리도 들을 수 있는 ‘로봇 귀’나 작은 입자도 볼 수 있는 ‘로봇 눈’으로 자신의 귀와 눈을 교체하고 싶어 한다.

그러던 어느날 중고가게 아저씨(그 아저씨의 이름은 싸이몬이다)와와 아빠, 봇맘이 부딪치는 사고가 났고, 진진로봇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싸이몬은 다양한 억지를 부려 진진이네 가족에게 골칫거리가 되고, 진진이는 기지를 발휘해서 문제를 해결한다.



수상한 로봇 가게

정재은 글, 김종석 그림.

주니어김영사. 2014.

분야 : 동화책 / 추천대상 : 초등학교

로봇이 우리의 일상에 밀접하게 들어오는 삶은 멀지 않은 미래일 것이다. 현재 로봇은 산업현장에서는 생산효과를 높이거나 위험한 폭탄제거, 심해자원 연구 등 일선에서 인간의 일을 돕고 있으나 곧 머지않아 인간의 모습을 한 로봇을 개발하여 일상생활에 우리의 삶을 돕는 로봇이 판매 되지 않을까 한다. 그 모든 편리함에 앞서 우리가 로봇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가 더욱 중요함을 이 책은 말해주고 있다.

현재의 빠른 과학적 발전과 편리성은 우리가 그것에 대한 올바른 사고를 정립하기도 전에 우리의 생활에 깊이 들어온다. 이 책에서 처럼 로봇을 무조건적으로 추종하거나 동경하다 보면 싸이몬 같이 자신의 몸을 모두 로봇화하려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다. 로봇뿐 아니라 급격히 발전하는 과학기술을 사용하는 가치 기준을 잘 분별하자는 뜻에서 이 책을 소개한다. 편리함 속에 부작용도 있다는 점을 생각하고 균형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다.



만복아, 놀자~!

박 지 원

안성시 공도도서관 사서

‘이 동화책에 나오는 만복이, 슬기, 난이라는 아이는 바로 어린이 여러분의 엄마와 아빠의 어릴 적 모습입니다’라는 지은이의 설명이 이 책에 대한 궁금증을 자극했다.

「만복이는 풀잎이다」라는 이야기에서는 친구들이 함께 메뚜기 잡기, 방아깨비의 방아쪼, 소꿉놀이 등 누구나 어렸을 적 한 번쯤은 해 봤을 놀이들이 나온다. 시골 아이들의 놀이 모습이 잘 표현되고 있다.

스마트폰, 컴퓨터, 태블릿PC 등을 가지고 노는 지금의 어린이들이 느껴볼 수 없었던 자연에서의 놀이를 이 책을 읽고 시도해 보았으면 좋겠다. 또 어린이들이 노는 모습을 표현하는 단어를 반복해서 리듬감을 주는 등 마치 시를 읽는 듯, 저자가 시인 안도현의 글이어서 운율감이 살아있다. 반보이나 대구를 이루는 문장은 읽는 재미를 더해준다.

책에 수록된 두번째 이야기인 「이 세상에서 제일 먼 곳」이라는 이야기는 한나절이면 갈 수 있는 곳을 분단 때문에 가지 못 하고 그로 인하여 떨어진 가족들의 슬픔과 함께 우리나라가 처한 분단이라는 상황도 생각하게 한다. 이는 훗날 사회를 이끌어나갈 어린이들에게 통일에 대한 생각을 갖게 한다. 그 외에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문제를 다루며 그에 대한 생각을 유도해 낸다. 또 여러 가지 이야기와 유익한 교훈을 부담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표현하였고 같이 그려진 그림들 또한 어린이들이 스스로 읽기에 좋은



시골 꼬마 만복이

안도현 글, 정호선 그림.

한솔수북, 2014.

분야 : 동화책 / 추천대상 : 초등학교

귀여운 그림체여서 좋다. 또한 문장 하나하나가 톡톡 튀는 느낌의 발랄한 문장으로 보면 볼수록 신이 난다.

이런 유의 문장을 본다면 어휘력과 감성 또한 배로 늘어날 것이다.

어린이라면 도서관에서 한번쯤 읽어보았으면 좋겠다.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 호기심이 생겨날 것이고 그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게 될 것이다.



아베 히로시가 아사히야마동물원에서 깨달은 ‘생명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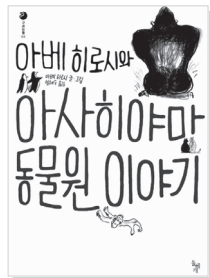
송은희

평택시 시립도서관 사서

우리에게 『폭풍우 치는 밤에』 그림책 작가로 더 잘 알려진 아베히로시. 이 책은 60세가 넘는 작가가 평범한 어린 시절, 청소년기를 거쳐 사육사로, 그림책 작가로 성장하기까지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써내려간 책이다. 이 책은 아베 히로시의 이야기이지만, 무엇이 되고 싶은지 몰랐던 모든 이의 성장기이기도 하다.

작가가 자란 곳은 산과 강, 여러 동물이 함께 하는 풍요로운 자연과 머지않은 곳에 변화함이 공존하는 곳이었다. 작가는 어린 시절부터 그림을 그리기를 좋아했고 온 마을이 가족 같은 곳에서 여러 놀이에 열중하며 초등학교 시절을 보냈다. 중학생이 되어선 합창과 야구, 백인일수 카드놀이(일본전통 놀이의 하나)에 열중하며 지냈다. 대학을 떨어지고 2년간의 대입 예비학교(재수, 삼수) 시절, 최선을 다해 공부를 했지만 수학이 가망이 없어 결국 대학을 포기했다. 이후 외삼촌이 운영하는 철공소에서 2년 반을 일하게 되는데 힘든 철공소 일은 48kg의 마른 몸도 다부진 몸으로 변화시켰다. 그때 도서관을 다니며 조각, 판화, 크로키, 유화 등 다양한 미술서와 조각그림을 접했고 화집을 빌려 모사하며 공부했는데 이후 철공소를 나와 본격적으로 도서관을 다니며 책을 읽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이때까지도 아베 히로시는 자신의 꿈이 무엇인지, 무엇이 되고 싶은지 몰랐다. 그저 막연히 그림을 그리고 싶었을 뿐... 여자 친구가 생기면서 일을



아베히로시와 아사히야마동물원 이야기

아베 히로시 글, 엄혜숙 옮김.

돌베개, 2014.

분야 : 동화책 / 추천대상 : 초등5~6학년이상

해야겠다고 생각한 작가는 도서관에서 우연히 발견한 『북쪽나라 동물들』이라는 책을 읽으며 끌림을 느꼈고, 동물과 관련된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해 아사히야마 동물원 사육사로 취직한다. 동물의 먹이를 손질하는 걸 시작으로 25년간의 사육사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먹이를 주는 일, 똥을 치우는 일로부터 동물들의 생태를 배웠고 사육사 선배들과 어울리며 더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었다. 선배가 코끼리로부터 습격당해 죽고 나서야 자신의 직업이 죽음과 이웃하고 있는 직업임을 실감했고, 후배 사육사가 애정을 주고 키운 토끼가 야생성을 잃지 않아야 하는 맹수들과 굶어 똥을 싸지 못하는 비단뱀에게 먹이가 되는 것은 그저 ‘쓸데없는 죽음’이 아님을 깨닫는다.

저자는 아사히야마 동물원에서 동물원이 필요로 하는 그림을 그렸는데 동물원 기관지에 실었던 그림, 지역신문에 연재한 그림과 글이 좋은 평가를 받기 시작해 그림책 출판 의뢰가 늘어갔다. 점차 ‘사육사’와 ‘화가’를 겸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25년간의 경력을 가진 베테랑 사육사, 아베히로시는 그림책 작가의 길을 걷게 되었다. 그리고 사육사로 지낸 시간은 그가 좋은 그림책 작가가 되는 바탕이 되었다.

이 책은 동물원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꿈’, ‘하고 싶은 일’에 관한 책이기도 하다. 물론 시대는 바뀌었다. 작가가 살아 온 시대처럼 시간의 여유를 주지 않는 시대를 살아갈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단지 뭐든 열심히 하라고 애

기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아베히로시의 말처럼 ‘흥미의 안테나’를 켜고 무엇이든 흥미 있는 일을 찾다보면 어느 시대를 살건 언젠가는 그 안테나에 걸려드는 게 있지 않을까? 하고 싶은 일을 명확히 목표로 세우고 공부하는 사람은 드물다. 재수시절조차 비록 대입에는 실패했지만 공부하는 법을 알게 했고, 그저 친척이라 찾아간 철공소에서 그림을 배우고, 사육사로서 버틸 수 있는 체력을 길러준 것처럼 주어진 모든 시간은 배움과 성장의 연속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현실에서 방황하는 일이 그리 오래진 않을 것이다.

이 책엔 사육사였기 때문에 묘사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들이 흥미롭게 전개되어 있고 작가를 성장 시킨 시간들이 잘 담겨 있다. 초등 고학년과 당연하게도, 무엇이 될지 몰라 하는 청소년들에게 매우 유익한 책이다.

숨 막히게 바쁜 우리 초등학생들

박 지 원

안성시 공도도서관 사서

학원 다니느라, 숙제하랴, 공부방 가랴 바쁜 달균이가 엄마가 자신을 포기하게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 책은 현재 아이들의 생활을 보여주고, 아이들의 심정을 대변하는 글이다.

글 속 달균이는 아직 초등학교 2학년, 9살이라는 적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학원 갔다가 공부방에 가서 집에 가서 숙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찌나 바쁜지 뛰어가는 것이 발이 안 보일 정도라고 한다. 아빠는 달균이가 이렇게 바쁜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 엄마에게 뭐라고 말해보려 하지만 엄마는 이런 아빠에게 달균이는 한가한 편이라며 반격한다. 이것은 허구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다.

초등학교 때부터 사교육을 시작한다는 것은 예전에는 보기 힘든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지금은 낮은 편에 속한다. 아이들은 걸음마를 떼고 말을 할 수 있을 때부터 영어유치원에 가서 한글보다 영어를 먼저 배우고 조금 커서 초등학교가 되면 갖가지 학원을 다니게 된다. 확실히 글 속 달균이의 생활은 현재 아이들의 생활보다 한가한 것이 사실이다.

이야기 속에서 달균이는 이런 생활에 이대로는 스트레스가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 터질 거 같다는 생각을 하며 놀고 싶을 때 놀고, 먹고 싶을 때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삼촌이 부러웠고, 삼촌은 달균이에게 “엄마가 포기하게 만들어라.”라고 조언해주었다.

이후 달균이는 삼촌의 말을 듣고 깜빡 잊은 척하며 학원에 빠지고, 숙제를 안 하고, 사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사며 동생을 내버려 두고 놀러나갔다.



엄마 나를 포기하세요!

박현숙 글, 김효진그림.

좋은책 어린이. 2015.

분야 : 동화책 / 추천대상 : 초등학생

처음에 엄마는 무척이나 화를 내며 왜 그랬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며 달군이에게 잔소리를 해댔지만 달군이가 일부러 엄마의 말을 듣지 않을 수록 엄마도 점점 반응이 없어지며 정말 깜빡 잊고 학원에 가지 않아도 잔소리도 하지 않고 평소처럼 오늘 어땠냐고 묻지도 않았다. 그런데 오히려 울고 싶다고 했고, 나중에 그 이야기를 듣게 된 엄마는 공부방에 가지 말고 그 시간에 마음껏 놀라고 했다.

포기. 그건 참 무서운 것이다. 더 이상 그가 어떤 짓을 하여도 ‘재는 원래 저래. 이미 포기했으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어.’ 라는 심정이 되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극단적인 예이지만 보통 포기한다는 것은 대개 이런 마음을 품기 마련이다.

포기하게 되면 더 이상 관심도, 애정도 가지지 않게 된다. 요즘 부모님의 강요로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공부를 하는 어린이들은 이런 생각을 하기 마련이다. 물론 어린이들을 뛰어놀지도 못하게 하고 책상에만 계속 앉아 공부 하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하지만 최소한 그 어린이들의 부모님은 그 아이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를 학원에 보내고, 공부시키는 것이다. 이 책은 이렇게 갑갑하게 공부만 계속하는 것에 지겨워져 ‘차라리 부모님이 나를 포기했으면.’ 이라는 마음을 품는 아이들에게 권해주고 싶은 책이다.

그런 어린이들이 이 이야기를 읽게 된다면 최소한 자신의 부모님에게 힘

들다고 말해 부모님과 최대한 안 힘든 방향으로 협상 같은 것이라도 하게 될 것이다. 또 이 책은 그런 아이들 뿐 아니라 그런 교육을 자신의 자녀에게 시키고 계시는 부모님께도 권함직하다. 분명 그분들 또한 이 책을 읽고 자신의 자녀들과 더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다.



지각대상의 아침

박 지 원

안성시 공도도서관 사서

이 책은 전국의 지각생들에게 꼭 필요한 책이다. 알람을 몇 개나 맞추어 두고, 게임기를 버린다는 협박에도 불구하고 늦잠을 자는 등 어떤 짓을 해도 늦잠을 자는, 책의 주인공 현호는 이런 지각생들 중 하나이다.

현호는 작중에서 엄마가 게임기를 버린다고 해도, 큰북 알람시계와 강아지 모양 알람시계로 알람을 맞추어 두어도 늦잠을 잔다. 현호의 늦잠 자는 습관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데, 이런 습관 때문에 현호는 늘 교실에서 웃음거리가 된다.

선생님의 주의에도 불구하고 현호는 로봇 체험전 현장학습을 가는 날에도 늦잠을 자고 만다. 차가 출발하는 것은 8시인데, 현호가 일어난 시각도 8시. 현호는 부리나케 준비하고 학교로 향하지만 이미 버스는 떠난 뒤였고, 현호는 엉엉 울면서 엄마의 도움으로 현호는 버스를 타고, 지각하는 습관을 없애기로 모두와 다짐한다.

이 책은 지각을 수시로 하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꼭 필요한 책이다. 이 책을 읽으면서 지각쟁이 현호에 대해 공감을 하며 재미있게 책을 읽는 동시에, 자신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물론, 이 책은 지각을 한다는 것을 꾸짖고 욕박지르려고 만들어진 책이 아니다. 책을 다 읽고 마지막 페이지를 보면 지각을 하는 아이들에게 따뜻한 말로써 조언을 해주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내 꿈을 이루기 위해 지금부터 차근차근 바꾸어 나갈 점은 무엇일까?’ 라고 아이들이 생각하게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책을 읽음으로써 어린이들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수



엄마~ 5분만~

노경실 글, 최정인 그림.

좋은책어린이. 2014.

분야 : 동화책 / 추천대상 : 초등저학년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재미있고, 쉽고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는 이 책을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들에게 추천하는 바이다. 유치원을 다니다가 이제 막 초등학교에 들어가 지각을 하는 아이들이 많을 텐데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다. 설령 지각을 지금 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지금의 습관을 잘 지키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 책을 읽고 아이들이 모두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참 기쁠 것 같다.



엄마도 처음부터 엄마로 태어난 건 아니야

이 연 수

수원시 북수원지식정보도서관 사서

엄마라는 의미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니 ‘주로 어린아이들이 어머니를 이르는 말’로 풀이되어있다. 나의 엄마는 할머니가 되어서도 외할머니를 엄마라고 불렀고, 나 또한 나의 엄마를 지금까지도 엄마라고 부른다. 우리가 비록 어린아이는 아니지만 엄마라고 부르는 이유는 뭘까? 엄마 앞에서는 어린아이가 되고 싶은 바람, 그리고 엄마 앞에서는 영원히 철이 덜 들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 책의 주인공 엄마도 나이는 어린이가 아닌 어른이지만 하는 행동은 어린아이나 다를 바 없어 보인다. 쌍둥이 엄마는 자식들을 키우며 약간은 게으르고, 낙천적이며 시골에 계신 친정 엄마를 자주 찾아가 친정엄마가 해주신 음식을 먹고, 싸갖고 오는 전형적인 딸의 모습을 갖고 있다. 친정엄마의 모습은 딸만 오면 막내딸이 먹고 싶다는 음식을 해주고, 싸준다. 이런 엄마와 다르게 딸은 친정엄마가 특정음식에 알려지가 있는지도 모르고 음식을 만들어오고, 그 음식을 먹은 친정엄마가 병이 난다. 이 사건을 계기로 자신의 엄마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고 엄마를 위해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이며 진정한 엄마로 바뀌기까지의 과정이 소소하게 그려진다.

작가는 머리말에 엄마를 너무 ‘엄마 취급’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한다. 엄마도 사실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한다. 엄마와 사이좋게 지내려면 엄마도 표현에 솔직하고 아이들도 엄마가 무조건적으로 받아주고 해내는 슈퍼우먼



우리 엄마 바꾸기

정임조 저, 김예지 그림.

킨더랜드, 2015.

분야 : 동화책 / 추천대상 : 초등 4~6학년

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기를 바란다.

가끔 나의 아이들이 엄마에 대해 불평할 때 난 이렇게 말했던 것이 생각난다.

“나도 처음부터 엄마로 태어난 것은 아니야 너희들로 인해 엄마가 되어가는 거니까, 기다려다오.”

위층에 사는 킹콩들에게!

이 은 주

남양주시 오남도서관 사서

『우리 집 위층엔 킹콩이 산다』라는 책의 제목과 아파트촌에서 귀를 틀어막고 있는 아이가 그려진 표지의 삽화를 보면 책의 내용이 대충 짐작이 된다.

도시 대부분의 주거공간이 아파트가 되면서 층간소음은 우리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몇 년 전부터는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끼리의 충돌을 다룬 사건, 사고들이 심심찮게 매스컴에 보도되고 있다. 명절이나 제사 등 가족들이 많이 모이는 집안행사를 치루거나, 청소기나 세탁기를 돌릴 때도 아래층에 소음이 들릴까봐 노심초사해야 하고, 특히 어린 아이들이 있는 집은 죄인이 된 듯 살아야 한다. 집이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설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하는데, 발걸음도 조심해야 하는 공간이 되어 버렸다.

이제 곧 4학년이 되는 나용이는 금쪽같은 봄 방학 중에 사흘을 작은엄마네 집에서 보내게 된다. 임신을 해서 날카로워져 있는 작은엄마에게서는 냉랭한 기운이 뿜어져 나오고, 설상가상으로 시도 때도 없이 쿵쾅대는 윗집의 소음 때문에 작은엄마의 짜증은 극에 달한다. 급기야 인터폰을 들고 불평불만을 쏟아내는 것으로도 모자라 나용이에게 윗집에 킹콩이 살고 있다고 으름장을 놓기까지 한다.

나용이는 심심하거나 놀고 싶을 때면 폴쑃 튀어나와 자신을 괴롭히는 ‘킹콩’이라는 비밀의 존재 때문에 윗집 사람들이 쿵쿵거리는 것이 이해가 되는



우리집 위층엔 킹콩이 산다

심은경 글, 권송이 그림.

라임. 2015.

분야 : 동화책 / 추천대상 : 초등중학년이상

한편, 층간 소음 때문에 신경이 곤두서서 응급실까지 실려 갈 정도로 고통 받는 작은엄마가 안쓰럽기도 하다. 그러던 중에 우연히 윗집의 남매를 만나 옥신각신하다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고, 킹콩 클럽이라는 이상한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

『우리 집 위층엔 킹콩이 산다』는 층간 소음 문제를 아이들의 시선으로 풀어낸 동화이다. 층간 소음의 주범으로 이웃과의 불화를 겪은 주인공 나용이가 거꾸로 소음 피해를 입으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현실과 환상을 오가며 흥미롭게 그려내고 있다. 특히 마음껏 쿵쿵대며 뛰어놀고 싶은 아이들의 바람을 ‘킹콩’에 투영해 이해와 재미를 더하고 있다.

집에 있는 킹콩들과 함께 읽으며, 층간소음 문제는 아파트라는 공동주택에서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도 될 수 있음을 알게 하고, 공동체 속에서 함께 행복하게 살기위해 타인을 어떻게 배려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이야기 해 보면 좋을 듯하다.

작가 심은경은 국문학과 어린이 문학을 공부하고, 2012년 청소년 단편 소설 『마마보이와 바리스타』로 푸른문학상 ‘새로운 작가상’을 수상하며 본격적으로 이야기 짓는 사람이 되었다. 지은 책으로는 『택배 왔습니다』, 『수학의 즐거움을 당당하게 누려라, 갈루아』, 『열다섯, 비밀의 방』(공저) 등이 있다.

● ● ● 끝까지 해보기

유 옥 환

안양시 박달도서관 사서

『이대로가 아닌 이대로』 책 제목이 재밌습니다. 처음 ‘이대로’는 ‘변함 없이 이 모양으로’를 뜻하는 부사이고, 뒤의 ‘이대로’는 이씨 성을 가진 대로(大른대. 路길로), 큰 길로 쪽쪽 뻗어 나가라는 의미의 주인공 소년의 이름입니다.

대로군은 무엇이든 끝까지 하는 것을 지켜워 하지요. 그래서 중간에 지쳐 포기하기 일쑤입니다. “넌 도대체 끝까지 하는 게 뭐냐?”라는 말을 듣기가 예사입니다. 운동이든, 공부든, 놀이든 조금 하다보면 쉬이 지쳐버리고 곧 포기합니다. 상황이 늘 이렇다보니 친구들도 하나씩 둘씩 멀어집니다.

다 참을 수 있지만 자기가 마음 속으로 좋아하는 민희의 “땅꼬마 주제에 말이야”라는 비아냥거림에 ‘심쿵!(심장이 쿵)’ 내려앉은 대로는 큰 실망감에 빠집니다. 화가 나고 속상해진 대로가 겪게 되는 모험의 세계 속으로 함께 가보는 것은 어떨까요?

대로는 어찌다가 나무 속에 갇혀버립니다. 다랑이의 안내를 따라 애룡이가 지키고 있는 3개의 관문을 지나서 마지막 시험에 통과해야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네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는 선생님 말씀을 떠올리고는 위험하고 급박한 상황 속에서 정신 차리고 차분히 생각하면서 3개의 관문과 하나의 시험과제에 도전하게 됩니다.



이대로가 아닌 이대로

안오일 글, 김선배 그림.

크레용하우스, 2015.

분야 : 동화책 / 추천대상 : 초등학교 전학년

영킨 매듭 풀기, 퍼즐 완성하기, 산 정상에 깃발 꽂기는 인내력과 지구력이 있어야 했습니다. 무엇이든 끝까지 해본 경험이라곤 전혀 없던 대로는 문을 하나씩 통과할 때마다 쿵쾅거리고 터질듯 한 마음의 변화를 체험합니다.

어린이 여러분! 이런 경험, 궁금하지 않나요? 부모님이라면 이런 성취감을 어린 자녀가 느끼도록 해주고 싶을 테지요. 3개의 문을 지나서 마지막 시험과제 앞에서 진짜 나이테를 찾는 대로의 모습은 과거의 쉽게 포기하던 대로가 아닙니다. 신중하고 학구적인 모습이 의젓해 보이네요.

믿기지 않는 놀라운 체험을 하고 난 대로가 이제 달라졌습니다. 적극적으로 자신감 넘치는 당당한 아이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하고 싶다는 의욕과 열정이 넘칩니다. 마음의 키가 훌쩍 커버린 대로를 엄마가 흐뭇하게 바라봅니다.

끝까지 해냈을 때의 그 기막힌 맛을 알고 싶지요? 어디 한 번 대로를 따라가 볼까요?

마음 잇기

박 지 원

안성시 공도도서관 사서

어느 날 하늘 초등학교에 날아든 이상한 편지로부터 시작된다. 하늘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과 교환편지를 나누고 싶다는 남궁재윤은 글자를 배운 지 얼마 되지 않은 청년이다. 아이들은 그 이후로 남궁재윤과 편지를 나누며 점점 성장해가는 과정을 아주 재치 있고 재미있게 그려내고 있다.

우선 책을 읽는 내내 마치 이 책의 주인공들과 함께 놀고 있는 듯 가볍고 재미있는 느낌이 들어서 좋았고, 아이들이 남궁재윤과 끝말잇기 형식의 편지를 보내면서 시간이 흐르고, 그들의 유대감이 깊어지고 성장하는 과정은 여운을 남기기에 충분하다.

특히 이 이야기에서 편지를 나누는 것이 서로의 또래인 사람들이 아닌 족히 10살 이상은 차이가 나는 사람들끼리 편지를 나누며 친해지고 마음을 나누는 것이라서 더욱 감명 깊었다.

이 책을 어린이들이 읽게 되면 우선 어른과도 친구가 될 수 있고,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되고, 조금은 놀랄 것 같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며 마치 책 『나의 오렌지 라임 나무』에서 할아버지와 주인공과의 관계처럼 유대감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생겼으면 좋겠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꼭 자신의 또래 친구뿐이라는 편견을 버렸으면 좋겠다. 조금은 서툴지만 그 작은 손으로 열심히 무언가를 준비하고 그 준비한 것을 건네줬을 때



이상한 편지

구쓰기 쇼 글, 사사메야 유키 그림, 김윤정 옮김.

키다리, 2015.

분야 : 동화책

이 이야기를 보고 있는 독자 또한 그 사랑스러운 마음에 감격할 것이다. 그리고 책을 다 읽고 나면 어른들 중에는 우리같이 한글을 지금 배우고 있는, 아직은 성장이 덜 된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나중에 그것에 대해 더 이해하기 쉽고 더 따뜻하게 대해줄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어린 아이들도 읽기에 좋지만 어린이들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통해 감동을 주기 때문에 어른들이 읽기에 좋은 책이다. 일상의 고단함에 지친 어른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선사할 것이다.



고약한 심보의 결과

이 시 영

군포시 중앙도서관 사서

이 이야기는 장자못 설화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동화다. 비슷한 설화로 장자못이 있다는 곳이 전국 100여 곳에 이를 만큼 유명한 지명설화이다. 설화의 특성상 구전되어 오기 때문에 변형된 이야기로 많이 전해진다.

옛날 어느 마을에 장자라는 부자가 살았다. 인색하고 심술궂고 욕심이 많았다. 흉년이 들어 동네 사람들이 굶어 죽어도 자신만 배부르면 그만이라는 고약한 심보를 가지고 있었다. 어느 날 덕이 높은 스님이 찾아가 시주를 부탁하니 장자를 곳간 쪽으로 데리고 갔다. 그리고 쇠똥을 푹 떠서 던졌다. 따라온 부인과 아들이 매를 맞지 않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 여기라 했다. 스님은 얼굴도 붉히지 않고 쇠똥을 받아 돌아갔다. 우물 앞을 지날 때 장자의 며느리가 스님을 보고 놀라 쇠똥을 쏟아버리고 자신이 먹을 만큼의 쌀을 담아 주었다. 스님은 며느리에게 아무 말 없이 따라오되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였다. 내를 건너 산을 올라갈 때 천둥번개가 치며 땅이 들썩였다. 그리고 장자의 집은 무너지고 그곳에 못이 생겨났다. 욕심 많은 장자 부부와 아들은 집과 흔적 없이 사라졌다. 며느리는 걱정스러워 뒤를 돌아보았다가 그대로 돌이 되었다. 그 후 며느리 바위가 되어 장자의 이야기가 두고두고 전해지게 되었다.

지금 사회는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부족하다. 부와 빈이 양분되어 가난한 사람은 그 사람의 잘못과 무능으로 가난해졌다는 잘못된 잣대로 바라보기도 한다. 많지 않아도 가진 것을 나누고 사는 것이 참된 부라는 것과 자신만 위



장자못 이야기

박철화, 김수정 글, 이경화 그림.

봄별(꿈꾸는꼬리엔), 2015.

분야 : 동화책 / 추천대상 : 초등저학년

하는 욕심이 큰 화를 불러온다는 교훈을 주는 책이다.

욕심 부리고 떼 부리는 아이에게 구수한 옛날이야기를 들려주듯 읽어주면 좋겠다. 아이뿐 아니라 자본주의의 물질만능주의에 길들여져 이웃을 잇고 자신의 풍요에 빠진 어른들도 이 책을 통해 고전 속 조상들의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기 바란다.

모두 32쪽이며, 옛이야기의 특징을 잘 살려주고, 이야기의 흐름과 익살을 느낄 수 있는 책 속 삽화가 재미있다.



청국장, 똥국장, 천국장!

이 현 아

남양주시 진접푸른숲도서관 사서

청국장에서 나는 것을 냄새라고 해야 할까, 향이라고 해야 할까? 청국장 냄새가 일반적이지만 웬지 냄새는 기분 나쁜 무언가를 의미하는 것 같아서 썩 내키는 단어는 아니다. 나에게 청국장은 좋은 향이 나는, 맛있고 건강한 음식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요즘 어린이들은 청국장을 쉽게 접해보지 못했기에 거부감을 느끼고, 안 좋은 냄새가 나는 먹기 싫은 음식 중 하나로 여길 수 있다.

이 책은 할머니가 가족의 생계를 위해 시작하신 청국장 장사 때문에 놀림 받는 아이의 이야기다. 연아는 같은 반 아이들에게 “똥국장”이라고 놀림을 받는다. 청국장 때문에 왕따가 되었던 연화는 오히려 청국장으로 인해 TV에도 출연하고 학교의 스타가 된다. 자신의 문제를 숨기고 속으로만 힘들어 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 이겨낸 결과이다. 또한 혼자가 아니라 연화를 너무나 사랑하는 가족들과 민재라는 친구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같은 반 친구들에게는 청국장을 거부해하지 않고 나중에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좋은 음식이 된 것이다. 청국장이 똥국장에서 천국의 맛, 천국장이 된 이야기를 읽어보길 바란다.

작가 윤재중은 초등학교 선생님이다. 그래서인지 학교생활과 교실에서의 묘사들이 더욱 사실적으로 느껴진다. 또한 이 글의 주요 모티브도 실제 학교에서 있었던 일에서 가져왔다고 한다. 청국장 때문은 아니지만 항상 몸에서



청국장, 똥국장

윤재중 저, 한주리 그림.

소나무, 2015.

분야 : 동화책 / 추천대상 : 초등학생

퀴퀴한 냄새가 나는 학생이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결국에는 전학을 가게 된 일이 있었던 것이다. 현실의 안타까웠던 일을 동화를 통해 해피엔딩으로 다시 마무리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어린이들이 보는 동화책답게 이 책은 한국적인 그림체와 다양한 이미지들을 정겹게 표현하고 있다. 등장인물의 얼굴선을 동그랗고 투박하게 표현하여 마치 초등학생이 그린 듯 친근한 느낌이 든다. 책 표지도 청국장을 연상시키도록 갈색톤을 기본으로 디자인이 되어있으며, 이야기와 그림이 너무나 잘 어우러진다. 책을 다 읽고 책장을 덮고 나니 청국장의 구수한 향이 코끝을 맴도는 것 같다. 오늘 저녁 청국장 한 그릇을 먹으며 예전 할머니의 손맛을 기억해 보고 싶다.



‘피카이아’가 뭐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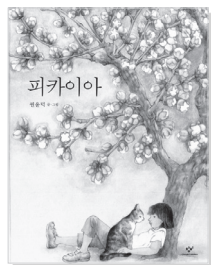
박 지 원

안성시 공도도서관 사서

이 책은 각기 다른 사정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늘 네 시 정각이면 도서관으로 놀러오는 골든 리트리버 ‘키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해 주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이들 6명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가슴이 따뜻해지거나 공감되거나, 어쩌면 슬퍼질 수도 있는 이야기이다.

첫 번째 이야기는 상민이의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는 미정이의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는 윤이의 이야기, 네 번째 이야기는 채림이의 이야기, 다섯 번째 이야기는 강민이의 이야기, 여섯 번째 이야기는 혁주의 이야기이다. 각기 사정이 있는 아이들의 이야기와 생명의 진화, 피카이아 등 아이들이 꺼려하는 주제의 것들과 같이 자연스럽게 엮이며 아이들이 그런 주제에 대해서 가깝게 생각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아이들의 사정 하나하나가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주제들이어서 아이들이 앞으로 나아갈 사회의 문제점에 관하여 알려주기도 한다. 책에 소개된 여섯 편의 이야기는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공감되는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이 이야기를 하나씩 읽어나가다 보면 우리에게 생소하고 잘 몰랐던 것들에 대해서 알게 되고 호기심도 느끼게 된다. 이 책의 제목인 ‘피카이아’에 대해 알게되는 계기도 될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이 책은 아이들에게 그런 호기심을 심어줄 수 있어 좋다.



피카이아

권윤덕 글, 그림.

창비, 2013.

분야 : 동화책

독특한 그림체를 갖고 있는 이 책은 보는 독자의 시선을 끌어들이면서 책에 더 집중할 수 있게 한다. 그림에 대해 더 이야기 해 보자면 바퀴벌레를 크게 확대해서 그려놓았다거나 하는 그림이 한 두가지 정도 있는데, 이것은 이 책을 그린 작가가 의도한 것으로 혐오감을 조성하기 위한 그림이라 하였다. 이 책을 읽을 때에 이런 그림들을 볼 준비 정도는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또 이 책의 그림들을 보면 색채가 예쁘고 그림의 표현법이 좋아서 이 책을 더 볼 수 있게 하는 것 같다.

이 책을 어린이들이 더욱 많이 읽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되면 좋을 거 같다.



바빠서 몰랐어요!

이 가 영

평택시 안중도서관 사서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타임푸어』라는 책이 베스트셀러에 오르면서 우리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왜 항상 시간이 부족한 지에 대한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온 적이 있었다. 그도 당연한 것이 한국인의 노동시간은 OECD 평균보다 530시간 많은 2,163시간(2014년 기준)으로 OECD 국가 중 2위에 등극하였으며, 수면시간 또한 최하위를 기록하였다고 한다. 어린이 책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과 관련된 책과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을 이야기 하는 이유는 『할머니가 사라졌다』라는 책이 한 가족이 바쁘게 살아가는 와중에 벌어지는 이야기를 유쾌하게 담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는 2015년 현재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가정들의 가장 평범한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어느 날 갑자기 함께 살던 할머니가 사라졌는데도 가족들은 일상적인 삶을 이어간다. 화자의 아버지는 슬퍼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화자의 어머니는 주말에는 미용실이 더 바쁘다며 어쩔 수 없다고 일을 하러 나가고, 화자의 형 또한 배가 고프다며 국이 담긴 냄비를 엮는다. 그런 아들에게 어머니는 오리고기를 구워먹으라며 준다. 할머니가 아무 말 씀 없이 사라진 상황에서 이러한 대화들, 행동들이 기괴하게 보이는 것은 왜일까.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도 있지만, 요즘의 대한민국 사회는 하루가 멀다 하고 생존환경이 각박해 진다는 것을 많이 느낀다. 사라진 할머니를 찾으려면 할머니가 평소에 잘 입으시던 옷은 어떤 것인지, 친하게 지내시는 동네 어르신은 누구인지, 즐겨 가시는 곳은 어딘지, 어디가 아프신지 정도는



할머니가 사라졌다

박현숙 글, 김현영 그림.

시공주니어, 2014.

분야 : 동화책

가족이라면 당연히 알아야 하는 사실들이지만, 평소에 나 살 길 찾느라 바빴던 가족들은 할머니를 집안일을 해주던 존재로만 기억하고 있었기에 할머니에 대한 그 어떤 사실도 알지 못한다. 『할머니가 사라졌다』에서는 할머니가 사라졌다는 극단적인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사회를 표현하고 있지만, 이 일들은 어찌 보면 우리 가족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을 법한 일이다. 가족 구성원이 모두 바쁘게 산다는 핑계로 당연히 하는 이 사실이 당연하게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은 우리에게 아직은 일말의 정이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믿고 싶다.

『할머니가 사라졌다』에서는 이 책에서의 주된 사건을 표지에 신문의 형식으로 그려넣어 이 이야기가 동화 속의 이야기뿐이 아닌, 우리 사회의 ‘사건’이라고 말하고 싶은 듯하다. 하지만, 책 속 삽화에서는 반대로 등장인물들이 상상하는 모습을 그려 넣어 우스꽝스러우면서도 판타지 같은 표현들이 이 책이 어린이 책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해준다. 사실적이면서도 현실적이지 않은 이 책의 글과 삽화를 통해 저자가 그렇게도 말하고 싶었던 것은 우리 조금만 덜 바쁘게 살자고, 그 시간을 가족에게 조금만 더 나누어 주자고 말하고 싶었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짐작해 본다.

편 식

박 지 원

안성시 공도도서관 사서

편식, 요즘 문제점 중 큰 문제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입맛을 자극하는 각종 패스트푸드와 엄마, 아빠의 맛별이로 인해 아이들이 평소에 라면 같은 인스턴트 음식들을 많이 먹어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이 책은 그런 요즘 아이들과 같은 처지인 주인공 민선이가 등장한다. 민선이 또한 다른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햄버거, 샌드위치, 피자, 라면 등 패스트푸드나 인스턴트 음식을 사랑한다. 문제는 이런 음식이 아니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고 해도 손도 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게 지내던 민선이는 결국 10살 밖에 되지 않았는데 여드름이 얼굴을 뒤덮고, 담배를 피우다 끊은 사람처럼 금단 현상도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 모든 원인이 자신이 먹는 음식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 민선이는 인스턴트 음식을 끊기로 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겠다는 내용이다.

어린이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내용과 생생하고 즐거운 그림이 있어 책을 읽는 내내 지루할 틈이 없을 것이다. 이야기 중 민선이는 현대 어린이들의 모습을 대표한다. 김치, 감자, 고구마 등의 건강한 음식들은 먹기를 거부하고, 햄버거, 콜라 등 가벼운 음식만을 찾는 아이들에게 이 책의 이야기를 꼭 들려주고 싶다.

자신의 편식이 왜 문제가 되는 것인지, 편식을 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



햄버거랑, 피자랑, 맛있는 것만 먹을래!

박현숙 지음, 안경희 그림.

팜파스, 2015.

분야 : 동화책

지, 편식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등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편식을 고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 책을 편식을 하는 어린이들과 그런 아이를 둔 부모님들에게 추천하는 바이다. 이 책을 읽고 나서도 “나는 아무리 그래도 피자랑 햄버거만 먹을 거야!”라고 말하는 어린이는 없을 테니까 말이다.



함께 살고, 함께 먹고, 함께 일하기. 모두다 짬언

유 현 미

평택시 시립도서관 사서

김중미의 소설을 읽다보면 누군가 곁에서 자박 자박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하다.

책 속에 그려진 마을 풍경도 낯선 공간 대신 어린 시절 나고 자란 고향의 농촌 마을이 자연스레 연상된다. 아마도 우리나라의 농촌 풍경이 대개 엇비슷해서 이기도 하겠거니와 농촌의 현실이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서이기도 할 터이다. 무엇보다 글 속의 이야기가 낯모르는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밥 먹고 학교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소소한 일상의 이야기이기 때문일 것이다. 작가가 책 속의 인물들과 거리를 두고 먼 시선에서 바라보고 쓴 글이 아니라 그들 곁에서 그들의 삶 한가운데서 이야기를 걸어냈음을 알 수 있다. 이야기에 빠져 읽다보면 어떤 장면에서는 등장인물들의 대화에 불쑥 참견하고 싶은 충동이 일만큼 현실적이다.

실제로 오랜 고민 끝에 귀농하여 소를 기르며, 농사를 짓고 있는 남동생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소설 속 상황이 현실과 한 치도 다르지 않다. 싹을 틔우는 과정까지 합하면 거의 두 해 농사인 양파는 풍작이었음에도 값싼 수입농산물에 밀려 씨 값 만 겨우 건졌다 한다. 구제역이니 하는 특별한 악재가 없어도 소 값은 사료 값을 보전하기도 어려운 게 농촌의 현실이다. 우리 사회가 고도경제 성장을 이어오는 동안 농촌의 현실은 한 치도 나아진 적이 없었다. 농촌의 희생을 볼모로 한 경제 성장은 농민들의 높은 자살율과 이농, 식량자급률 20%미만이라는 경제지표로 남았다. 현실이 이러하니 동생은 “이



모두 감언

김중미.

창비. 2015.

분야 : 동화책(청소년소설) / 추천대상 : 청소년

다음에 어른이 되면 아빠처럼 농사를 짓겠다.”는 아들의 말에 가슴이 찡찡 내려앉더라고 고백한다. 아빠를 도와 농사일을 거드는 일이 재밌고 좋다는 아이가 “그래도 대학은 가겠다.”고 이야기 하는데 왜 그리 안도감이 드는지 모르겠다며 씩씩히 웃었다.

책에는 농촌문제 외에도 다문화가족, 가족 해체, 장애, 교육문제 등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이 함께 녹아 있지만 일상과 분리된 사회 문제로서가 아니라 그냥 먹고 사는 일상의 이야기와 그 삶을 살아가는 평범하지만 매력 있는 이웃들의 이야기가 있다. 내면의 상처를 가진, 소심한 듯 당차고 마음 따뜻한 유정이가 그렇고, 조카를 친자식처럼 보살피며 묵묵히 자기 몫의 일을 감내해내는 속 깊은 작은 아빠가 그렇다. 조용히 타인을 배려하는 베트남에서 시집 온 작은 엄마가 그렇고, 무뚝뚝한 듯 속 정 깊은 할머니가 그렇다. 박력 넘 광수의 풋풋한 매력이 웃음 짓게 하는가 하면, 서울에서 전학 온 훈남 우주는 사춘기 유정의 가슴을 설레게 한다. ‘먹고사니즘’의 강박한 현실 앞에서는 아이들조차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으나 어울려 살면서 서로의 결핍을 채워 주고 각자의 상처를 보듬어 주다 보면 가끔 웃을 일도 유쾌한 일도 생기게 마련이다.

중학교 생활을 마치고 각자의 고민을 안은 채 열 일곱 새 학기의 첫 날을 여는 아이들을 보며 내 주변의 많은 다른 열일곱들이 겹쳐 보이기 시작했다.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과 설렘이 새삼 소중하게 다가온다. 어디서 무엇을 하던 너희들의 소중한 꿈을 응원 한다 애들아. 유정이 작은 엄마의 말처럼 분명 돈 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음을 믿어 보자꾸나. 돈 좀 없으면 어떻게 공부 좀 못하면 어떠랴? ‘좋아하는 거 하는 거 그리고, 좋은 일 하는 거’ 그 거면 충분하지 않겠니? 그 말을 자신 있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도록 함께 노력해 보자꾸나! “꿈어, 꿈안, 꿈땀” 함께 살고, 함께 먹고, 함께 일하기. 생각 할수록 좋은 말이다.

모두 다 껌언 !

당신은 기억하는지, 그 시절의 우정을

유 현 미

평택시 시립도서관 사서

이 책은 작가가 오래 전에 세상을 떠난 친구에게 바치는 책이다. 책 제목에서 연상되는 것처럼 우정지속을 위한 11가지 법칙과 그와 연관된 고사(古事), 영화 이야기 등이 소개되어 있다. 하지만 단순히 우정 지속의 법칙을 열거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법칙을 관통하는 작가의 특별한 경험이 더해져 더욱 온기있는 이야기로 치환된다. 이 책이 나에게 특별하게 다가온 순간도 “당신은 기억하는지, 눈물겹고 그토록 힘겨웠던 우리의 어린 시절 기억하는지...” 조동진의 이 노래를 들으며 우두커니 앉아있는 주인공이 내 마음을 파고들면서 부터이다.

실제 작가의 분신이자 『우정 지속의 법칙』을 집필중인 작가로 등장하는 작중 화자 ‘나’는 오래 전에 세상을 떠난 한 친구에 대한 자책과 후회를 간직한 채 성년의 나이를 맞았다. 《불쑥 찾아가기》, 《줄기차게 만나기》등 관계의 시작을 위한 법칙들을 충실히 따르며 둘만의 우정을 키워간 두 소년은 《함부로 대하지 말자》, 《잘못을 알려주자》등 우정 지속을 위한 다른 법칙들을 지키지 못하고 끝내 가슴 아픈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 ‘나’는 친구가 떠난 후에야 비로소 자신이 무심히 넘겨버린 약속과 친구가 받았을 상처를 떠올린다. 죽음의 문턱을 넘기 전 친구는 대체 무슨 생각들을 했을까? 돌이켜 보면 마지막 순간까지도 친구는 ‘나’에게 간절히 손을 내밀고 있었던 것 같다. 만약, ‘내’가 친구가 내민 손을 마주 잡았더라면 둘은 다른 결론에 이르렀을까? 친구가 사 준 『사람의 아들』을 진작에 읽었더라면, 그래서 책 속



우정 지속의 법칙 (창비청소년문고시리즈 11.)

설흔 저.

창비, 2014.

분야 : 동화책(청소년소설) / 추천대상 : 청소년

메모를 읽고 『호밀밭의 파수꾼』을 선물했다라면 친구는 그렇게 훌쩍 떠나지 않았을까?

후회와 자책으로 점철된 기억 속에 오랫동안 봉인해 둔 가슴 시린 지난 우정을 지속적으로 헤집어 내는 이는 주인공의 조카이다. 조카는 “삼촌, 난 왜 친구가 없을까?”라며 뜻대로 되지 않는 우정에 대해 묵하 고민 중인 중3 소년이다. ‘나’의 친구가 세상을 떠난 바로 그 나이다. 책에는 친구와 나의 과거완료형 우정뿐만 아니라 주인공과 조카의 우정 등 우리내 삶만큼이나 다양한 우정이 등장한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삼촌과 조카의 관계야말로 시행착오를 겪으며 이어 나가고 있는 ‘현재 진행형 우정’이다. ‘나’는 과거에는 비록 우정을 지키내지 못한 소년이었지만 성인이 된 지금, 잊고 싶었던 아픈 기억을 애써 마주하며 우정 지속을 위해 노력 중이다. 어찌면 『우정 지속의 법칙』을 쓰게 된 계기 또한 옛 친구에 대한 속죄이자 조카에게 만든 우정을 지켜내겠다는 어른으로서의 다짐이 아닐까?

세상에 공짜가 없듯 우정도 절대 저절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우정으로 행복했던 시간만큼 그로 인한 아픔이나 고통 또한 온전히 자신이 감내해야 할 몫으로 남는다. 우정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쏟았을 지라도 영원히 지속되는 우정 또한 없다. 그러나 중요한 건 모든 우정의 끝이 종말이 아니라 그 끝에서 새로운 삶이 탄생한다는 사실이다.

작가의 고백을 들어 보자.

“...나와 친구의 우정은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친구는 내 인생 내내 나와 함께하며 내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오늘날 내가 열치기 작가라도 된 것은 어쩌면 친구 덕분인지도 모릅니다. 여태껏 나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제 나는 친구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다고 믿습니다.”

과거와 현재의 시간을 함께 건너온 나의 친구들, 그리고 미래의 친구들에게도 감사를 고한다.



스스로 이름 짓다, 나는 강한 바리다

이 수 경

평택시 장당도서관 사서

얼마 전 예능프로그램에 여자아이라는 이유로 태어나자마자 외국으로 입양된 사연이 소개되었습니다. 엄마도 34년 동안 아이가 죽은 것으로 알고 있었으니 저건 범죄 아닌가라는 마음마저 생겼습니다. 이 아름다운 초록별 지구에는 여자라는 이유로 버려지거나 폭력적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습니다.

딸이라는 이유로 버림받았으나 스스로 무조신(巫祖神)이자 저승을 관장하는 바리공주는 신화를 넘어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있는 이야기입니다. 바리는 부모에게 버림받은 비루한 존재에서 삶과 죽음의 고난 끝에 저승을 관장하는 신, 고귀한 존재로 거듭납니다.

바리 이야기는 핏빛 성찰을 통한 최고의 성장 드라마입니다.

김선우 소설가는 몇 천 년을 내려오며 주류 사회의 관습이 묻은 바리 이야기를 오늘의 청소년과 독자들에게 의미 있게 촛촛히 직조하였습니다.

‘버려진 여자아이’ 바리는 버림받았기에 상실과 결핍에 시달리고 고통스럽습니다. 비리공덕할멈과 할아범, 바람의 말 무구의 보살핌에도 가슴에 난 구멍은 쉽사리 메워지지 않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부모에 대한 원망이 커져히 쌓입니다. 자신의 존재를 의심하는 바리는 존재의 고통과 의미를 묻고 또 묻습니다.



희망을 부르는 소녀 바리

김선우 글, 양세은 그림.

단비, 2014.

분야 : 동화책(청소년소설) / 추천대상 : 청소년

‘사람은 왜 태어나는 것일까. 태어난 것들은 왜 죽은 것일까. 사람은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걸까...(중략)...산다는 것과 죽는다는 것. 목숨이라는 말. 버려진다는 것. 보살핀다는 것...(중략)...여자아이라서 버려진 아이가 정말 여자가 된다는 것.’

버려진 바리는 존재의 의미를 찾기 위해, 자신을 찾기 위해 질문을 멈출 수 없습니다. 오구대왕의 부름으로 세상을 둘러 본 바리는 버림받지 않아도 고통스러운 백성들의 삶에 충격 받습니다. 바리는 효심이 아니라 낳아준 은혜를 갚기 위해 불나국 백성들의 지옥 같은 삶을 구제하기 위해 서천서역으로 가겠다고 선언합니다. 바리는 ‘세상의 이쁜 것들은 죄다 눈물을 머금고 있는 것’임을 알기에 고난의 길을 갑니다. 약수를 구하러 가는 서천서역의 길은 바리에게 끝없는 대가를 요구합니다. 바리는 지옥의 고통에서 시시비비의 판단을 넘어서는 선과 악의 모호함을 경험합니다. 이 세상 삶과 생명의 의미를 존재 그 자체에서 찾는 넓고 깊은 눈을 가지게 됩니다.

유리산 벽 앞에서 바리는 ‘버려졌던 여자아이’에서 ‘나는 강한 바리다’ 스스로 이름 짓습니다. 바리는 단단히 땅을 딛고 서서 스스로 삶의 주체임을 선언합니다. 부모가 낳은 첫 번째 탄생을 지나 바리는 고통과 결핍의 허물을 벗고 삶의 주체가 되는 두 번째 탄생에 이릅니다. 하늘을 움직이기 위한 바리의 마지막 관문은 ‘사랑’입니다. 원망과 결핍을 넘어서는 것만으로 충

분치 않습니다. 누군가를 보살피고 사랑하는 더 큰 존재가 될 수 있는지 묻습니다. 바리와 무장승은 상대를 먼저 배려하고 스스로를 성찰하는 아름다운 관계를 가꿔나갑니다. 달빛을 받으며 산과 들에서 행하는 무장승과 바리의 사랑은 서로에 대한 감사와 생기로 가득합니다. 바리는 세 아들을 낳으며 많은 이들을 사랑하는 존재로 다시 태어납니다.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이, 죽어서도 방향을 잃은 자들을 이끄는 이, 바리의 사랑은 세상 가장 어두운 곳으로 향합니다. 오구대왕을 살리며 바리가 축원합니다.

‘아비여, 죽으소서, 완전히 죽어 다시 소생하소서.’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죽어 다시 태어’ 나야합니다. 탄생과 죽음이 다르지 않으니 삶이 죽음이며 죽음은 곧 삶, 시작의 길입니다. 봄에 읽은 『희망을 부르는 소녀 바리』는 바리의 결핍과 자아를 찾는 길만이 또렷했습니다.

가을에 다시 읽은 바리는 스스로 던진 질문에 답하기 위해 고난을 택하고 흔들려도 끝내 자신을 믿으며 진짜 사랑을 만들어가는 멋진 인간이었습니다. 어느 계절 어느 시간에 다시 바리를 본다면 또 어떠할까요? 읽을 때마다 다른 이야기 무늬가 생깁니다. 바리의 삶과 죽음이 그러하듯 우리 또한 잘 살고 있는 이 순간이 잘 죽어가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이 순간의 삶에 여러분은 어떤 이름을 지어주고 싶은지요?

또 다른 이야기

『희망을 부르는 소녀 바리』에서 가장 안타까운 점은 삽화입니다. 일반적으로 삽화는 책의 이해를 돕거나 글과는 다른 면에서 풍부함을 줄 수 있겠지요. 다만, 신화에서 빌려온 거대한 성장 이야기에 예쁜 그림은 신화의 무게를 감당하기에 가볍게 느껴지거나 아름다운 관계의 상상력을 주저앉히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마지막 이야기

작가의 말에서 바리 신화가 지역마다 수많은 판본이 있고 공통적인 이야기가 있다는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희망을 부르는 소녀 바리』를 비롯해 웅진주니어 『바리공주』, 한림출판사 『바리데기』, 웅진씽크하우스 『바리데기』, 시공주니어 『버리데기』, 비룡소 『바리공주』등 또한 바리 신화의 어느 본을 참조하여 이야기를 만들었는지 적지 않았습니다.

바리 이야기뿐 아니라 신화, 전설, 민담 등 옛이야기를 재구성하여 발간할 때는 참조한 판본과 자료를 밝히는 것이 몇 천 년의 지혜를 오늘날의 의미로 되살려내는 지적문화의 토대를 든든히 하는 일일 것입니다.

813.8 사서,
어린이책^을
말하다 2015



지식정보책 서평



지식정보책 서평



서평대상도서명	서평자	소속	페이지
(지구촌얼굴)가면	이 영	평택시 장당도서관	294
나무가 자라야 사람도 살지	유옥환	안양시 박달도서관	296
고종 시대의 과학이야기	박지원	안성시 공도도서관	298
꼬마 손자병법	이민혜	양평군 용문도서관	300
나는 무슨 씨앗일까?	공정자	안성시 진사도서관	302
나도 권리가 있어!	이가영	평택시 안중도서관	304
동물원 친구들은 어떻게 지낼까?	공정자	안성시 진사도서관	306
미술관에서 놀자	조수연	가평군 조종도서관	308
바람개비 의사 이길여	박지원	안성시 공도도서관	310
부와 가난은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이가영	평택시 안중도서관	312
(세상을 바꾼 상상력) 사과 한 알	조수연	가평군 조종도서관	314
생명, 알면 사랑하게 되지요	박지원	안성시 공도도서관	317
소녀의 눈물	박지원	안성시 공도도서관	319
씩어가는 환경	박지원	안성시 공도도서관	321
애들아, 학교가자	유향숙	성남시 판교도서관	323
어린이들의 한국사	이은주	남양주시 오남도서관	325
여기는 대한민국 푸른 섬 독도리입니다	박지원	안성시 공도도서관	328
왜 용서 안 하면 안 되나요?	박지원	안성시 공도도서관	330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물 속 생물이야기	유향숙	성남시 판교도서관	332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작은 노력) 적정기술	공정자	안성시 진사도서관	334
책임지는 용기, 징비록	박지원	안성시 공도도서관	336

서평대상도서명	서평자	소속	페이지
천사의 마음을 가진 오드리 햅번	유향숙	성남시 판교도서관	338
콩 농사짓는 마을에 가 볼래요?	이가영	평택시 안중도서관	340
프랭클린 피뢰침으로 번개를 길들이다	박지원	안성시 공도도서관	342
핵발전소의 비밀	송은희	평택시 시립도서관	344
행복지수 1위, 덴마크의 비밀	유옥환	안양시 박달도서관	347



넌 어떤 가면을 쓰고 싶니?

이 영

평택시 장당도서관 사서

우리는 ‘가면’에 대해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을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우리나라의 전통 하회탈, 미국 할로윈 데이의 호박가면, 중국의 무시무시한 사자가면 등 몇 가지 떠오르는 대표적인 가면들이 있다. 하지만 이 가면들에 얹힌 옛 이야기나 전설, 유래 등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화려함과 감성의 집약체, 각 나라의 특별한 가면에 대해 알려주기 위해 이 책 『가면』이 탄생했다.

‘가면으로 들여다보는 인류의 이야기’라는 소제목이 알려주듯 이 책은 단지 가면에 관한 이야기만은 아니다. 가면 뒤에 숨은 이야기를 통해 인류의 정신과 세계의 문화를 함께 알아갈 수 있게 해주는 지식 전달 그림책이다.

“나의 몸은 영원할거야.”

가면은 나라마다 특별한 의미와 상징으로 사용되었다. 이집트 사람들은 사람이 죽고 나면 미라를 만들고 그 위에 죽은 사람을 닮은 가면을 씌웠다. 이는 죽은 사람의 영혼이 다시 돌아왔을 때 자신의 몸을 잘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가면을 통해 이집트 사람들이 영혼의 존재를 믿었고 그 영혼이 영원할 거라 믿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재규어의 힘이 그대로 내게 전달되기를!”

가면은 때때로 용감함의 상징으로 사용되었다. 아스테카 왕국에서는 재규어, 중국에서는 무시무시한 사자 가면을 씌으로써 두려움을 물리치고 용기와



(지구촌 얼굴) 가면

정해영 글, 그림.

논장. 2013.

분야 : 지식정보책 / 추천대상 : 초등학생

강함을 표현하였다. 파푸아 뉴기니에서는 온몸에 진흙을 뒤집어쓰고 진흙 가면을 쓰는 것으로 승리를 기원하기도 했다.

“양반, 선비, 너희가 별거냐? 내 너희를 실컷 놀려 먹어야겠다!”

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한 표정의 탈을 통해 백성들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던 이야기를 대신 해주었다. 평소에는 꿈도 꿀 수 없었던 일, 거들먹거리는 양반과 선비들을 한 순간에 웃음거리로 만들어주니 꼭 막혀있던 백성들의 속이 뻥! 뚫리지 않았을까?

책의 끝머리에는 세계의 가면에 대한 정보를 요약해 둔 페이지가 있어서 세계의 가면을 한눈에 살펴보고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어린이들의 지식 수준을 향상 시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작가 정해영은 의류직물학과 산업미술학 등을 공부한 상당한 실력자다. 그 래서인지 그림 한 장 한 장마다 종이의 질감을 살린 실감나는 입체감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가면에 달려있는 털과 머리카락 등을 표현하기 위해 한 올, 한 올 종이를 말아 붙인 놀라운만한 섬세함이 독자들의 감탄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또한 형형색색의 다채로운 색감이 상당히 인상적이다. 가면의 입안에서 정말 찢렁찌렁한 소리가 울려 퍼져 나오듯 사선으로 배치한 텍스트도 그림의 사실성을 더한다. 부드럽고 고운 한지의 질감이 손에 잡힐 듯 한 선명한 그림을 마음껏 즐기며 책장을 넘기는 것도 이 책을 읽는 또 하나의 재미가 아닐까 생각한다.



지구와 공존하기

유 옥 환

안양시 박달도서관 사서

혹시 떼죽나무가 왜 떼죽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는지 알고 있나요? 이 나무는 뿌리와 줄기, 잎, 열매가 모두 독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나무를 짓이겨 물가에 풀어놓으면 그 독성으로 인해 물고기가 떼로 죽었기 때문에 떼죽나무로 부르다가 세월이 흐르면서 ‘떼죽나무’라고 명명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자연의 신비로움 속에서 인간에게 참으로 많은 것을 줍니다. 소중히 아껴쓰고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명이라는 이름아래 행해진 수많은 개발로 인해 지금 세계는 지구온난화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문명은 물질적, 기술적, 사회구조적으로 발전한 인간사회를 이룹니다. 문명의 발전이 거듭될수록 자연이 훼손되었습니다. 이러한 자연과 문명의 충돌은 가뭄, 온난화 등 기후변화를 가져왔고 지구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수많은 국가들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제한하는 각종 정책을 입안하고 있습니다. 자연과 문명의 충돌은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사람과 동물은 단백질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단백질은 동물의 살과 뼈, 혈액 등의 조직을 만드는데 이용되는 필수 영양소입니다. 이렇듯 중요한 단백질은 모든 식물에서 만들어지지요. 이 책에서는 식물은 어떻게 질소를 이용하여 단백질을 만드는지, 그리고 어떤 먹이사슬로 형성되는지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생존을 보장하는 식량이나 모든 생활 도



나무가 자라야 사람도 살지

김남길 글, 마이신 그림.

풀과바람, 2015.

분야 : 지식정보책 / 추천대상 : 초등학생 전학년

구가 자연으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인류가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자연을 훼손할수록 그 피해는 결국 부메랑이 되어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자연을 대표하는 녹색식물과 문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자 김남길은 동물과 곤충을 좋아해서 자연과학 분야의 책을 많이 써 왔습니다. 이 책은 초등 1년부터 6년까지 동식물, 지구와 인류의 발생 등 사회 및 과학 교과목과 연계하여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 장을 넘길 때 즈음이면 자연의 소중함에 깊이 공감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자연의 소중함을 알고 자연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겠지요.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지는 이 책을 함께 읽으며 찾아보길 바랍니다.



나라를 잃은 왕, 고종의 업적

박 지 원

안성시 공도도서관 사서

역사를 잘 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학생 열 명 중 한 두 명 꼴이라니,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은 폼으로 있는 말이 아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이러한 류의 역사책들을 더 읽히며 역사를 더 잘 알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책은 그러한 목적에 아주 적합한 책이다.

고종이 도입한 서양 과학 문물은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천문학은 하늘에 대한 생각을 바꾸었고, 전신 기술은 500년을 이어오던 통신 제도를 대신했다.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서양식 학교에서 공부를 하며 새로운 세계에 눈을 떴다.

고종은 일제 식민지가 되기 전 마지막 임금이다. 고종은 나라의 문을 연 다음 곧바로 서양 과학 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전기, 전차, 전신 제도 등을 갖추 수 있게 되었다. 비록 일본의 식민지가 되면서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지만 이때의 경험은 해방 후 새 나라를 건설하는 데 좋은 밑거름이 되었다.

이 책의 주제는 일제강점기를 물리치려 애썼던 왕, 고종의 업적이다. 고종, 세간에서는 일제의 탄압을 막아내지 못한 무기력한 왕으로 비판받고 있는 왕이지만 이 책은 고종이 일제의 탄압에 그저 손 놓고 있지만 앉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책은 고종의 업적을 과학과 함께 엮어 재조명한다.



고종시대의 과학이야기

김연희 저, 김효진 그림.

사계절, 2015.

분야 : 지식정보책 / 추천대상 : 초등학생

고종은 종교, 전기, 통신, 무기 등등 다양한 분야를 서양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여 일으켜 세우려고 했다는 것을 통해 우리나라가 뒤떨어졌기 때문에 일제의 탄압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의 행동이 잘못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이것은 어린 아이들에게 바른 역사의식을 길러줄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의 장점은 각각의 소주제를 통해 연결되는 이야기의 흐름이 자연스럽고 재미있다는 것이다. 간간이 적혀있는 그림으로 이해를 돕는 것 또한 이 책의 좋은 면이다.

나 또한 이 책을 통해서 고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고 고종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 아이들이 이 책을 읽고, 고종이 누구인지 알고, 새로운 호기심이 생겨 역사에 관해서 전반적인 흥미를 느꼈으면 좋겠다.

이 책은 초등학교 저학년에서부터 고학년까지 초등학생 모두에게 두루 읽힐 수 있다. 아이들이 읽고 역사에 대한 흥미를 느낄 수 있음과 동시에 한층 깊어진 역사의식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 또한 이 책을 읽으며 끝까지 저항했던 왕, 고종과 우리나라의 국민들을 보면서 우리 한민족의 혼을 조금이나마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이 민 혜

양평군 용문도서관 사서

“지피지기(知彼知己)면 백전불태(百戰不殆)라!”

어른들에게는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술을 알려주고 아이들에게는 삶에 용기를 내는 법, 실수해도 이겨내는 법을 알려줍니다. 손자병법이라면 어른들의 세계에만 해당된다면 오산입니다. 저자는 아이들 세계에서 고민과 선택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함께 이겨내기 위한 방법을 찾고자합니다.

성인이 읽도록 쓰여진 손자병법을 어린이가 읽는다면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시온이와 희경, 한얼이라는 등장인물을 내세워 이야기를 이끌어 갑니다. 화목하지 않은 가정 때문에 걱정인 시온, 성적과 학교생활로 고민이 많은 희경, 전교회장이 되어 이래저래 골치가 아픈 한얼이의 이야기는 어린 학생들의 공감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공부를 잘하는 한얼이가 전교회장이 되면서 모든 일이 시험지의 문제처럼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게다가 전교회의를 하는 도중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떠드는 학생들과 통제할 능력이 없는 자신 때문에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한얼이에게 꼬마 손자병법은 손무가 말하는 7가지 좋은 리더에 대해 차근 차근 설명해줍니다. 또한 좋은 리더가 행동해할 방법과 한얼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했어야하는지 알려줍니다.

이처럼 책의 구성은 12개의 주제로 나뉘 3명의 주인공의 이야기를 보여주



고마 손자병법 : 고민 많은 초등학생을 위한

문경민 저, 민은정 그림.

비룡소, 2015.

분야 : 지식정보책 / 추천대상 : 초등학생

고 에피소드에 연관된 손자병법의 내용과 진심을 담은 충고를 들려줍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손자병법의 내용을 실음으로 고마 손자병법이 완성됩니다. 이로써 어린이에게 손자병법은 더 이상 옛날 옛적 고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한 지침서로 다가옵니다.

책의 내용은 어린 아이들에게 초점이 맞춰졌지만 결코 가볍게 쓰이지 않아 어른들이 읽어도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경쟁사회에서 힘들어하고, 자신이 어디로 가야할지 알지 못하고, 가족 간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건 어린이들뿐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즘 세상은 아이들에게 또 다른 의미에서 전쟁과도 같습니다. 원래 손자병법은 전쟁에서 이기는 법을 알려주기 위해 쓰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사람이 마땅히 지녀야하는 자세와 위험을 슬기롭게 이겨내는 지혜가 담겨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기는 법이 아니라 지혜롭게 이기는 법을 알려주게 될 것입니다. 용기가 필요한 아이들에게 추천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과 꿈

공 정 자

안성시 진사도서관 사서

국내 전문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물들을 소개한 책으로 1권에 이어 2권이 9년 만에 출판되었다. 대부분 위인전기는 위인의 사망 후 한 사람을 집중해서 집필하는 경우가 많다. 이 책에 소개된 인물은 대부분 현재 살아있고 각 분야에서 최고가 되고자 최선을 다해 왔던 여러 인물들을 짧은 단편 형식으로 소개한 책이다.

1권엔 요리사 박효남, 과학자 최재천, 컴퓨터 의사 안철수, 시각장애인 박사 강영우, 나무박사 서진석, 화가 김점선, 기자 김병규, 민속학자 임재해, 농부 이영문 등 9명의 인물을 소개한다.

2권에는 민항기 최초 여자 기장 신수진, 곤충 박사 원갑재, 한복 디자이너 이영희, 도선사 윤병원, 한글 디자이너 석금호, 국악인 황병기, 민들레 수사 서영남 등 7명의 인물을 소개한다. 각 인물마다 ‘나’가 화자가 되어 각자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줌으로 이야기가 더욱 생동감이 있다.

2015년 현재 이전에 1권에 소개되었던 인물들 중 돌아가신 분도 있고, 방송과 신문을 통해 자주 접할 수 있는 인물도 있다. 출판사 샘터는 ‘나는 무슨 씨앗일까?’ 이후 지속적으로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인물들을 소개하는 도서를 출판하고 있다.

1, 2권 모두 판형과 표지가 같고 삽화도 같은 유준재 작가가 그림을 그렸다. 삽화도 위인의 삶과 생활을 잘 표현하고 있다. 9년 만에 나온 2권이지



나는 무슨 씨앗일까?

황병기 외 글, 유준재 그림.

샘터, 2014.

분야 : 지식정보책 / 추천대상 : 초등 중학년부터

만, 1권과 비슷한 장정과 표지디자인의 형태로 출판되어 비슷한 시기에 출판한 도서로 보인다. 책 속에 인물들의 어렸을 적 사진과 자료가 이해를 돕는다. 예를 들면 한복 디자이너 이영희 선생의 경우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세계 정상들이 두루마리를 입은 사진이 수록되어 있기도 하다.

각 분야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고 어려움을 딛고 일어난 현재 살아 있는 우리 선배들의 삶과 열정을 느낄 수 있다. 아울러 직업에 대한 이해를 폭넓게 할 수 있게 한다. 2005년에 출판된 스테디셀러 1권도 같이 읽어보면 좋겠다. 초등학교 중학년 이상이 읽을 수 있는 도서로 추천한다.



누구나 갖고 있는 권리, 인권

이 가 영

평택시 안중도서관 사서

『나도 권리가 있어!』는 2005년 출간된 『똑딱똑딱 인권짓기』의 개정판이, 2011년에 1쇄가 발행된 이후로 2014년에 무려 4쇄가 발간된 책이다. 이 책에서는 ‘인권’이라는 주제의 범위를 굉장히 넓은 스펙트럼으로 다루고 있기도 하고, 최근 몇 년 사이 우리나라에서 인권이라는 것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다.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개개인의 인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 아닐까 싶다.

지구상에서 숨을 쉬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권리를 인권이라고 한다. 우리의 이런 권리에는 그에 응당한 책임이 부여된다. 우리는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우리에게 부여된 권리에 대해 책임감을 살아가고 있을까?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나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당연한 행동이지만 우리는 인권이라는 것을 공기와 같이 항상 우리에게 존재하는 당연한 것이라고 여긴다. 또한 나의 권리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권리도 소중하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소중하다. 그런 면에서 이 책은 어린이들에게 좋은 인권교과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어린이들에게는 차별, 자유, 사생활, 노동, 교육, 건강, 안전, 학대 등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책에서는 어린이들의 실생활에 접목하여 어떤 부분에서 자신이 인권이 침해될 수 있는지, 그런 상황에서는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 만화로 쉽게 그려주고 있다. 얼마나 선생님이 일기검사



나도 권리가 있어!

인권교육센터 '들' 지음, 윤정주 그림.

책읽는곰, 2011.

분야 : 지식정보책

를 하는 것도, 부의 차이에 따라 다른 교육을 받는다는 것이 결국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지도 인권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책의 장점이다. 결국 10년 뒤를 이끌어 나가는 것은 이 책을 읽는 초등학교 어린이들이다. 그들이 우리가 살 10년, 20년 뒤를 이끌어 나갈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그들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사는 지가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은 결코 가볍지만은 않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책을 읽은 어린이들이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은 조금은 편안해진다.

『나도 권리가 있어!』의 삽화 또한 주 독자층인 어린이들의 눈에 맞추었다. 어린이들이 제일 친근하게 볼 수 있는 쉬운 그림체이다. 더불어 만화로 그려져 있어 '인권'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어려움 없이 받아들일 수 있게 구성되어 있다. 이와는 좀 다르게 외국인 노동자들의 자녀들도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챕터에서는 판화를 사용하여 느낌을 다르게 표현하였다. 또한 어린이들의 머릿속 생각의 흐름에 맞춰 때대로 상상력으로 그린 그림은 당연한 이야기도 특별하게 만들어준다. 『나도 권리가 있어!』에서는 '인권'이라는 주제를 어린이들이 최대한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쓰여지고, 그려졌다. 20년 뒤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갈 어린이들이 이 책을 읽고 자신의 권리만큼 타인의 권리도 존중하고, 그에 걸맞은 책임감을 지는 성인으로 자라나기를 간절히 바라본다.



사육사가 알려주는 재미있는 동물 이야기

공 정 자

안성시 진사도서관 사서

이 책의 작가, 아베 히로시는 약 20년간 동물원 사육사로 일하다가 이후 주로 동물을 주인공으로 그림을 그리는 그림책 작가가 되었다. 그는 동물원에서 일하면서 동물을 늘 관찰하고 먹이를 주고 키웠기 때문에 누구보다 동물을 잘 그릴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던 작가는 동물원에서 하루 일과가 끝나면 날마다 그림을 그렸고, 사육사를 그만 두면서 동물을 잘 알리는 그림으로 또 다른 사육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책은 사육사로서의 작가의 경험이 묻어나는 책이다. 이 책은 동물을 소개하는 내용이 주이지만 책 속에서 사육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한다.

이 책 속에 나오는 동물은 책 표지에 나온 낙타부터 41번째 사람까지 다양하다. 각 페이지마다 동물의 특징을 담은 동물 소개 제목과 짧은 소개 글이 나온다. 동물 그림은 어떤 동물은 단독으로 그리고, 어떤 동물은 무리를 지어 그렸다. 다양한 매체를 사용하여 그린 동물은 사진에서 보는 동물과는 다른 느낌을 준다. 글에 유머가 있으며 우리가 알지 못했던 동물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알려준다. 갓 태어난 아기 캥거루는 손가락에 엮을 수 있다, 스핑크스의 방귀는 독해서 목욕을 해도 1주일 이상 냄새가 없어지지 않는다, 코끼리 코로 땅콩도 쥌 수 있다, 다람쥐는 도토리를 수시로 모으지만 어디에 두었는지 모른다는 이야기 등 동물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만화와 같은 대화체이면서 동물들과 사람들을 비교해서 동물의 우수한 점



**동물원 친구들은 어떻게 지낼까?
: 사육사가 들려주는 동물원 가이드**

아베 히로시 글, 그림, 햇살과나무꾼 옮김, 나카노 마사타카 구성.
논장. 2013.
분야 : 지식정보책

을 소개하며, 읽는 내내 재미를 주는 책이다.

동물들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정보그림책으로 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 오래 전에 출판 된 『폭풍우 치는 밤에』등 작가의 다른 작품을 같이 읽어보면 좋겠다.



어린이를 위한 재미있는 명작 미술관 탐험

조 수 연

가평군 조종도서관 사서

어린이들에게 다소 생소하게 느껴졌던 서양 미술에 대해 흥미를 가지고 다가갈 수 있는 책이다. 부모님 손을 잡고 한번쯤은 미술관에 가서 전시된 그림들을 보았던 어린이들은 이해하기 어렵고 지루하기만 했던 경험을 갖고 있을 것이다. 이런 친구들이 이 책을 아주 천천히 조금씩 정독을 하고 나면 아마도 그림을 감상하는 안목이 생길 것이다.

이 책에는 르네상스 시대부터 20세기 초반까지의 서양 미술에 대한 커다란 흐름을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같은 그림을 두 페이지에 나누어 보여주면서 원래의 작품과 비슷해 보이지만 결코 같지 않는 두 그림 보고 달라진 10군데를 찾아봄으로써 그림에 대한 세심한 관찰과 소소한 즐거움을 함께 누릴 수 있다.

서양화를 감상하는 포인트는 화려한 색채다. 이러한 색채의 표현 방식은 보색대비로 선명함을 더하고 있고, 고급스럽고 화려한 생활을 영위하던 귀족들의 문화가 미술작품에 고스란히 담겨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색채를 중시한 낭만주의의 특징이 훗날 인상주의 화가인 모네, 드가, 르누아르 등과 같은 화가들에게도 영향을 끼쳤고 반면, 밀레, 쿠르베 등은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을 그림으로 그려내어 서정적으로 아름다운 풍경을 그려내었다.

후기인상파 화가들은 자유롭게 화면을 구사하며 강렬한 색채로 내면의 정신세계를 표현하였고, 이들에 이어 20세기 화가들은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



미술관에서 놀자

네오비트코리아 기획, 박윤선 그림.

네오비트코리아, 2014.

분야 : 지식정보책 / 추천대상 : 초등 고학년

대로 표현하는 뭉크, 몬드리안, 칸딘스키, 피카소 등이 표현주의 화가로 활동하였다.

무엇을 표현한건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웠던 명작 그림들을 이 책을 읽고 나면 조금씩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또한 그림을 그림으로 써만 바라보던 시각에서 확장되어 역사와 시대적 흐름을 이해하고 감상한다면 그림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질 것이다. 이로써 이 책은 예술작품을 재미있게 바라보고 이해하는데 발돋움이 될 수 있는 명작 그림책이라고 할 수 있다.



물꼬를 트는 아이

박 지 원

안성시 공도도서관 사서

의사, 사람의 질병을 고쳐주고 사람들의 건강을 보살피 주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 책은 언제나 환자를 생각하는 의사 이길여에 대한 책이다. 이길여는 여자로 태어나 어렸을 적부터 많은 차별을 받아왔다. 그녀는 아주 똑똑하며, 열심히 노력해서 늘 1등을 놓치지 않는 수재였고, 하고자 하는 것은 반드시 해내는 고집스러우며, 똑부러진 아이였다. 친구들의 죽음을 가까이에서 접하고, 마을에 왕진을 와 예방 접종을 해 주시던 의사 선생님을 보고 의사를 꿈꾸게 되었다. 그런 이길여가 대학교를 가고, 외국에 까지 유학을 다녀올 수 있었던 것은 길여의 노력과 어머니의 정성스러운 보살핌 덕이었다. 이길여는 미국 병원에서 인턴 자격까지 따고 한국으로 돌아와 병원을 짓고 '이길여 산부인과'라 이름 지었다.

이길여는 가난한 환자들을 생각하여 보증금을 받지 않고 수술을 하며, 병원에 오지 못하는 환자들을 위해 섬까지 무료 진료를 하러 가는 등 대단한 봉사 정신을 보였다.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이길여가 산부인과를 열었을 때 자궁 외 임신을 해서 환자의 생명까지 위협한 위급한 상황에서 돈이 없어 나가려던 환자를 잡아 무료로 수술을 해 준 것이었다. 이 장면에서 이길여의 봉사 정신이 더 돋보였다. 과연 이길여가 환자들을 얼마나 생각하는지 마음에 확 와닿는 부분이었다.

이 책은 의사가 되고 싶어하는 아이들을 중심으로 초등학교생들이 읽을 만



바람개비 의사 이길여

백은하 지음, 이영림 그림.

상수리, 2015.

분야 : 지식정보책

한 책이다. 의사가 되고 싶어 하는 아이들은 이 책을 읽어보면서 의사가 가져야 할 가치, 정신이란 과연 무엇인지, 그저 환자들을 돈으로만 생각하며 의사가 되지 않아야 하는 이유 등을 저절로 알게 될 것이다. 하지만 꼭 의사가 목표가 아닌 아이들이더라도 이 책은 여성 의사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여성이 얼마나 차별받던 존재였는지 등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책이므로 한 번쯤은 읽어보면 좋을만한 책이다.



어떻게 점점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나요?

이 가 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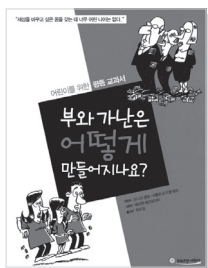
평택시 안중도서관 사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성인이 되어서 경제활동을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바로 삶을 살아가는 데에 필수적인 돈을 벌기 위해서일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부자들이 어떻게 부를 축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른 채 성인이 되었을 때 옆에 있는 사람보다 좀 더 많은 급여를 타는 월급쟁이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 각고의 노력 끝에 그토록 원하던 월급쟁이가 되어서 열심히 일하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팍팍하다.

월급을 올려달라고 사장에게 요구하면 사장은 노동자들에게 ‘너희들은 항상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사장은 더 넓고 고급스러운 집과 차를 사고, 호화 취미생활을 즐기기 위해 요트를 구입한다. 이들이 자신이 번 돈으로 호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일반 노동자들은 왜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부자들은 어릴 적부터 높은 수준의 예술 공부를 하고, 비슷한 수준의 아이들과 같은 공간에서 교육을 받으며 눈을 높여간다. 그런 교육과 인맥을 바탕으로, 또한 부모가 물려준 자본을 통해서 부자가 되어가는 것이다. 결국 돈이 돈을 벌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점이 다른 서민, 중산계급의 사람들이 기업체의 사장만큼 잘 살게 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하지만 우리의 이런 현실을 알고 사는 것과 모르고 사는 것에는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책에서는 부자들이 점점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이유, 부자들이 돈



(어린이를 위한 평등 교과서) 부와 가난은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모니크 팽송-샤를로, 미셸 팽송 공저, 에티엔 레크로아트 그림. 목수정 옮김.
레디앙어린이. 2015.

분야 : 지식정보책

을 어디에 숨기는지, 부잣집 아이들도 부자가 될 수 있는 이유,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 보다 세금을 더 적게 내는 이유 등 민주주의인 우리 사회에서도 기회가 균등하게 제공되지 않는 이유들을 각종 비유들과 예시를 통해 이해하기 쉽게 그려내고 있다.

이 책이 다른 번역서보다 특이한 점에 역주가 자세하게 달려 있다는 점이다. 『고래가 그랬어』에 문화 칼럼을 쓰고 있고, 『파리의 생활좌파들』, 『뻗속까지 자유롭고 치맛 속까지 정치적인』등의 책을 쓴 목수정 작가의 번역과 함께 프랑스의 사례 옆에 우리나라의 사례를 주석으로 달아 독자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였다는 것이 이 책의 특징점이라고 할 수 있다. 프랑스의 기업인 루이비통 등 명품 기업을 소유하고 있는 아르노 베르나르에 대한 글 옆에 우리나라 최대 기업인 이견희 회장을 소개하는 식으로 말이다. 뿐만 아니라, 계급 간의 비교를 할 수 있는 삽화를 통해 이해를 돕고 있는 점도 큰 장점이다.

계급이라던가 평등과 같은 주제는 어린이들이 이해하기에 조금 어려운 소재일 수 있다. 하지만 역자의 자세하고 센스 있는 주석과 삽화를 통해서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사과의 모습

조 수 연

가평군 조종도서관 사서

우리과와 친근한 사과를 어떤 내용으로 썼을까 궁금해지는 제목이었다. 사과에 대한 다양한 각도로 지식을 전달하려는 책이다. ‘지식은 내 친구’ 시리즈로 사과들이 의미하는 정보를 두루두루 연계해서 풀어낸 감동적인 한 작품을 읽게 되었다.

상상력의 씨앗, 이브의 사과

성경 속의 ‘선과 악’으로 대표되는 사과, 아담과 이브가 사과를 먹으면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고 인류의 역사가 비로소 시작되었다. 호기심으로 사과를 먹음으로써 꿈의 에덴동산을 잃었지만 이브의 후손들은 상상력의 씨앗이 된 사과 덕분에 인간의 역사를 거듭 발전하게 되었다.

예술이 된 상상력, 파리스의 사과

아주 오랜 옛날, 사람들의 상상 속에서 이야기들이 자라나는데 이런 이야기를 ‘신화’라고 한다. ‘트로이 전쟁’의 목마이야기가 유명하다.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에게 아름다움의 여신 아프로디테는 황금사과를 주면 가장 아름다운 여인 헬레네를 주겠다고 한다. 하지만 헬레네는 이미 스파르타 왕의 여자였기에 스파르타와 트로이의 전쟁이 시작되고 트로이목마로 인해 트로이는 전쟁에서 패한다.

인간의 본능을 상징하는 황금사과 한 알로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나라의 운명도 바뀌어 놓았다.



(세상을 바꾼 상상력) 사과 한 알

정연숙 글, 크리스티나 립카-슈타르바워 그림.

논장. 2015.

분야 : 지식정보책 / 추천대상 : 초등 4~6학년

예술 너머 과학으로, 뉴턴의 사과

사과나무에서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 중력을 발견한 뉴턴의 일화는 유명하다. 모든 물체가 서로 끌어당기는 힘인 ‘만유인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아낸 그를 보고 ‘근대 과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운다. 진리를 탐구하는 과학자들의 호기심과 연구, 용기가 과학의 문을 열어주었다.

자유를 안겨준 빌헬름 텔의 사과

소설로도 많이 알려진 빌헬름 텔의 사과이야기는 자유를 잃고 억압에 시달려 온 스위스 사람들의 마음에 독립의 꿈을 심어주어 자유와 희망이 찾아오게 만든다. 아버지의 아들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고 집중력으로 아들의 머리 위에 놓인 사과를 맞히는 장면은 손에 땀을 쥐게 한다. 이처럼 사과 한 알이 자유를 상징하기도 하고 빌헬름텔의 사과는 희곡을 바탕으로 연극과 오페라 작품으로 다시 태어나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큰 인기를 얻게 된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세잔의 사과

후기인상파화가에게는 빛을 중요시하는 것에 관심을 두게 되고 사과, 빵, 바구니 같은 정물화를 그리게 되는데 세잔 또한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 햇빛이 비치는 방향과 햇빛의 양에 따라 달라지는 색을 화폭에 담은 그림을 그렸다. 후기인상파 화가들의 영향을 받아 다양한 각도로 세상을 보는 ‘입체파’ 화가들이 등장한다.

다른 상상으로 만든 도구, 스티브 잡스의 사과

‘Think, Different’ 스티브 잡스가 만든 광고 타이틀이다. 상상력으로 세상을 바꾸고 사람을 위한 기술, 스티브의 잡스의 치열한 고민과 실패, 도전 끝에 세상을 컴퓨터라는 새로운 도구를 갖게 되었다. 그는 상상하고 다르게 생각하면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고 했다.

나의 놀라운 또 다른 사과

나는 과연 어떤 사과를 떠올릴까? 내가 느끼고 생각하는 또 다른 사과는 무엇이 있을까? 단지 맛있어서 식사 후 먹는 후식정도로 여기는 사과가 이렇게 다양한 시각으로 인해 세상을 달라지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는데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주변의 어린이들도 무한한 상상력으로 꿈을 맘껏 펼쳐볼 수 있는 놀라운 사과가 나오기를 바래본다.



전갈도 사랑하게 만들어 주는 책

박 지 원

안성시 공도도서관 사서

이 책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동물학자 최재천 선생님이 쓴 책으로 생명에 관한 이야기다. 직접 동물들과 접하면서 쓴 책으로 재미있는 이야기를 통해 동물에 대한 지식도 얻을 수 있다.

이 책에는 박쥐, 개미, 돌고래 등 꽤 많은 종류의 동물들이 나온다. 작가는 그들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생명에 대해 제대로 알면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되고, 더불어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고 이야기 해 주고 있다.

이 책은 동물에 대한 호기심이나 흥미를 불러일으켜 주는데 멈추지 않고, 동물들에 관한 여러가지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할 수 있게 도와준다. 이 책이 계기가 되어 동물에 관한 직업을 가지게 될 지도 모르겠다.

우리가 평상시에 많이 보았던 개미나 반려견부터 평소에는 잘 못 보지만 동물원에 가면 흔히 만나볼 수 있는 동물들까지 그들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 주는 책이며 동물들이 느끼는 슬픔을 공감하게 해준다.

평소 동물에 관심이 많았던 아이들 뿐 아니라 동물이나 곤충에 대해 편견을 갖고 있는 아이들에게도 이 책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징그럽고 무섭기만 한 전갈이 알고 보면 지극한 모성애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때문이다. 이 책을 읽고 나서 갑자기 전갈이 사랑스러워 보일 수도 있다.



생명, 알면 사랑하게 되지요

최재천 글, 권순영 그림.

더큰아이, 2015.

분야 : 지식정보책 / 추천대상 : 초등학생

나는 이 책을 어린이들에게 추천한다. 동물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상관없이 ‘생명의 눈’을 통해 세상을 볼 수 있는 지혜를 키울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을 통해 많은 것을 알게 되고 느끼게 될 것이다.



소녀의 눈물을 닦아줄 순 없나요?

박 지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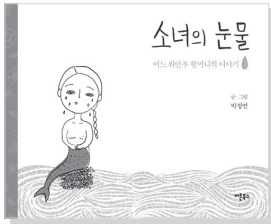
안성시 공도도서관 사서

이 책은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인 위안부 문제를 다룬 책이다. 위안부 할머니들께 사과도 하지 않고 있는 일본, 그런 일본이 무슨 짓을 했던 것인지 잘 알려준다.

책에서는 아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해준다고 하며 궁금증을 일으킨다. 그런 다음, 책장을 넘기면 위안부 할머니들이 대부분 어떻게 일본군에게 끌려 간 건지, 끌려가서는 무슨 일을 당한 건지 등이 나와 있다.

이 책의 장점은 글씨체와 그림 등이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해 준다는 것이다. 또 이 책에서의 내용 중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그런 고생을 다 겪고 고향으로 돌아와서도 할머니가 다가가면 외면하는 마을 사람들, 할머니를 좋아한다고 했지만 전쟁 중 할머니가 무슨 일을 겪었었는지 이야기하면 떠나가는 남자들, 또 어렵게 결혼하여 살다가 많은 할머니들이 용기를 내고 위안부임을 밝히자 자신도 위안부임을 밝히고 싶다고 하는 할머니를 결사반대하는 아들, 딸들이 나오는 장면들이다.

몹쓸 일본도 일본군이지만 그런 힘든 일을 겪고 돌아 온 할머니들을 더 상냥하게 보듬어주지 않고 오히려 부끄럽다며 계속 숨기려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 굉장히 야속했고, 위안부 할머니들께서는 그런 그들의 행동에 얼마나 상처 받으셨을지 아주 조금이지만 감히 공감이가 잦기 때문이다.



소녀의 눈물

박정연 지음.

버튼북스, 2015.

분야 : 그림책, 지식정보책 / 추천대상 : 초등학생

아이들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런 고통을 알고 있을까? 아마, 잘 모른다고 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그런 아이들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우리나라의 힘든 시기를 견뎌내신 분들의 고통을 우리의 힘으로 해방시켜 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선 그 문제에 대해 알아야 하는 것이다.

이 책은 쉽고 간단하지만 아주 효과적으로 글씨체, 그림 등 여러 가지 시각적 효과를 이용하여 독자들의 이해를 도우며 조금 더 공감이 가게 한다. 또 마지막에는 ‘더 알아볼까요?’ 라는 코너가 있는데 거기에는 ‘위안부’란 정확히 무엇인지 현재 위안부 할머니들이 모여 진상 규명, 공식 사죄, 법적 배상 등등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일본의 행동을 촉구하는 집회인 수요 집회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할 수 있는지 등 위안부에 대해 이것저것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코너가 있다.

이 코너를 읽은 후에는 위안부에 대해 보다 깊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을 읽고 많은 어린이들도 이 문제에 대해 알고 앞으로 일본이 위안부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같이 이 문제에 싸워나가 주었으면 한다.



느리게, 조금 힘들게 사는 지혜

박 지 원

안성시 공도도서관 사서

지구온난화, 근래 들어서 아주 심각한 문제로 다시금 강조되어 대두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힘쓰고 있다.

지구온난화가 생기는 원인들은 여러 가지를 꼽을 수가 있고, 그 또한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겹치면서 생겨나는데 이 책은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쉽고 자세하게 잘 설명해준다.

이 책에서는 공기, 물, 땅, 생명체와 농업, 생활과 쓰레기라는 다섯 가지의 큰 주제를 가지고 그 것들이 지구온난화가 어떻게 관련되어있고 문제가 되는지를 이야기 해주는 식으로 쓰여 있다.

많은 사람들이 얼추 알고 있기는 했지만 자세한 내막까지 알지 못했던 문제, 심지어 그것이 문제인 줄도 몰랐지만 문제였던 것 등등 주제와 관련되어 우리가 알지 못했던 수많은 문제들을 이야기해준다.

환경 호르몬이나 적조 현상 같은 습지에 대한 이야기 같은 내용과 함께 이해를 돕는 예시가 함께 적혀져 있어 그 내용에 대한 이해가 더욱 쉽고, 책을 읽어나가는 것이 매끄럽도록 되어있다. 또 이 책의 장점을 꼽자면 부분마다 조그맣게 그려진 그림들과 만화들을 꼽을 수가 있다. 짤막하게 그려져 있는 그림과 만화들을 보면 흥미를 유발할 뿐 아니라, 내용을 조금 더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어서 유용하다.



썩어가는 환경

장수하늘소 지음, 김미경 그림.

해설. 2015.

분야 : 지식정보책 / 추천대상 : 초등학생

책에서 이야기 해 주는 지구온난화의 원인을 살펴보면 지구온난화의 문제의 모두는 인간의 탓으로써 보는 내내 나 또한 그 원인에 한 몫을 했다는 사실이 부끄러워진다. 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낸 한 문제이니 우리의 손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게끔 한다.

마지막에 주제나 원인에 알맞은 해결 방안을 제시해 두었고, 우리가 단지 귀찮다는 이유로 실천해오지 않았던 일들을 이 책을 통해 지구온난화의 문제를 조금 더 이해하고 없애기 위한 노력을 해 보라고 말하고 싶다.

이 책은 중, 고등학생보다는 초등학생들에게 추천하고 싶다. 아이들이 이 책을 읽으며 앞으로 지구온난화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며 지구온난화의 진행을 막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것을 실천하여 지구온난화를 막는 것에 보탬이 되었으면 싶다.

아이들의 미소는 언제나 아름답다

유 향 숙

성남시 판교도서관 사서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아메리카, 오세아니아의 30개 나라의 작은 동네를 찾아다니며 아이들의 학교와 수업과 문화를 읽을 수 있도록 사진작가 10명의 시각을 통해 나타내고 있다.

어린이 책이지만 그림책이 아니고 지식 전달을 위한 우리주변의 현실을 객관적이고 사실적으로 표현한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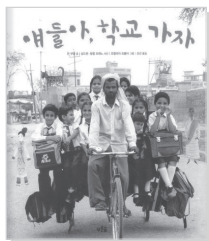
30개 나라의 오지라 할 수 있는 곳에 어린이들의 출망출망한 눈망울이 아름답다. 그 아이들의 눈 속에는 학교는 지식을 습득하고, 전통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산실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세계는 다 똑같이 살고 있지 않다. 가난한 나라, 잘사는 나라, 전쟁이 있는 나라, 남.여 차별이 있는 나라, 추운나라, 더운나라.....

자연과 역사와 사회의 여건에 따라 다르지만 어린이들은 학교에 가고 싶어 하고 학교에서 세상을 배우고자 하는 열망은 같은 것 같다.

학교는 기본적으로 배움의 산실이지만, 어떤 나라에서는 자연재해나 전쟁을 피하는 대비실이며, 병원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힘든 노동을 피해 잠시 쉴 수 있는 쉼터가 되기도 한다. 이렇듯 학교는 나라에 따라 조금씩 의미는 다르지만 꼭 필요하며, 누구에게나 도움을 주는 공공시설이라는 점은 같다.

또한 사진에 나오는 아이들의 순수하고 맑은 눈과 웃음은 이 책에 꼭 빠지게 하기에 충분했다.



애들아, 학교가자

안 부앵 글, 상드린, 알랭 모레노 사진. 선선 옮김.

푸른숲, 2006.

분야 : 지식정보책 / 추천대상 : 초등 3학년 이상

개인적인 말을 하자면 우리아이는 식사시간에 밥을 잘 안 먹는다. 그리고 많이 남기기도 한다. 그럴때 마다 아빠는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데려가 야겠다. 그 아이들이 보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알 수 있을 테 니.....”라며 아이를 훈계한다.

나 역시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다 보니 ‘우리보다 못사는 나라의 아이들에게는 학교는 얼마나 절박한 바램일까?’ 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감사한 환경에서 자라고 있는지를 알려줄 수 있는 좋은 책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편협한 시각을 벗어나 다양한 문화 속에서 적응하며 사는 아이들을 보며 “틀림”이 아니고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평화롭게 살아가는 관점을 가져줬으면 한다.

이 글은 작가를 포함하여 사진작가까지 모두 11명이다. 많은 사람들이 공동 작업을 통해 만들어 냈으며, 그 시각이 객관적이고 평등하다.

학교를 소재로 한 것도 그렇지만 순간을 포착하는 사진기를 통해 아이들의 해맑은 모습들을 잘 포착했다. 사진 속에는 현실이 힘겨워도 아이들이 미래와 꿈을 놓치지 않는 모습을 읽을 수 있었으며, 그 시기에 누구나 소중한 친구의 우정을 키우는 모습을 보았고, 아이들에게는 불평등 같은 것은 어른들의 세계인냥, 순수하고 아름다운 초기의 인간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사진작가와 글을 쓴 작가의 시각을 통해 우리도 사랑과 평등을 배우게 된다.



역사 속 어린이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이 은 주

남양주시 오남도서관 사서

올해는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은 지 70년이 되는 역사적으로 뜻 깊은 해이다. 이 기쁜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각 분야에서는 다양한 행사들이 열렸고, 특히 광복절에 열린 해방둥이(1945년에 태어나신 분)들의 합창은 전 국민에게 감동을 주었다. 광복 이후에도 가난으로 힘든 삶을 살기도 했지만, 지금의 우리나라는 세계의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겨루며 살고 있고, 가난한 나라들을 돕기도 하며, 문화적으로는 ‘한류’를 전하고 있다. 미래에는 과연 어떠한 나라가 될지 기대가 되기도 한다.

역사는 과거의 이야기이다. 그러나 현재도 미래에는 과거가 되고, 역사가 된다. 미래를 잘 살기 위해서는 현재를 잘 살아야 하고, 현재를 잘 살기 위해서는 과거를 알아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수많은 역사책 속에서 왕, 장군, 학자, 위인들을 만나왔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어른들이었다. 어린이들을 위한 역사책에도 주인공은 위대한 업적을 남긴 어른들의 이야기만 들어 있었다. 그러나 학교 선생님들로 구성된 ‘역사교육연구소’에서 만든 『어린이들의 한국사』는 주인공이 어린이들이다. 온갖 책을 뒤져 역사 속 어린이들의 흔적을 찾아 역사의 흐름과 발맞추어 어린이들의 삶을 이야기한 책이다.

평범한 어린이들도 어른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힘껏 역사를 헤쳐 왔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어린이들의 삶과 꿈이 어떻게 변해 왔는지 그 자체가 역사다. 이 책은 어린이들이 원시시대부터 최근까지 우리 역사 속 실존한 어린이



어린이들의 한국사

역사교육연구소 지음, 이경석 그림, 임기환, 김정인 감수.
휴먼어린이. 2015.

분야 : 지식정보책 / 추천대상 : 초등중학년이상

들의 삶을 이야기로 재구성한 책이다. 각 시대를 살았던 아이들의 시각으로 역사를 들여다보고, 아이들의 눈높이로 역사를 풀어낸 것이 특징이다. 역사 속 아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도 나중에는 역사가 되고, 지금을 살고 있는 어린이도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송현이를 통해 가야의 순장 풍습을 엿보고, 신라의 화랑도, 고려의 선랑, 조선의 서당, 독립운동가의 아들이자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희망의 상징이었던 자동이를 통해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독립운동의 흐름도 알 수 있다. 이렇듯 실존한 어린이들의 삶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당대를 들여다보고, 우리 역사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다. 책 사이사이에 역사 속 이야기를 만화로 그려 이해를 돕고, 유물들의 실물사진을 통해 사실감을 살렸다.

아쉬운 점은 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한 권으로 엮어내느라 내용이 길어져 초등학생들이 읽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그러나 역사를 좋아하는 아이들이나 초등고학년은 다양한 내용과 형식으로 지루함을 느낄 새 없이 읽을 수 있다.

이 책을 만든 ‘역사교육연구소’는 2009년 초등학교 선생님과 중·고등학교 역사 선생님, 그리고 대학에서 교사를 기르는 교수님들이 어우러져 만든 연구소이다. 교실 수업과 연구, 역사학과 역사 교육 연구, 초·중등과 대

학의 경계를 뛰어넘어 우리 학생들이 역사를 좀 더 재미있고 보람 있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실천하려고 애쓰는 중이다. 연구소에는 ‘민주주의와 역사 교육’, ‘역사 교육사’, ‘역사 수업’ 등 여러 분과가 있는데, 이 책은 어린이·초등 역사 교육에 대해 공부하는 모임인 ‘어린이와 역사 교육’ 분과 7명의 선생님들이 함께 쓰셨다.



여기는 대한민국 푸른 섬 독도리입니다.

박 지 원

안성시 공도도서관 사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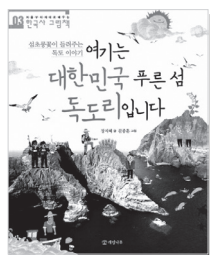
독도에 사는 우리 풀꽃 섬초롱꽃이 들려주는 우리 땅 독도에 대한 이야기이다. 일본이 계속 자기네 땅이라 우기는 우리의 섬, 독도. 독도가 아무리 우리의 땅이어도 우리가 독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면 그것을 누가 믿어줄까? 우리는 우리의 땅인 독도에 대해 조금 더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책은 갈매기가 울릉도에서 독도로 물어다 준 섬초롱꽃 씨앗이 독도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이야기인데, 책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고 재미있게 독도의 위치, 독도의 역사, 독도를 현재 지키고 있는 사람들, 독도라는 이름의 유래 등등 독도에 관해 여러 가지를 알게 된다.

신라 시대부터 지금까지 천오백 년이 넘는 세월 동안 우리 땅 · 우리 섬이었고, 앞으로도 쭉 그러할 독도의 이야기를 재미난 동화와 아기자기한 그림으로 엮었다.

인상 깊었던 장면은 독도가 왜 우리 땅인지 사철나무가 섬초롱꽃에게 설명해주는 부분이었는데 너무나도 타당하게도 우리나라의 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 더욱 인상 깊었다.

뒤로는 부록이 있어 책에서 등장하는 섬초롱꽃과 갯이갈매기, 바다제비,



(섬초롱꽃이 들려주는 독도 이야기)
여기는 대한민국 푸른 섬 독도리입니다

장지혜 글, 문종훈 그림.

개암나무, 2015.

분야 : 지식정보책

쇠무릎과 사철나무 등등이 어떻게 생겼는지 실제 사진도 첨부되어 있으며 각종 사료 등을 이용해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라는 것을 더욱 자세히 알 수 있으며 일본에서는 왜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라고 하는지, 일본에서는 어떻게 역사를 왜곡하며 그것이 왜 잘못 되었는지 등을 자세히 알 수 있다.

이 책은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부터 중학교 1학년 정도까지 볼만한 책인 것 같다. 독도에 대한 전반적으로 자세한 지식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역사를 배우고 있는 아이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책을 읽으면서 독도에 대한 사랑과 함께 우리나라에 대한 사랑도 같이 깊어지면 금상첨화일 것 같다.



마음이 넉넉한 아이가 되고 싶다면

박 지 원

안성시 공도도서관 사서

누구나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하려면 어려운 것. 아무리 나이가 많거나 성공한 사람들 역시 실천하기 어려운 것. 그것이 바로 ‘용서’인 것 같다.

이 책은 그런 용서에 대해 담고 있다. 책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첫 번째는 ‘왜 용서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두 번째는 ‘용서를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에 대해 구성되어 있는데 그 이야기를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보았을 만한 일상의 이야기로 풀어낸다.

재미있는 동화나 성공한 사람들의 어릴 적 이야기 등으로 주제를 풀어내기 때문에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으며, 이야기를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용서’에 대한 개념이나 철학적 사고를 익힐 수 있다. 교훈을 주기 위해 있는 딱딱하기만 한 이야기가 아니라 술술 읽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에게 적합하다.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아이들이 용서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용서를 받거나 혹은 해야 하는 상황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의 뒷부분에는 「엄마 아빠가 읽어요」라는 코너가 있어서 부모가 아이에게 용서를 제대로 교육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는 이 책의 감수를 맡은 김태훈 아동발달연구소 원장이 직접 기술한 것으로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와 그러한 방법들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작용



왜 용서 안 하면 안 되나요?

이아연 지음, 유명희 그림, 김태훈 감수.

참들어린이. 2014.

분야 : 지식정보책 / 추천대상 : 초등학생 및 부모

하는지도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덧붙여 아이들에게 용서의 예를 보여주기 위한 영화와 책의 목록도 제공하고 있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이라면 이 코너가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면에서 이 책은 기본적으로는 아이들을 위한 책이지만 자녀 교육으로 걱정이 많은 부모님들에게도 유익한 책이다.

자세히 보면 더 소중하다.

유 향 숙

성남시 판교도서관 사서

어디에 어떤 생물이 사는지 범주를 정해주어 정리된 느낌이다. 예를 들면, 연못과 호수공원에는 누가 사는지, 오리와 거위의 차이는 어떻게 되는지 등을 사진과 도표로 쉽게 설명하고 있다. 그냥 보아 넘겼던 식물들의 이름도 알려준다. 수련, 속새, 부레옥잠, 마름, 애기부들, 노란꽃창포 등...

나도 냇가에 가서 이상한 물체를 보고는 이것이 동물일까? 아님 그냥 부유물 중 하나일까? 궁금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날(실)+도래(둥근물건)이라는 우리말 물곤충이었다. 냇물 속에는 잠자리 유충도 살고 있다. 잠자리는 최초의 날개달린 곤충이며 공룡 보다 먼저 있었던 생명이라는 설명에 상식이 쑥~ 오르는 느낌이다. 냇물 속에는 올챙이도 있었는데 올챙이 역시 ‘빠르고 작고 많다’는 우리말이다.

그 외 범주를 습지와 저수지, 논에 사는 생물, 하천에 사는 생물, 바다로 확대되어 다양한 생명체들을 설명하고 있다.

아빠와 함께 생물을 찾아 나서며 생긴 에피소드와 ‘생물박사 따라잡기’라는 꼭지로 학술적 설명을 쉽게 정리한 코너가 있으며, 관찰일지를 쓰고 있다. 관찰일지를 쓸 때 도움이 되는 책이다.

또한 비슷하지만 틀린 생물은 실제 사진과 그림 등으로 차이점, 모양, 특성, 학명 등을 비교하여 도표로 볼 수 있도록 배려했다. 생물도감이나 생태지도를 만들 수 있는 방법까지 생물을 관찰하는 법, 기록하는 법을 그림으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물 속 생물이야기

한영식 글, 김명길 그림.

아이세움, 2015.

분야 : 지식정보책 / 추천대상 : 초등학교 3~6학년

실제로 할 수 있도록 가이드까지 제시하여 유용한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책은 제목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육상생태계와 수성생태계로 나뉘는 지구 생태계에서 수성생태계를 위주로 쓰여 있다. 물도 담수와 해양으로 나뉘고 담수에는 흐르는 물과 머물러 있는 물에 따라 유수와 정수의 형태도 나뉜다. 해양생태계는 바다라는 형태로 지구 표면적의 3/4를 차지하는 갯벌과 바다로 사는 생물을 구분하고 있다.

지구는 다양한 생물이 어우러져 사는 행복한 터전이고 식물과 동물 모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전 세계는 1971년 이란 람사르 협약으로 지속적인 물새 서식지의 중요성을 알리고, 보호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데 우리도 이 책을 통해 작은 관심을 갖고 자세히 보며 소중히 하고 고마운 생태계를 보호하는데 힘을 보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추천한다.



삶을 변화시키는 작은 기술

공 정 자

안성시 진사도서관 사서

이 책은 정보그림책으로 펜화로 그림을 그렸다. 책 제목인 『적정기술』은 우리에게 조금 생소한 개념이다. IT용어사전(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의하면 적정기술은 ‘낙후된 지역이나 소외된 계층을 배려하여 만든 기술. 첨단 기술보다 해당 지역의 환경이나 경제, 사회 여건에 맞도록 만들어낸 기술을 말한다. 많은 돈이 들지 않고, 누구나 쉽게 배워서 쓸 수 있으며, 그것을 쓰게 될 사람들의 사정에 맞는 기술이다.’ 라고 정의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 수준이 향상되면서 의, 식, 주를 위한 편의시설과 각종 가전제품 등 과학기술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고 걸어 다녀야 하고 물의 사용이 넉넉하지 않은 지구의 못사는 나라에서는 주어진 자연환경에 순응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다. 이러한 낙후된 나라의 주민들이 적정기술을 이용하여 생활의 편의를 가져온 다음과 같은 사례가 소개되어 있다.

재활용 페트병으로 만든 물병 전구, 더러운 물을 정수해 마실 수 있는 생명의 빨대, 먼 곳까지 물을 길러 다녀야 하는 불편을 없애주는 동그란 물통 큐드럼, 농작물을 싱싱하게 며칠 동안 보관할 수 있는 항아리 냉장고, 전기가 없어도 발로 세탁할 수 있는 세탁기 기라도라, 몽골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선물한 지세이버, 물을 농장물에게 편하게 줄 수 있는 발판 펌프 등이 소개된다. 소개된 제품들은 전기가 없이도 사용할 수 있다. 이중 지세이버는 우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작은 노력) 적정기술

임정진 글, 심성엽 그림.

미래아이, 2014.

분야 : 지식정보책 / 추천대상 : 초등 저학년부터

리나라에서 개발한 적정기술 1호라고 한다.

이 책은 어린이들에게 적정기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였다. 적정기술이 사용되기 전 불편했던 생활 이야기를 소개하고, 말미에 적정기술의 발명자와 사용하고 있는 나라를 소개한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생활에 많은 편리함을 가져왔다.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지역에 맞는 싸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적정기술이 더 개발되었으면 좋겠다.



책임지는 용기, 징비록

박 지 원

안성시 공도도서관 사서

징비록, 본래 이 책은 조선 최고의 재상으로 손꼽히는 ‘유성룡’이 임진왜란이 끝난 후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와 썼던 책으로 부끄러운 잘못을 스스로 꾸짖고 여기서 교훈을 얻어 훗날의 위기를 준비하는 책이다. 하지만 조선 시대에 쓰인 책이고, 어린이들이 읽기엔 어렵기 때문에 이야기들을 쉽게 풀고, 역사에 관한 지식도 알려주도록 구성한 책이 이 책 『책임지는 용기, 징비록』이다.

이 책은 징비록을 쓴 유성룡의 간단한 이야기를 담은 프롤로그를 비롯하여 징비록을 다시 한 번 살펴볼 수 있는 에필로그까지 총 11가지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다. 한 장 한 장마다 역사적으로 유명한 인물에 대하여 살펴 볼 수 있으며 한 이야기마다 역사적 인물에 대하여 중요한 이야기들을 재미있게 풀어놓아서 역사책은 딱딱하다는 편견을 버리고 즐겁게 읽을 수 있다. 또 이야기를 하나 읽고 나면 역사적으로 중요한, 혹은 그리 중요하진 않지만 알아두면 도움이 될 상식들을 두 세장 적어놓았다.

앞서 이야기했던 역사적 인물에 대한 상식들로, 이야기를 읽고 그러한 글들을 보면 훨씬 더 눈에 잘 들어오고, 기억에도 더 남을 것이다.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쉬운 단어와 문장으로 풀어놓아서 평소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징비록을 읽고 나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준다. 그리고 역사적 인물에 대한 상식은 알고 있었지만 그에 대한 재미있는 사실도 적혀 있어 본문과 함께, 뒤에 있는 ‘징비록’을 꼭 읽어보길 바란다.



책임지는 용기, 정비록

최지운 글, 조윤주 그림.

상상의집, 2015.

분야 : 지식정보책

9장까지 다 읽고 나서 에필로그에서는 정비록에 대해 다시 한 번 살펴볼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읽었던 글에 대하여 한 번 정리를 한다면 독자들이 더욱 기억하기도 쉬울뿐더러 역사적 인물에 대한 글들이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인물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정비록’을 읽으면 지루하기만 하다고 생각했던 역사라는 학문이 조금은 즐거워질 것이고, 이런 역사책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유익하고 재미있다.



천사의 마음을 가진 오드리 햅번

유 향 숙

성남시 판교도서관 사서

유니세프의 도움을 받았던 오드리 햅번

오드리 햅번이 11살에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다. 유럽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모든 사람이 배고픔과 두려움에 떨어지고 오드리 역시 다르지 않았다. 전쟁이 끝나갈 무렵 오드리 햅번은 심하게 앓았는데 유니세프로부터 식량과 약을 공급 받으며 병마를 이길 수 있었다. 이런 계기로 노후에 타인을 돕게 된 것은 아닐까 유추해 본다. 그러나 도움의 손길이 고마웠었다고 하더라도 남을 위한 삶을 산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녀의 전기를 읽어보면 노후에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된다. 오드리 햅번의 올바르고, 성실한 삶의 자세 때문일 것이다.

화려한 여배우

그녀의 바르고, 성실한 자세가 그녀를 성공을 이끌어 냈다. 유명해지기까지 그녀는 어떤 위치에서도 부족함을 느끼며, 끊임없이 노력했고, 최고의 자리에 올라간 후에도 교만하지 않고 다른 사람보다 일찍 촬영장에 도착하여 타인을 배려하고 겸손을 잃지 않았던 착한 오드리를 볼 수 있었다. 그러나 결혼생활은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그것이 오드리 햅번을 많이 아프고 힘들게 했고, 그 바탕이 오드리 햅번을 더욱 큰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든 것 같다.



천사의 마음을 가진 오드리 햅번

장경원 글, 김정진 그림.

한국툴스토이. 2007.

분야 : 지식정보책 / 추천대상 : 초등학교 3~4학년

아름다운 노후

많은 사람들이 나이 든다는 것을 싫어하고, 또 나이 든 사람들이 그리 아름답지만은 안았는데 오드리 햅번은 젊었을 때 보다 나이 들어서 참으로 더욱 아름다웠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것은 외모가 아니라 자신의 사랑과 봉사로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의 어린이들을 돕고, 직접 그들의 아픔 속에 들어가 함께했기 때문이다.

아름다움은 외모가 아니라 타인을 돕고 배려하는 내면이라는 것을 오드리 햅번을 통해 자연스럽게 알게 된 소중한 내용을 가진 책이다.

오드리 햅번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그녀가 나오는 『로마의 휴일』, 『티파니에서 아침을』 등의 영화를 보면 좋을 것 같다.



생태계 속의 너와 나, 콩과 사람

이 가 영

평택시 안중도서관 사서

어린 시절, 나는 콩을 참 싫어했다. 엄마가 콩밥이라도 짓는 날에는 내 밥 그릇에 있는 콩을 모조리 다 골라내 엄마의 밥공기에 던져놓곤 했다. 이런 나의 습관이 변한 계기는 다국적 종묘회사인 몬산토와 GMO 작물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고난 이후였다. 이 다큐멘터리에서는 세계적으로 작물변형이라는 것이 얼마나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그것들이 우리의 식탁에 어떻게 올라오게 되고,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내가 토종농작물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계기였던 것 같다.

이 책의 이야기도 내가 보았던 다큐멘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기본적으로는 콩을 주제로 콩의 모양과 콩의 종류, 콩으로 만들 수 있는 음식들을 이야기 하면서 사람들의 삶과 농작물의 관계, 생태계에 대한 이해와 식량문제 등을 함께 다루고 있다.

이 책은 가격도 저렴하고 맛도 나쁘지 않은 수입 GMO콩을 사 먹는 단순한 행위가 장기적 우리 토종 농작물의 터전을 빼앗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려준다. 유전자가 변형된 작물을 공격하는 병해충이 생겨나거나 값이 오르게 되었을 때는 우리가 현상을 되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에 곡물 자급률이나 토종 작물 보호가 중요한 것이다.

이 책을 읽는 초등학교생들이 수입 장벽이 사라져 가는 현실에서 ‘곡물자주



콩 농사짓는 마을에 가 볼래요?

노정임 글, 안경자 그림, 안정보 감수.

아이세움, 2013.

분야 : 지식정보책 / 추천대상 : 초등저학년

권’, ‘곡물자급율’ 등의 개념을 배우고, 토종작물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길 바란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무조건적인 개방에서 지혜롭고, 필요한 개방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책은 ‘콩’이라는 작은 농작물을 통해 생태계에서 공존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알게 해준다. 이 책을 읽는 모든 사람들 자연과 동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자연 속에서 깊은 관계를 맺고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깊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세상을 바꾸는 발견은 언젠가는 이루어진다.

박 지 원

안성시 공도도서관 사서

벤저민 프랭클린, 그는 연을 날려 번개를 피할 수 있는 피뢰침을 만든 사람으로 유명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정도로만 알 것이라고 생각한다. 모두 그를 피뢰침만 만든 사람으로만 생각한다는 것이 문제이다. 이 책을 통해 그의 업적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다.

그는 어렸을 적부터 매우 총명했고, 호기심이 많았다. 그는 형과 함께 신문 만들다가 가지고 있던 책을 팔아 여비를 마련하여 배를 타고 뉴욕으로 떠났다. 그는 그곳에서 열심히 일했다.

열심히 일을 하여 여유가 생겼고 다시 필라델피아로 돌아왔다. 필라델피아로 돌아온 프랭클린은 ‘준토’라는 모임을 창간했는데 회원들이 소유하는 책이 너무나 많아지고 비싸지자 미국에서 최초로 공공도서관을 설립해냈다. 또 그는 난로도 발명해냈다. 그 시절의 난방은 굉장히 비효율적 이었는데, 지금처럼 쓰는 난로를 그가 발명해냈다. 하지만 그는 공익을 위해 특허를 신청하지 않고 무료로 나누어주었다.

그는 과학 뿐 아니라 정치에도 대단한 재능을 보였다. 그리하여 여러 곳에서 훌륭하게 정치를 해냈다. 그 유명한 번개 실험으로 영국 왕립 학회에서 ‘코플리 메달’도 수여받았다. 그는 처음으로 잘 휘어지는 유연한 소변관을 고안해냈고, 납 중독을 처음으로 진단했다. 또, 미국 최초의 종합병원을 세우는 데에도 도움을 주었고 이중 초점 안경 또한 발명해냈다. 또 멕시코 만류의 따뜻한 물의 범위를 측정했다. 그의 작업에는 수정이 필요했지만 그가 측량한 것은 오늘날 인공위성이 측량하는 것과 거의 비슷하다. 또 그는 미



프랭클린 피뢰침으로 번개를 길들이다

캐슬린 크url 지음, 보리스 쿨리코프 그림, 양진희 옮김, 정성현 감수.
초록개구리, 2015.

분야 : 지식정보책

국의 독립 전쟁을 위해 프랑스로 떠나 프랑스의 도움을 받기로 한 ‘불미동맹’을 성사시켰다. 그는 프랑스에서 하늘을 나는 기계를 보는 등 프랑스에서 몇 년간 더 있다가 그가 일흔여덟 살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다.

그는 독립 혁명을 성공시킨 영웅이었다. 그는 과학에만 빠져 산 과학자가 아니었다. 유머러스하고 똑똑한, 다재다능했던 사람이었다.

이 책은 그의 엄청난 업적들을 다시 한 번 되짚어 준다. 앞서 말했던 그의 업적들을 더 자세하고 더 재미있게 풀었다. 책에는 그가 잘못 들었던 길 또한 적혀있다.

이 책은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생들이 볼만한 책으로 이 책을 읽으면 과학사에 대한 지식이 한층 더 풍부해질 것 같다.

위험한 방사능으로부터 나를 지켜요

송 은 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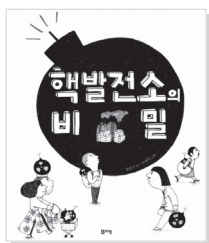
평택시 시립도서관 사서

기존에 발간된 어린이 책의 상당수가 원자력*을 청정에너지, 효율적인 에너지로 소개하고 있다. 후쿠시마 참사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계기가 없었다면 그 책을 읽고 자란 아이들은 핵발전소의 위험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거나 조심해서 다루면 안전한 에너지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 책은 핵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대안 에너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책이다. 핵, 과연 어떤 물질일까? 『핵발전소의 비밀』을 따라가 보자.

핵발전소는 왜 만들었을까? 어떤 필요로 만들었을까? 기술 진보의 많은 동기가 적을 파괴하기 위한 전쟁이었다. 핵발전소 역시 핵폭탄을 만든 기술을 접목시킨 결과다. 하지만 18세기에 발명한 증기기관 기술을 사용하는 면에서 미래의 기술이라고는 할 순 없다. 단지 석탄, 석유를 태우느냐, 우라늄을 태우느냐, 원료의 차이일 뿐이다. 문제는 핵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우라늄’이라는 물질은 태울 때 열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생물에 치명적인 200여 가지의 방사성 물질을 내뿜는 데에 있다.

그렇다면, 핵발전과 핵폭탄은 어떻게 다를까? 그 차이는 원자로 주변으로 끊임없이 찬물이 흐르도록 해서 과열을 방지하는 장치가 있는가? 아니면 과열을 방지하는 안전장치 없이 우라늄이 계속 열과 방사선을 내뿜도록 되어있느냐의 차이다. 원료의 위험성에선 둘 다 차이가 없다. 70년 전 히로시마에

* 핵발전을 긍정적으로 묘사한 책의 상당수는 핵을 원자력이라고 표기하고 있다.



핵 발전소의 비밀

강양구 글, 소복이 그림.

리젠틀. 2014.

분야 : 지식정보책 / 추천대상 : 초등고학년 및 중학생

떨어진 핵폭탄은 눈에 보이는 엄청난 피해 뿐 아니라, 당시 빛과 공기뿐만 아니라 접촉 했던 사람들에게까지 암을 유발하고 세대를 이어 기형아를 낳게 한 원인이 되었다.

핵발전소를 건설하자는 사람들은 그 위험성에 대해선 간과하며 안전하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100만 년 간 끄덕없다는 핵발전소는 불과 40년도 안되어 미국 스리마일섬 사고,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사고, 일본 후쿠시마 사고를 유발했다. 체르노빌은 사고가 난지 3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죽음의 도시로 주변으로 방사성 물질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다. 후쿠시마 역시 사람이 살 수 없는 도시가 되어 암 환자가 속출하고 동식물은 기형으로 태어나고 방사능 수치는 여전히 높다. 앞으로 세대를 거쳐 발생할 피해는 예측조차 어렵다고 한다.

후쿠시마의 방사능은 편서풍을 타고 태평양을 서서히 오염 시키며 물고기조차 맘 놓고 먹을 수 없게 만들었다. 후쿠시마 사고의 경우 일본의 서쪽에 위치한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피해를 덜 보았지만 서쪽 중국으로 눈길을 돌려보면 공포감이 느껴진다. 중국은 서해를 따라 거의 대부분의 도시에 핵발전소를 짓고 있다. 만약 중국에서 사고가 나면 우리나라는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된다.

이제 사람들은 위험한 핵발전소를 늘리지 않도록 전기 절약을 실천하며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사회가 태양광 같은 대안 에너지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다.

이 책은 프레시안의 과학기술, 환경담당 기자로 10년간 활동한 저자가 쉽고 흥미롭게 마치 아이들에게 옆에 앉아 설명하듯이 쓴 책이다. 무거운 주제지만 글과 그림이 조화롭고 문체가 부드러워 집중하며 읽을 수 있고, 핵에 대한 지식은 물론 인간의 욕심과 절제, 국제관계로까지 생각을 확장시킬 수 있는 책이다.



지금, 행복한가요?

유 옥 환

안양시 박달도서관 사서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지 않다면 무엇이 걱정이죠?

지은이 오연호는 2000년 ‘시민 모두가 기자다’라는 모토로 오마이뉴스를 창간하였으며, 마음 속에 행복사회연구소를 세워두고 행복사회의 비밀을 캐는데 열정을 쏟고 있습니다. 이 책은 그의 최신작인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를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다시 쓴 책입니다.

그는 2013년 봄부터 2014년 1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덴마크를 방문했습니다. 덴마크가 유엔이 조사 발표한 행복지수 1위의 나라이기 때문이지요. 우리나라 면적의 절반 밖에 되지 않고 인구도 560만 명에 불과한 덴마크, 무엇이 그들을 행복하게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길 밖에도요. 10개월 동안 3차례 방문한 저자는 택시기사, 식당 종업원, 주부, 고등학생, 대학생, 교수, 언론인, 의사 등 300여 명을 만나 인터뷰를 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덴마크의 역사와 정치, 그리고 문화와 교육에 대한 통찰과 이해가 더해져 2012년과 2013년, 2년 연속 행복지수 1위 국가라는 사실에 적극 공감하게 됩니다.

덴마크는 1864년 독일과의 영토분쟁에서 국토의 1/3을, 인구의 2/5를 잃고 절망했지만, 깨어 있는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남아있는 거친 땅을 갈아 기름진 땅으로 일구었습니다. 150년이 지난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세계 156개



행복지수 1위, 덴마크의 비밀

오연호 글, 김진화 그림.

사계절, 2015.

분야 : 지식정보책 / 추천대상 : 초등 고학년

국 중 가장 행복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걱정거리가 없고 모두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국민 의식 속에는 국가에 대한 깊은 신뢰가 깔려 있습니다. 이러한 덴마크의 교육 현장에는 교육자이자 정치가, 역사가이기도 했고, 평생 시민 교육과 계몽에 앞장섰던 니콜라이 프레드릭 세브린 그룬트비(1783-1872)의 교육철학이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교육은 100년지 대계’라는 말처럼, 170년 전에 그가 뿌린 씨앗, 즉 ‘즐겁고 자유롭게 그리고 스스로와 더불어’라는 모토가 오늘날 덴마크인의 정신이 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간직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덴마크인의 얼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나라 국민의 행복지수는 낮은 편입니다. 2012년 41위, 2013년 56위입니다. 이 책을 접하고 보니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에 대한 끊임 없는 성찰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이 순간, 행복하지 않다고 고민하고 있다면 이 책을 읽어보길 권합니다.



813.8 사서,
어린이책^을
말하다 2015

2부 서평 쓰는 사서



강 동 연

kangdy624@korea.kr

수원시 선경도서관

지성과 지혜가 움직이는 공간, 도서관에서 근무한 지 1년차 되는 새내기 사서입니다.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 그 속에서 사서의 막중한 책임과 사명을 늘 고민하면서도 현장에서 그 역할을 얼마나 실천했는지 돌아켜보면 사실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참 다행인 것은 사서로서의 시작을 경기도서평단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가치 있는 정보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서평을 써내려가는 과정은 사서로서의 중심을 잡고 그 역할을 응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서툰 글 솜씨로 서평을 쓰는 일은 조심스러웠지만 서평을 쓰며 고민했던 부분들은 저에게 값진 경험과 배움을 제공하였고 어린이도서관의 매력을 발견하는 기회였습니다. 또한 저의 작은 움직임이 어린 친구들의 소중한 꿈과 미래를 키우는데 일조한다는 생각에 기쁘고도 감사합니다. 제가 진심을 다해 쓴 서평이 어린이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선물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 정성과 완성도 높은 서평으로 더욱 성장하는 사서의 모습을 그려보며 노력하겠습니다.



공 정 자

jkong@korea.kr

안성시 진사도서관

도서관에 근무하는 것이 좋고 책을 좋아하는 사서입니다.

평소 서평에 대한 관심이 많고 시간이 갈수록 권위 있고 좋은 서평을 쓰는 사서로 남고 싶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책을 읽고 그 중에서 좋은 책을 소개하기 위해 서평을 쓰지만 매번 글쓰기는 부담되고 머뭇거리집니다. 외국에서는 사서들이 서평가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813.8 사서 어린이 책을 말하다’의 꾸준한 발간에 힘쓰는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의 서평에 대한 오랜 활동이 시간이 지날수록 경기도 사서의 역량 강화와 전문영역을 확장하는데 큰 기여를 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평을 통해 좀 더 좋은 책을 널리 알리는데 힘을 보태고 싶은 사서로 조금씩, 조금씩 성장하고 싶네요.

올 해도 여러 도서관 사서선생님들의 힘들이 모여져 더욱 알찬 서평집이 결실하기 바라며, 그동안 수고해 주신 선생님들께 박수를 보냅니다.



권혜림

librarianrim@korea.kr

평택시 시립도서관

처음 서평단을 시작할 때 지금과 같은 부끄러운 모습을 생각 하지 못했습니다. 나름의 포부를 가지고 많이 읽고 많이 쓰는 사서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엔 한 편의 서평만을 쓰게 되어서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사실 서평을 쓴다는 게 마음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사서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아직은 여러모로 부족한 새내기 사서이기 때문에 책을 읽고 싶어지는 글을 쓰는 게 어려웠고 잘 써야한다는 부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부단히 노력하고 싶습니다. 좋은 책을 고르는 안목 가진, 책을 읽고 싶게 만드는 글을 쓰는 사서가 될 때까지요. 그런 의미에서 경기도 사서 서평단은 좋은 자극제가 된 것 같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열심히 책을 읽으시고, 마음을 움직이는 서평을 쓰고 계신 서평단 분들을 보면서 사서의 역할에 대해 생각하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한 해가 다 가고, 손끝이 시린 계절이 왔지만 우리는 변함없이 아이들을 반갑게 맞이하며 도서관을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서 선배님들, 동료 분들에게 큰 박수 보내 드리고 싶습니다. 어린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도서관, 꿈을 찾을 수 있는 도서관을 위해 함께 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김 보 라

lucide8@gmail.com

화성시 병점도서관

유명한 프랑스 영화감독인 프랑수와 트뤼포의 말을 전합니다. “진정 영화를 좋아한다면 영화를 3번 이상 보고, 영화의 평론을 할 것이며, 마지막으로는 영화를 만들어라.” 이 말에 무척이나 감동을 받은 저는 영화에 책을 대입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정말 책을 좋아한다면 책을 3번 이상 읽고, 책에 대한 평론을 할 것이며, 마지막으로서는 책을 만들어라.”

시작이 거창했지만, 전하고 싶은 마음은 단순한 것입니다. 경기도 서평단과 함께 한 이 서평 작업이 책을 너무 아끼는 한 사람이 보내는 애정의 표시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 보태자면 좋은 책을 접하기 위해 도움을 얻고자 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하는, 사서로서의 본분을 잊지 않고자하는 노력이라는 것. 이런 진심들이 전해 질 수 있도록 경기도서평단 여러분께 좋은 영향과 기운을 받으며, 더욱 좋은 서평을 쓰기 위해 애쓰겠습니다.



김 선 옥

kindbijou@korea.kr

남양주시 화도도서관

2013년 공공도서관으로 처음 임용이 되고 사서로서 일하다가 2015년에 경기도사서서평단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그림책에 대해 관심이 있었고 나름대로 좋아하는 작가를 몇 분 나열할 수 있는 그림책 독자로서의 사서였습니다. ‘나는 경기도사서서평단이다’ 라는 타이틀을 부여받고나서 부터는 그림책을 대하는 저의 자세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독자로서뿐만 아니라 그림책서평자라는 책임감을 지니고 그림책에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첫 서평을 쓰기 전까지는 서평의 첫 문장을 쓰는 것이 이렇게 힘든(?) 작업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어떤 책을 선정할 것인지, 이 책의 그림은 어떤지 글의 내용은 어떤지, 책을 읽을 독자에게 어떻게 소개하면 좋을지.. 그림책 저장이라도 된 양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평단으로 많은 서평을 써오신 선배님들이 정말 존경스러웠습니다. 결국 누구에게 보여주기 싫스러운 서평을 완성하여 제출했지만 내년에는 더 좋은 서평을 쓸 수 있겠지? 희망찬 생각을 해봅니다.



김 정 옥

kjo77@pyeongtaek.go.kr

평택시 지산초록도서관

아이들의 나이에 따라 부모도 같이 크는 것 같습니다. 그림책을 읽어달라고 저녁마다 책을 한 아름씩 가져 오던 아이들은 글을 읽으면서 더 이상 책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아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내 책을 읽으니 좋기도 합니다.

도서관에 있으면서도 점점 어린이책과 멀어지는 자신을 돌아보며 서평단에 지원을 했으나 한 편의 서평으로 서평자 소개글을 쓰게 되어 부끄럽습니다. 내년에는 꾸준한 서평쓰기를 스스로에게 약속해 봅니다.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이야기하지만 모든 주제와 메시지를 담고 있는 어린이책은 실상 순수함을 잃어가는 어른들에게 더 필요한 책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는 의미나 방법은 복잡하지 않고 오히려 단순하니까요.

도서관이 있어서, 책으로 더 행복해지는人を 꿈꾸며,
다가오는 2016년에도 좋은 에너지를 듬뿍 뿜어내는 도서관인이 되기를 서평자 글을 통해 다짐해 봅니다.



김 혜 진

hjk1209@pyeongtaek.go.kr

평택시 팽성도서관

겨울 코트를 폭 뒤집어쓰고 도서관에 처음 왔던 날이 아직도 생생한데, 계절은 다시 바뀌어 제법 쌀쌀한 날이 돌아왔습니다. 도서관에서 사서로서의 첫해를 보내고 있는 새내기 사서입니다.

일을 시작하자마자 사서서평단에 발을 디뎠던 터라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사서 선배들을 따라 배우고, 생각하고, 보고, 읽고, 글을 쓰며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아동실 업무를 하반기에 맡게 되어 개인적으로 아쉬운 마음이 큼니다. 조금 더 바지런하게 서평을 쓰지 못한, 못난 사서의 변명이랄까요? 내년에는 도서관에서 아이들, 그리고 어머님들과 보다 많은 책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좋은 책을 함께 읽는 기쁨으로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지 원

cocopar@korea.kr

안성시 공도도서관

그림책읽는 어른독서회를 운영하면서 그림책이 영유아만 읽는 것이 아니라 남녀노소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글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림이나 색감 등이 주는 위안과 감동이 성인문학 작품에 비해 뒤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린이책, 그림책을 읽고 서평을 쓰면서 내가 진짜 사서가 됐다는 행복감을 느껴봅니다. 글쓰는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고 매번 시간을 많이 요하는 작업이지만 책을 읽고 서평쓰는 일은 행복한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적지 않은 나이에 사서가 되겠다는 꿈하나로 힘든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꿈을 이루고 서평 쓰는 사서가 된것이 감사합니다. 무수히 많은 책 속에서 양질의 도서를 선정해서 좋은 서평을 쓰는 것이 사서의 기본임을 알기에 오늘도 책을 가까이 합니다.

보다 많은 이들과 함께 책을 읽는 즐거움, 책에서 얻는 위안을 공감하길 바라봅니다.



손 셋 별

elisabeth@korea.kr

수원시 대추골도서관

2013년에 공직생활을 경기도 사서서평단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세 번째 겨울이 다가오는 지금, 저는 제 이름과 서평이 실린 세 번째 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서로서의 정체성을 서평으로나마 증명하고픈 개인적인 욕심으로 시작한 어린이 그림책서평은 3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기록치가 않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서평을 쓸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사서로서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라 믿으며, 오늘도 조심스럽게 그림책을 펼쳐 듭니다.

그림책을 본다는 것.

내게는 늘 어렵지만 가슴 설레고, 힘들지만 행복한 순간들이기에 이런 즐거움을 모든 사람이 함께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이름을 걸고 어떤 책을 소개하고, 추천한다는 것. 참 어려운 일인데도 이 책을 통해 좋은 책을 알리고자 애쓰신 많은 사서분들의 노력과 땀에 감사드립니다.



송 은 희

ptsongeh@korea.kr

평택시 시립도서관

새 책을 고르는 즐거움, 사서로 근무한 지 20여년, 변하지 않은 게 있다면 새 책을 만나는 설렘이다. 표지 제목으로 훑다가 작가, 출판사로, 일단 손이 가면 표지 앞뒤 잡문과 목차 순으로 책을 만나게 된다. 사서의 방식 치곤 너무 평범하지만 어쩔 수 없다. 좋은 책을 고르는 일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인 것이다. 어쩌다 서가를 서성이다 펼쳐 본 책이 내 맘을 끌 때면 찻사게 가져와 책상 위에 쌓아둔다. 읽고 싶은 책, 읽어야 할 책, 두고두고 읽는 책, 난 그렇게 일상에서 책을 만난다.

여러 매체의 책 소개와 서평은 도서관과 서점의 서가를 서성이는 시간을 절약해주는 네비게이션이다. 직업상 남보다 먼저 매체에 소개된 책을 참고하지만 평인이나 사서들의 서평은 오랜 시간 두고두고 책을 고르는 일에 큰 보탬이 된다. 사서인 나에게도.

813.8도 그런 의미에서 좋은 책을 찾아가는 이들을 위한 네이게이션 안심 서비스다. 그 작업에 발을 담글 수 있어 감사하다.



유 옥 환

ohryu@korea.kr

안양시 박달도서관

‘동화는 어린이와 어른 사이의 언어적·정신적 장벽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도구이다.’ 독일의 아동심리학자 게를린데 오르트너(Gerlinded Ortnier)의 말입니다.

2014년에 서평단 활동을 시작하면서 그림책 7권, 동화책 3권 등 총 열 편을, 그리고 2년째 접어든 올해는 아홉 편의 서평을 썼습니다. 글의 질이 나아졌는지 의문이지만, 나름대로 지식정보책으로까지 영역을 확장하려고 노력했고, 어린이의 언어적·감성적인 면을 이해하고자 애쓴 시간이었습니다.

좋았던 점은 평소 책에 대한 축수를 세우고 생활하다 보니 우리 시가 추진 중인 ‘간부공무원 책 읽어주기’ 대상도서, 또는 좋은 책을 추천해달라는 지인들에게 유용한 도서정보로 즉시 활용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난해 서평교육 때 만난 동화작가로부터 신작을 받아보았을 때는 서평자의 입장에서 책을 펼쳐보게 되는 묘한 기분도 느꼈습니다. 좋은 책을 읽고자 하는 어른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용기 내 도전했는데 오히려 제 자신에게 유익한 일이 되었으니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또한, 동심의 세계에 머무를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2009년 사서 서평교육으로 시작하여 올해 8년째에 접어든 서평단 활동이 앞으로도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길 바라며, 후배 사서들과 함께 이 행복을 누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유 향 숙

silbil@korea.kr

성남시 판교도서관

경기도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도서관은 역사가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습
니다. 지자체 소속의 도서관은 대한민국의 지방자치의 시작과 거의 비슷한
단계에서 시작하였다 하더라도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들어나면, 신생 도서관들은 가야 할 길은 멀었고, 할 일은
많았고, 경험은 적었고, 열정은 높았기에 돌이켜 보면 이렇게 3번째 서평집
을 발간한다는 것은 빠른 시간 안에 맺은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적인 도서관 수가 늘어나는 만큼, 적은 사서의 인원으로 많은 일을 해오
는 와중에도 도서관 서비스는 잘 지어진 공간의 서비스가 아니라 도서관을
찾는 이용자에게 양질의 도서 정보 서비스 즉, 도서 정보 안내자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도서 정보 서비스는 어떤 형태로 해야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줄 것 인가를 고민한 산물로서 서평집이 발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면 어려운 와중에도 우리는 본분을 잊지 않고, 성실하게 길을 잘
찾아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아직 부족한 어린이 서평으로 도서관안내자 역할을 하지만 “한사람의 꿈은
꿈이지만 여러 사람의 꿈은 길을 만든다”는 어느 문구의 힘입어 경기도사이
버도서관과 동료 사서분들과 함께 바람직한 사서의 길을 만들어 가는데 더욱
일조하겠습니다.



유 현 미

somdari@pyeongtaek.go.kr

평택시 시립도서관

알베르토 망구엘은 글을 읽는 방법에도 책임감이 있어야 하고 페이지를 넘기며 행을 쫓아가는 행위에도 의식과 철학이 있어야 한다는 말로 책임기의 윤리를 강조했다. 책임기의 윤리가 이렇진데 글쓰기의 윤리는 더 준엄할 것이다. 하물며 니체의 말처럼 작가가 피로써 쓴 글을 평가하는 일은 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다른 이의 피이자 뉘인’* 글을 게으름 피워가며 뒤적거리지 않았는지 반성한다. 암송까지는 아니더라도 의식과 철학을 가지고 책을 읽었는지 스스로 자문해 본다. 자신 있게 그랬다고 답하기 어렵다. 서평쓰기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핑계이기도 하지만 서평쓰기가 점점 어렵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다. 몇 편의 서평이라도 쓸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적극적으로 서평 쓸 장을 마련하고 독려해준 분들 덕택이다.

요즘 고등학생 아이들과 ‘문학 깊이 읽기’ 프로그램을 함께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써온 독후감상문과 서평 사이의 글들에 종종 감동을 받곤 한다. 자신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담았거나 자신들의 입장에서 어떻게든 세상을 이해해 보려는 노력이 느껴져서이다. 아이들을 보고 배운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책임감을 가지고 페이지를 넘기고 행을 쫓아가는 노력을 기울여야겠다.

* 일체의 글 가운데서 나는 피로 쓴 것만을 사랑한다. 글을 쓰려면 피로 써라. 그러면 너는 피가 곧 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의 피를 이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게으름을 피워가며 책을 뒤적거리는 자들을 미워한다. 피와 잠언으로 글을 쓰는 사람은 그저 읽히기를 바라지 않고 암송되기를 바란다. (니체)



이 가 영

lgy0255@korea.kr

평택시 안중도서관

‘고등학교 시절부터 꿈꿔왔던 직장에서...’로 시작되는 서평자 자기소개를 쓴 지도 벌써 1년이 되어 2015년의 자기소개를 쓰는 날이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책을 많이 읽어야겠다는 다짐만 되뇌이는 제가 부끄럽지만, 그래도 작년보다는 많이 읽었다는 점에서 위안을 얻습니다. 하지만 서평 쓰는 일은 책을 많이 읽을수록 어려워 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쓰고 있는 이 글이 나만의 주관적인 생각은 아닐지 항상 고민하고 고쳐 쓰다보면 서너 시간이 훌쩍 흘러갑니다.

책을 고르고, 읽고, 부족한 글솜씨나마 내 손으로 나의 생각을 글로 적는 것이 쑥스럽지만 계속 서평을 쓰게 되는 이유는 우리 안중도서관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에게, 『813.8 사서, 어린이 책을 말하다』를 보게 되는 독자들에게 좋은 책을 소개해서 읽히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올 한해는 어린이자료실에서 근무하면서 직접 수서와 정리를 해보며 어린이 책을 많이 접할 수 있었습니다. 좋은 책을 많이 보면서 ‘이런 책은 서평 쓰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지만, 그 생각이 서평으로 이루어진 것은 30%도 되지 않는 듯합니다. 부디 내년에는 그 생각이 100% 모두 서평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 민 혜

lmh0104@naver.com

양평군 용문도서관

처음엔 호기롭게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책을 고르기 시작한 순간부터 모든 것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고백하자면 서평이라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해 본적도 없이 도전했습니다. 또한 어린이실 담당이면서 어린이 책을 읽는다는 시도도 해보지 않았습니니다. 어떤 책을 선정해야하는지, 어떤 책이 좋은 책인지 또 좋은 책의 기준은 무엇인지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글은 몇 번의 수정을 거쳐야 하는데 한번 써진 글은 잘 고치기가 힘들었습니다. 좀 더 신중을 기해 작성하고 정성을 들여야 한다는 것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올해에는 많은 서평을 작성하지 못해 아쉽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어린이 책을 읽고 서평을 작성해보자는 각오를 해봅니다. 사서분들이 너무 열심히 하시는 모습에 많은 자극을 받았습니다.

‘813.8 사서, 어린이책을 말하다’가 오래오래 진행되어 많은 좋은 책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수 경

sukyongj@hanmail.net

평택시 장당도서관

“저는 커서 뭐가 될지 궁금해요”

50대인 한비야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합니다. 수많은 삶의 고비를 돌아왔으나 여전히 밝은 눈으로 삶을 용감하게 들여다보는 어른들만이 할 수 있는 말이라 생각됩니다.

사서는 인연을 만드는 사람이란 평소의 생각을 올해만큼 자주 떠올린 때가 없습니다. 작은 사람 권정생의 이기영 작가님, 마을인물백과사전을 함께 만든 평택 청소년들과 어르신들 그리고 내 안의 아이를 어루만져주고 가신 유은실 동화작가님 등, 이 분들 외에도 많은 귀한 분들이 도서관과 제 삶에 찾아와주셨습니다.

마쉬멜로우 실험의 중요 시사점은 인내심이 아니라 ‘주의력을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는 능력’ 이라고 합니다. 세상이 고통과 슬픔으로 가득할 때는 우리 자신을 잘 다독이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일까요? 몇 해 조금 급하게 보았던 그림책과 동화를 바쁜 순간에도 나직이 펼쳐보게 되었습니다. 이십 대, 하루를 마감한 자료실에서 아껴보던 그림책의 첫 느낌처럼 가슴 한 구석 새싹이 틔워집니다. 오심을 바라보니 저도 살짝 커서 뭐가 될 건지 참 궁금해집니다. 내 안의 아이는 쫘, 건강한 듯 합니다. 하하



이 시 영

hani9874@korea.kr

군포시 중앙도서관

공공도서관 사서로 20년이 넘게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도서관에 책을 보러 오시는 분들을 보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좋은 책을 권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지요. 이런 바람이 이루어진 것이 이 서평집입니다.

이 서평집에는 현장 사서들이 날마다 도서관 안에서 책과 시민들을 연결해 주기 위한 고민한 흔적이 생생하게 녹아있습니다. 어린이들이 보아도, 어른들이 보아도 좋은 책들을 안내해 드립니다.

저 역시 날마다 쏟아지는 수많은 도서들 중에서 괜찮다고 여겨지는 책들을 골라서 읽어보고 생각하고 자료를 찾아보고 그리고 나서야 소개할 책을 최종적으로 고릅니다. 사서들이 골라 낸 괜찮은 책들을 읽어보세요. 마음과 영혼이 정화됩니다.

이렇게 해마다 공공도서관 사서들의 친절한 서평집을 만들어주시는 경기도 사이버도서관에 감사드립니다.

이 연 수

nana2su@korea.kr

수원시 북수원지식정보도서관

작년에 자기소개서를 쓴 게 어제 같은데 벌써 한 해가 지났습니다. 연초 서평 작업을 매월 한편씩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마음을 지키려고 부지런히 애쓴 덕분인지 올해는 작년보다는 조금 더 많이 쓴 것 같습니다.

도서관에서 나름 많은 시간을 보냈건만 직장일은 쉬운 일보다는 어려운 일과 새로운 업무, 마음 내키지 않은 일들이 생겨 일을 미루고 싶은 마음이 들곤 합니다. 나이 먹으면서 새로운 일에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부담을 느껴 일을 미루려고 할 때마다 내 마음을 단속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려고 하면 방법이 보이고, 하지 않으려고 하면 변명이 보인다’

마음을 단속함에도 도서관에서 사서로 근무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한 해였습니다. ‘도서관은 성장하는 유기체’라는 말이 있듯 양적 성장과 함께 질적 성장도 하였지만 성장과 더불어 사서들에게 요구하는 것도 많고 해야 할 것도 많아 성장의 뒷면에는 희생이 따르는 한해였습니다.

‘하려고 하면 방법이 보이고, 하고나면 기쁜 결과도 보인다는 말’로 자기 소개를 시작하길 희망하면서 올해 자기소개서를 마무리하렵니다.



이 영

uan20@pyeongtaek.go.kr

평택시 장당도서관

“단혀있기만 한 책은 블록일 뿐이다.”

영국의 성직자이자 역사가, 작가인 토마스 풀리가 남긴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낮이 붉도록 부끄러웠습니다. 사서가 된지 이제 막 한해를 넘기고 두 번째 겨울을 맞이하며 그동안 접했던 수많은 블록들을 얼마나 많이 ‘책’으로 바뀌었는지 생각해 봅니다.

수년전, 어린이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단순하고 간단한 책은 나도 쓰겠다.’라는 건방진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그때 사서라는 껍데기만 걸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의 저는 ‘사서’라기 보다는 그저 철없고 생각 없는 어린 여자애일 뿐이었죠.

그랬던 제가 이제는 그림책, 아동책 작가를 가장 존경하게 됐습니다.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 작품이 가진 의미를 퇴색시킬까봐 그림책을 읽는 것이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서평을 쓰는 것은 더욱 그렇습니다. 아무도 정답은 없다고 말하지만 혹여나 있을지도 모르는 정답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서평을 쓰게 될까봐 두려운 마음이 들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림책 읽기가 재미있고 즐겁습니다. 내가 느낀 것들을 다른 이들에게 글로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신이나기도 합니다. 아이들 책으로 인해 철없던 어른이 성장해가고 있는거죠. 이런 변화가 신기하고 행복합니다.

부족한 글 솜씨지만 가능하다면 앞으로 계속 좀 더 성장한 모습의 사서로서 서평을 나눌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은 주

luclib@korea.kr

남양주시 오남도서관

‘도서관’, ‘사서’ 라는 단어만 들어도 아직도 설레는 22년 된 사서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도서관’ 이라는 행복공간을 소개하고, 도서관을 통해 독서의 즐거움과 삶의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2013년에 서평단 활동을 시작해 3년째. 익숙할 때도 되었는데 아직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서평단 활동을 하며, 어린이 책에 대하여 더 관심을 갖게 되고, ‘동화구연가’, ‘책놀이지도사’ 자격증도 취득했습니다. 올해는 그림책을 가지고 ‘사서와 함께하는 그림책 슬로리딩’, ‘스토리텔링과 책놀이’ 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직접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책을 읽히기 위해서는 사서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지런히 읽고, 토론하고, 좋은 책을 구입해야 하겠지요. 그래서 올해는 후배 사서들과 ‘책도란’ 이라는 모임을 만들어 그림책 공부도 시작했습니다.

서평단 활동을 하며 점점 성장해 가는 제 모습이 스스로 대견하기도 합니다. 올해는 한 달에 한 권 서평쓰기에 도전하여 10권을 썼으니 거의 성공을 했다고 할 수 있겠지요. 내년에는 한 달에 두 권 쓰기에 도전하려고 합니다.

경기도의 모든 사서들이 서평쓰기에 동참하여 “813.8 사서, 어린이 책을 말하다”가 권위 있는 서평지가 되고, 계간지, 월간지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경기도 사서들, 화이팅!!!



이 은 희

brose68@korea.kr

남양주시 화도도서관

나와 세월을 함께한 도서관이 있다. 미금시에 처음으로 개관한 현 도농도서관이다. 처음 발령을 받아 짧은 기간 동안 개관작업을 하면서 참 열정적이었던 기억이 떠오른다. 어느덧 23년의 세월이 지나고 지금 남양주시에는 10개의 공공도서관이 있다. “열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하지만 나에게 있어 도농도서관은 함께한 오랜 친구며 함께 나이 들어가는 벗이다. 이제 그 친구도 나이가 먹어 여기저기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 안쓰럽다.

처음 발령을 받았을 때 마음속 소신 하나는 『논어 용아편』에 나오는 공자의 말씀처럼 “知之者 不如好之者 好之者 不如樂之者”, “아는 자는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였다. 나는 도서관인으로서 나의 일을 진정 즐기고 싶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사서로서의 일보다는 다른 업무를 해야 하는 경우가 늘면서 나의 초심은 색 바랜 흰 티셔츠처럼 군데군데 누렇게 변해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하여 23년 전 초심으로 돌아가야지 라는 생각으로 시작하게 된 것이 서평단 활동이다. 하지만 서평이라는 것이 시작한다고 쉬이 써지는 것이 아니기에 생각했던 것만큼 쉽지 않음을 느꼈다. 하지만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는 것 아니겠는가” 꾸준히 책에 대해서 생각하고 다른 이들의 서평을 읽으며 노력한다면 조금씩 발전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오늘도 즐기는 자로서 도서관에서의 하루를 시작해 본다. 나는 사서다. 나는 진정한 librarian이 되고 싶다.

이 현 아

hyun1261@korea.kr

남양주시 진접푸른숲도서관

그림책을 읽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속에서 뭔가 나도 모를 움직임이 일어나는 것 만 같습니다. 이것이 그림책이 가진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림책이나 아동책을 읽을 기회가 많지 않던 저에게 서평단에 가입하고 활동하는 것은 모험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사실 작년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이름만 올려놓고 활동은 거의 하지 못한 서평단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위크숍과 서평교육을 통해 다른 시군 직원들을 만나고 그분들의 도서관 사서로서의 역할과 활동을 듣다 보니 제 스스로가 반성이 되고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도 해보았습니다. 물론 올해도 많이 부족하지만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는 사서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려고 합니다.

“한 권의 책을 읽고 난 후 조금 전의 내가 아니다”라고 말한 앙드레 지드의 말처럼 책을 통해 항상 성장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서평단 활동을 함께 해준 우리 남양주시 모든 서평단분들께 감사와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모두모두 화이팅~!!!



장 현 명

gusaud@korea.kr

안성시 진사도서관

매일매일 책에 둘러싸여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글은 저에게 항상 어렵게 다가옵니다. 어린이 책을 읽고 재미있던 부분이나 감동받은 것들을 글로 풀어내어 소개해 드리려고 하니 생각만큼 잘 표현되지 않아 조금 힘들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쓴 서평이, 서평단에서 활동하시는 여러 선생님들의 노력이 모아져 한 권의 또 다른 좋은 책이 발간된다는 생각에 기분 좋게 서평을 쓸 수 있었습니다.

도서관에 오는 아이들이 책을 보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 덩달아 제 기분도 좋아집니다. 그 아이들이 더 좋은 책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책 읽고, 노력하는 사서가 되겠습니다.



정 영 춘

turn71@korea.kr

부천시 원미도서관

가끔은 책을 추천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생각합니다. 각기 개인적인 취향이 있을 텐데 아무런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추천하는 한 권의 책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하고요.

최근 『어느날 서점 주인이 되었습니다』라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갑작스레 서점 주인이 되면서 겪는 에피소드를 실감나게 표현한 글입니다. 저자는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책이죠. 그리고 서점을 찾는 이들에게 책을 추천하는 일은 매번 외출타기 같은 일이라고도 말합니다. 나에게 좋은 책이 상대방이 형편없다고 생각 할 때 그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 되고 만다고요. 휴가철에 편하게 읽기 좋은 책을 골라줬다가 비극적 결말에 손사래를 치는 일도 쉽게 공감이 되었습니다.

서점 주인도 그럴진대 사서는 더할 나위 없겠지요? 우리 사서의 손에서 엮어내는 서평집 한 권도 분명 독자가 있겠지요. 부족해도 책에 대해 신뢰하는 사서들의 도전으로 받아들이어 주신다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고 싶은 책을 탐험하는 기분으로 찾아 나설 힘이 될테니까요.



조 수 연

jhs151@korea.kr

가평군 조종도서관

저의 첫 발령지인 조종도서관으로 올해 다시 돌아와 두 번째 근무를 하게 되면서 경기도사서서평단에 참여하였습니다. 처음 근무하게 된 때와는 사뭇 다른 느낌과 자세로 일하면서도 역시 난 도서관이 참 좋다는 생각을 문득 문득 하게 됩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산다는 건 참 행복한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가고 싶었던 학교 도서관은 열쇠로 문이 닫혀있던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읽고 싶은 책을 실컷 읽지 못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강소천 작가님의 동화작품들을 감동 깊게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를 떠올리며 동화책을 고르고 읽고 추억에 잠겨보기도 하였습니다.

책을 읽고 서평을 쓴다는 것이 그냥 하는 독서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문장 하나하나 씹어 먹는 느낌으로 음미하고 정독하여 정확하게 전달하여야 한다는 책임감이 생겼습니다. 좋은 책이란 어떤 책일까? 어떤 책을 추천해야 도움이 될 수 있을까하고 살펴보는 시간도 제게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경기도에 많은 사서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서평 활동을 하고 계신 것도 새삼 느꼈습니다. 어린이 책을 읽으며 동심으로 돌아갔던 행복한 기억을 안고 올해 마무리 해보려 합니다.



최 미 송

haenoran@korea.kr

안양시 만안도서관

경기도사서서평단으로 활동한 것은 즐겁고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어린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서로서 더욱 단단한 눈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다른 사서분들의 어린이 책을 향한 열정과 애정도 저에게 많은 자극이 되었고요.

많은 서평을 써 내지 못한 것이 아쉬울 따름입니다.



한 선 영

drysun@korea.kr

군포시 중앙도서관

서평집에 이름 올리기가 민망합니다. 2015년 오직 한편의 서평만 썼는데 ‘서평자로 이름을 올려야하나?’ 하는 물음이 머릿속에 있는 상태라서요.

올해 어린이책을 한권만 읽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이 책으로 써볼까 하며 머릿속으로 어떤 방향으로 쓸지 고민한 시간도 꽤 되고 초안도 끄적이고 했었는데 마음속에서만 맴돌 뿐 행동으로는 쉽게 변하지 않더군요. 바쁘다는 핑계와 함께.

그래도 서평을 포기하지 않고 한편이라도 쓰는 사서로 계속 이름을 올리
고 싶네요.

바쁜 업무 중에서도 이 한편의 책이 나올 만큼 열심히 쓰신 모든 사서들에
게 박수를 보냅니다!



홍 미 정

hmj2320@naver.com

화성시 병점도서관

한 해가 또 지나가고 있다. 늘 어린아이로만 보였던 우리 딸도 내년에는 어엿한 대학생이 된다. 아직도 내 나이를 실감하기 힘들지만, 앞으로도 세월은 이렇게 앞만 보고 달려가겠지...

유난히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다. 힘들고 아팠다...

성장통 같은 것이었을까? 마냥 철들지 않을 것 같았던 나도 이제야 조금씩 어른이 되어가고 있는 듯하다. 편협하던 시각에서 벗어나 세상을 넓게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人間에 대한 관대함, 그리고 겸손과 배려를 알아가고 있다.

시간이란 속절없이 그냥 흘러가기만 하는 줄 알았는데, 나이라는 숫자 외에 지혜라는 보물을 선사해주었다. 그래서 나, 내년에는 좀 더 성숙한 서평을 쓸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작은 돌 하나하나가 쌓여 그럴싸한 돌탑을 완성해내듯, 한 해 한 해 차곡 차곡 쌓여가는 우리들의 서평도 단단하고 멋진 탑으로 세워지길 바라며, 올 한 해도 열심을 내어 준 경기도사서서평단 모두에게 응원을 보낸다.



정 은 영 (기획)

eyjung@library.kr

경기도사이버도서관

“사서다움”

사서의 서평쓰기는 바로 이 생각에서 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서다움’, 어떤 모습이 사서다운 것인지, 사서라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담긴 것이 『813.8 사서, 어린이책을 말하다』입니다. ‘사서’는 책과 매우 가까운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책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 하지 않는 것 같아서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사서선생님들 개개인들을 만나다 보면, 책에 대해 참 많은 이야기꺼리를 갖고 계셨습니다. 마땅한 ‘장’이 없어서 그동안 목소리를 못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석’을 깔아드리기로 했습니다. 한편 신명나게 놀아볼 수 있도록 말이죠.

‘사서’라는 이름으로 책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는 세상을 꿈꿔봅니다. 도서관이 그러한 장소가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칸막이 가득한 곳에서 책과 노트에 고개를 묻고, 하루 종일 보내는 곳만이 아니라, 서가 사이를 거닐면서 맘에 드는 책을 꺼내들고, 햇살 가득한 창가에서 사색에 잠기는 공간, 때로는 치열하게, 때로는 여유롭게 책과 함께 삶을 누리는 모습을 꿈꿔봅니다. 그러한 도서관을 누릴 수 있도록 ‘사서’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지금은 작은 서평 한 편일지라도 그것이 쌓여 더 많은 사람들이 도서관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일이라는 생각으로 오늘도 책을 펴드립니다.

2009년에 시작해서 3년 동안 사서의 서평쓰기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물로 서평집을 한권 씩 내 놓았죠. 그리고 2012년부터는 교육보다는

‘서평’ 자체에 무게를 더 실었습니다. ‘경기도사서서평단’을 운영하며 어린이 책 서평을 써서 모았습니다. 사서의 눈으로 고르고, 읽고, 썼습니다. 그것을 정리해서 매년 한 권 서평집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7번째 책이 빛을 봅니다. 짧지 않은 기간입니다. 앞으로 더 길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7번째 서평집을 세상에 선보일 수 있었던 것은 ‘경기도사서서평단’이라는 이름의 무게를 결코 가벼이 여기지 않고 애써주신 사서선생님들 덕분입니다. 다른 직업군들에 비해 도서관은 때로 참 여유로워 보이지만 사서들의 업무는 생각처럼 그리 녹록하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씨름하는 날도 있고, 이리 저리 뛰어다니며 잠깐 앉아 쉴 겨를이 없는 날도 있습니다. 한주에 한번, 혹은 격주에 한번 있던 휴관일 조차 없어져 가는 도서관이 허다합니다. 토요일에 쉬는 일이 보편화되면서 주말에는 가족들끼리 나들이 가는 풍경이 익숙해 졌습니다. 그러나 공공도서관 사서들은 주말이라고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 가는 일조차 쉬운 일이 아닙니다. 토요일도, 일요일도, 때로는 공휴일에도 도서관은 문을 활짝 열고 이용자들을 기다리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대부분이 법적 인원을 채 못 채우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사서 한명이 해내야 하는 일은 2인분, 3인분이 되곤 하죠. 삼겹살이라면 2인분도 거뜰한데, 일의 과중은 그리 쉽지 않네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와중에 퇴근 후, 점심시간, 휴관일 등 개인시간을 쪼개고 쪼개어 책을 읽고, 고민하고, 글을 써 주신 분들에게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런 노고들이 쌓여서 이렇게 한 권의 책이 만들어 졌습니다. 사서선생님들의 수고로움을 알기에 7번째 서평집 『813.8 사서, 어린이 책을 말하다. 2015』가 너무도 소중합니다. 7개의 서평집 하나하나가 참 감사하고, 소중합니다.

‘경기도사서서평단’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수고로 오늘도 경기도 도서관은 조금 더 발전합니다. 여러분, 참~! 사서답습니다!



813.8 사서, 어린이책을 말하다 2015

3부 함께 나누는 서평

◆ 심사평

◆ 우수

◆ 장려



2015 도서관 주간 및 세계 책의 날 서평 공모 심사에 부쳐...

공 정 자

안성시 진사도서관 사서

주로 신간도서를 대상으로 하는 서평은 독자로 하여금 아직 읽지 않은 도서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 준다. 2015 경기도 서평 공모 ‘내가 권하는 어린이 책’을 통해 좋은 책들을 발견할 수 있고 읽을 수 있도록 안내해 주어서 감사하다.

아쉬운 점은 대부분의 서평이 내용 요약이 주이고 도서에 대한 평가에 대한 기술이 부족하였다. 예를 들면, 같은 저자의 다른 작품과 유사한 주제의 다른 작품과의 비교, 교과목이나 특정한 상황에서의 이용가능성에 대한 기술이 더 필요하다. 그림책을 대상으로 한 서평도 많이 공모되었는데 글 외에 그림에 대한 서평 내용이 더 기술되었으면 좋았겠다.

매년 실시되는 경기도 서평 공모를 통해 좋은 어린이 책들이 더 발굴되고 알려져서 어린이들이 어려서부터 즐겁게 독서할 수 있는 문화가 더욱 확산되기 바란다.



헛! 바쁨 vs 꼭! 바쁨

우수상

이 유 림

경기도 안성시

즐거운시 행복구 여유동 어귀에서 세 번째 골목 가장 끝 집에 유별난 가족이 살고 있다. 그 가족이 바로 ‘바빠가족’이다. (7p.)

즐거운시. 행복구. 여유동.에 왜 ‘신난가족’이나 ‘단란가족’이 아니라 ‘바빠가족’이 살고 있을까?

이 글의 저자는 강정연. 저자는 2004년 신춘문에 동화부문에 「누렁이가 자살하다」라는 동화로 당선되면서 작가의 길로 들어섰다. 저자의 작품들을 보면 『견방진 도도군』, 『초록눈 코끼리』, 『위풍당당 심예분 여사』, 『섬섬한 첫가락』 등 제목부터 톡톡 튀고 호기심을 자극하여 책장을 열게 만드는 작품들이 많다. 저자의 장편동화 『바빠가족』도 이처럼 재미있는 제목에 한번, 신기한 표지그림에 다시한번, 호기심을 느껴 펼쳐보게 된다.

‘바빠가족’은 ‘유능한씨’, ‘깔끔여사’, ‘우아한양’, ‘다잘난군’ 이렇게 모두 네 식구이다. 이들은 대놓고 그 이름 그대로의 성격을 갖고 있으면서, 반어적 의미까지 내포하고 있는 그야말로 뻔뻔한 이름의 가족이다.

‘바빠가족’은 너무나 바쁘다. ‘바빠가족’은 얼마나 바쁜지 “바쁘다 바빠”를 “아자! 아자! 파이팅!”과 같은 구호처럼 입에 달고 산다.

‘유능한씨’는 아침부터 밤까지 너무나 바쁘다. 일을 하느라 바쁘다기 보단



바빠가족

강정연 지음, 전상용 그림.

바람의아이들. 2006.

분야 : 그림책

부장님께 아부를 하느라 바쁘다. ‘깎끔여사’는 아침에 눈을 뜨면 앞치마부터 둘러매고 하루 종일 종종걸음으로 바쁘게 산다. 쓸데없이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곱절로 하며 눈, 코 뜰 새 없이 바쁘다. ‘우아한양’은 온통 남의 시선을 의식하느라 바쁘고, ‘다잘난군’은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하느라 하루를 바쁘게 보낸다.

‘바빠가족’을 따라다니느라 지친 ‘바빠가족’의 그림자들이 이들에게 반기를 들며 이 글은 더욱 흥미진진해지고, 예측할 수 있듯 ‘바빠가족’이 여유를 찾고 행복해지는데서 이야기는 끝이 난다.

‘바빠가족’의 일상은 언뜻 보기에는 상당히 과장되어있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의 생활과 너무나 닮아있다.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 준비하느라 바쁜 아빠, 식구들 챙기느라 바쁜 엄마, 등교준비에 바쁜 아들과 딸. 현대를 살아가는 가족들은 너무나 바쁘게 하루를 시작하느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아침식사를 할 겨를조차 없다.

아빠는 야근이나 회식 때문에 저녁귀가가 늦고, 자녀들은 학원 때문에 밤늦은 시간에 귀가한다. 집에 들어오면 서로 지쳐 각자의 방에 들어가 눕기 바쁘다. 누워서는 바로 잠들지 않고, 스마트폰을 들고 무언가 하느라 새벽까지 또 바쁘다.

이 책은 현대의 바쁨이 과연 진짜 필요한 바쁨일까? 하는 의문을 갖게 만

든다. 아빠인 ‘유능한씨’는 부장님의 일을 위해 일하느라 정작 자신의 책상을 치울 시간도 없고, 엄마인 ‘깔끔여사’는 깨끗한 그릇을 다시 닦느라 이웃과 인사할 시간도, 아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시간도 없다. 쓸데없는 바쁨에 빠져 정말 중요한 무언가를 놓치고 사는 모습을 작가는 ‘바빠가족’의 그림자들을 이용하여 재미있게 꼬집어 낸다.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한 장편동화이지만, 아빠, 엄마, 아들, 딸, 온 가족이 함께 읽으며 이야기나누기에 더할 나위 없는 책이다.

이 책을 덮으며 내 옆엔 ‘바빠가족’의 그림자처럼 쓸데없는 바쁨을 지적할 확실한 가이드는 없지만, ‘주말엔 가족의 역할을 바꿔보기도 하고, 하루쯤 모두 모여 이야기를 나누며 여유로운 저녁식사를 해보는 건 어떨까?’하는 즐겁고 행복한 바쁨을 계획해본다.

●●● 심사평 ●●●

서평 공모 당선을 축하합니다.

어린이도서 『바빠 가족』의 서평 『헛! 바쁨 vs 꼭 바쁨』은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한 장편동화이지만 온 가족이 함께 읽으며 서로를 돌아보는 데 유익한 내용이라고 서평을 하였습니다. 주말에 가족의 역할을 바꾸어 보기도 하고, 함께 저녁 식사를 나누며 대화와 소통의 장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도입 부분에 ‘즐거운 시 행복 구 여유 동에 왜 ‘신난 가족’이나 ‘단란 가족’이 아닌 ‘바빠 가족’이 살고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주의를 끈 것이 독자로 하여금 호기심을 갖기에 충분합니다. 저자의 또 다른 작품 제목을 언급함으

로써 저자 작품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바빠 가족의 일상을 통해 우리 생활을 돌아보게 함으로써 '현대의 바쁨이 과연 진짜 필요한 바쁨인가?' 라는 의문을 함께 생각해보게 하였습니다. 이 서평은 마치 바빠 가족의 그림자처럼 읽는 독자에게 내 삶의 그림자 역할을 하기에 충분합니다.

남녀노소는 물론, 부자나 가난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은 다름 아닌 하루 24시간, 즉 1,440분입니다. 그래서 과거는 history, 미래는 mystery, 현재는 present, 즉 선물이라고 합니다. 선물은 고귀하고 값어치가 있습니다. 그 뜻을 헤아리며 신중하게 잘 써야 합니다. 그런데 현대인은 바빠도 너무 바쁩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할 시간조차 없어 보입니다. 바빠 가족의 유능한 씨와 깔끔 여사, 우아한 양, 다잘난 군은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네 잎 클로버를 찾으랴 무수히 많은 세 잎 클로버를 짓밟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는 행운을 찾아 일상의 행복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합니다. 2006년 제작된 프랭크 코라치 감독, 아담 샌들러 주연의 『클릭』이라는 영화 한 편을 같이 봐도 좋겠습니다. 요즘같이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바쁘게 사는 현대인들에게 꼭 권하고 싶은 영화입니다.

독자들이 『바빠 가족』과 『클릭』을 읽고 감상함으로써 시간과 가족의 소중함을 알고, 여유롭게 자신을 돌아보는 삶, 잔잔한 감동과 행복이 있는 삶을 추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시 한 번 제51회 도서관주간 및 세계 책의 날 기념 이벤트 서평 공모에 당선됨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유옥환 (안양시 박달도서관 사서)



소통은 힘이 세다!

우수상

지 연 희

경기도 화성시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타자기를 쳐다보는 젓소들을 그린 표지가 인상적이었다. 제목에 나타난 ‘탁탁, 툇툇 음매~’라는 의성어를 통해 상상해보니 내용이 더욱 궁금해졌다. 저자인 도린 크로닌은 고물 타자기를 수집하는 취미를 가진 변호사이다. 그녀는 이 글을 통해 젓소들과 브라운 아저씨가 소통하는 과정을 유쾌하게 그려내고 있다.

브라운 아저씨네 젓소들은 타자를 치는 것을 좋아한다. 어느 날 헛간에 걸린 편지 하나를 발견했는데 날이 추우니 전기담요를 달라는 것이었다. 아저씨가 젓소들의 요구를 무시하자 젓소들은 우유를 줄 수 없다며 파업을 강행한다. 다음날 젓소들은 암탉들도 추워한다며 전기담요를 지급하라고 요구한다. 이번에도 아저씨가 거절하자 암탉은 달걀을 줄 수 없다며 파업을 한다. 아저씨가 경고장을 보내자 젓소들은 타자기를 돌려드릴테니 다시 한 번 전기담요를 달라고 요청한다. 젓소들의 끈질긴 요청에 아저씨는 소원을 들어주기로 한다. 타자기를 아저씨께 전달하는 오리도 연못에 다이빙대를 설치해달라고 편지를 쓰며 이야기를 마무리한다.

젓소들의 편지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갑과 을의 관계를 청산하고, 상생하는 관계로 이끌어 냈다는 것에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 젓소들은 타인의 간섭이 아닌 스스로의 힘으로 모두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이끌어 냈다. 그리고 타자기를 사용해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폭력이나, 속임



타닥 툽툽 음매 젓소가 편지를 쓴대요

도린 크로닌 글, 베시 르윈 그림, 이상희 옮김.
주니어RHK, 2014.

수 따위 없이도 서로의 필요를 만족시킬 수 있었다는 것을 배울 수 있다. 모든 사람들이 젓소들처럼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상대를 설득하고 의견을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자라나는 아이들이 알았으면 한다.

또한 젓소들은 자신들과 같은 처지에 놓인 암탉을 외면하지 않았다. 젓소들은 암탉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고통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다. 누군가 인문학은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젓소들의 노력으로 농장은 이전보다 행복한 곳이 되었다. 나와 이웃의 아픔을 이해하고 문제를 개선해 나갈 때 건강한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다.

이 책은 ‘타닥, 툽툽, 음매~’라는 의성어의 반복을 통해 읽는 재미, 듣는 재미를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젓소의 편지에 다른 글자체를 적용해 젓소의 생각과 아저씨의 생각의 차이를 선명하게 볼 수 있다. 젓소에서 시작해서 암탉, 오리가 등장하는 빠른 장면의 변화는 독자에게 즐거움을 선사해준다. 단순하면서도 명쾌한 문장으로 유치원생부터 저학년 어린이들에게 추천한다.

●●● 심사평 ●●●

서평은 책의 가치를 평가하고 좋은 책을 독자에게 소개할 목적으로 쓰여지는 글이다. 책의 가치를 엄격하게 평가하는 것 또한 서평의 중요한 기능이지만 독자들이 서평을 읽고 책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면 서평의 목적을 훌륭하게 수행한 좋은 서평이라 할 것이다. 재미있는 책, 위로가 되는 책, 타인에 대한 공감을 이끄는 책 등 좋은 책을 알아보고 비평적 읽기를 통해 잘 소개하는 것이 바로 좋은 서평인 셈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글 또한 좋은 서평이라 할 만하다.

이 글은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타자기를 쳐다보는 젓소 그림’ 표지와 조화롭게 어울리는 책 제목 『타탁, 툭툭 음매~』를 소개하며 독자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앞으로 펼쳐질 책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저자의 정보 - ‘도린 크로닌이 고물 타자기를 수집하는 취미를 가진 변호사’임 - 를 소개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책의 제목, 표지, 삽화, 글자체, 장면 전환 등 형식적인 요소에서 내용, 주제, 소재, 작가의 세계관등이 모두 서평의 요소가 됨을 잘 보여주는 서평이다.

무엇보다 이 서평의 가장 큰 장점은 대상도서의 매력인 소재의 기발함과 이야기의 유쾌함을 자연스럽게 전달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책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이다. 그런가 하면, 책의 내용을 깊이 있게 읽고 사회적 공감으로 이끌어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통은 힘이 세다!』는 서평 제목은 서평자가 책이 던지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타자치는 것을 좋아하는 젓소’ 들은 어른들을 흉내 내기 좋아하는 아이들의 감정이입을 이끌어내는 대리자이다. 저자는 젓소들이 타자 편지를 통해

주인에게 전기담요를 요구하고 암탉들과 힘을 합쳐 파업을 강행하며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는 협상의 과정을 통해 아이들에게 갈등관계의 평화적 해결을 시사하고 있다. 서평자는 이 점에서 특히, 작품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

“갑과 을의 관계를 청산하고 상생하는 관계로 이끌어 냈다는 것에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 (중략) 폭력이나 속임수 따위 없이도 서로의 필요를 만족시킬 수 있었다는 것을 배울 수 있다. 모든 사람들이 젓소들처럼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상대를 설득하고 의견을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자라나는 아이들이 알았으면 한다. 또한 젓소들은 같은 처지에 놓인 암탉들을 외면하지 않았다. 암탉과 같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그들의 고통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다. 누군가 인문학은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와 이웃의 아픔을 이해하고 문제를 개선해 나갈 때 건강한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다...”

동물들과 주인의 밀당을 통해 사회현상을 분석하고 사회적 공감으로 이끌어낸 인문학적 성찰이 담긴 좋은 서평이다.

유현미 (평택시 시립도서관 사서)



저도 멋진 친구이고 싶습니다.

장려

추 승 우

경기도 고양시, 흥도초등학교 2학년

민규는 무엇이든 잘 하는 아이였어요. 물론 노력을 많이 했구요. 달리기 도 일등, 그림 그리기도 일등, 태권도도 일등, 모두 모두 잘하는 아이 민규랍니다.

민규가 모두 모두 잘하게 된 것은 노력을 하고, 자신이 최고라고 다른 친구들을 무시하게 된 것이 이유가 있었어요. 민규는 강한척 하지만 마음 속에는 아픈 마음이 있었어요. 민규는 아버지가 장애인이라는 걸 알면 친구들이 놀리고 무시할 것만 같았어요. 친구들이 민규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다른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한 거예요.

민규가 깔보던 달호도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할머니와 살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민규는 달호가 불쌍해졌답니다. 달리기 대회가 열리고 민규는 잘 달렸지만 달호는 넘어져서 민규네반은 꼴등을 하였어요. 민규는 “그러니까 누가 넘어지래? 왜 네가 다 망치냐 말야.”라고 말했어요. 저라면 “달호야, 괜찮아! 많이 아프지.”라고 했을 텐데.

책에도 나와요.. 고운말을 사용하자라고요. 달호 다리도 다쳤는데 위로도 안해주고 친구들과 민규는 달호를 미워하게 되버린 거예요.

각반 대표선수를 뽑아서 1,3,5학년과 2,4,6학년이 한편이 되어 시합을 하게 됩니다. 잘 달리고 싶었던 민규는 재경기에서 손에 있던 바통을 놓치고 넘어지는 큰 실수를 저지르고 민규 때문에 민규네팀이 3등을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달호는 민규에게 위로와 미소로 격려 해주었어요. 민규는 그런 달호



내가 제일 잘나가!

임근희 글, 박영 그림.
좋은책어린이. 2014.

에게 이상한 마음이 생긴걸 알았어요. 다른 친구들에게 미움을 받을까봐 친구들 앞에 서지 못하는 민규는 혼자 유치원 놀이터에 있는데 달호가 찾아옵니다. 다리를 다친 달호는 민규에 기분을 좋게 해주려고 위로해 주고 싶어서 아픈 다리지만 달리기 시합을 하자고 했어요. 달호는 또 넘어져서 다리를 크게 다치고 말았지요. 김스를 하게 되버린 달호를 위해 민규는 달호의 가방을 들어도 주고, 달호도 민규가 나쁜 것이 아니라 강해 보이고 싶었던 거라는 걸 알았어요.

민규에게 “넌 사실 착한 아이지 그치?”라고 물어보는 달호가 민규의 마음을 알아 버린 거예요.

저는 친구 달호에게 상을 주고 싶어요. 최고 친구상을요. 잘난 척 하는 민규지만 민규와 좋은 친구가 되어준 달호처럼 저도 멋진 최고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넓은 세상을 꿈꾸는 아이

장려

조 우 빈

경기도 안양시

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서기 전, 누구의 집이나 모두 달려있는 것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우편함입니다. 우체부들은 매일매일 빠짐없이 우리에게 편지나 택배를 전해주기 위해 혹은 편지나 택배를 수거해 다른 사람에게 가져다주기 위해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그렇다면 우체부라는 직업은 언제부터 생긴 걸까요? 대한제국 시대에 처음 생긴 우체부라는 직업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우체국, 우체부가 아니라 우체사, 체전부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이 책에서는 체전부라는 직업을 가지게 된 기태와 체전부가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체전부가 된 기루, 이 두 형제를 통해 당시 체전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염병으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잃은 기루에게는 아버지 뭍까지 하는 든든한 기태라는 형이 있습니다.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어 하던 아버지의 꿈은, 아버지는 돌아가셨어도 인력거로 남아 아버지의 꿈을 상기시켜줍니다. 기태는 이 인력거를 끌고 발이 닿는 한 더 넓은 세상을 꿈꾸며 기루와 살아갑니다. 그런 어느 날, 기루는 우연히 체전부가 전달하지 못한 편지를 발견하고, 우체사를 찾는 외국인을 인력거로 태워준 기태와 함께 우체사로 가 편지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기태의 성실함을 눈여겨본 우체사장은 기태를 체전부로 고용하고자 합니다. 기태는 인력거를 두고 고민하지만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어하던 아버지의 꿈을 생각해 인력거를 팔고 체전부가 됩니다. 하지만 당시 대한제국은 어지러운 시기로 개화를 반대하는 세력과 찬성하는 세력이



마음을 배달하는 아이

장은영 지음, 김정진 그림.
아이앰북, 2013.

격렬하게 부딪히고 있을 때였습니다. 새로이 생긴 우체사나 체전부는 외국의 문물이라고 생각해 개화를 반대하는 세력의 눈엣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호시탐탐 체전부가 배달하던 편지를 노리던 반대세력으로 인해 편지를 지켜 내려던 기태는 칼에 찔려 죽고 맙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꿈꾸던 넓은 세상의 꿈과, 기태의 편지를 지켜내려던 책임감과 성실함, 그리고 편지를 주고받는 사람들의 감사를 알게 된 기루는 열심히 공부하여 체전부가 됩니다.

지금 우리는 기태와 기루 형제의 아버지가 꿈꾸던 넓은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편지를 넘어 전화가 발명되고, 핸드폰이 발명되면서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사람과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통해 집 밖에 나가지 않아도 세상 곳곳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넓은 세상을 꿈꾸고 있지 않습니다. 언제든 넓은 세상을 보고 겪을 수 있기에 넓은 세상을 꿈꾼다는 것에 무뎠진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책을 읽고 기태와 기루처럼 넓은 세상을 꿈꾸며 노력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입이 궁금해

장려

조인희

경기도 수원시

자라면서 늘 써왔던 ‘입이 궁금해!’ 라는 표현이 방언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었다. “입이 궁금하네”라고 말을 했을 때 그게 무슨 뜻이냐는 듯이 바라봤던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책 제목이 바로 ‘입이 궁금해’ 인데, 어느 산골 마을에 할머니가 혼자 살고 있었다. 할머니는 대화 상대가 없어 늘 구시렁 거렸다. 어느 날 밖이 너무 소란스러워 살펴보니 마당에서 도깨비들이 앉아 놀고 있길래 냅다 소금을 뿌리고 찬물을 퍼부어대니 귀찮아진 도깨비들이 할머니를 기둥에 꼭 묶어 버리지 않겠는가.

도깨비 하나가 입이 궁금하다고 하자 할머니가 도깨비들의 얘기를 듣고 간식거리를 제안한다. 같이 간식을 만들며 오히려 방해가 되는 듯 한 도깨비들을 타박하지만 할머니의 입가에서는 슬며시 웃음이 새 나온다.

그 간식은 바로 호.호 불어먹는 ‘호떡!!’ 간식을 만들어 준 할머니께 도깨비들은 금, 은, 보배를 선물한다고 하자 할머니는 금, 은, 보배는 필요 없고 말동무가 필요하다고 한다. 다시 찾아온 도깨비들을 너무 반가워하는 할머니...

이 책이 나오는 ‘궁금해.궁금해 입이 궁금해!’, ‘꽃불이 떨어지겠네 떨어져’, ‘털신을 또 잡아놨네 잡아놔’ 처럼 반복적인 단어에 읽어주는 엄마도 듣는 아이도 은율이 있는 동시를 듣는 것처럼 즐거운 느낌이 들었고, 책을



입이 궁금해

김세실 글, 이은주 그림,
여원미디어

입지 않을 때에도 가끔 떠오를 만큼 흥이 있었다.

혼자 사는 할머니의 외로움을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 달래주는 도깨비와, 휘영청 밝은 긴~~긴~~밤 입이 궁금한 도깨비들에게 요기 거리를 제공해주는 할머니의 만남이 너무도 잘 맞아 떨어져 동화책을 덮을 즈음엔 우리 마음도 따뜻해졌다.

꿈이 요리사라는 큰 아이를 위해 음식에 관한 책을 고르던 중 발견한 책인 만큼 아이들의 반응은 뜨거웠고, 잠자리에 들기 전 읽어달라고 가져오는 빈도수도 높은 책이었다.

여러 번 읽어도 재미있는 리듬감 및 캐릭터들의 우스꽝스러운 모습 덕분에 질리지 않고 반복해서 읽어 볼 수 있었던 점 등,

유아 및 저학년 초등학생, 요리에 관심 있는 아이들은 물론 관심이 없던 아이까지 흥미를 불러 일으키기 충분하고 마음껏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기에 이 책을 추천한다.



나라의 소중함을 알게 해 준 김구

장려

이도현

경기도 남양주시, 초등학교 4학년



(위인전기) 백범 김구

신경림 글, 이철수 그림.
창비. 1982.

오늘은 광복 70주년 3.1절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 힘쓰신 백범 김구 선생에 관한 책을 읽었다.

이 책에서 접했을 때 김구가 국밥집에서 변장한 일본 장교를 단칼에 죽인 것이 가장 인상 깊었다. 정말 잘못하면 목숨을 잃는데 백범 김구 선생은 완전 용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 같다.

이 백범 김구 선생님이 한인 애국단(윤봉길, 이봉창도 한인 애국단원임)의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3.1절 하면 유관순 누나가 제일 기억났는데 이 책을 읽고 김구 선생님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김구 선생님이 더 오래 살아 있었다면 통일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 책을 나라 사랑에 대해 관심이 덜한 친구들에게 읽어 보라고 권해 보겠다.



지렁이 만나기

장려

이 준 형

경기도 용인시

아이들에게 다가가기 쉽지 않은 지렁이를 체계적으로 설명한 책입니다. 단순히 정보에 대한 서술이 아닌 어린 주인공들과 함께 나타나는 에피소드로 이야기를 만들어 아이들이 접근하기 쉬운 책입니다. 중간 중간 삽입되어있는 그림은 설명을 쉽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책을 읽을 때는 두 주인공의 자세를 보며 읽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평소 지렁이를 너무 싫어하는 세린이는 비오는 날만 되면 울상입니다. 이런 세린이에게 지렁이로 장난을 치던 하늘이는 서로 쫓고 쫓기다 지렁이 농장이란 곳을 발견하게 됩니다. 농장에서 저지른 실수 덕분에 어쩔 수 없이 지렁이를 키워야 하는 세린이와 하늘이. 두 친구는 각자 다른 자세로 지렁이 기르기에 임하게 됩니다. 과연 그들은 지렁이를 무사히 키울 수 있을까요?

단지 외모하나로 이렇게 미움 받는 생물이 있을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도움을 주는 생물도 없지요. 이 책에서는 지렁이라는 하나의 대상을 놓고 설명함과 동시에 이를 대하는 두 자세를 보여줍니다. 주인공인 하늘이와 세린이가 바로 그 두 자세를 나타냅니다. 처음 두 아이 모두 지렁이에 대해 불편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를 직접 마주하게 되었을 때 한 명은 적극적으로 또 다른 아이는 소극적이며 되도록 피하려 하는 행동을 보여주게 됩니다. 결국 둘이 키운 밭에서 차이가 나게 됩니다.



지렁이 똥을 훔쳐라

김은의 지음, 유설화 그림.
스콜라(위즈덤하우스), 2014.

책을 읽은 후에 지렁이를 보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하늘이와 세린이의 태도 중 나와 닮은 인물은?



다나의 숲, 너의 숲

장려

지 준 민

연세대학교 4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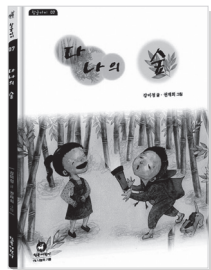
올 겨울방학의 한가로움을 달래기 위해 방문한 서점에서 우연히 발견한 책이다. 깔끔하고 따뜻한 느낌의 표지에 끌려서 ‘시간이나 때우자’는 요량으로 펼친 책인데, 이 책을 읽고 나서 나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다.

다나는 할아버지와 시골에서 지내게 되는데 그곳에는 아주 깊은 대나무 숲이 있다. 다나라는 어린 주인공이 숲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겪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관찰, 할아버지와 스님의 노련한 통찰로 바라본 세계와 다나가 느꼈을 그 세계의 감동과 상쾌함. 이 모든 인상들이 더불어 마치 나의 어린 시절의 기억들을 상기시켜주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나 역시도 어린 시절의 대부분을 시골에서 보냈다. 그래서인지 요즘 아이들과는 다르게 혼자 생각할 시간도 많았고 마음속의 나와 지낼 시간이 많다 보니, 사물을 바라볼 때에 조금 독특한 방식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았다. 남들보다 생각이 느렸고, 신중했다. 낯선 것들을 마주할 때에는 그것들을 완전히 이해하고 나의 세계에 초대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던 것 같다.

어릴 적 내게 낯설게 느껴진 인상 가운데 아직도 선명한 것은, 영등포역의 출구 계단 벽의 타일이었다. 이 타일은 지면과 평행하지 않고, 또 계단의 기울기와도 평행하지 않은 특이한 방향으로 배열되어 있었는데 일이 있어 유독 이 곳을 지날 때마다 어지러움을 느꼈다.

성인이 되어서 그 곳에 가보니 그 타일은 그대로였지만, 나는 전혀 어지럽



다나의 숲

강미정 글, 권재희 그림.
참글어린이. 2015.

지 않았다. 그리고 정말 신기하리만치 아무렇지도 않았다.

이야기속의 다나는 어릴 적 영어학원에서 영어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표현을 하지 못해 바지에 소변을 보고 만다. 이러한 일에 대해 할아버지는 깨 터는 법을 알려주면서 “깨도 다 마르면 알아서 입을 연다.”는 지혜를 보여준다. 홀로 숲에 가서는 숲의 모든 사물들을 면밀히 관찰하며 스스로 친구가 되어주기도 하고, 할아버지의 손님인 스님과 함께 숲에 가서는 우연히 돌담에서 구슬을 줍는 일도 겪게 된다.

어린 다나가 느꼈을 낯선 인상과 그 낯선 것들을 잘 해내야 한다는 부담감은 성인이 된 우리는 너무 잘 알지 않을까. 치열한 입시전쟁과 사회의 생존전쟁을 거쳐서 겨우 입에 풀칠을 하고 사는 운명을 받아들여야 하는 우리가 어찌 보면 다나와 같은 입장이 아닐까.

우리는 어릴 적 수많은 낯선 인상들을 반복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세계관을 만들어간다. 나의 세계관 역시도 영등포역의 낯선 타일에서 출발하였고 그러한 작은 인상들이 모여서 우리의 상식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낯선 것들을 받아들이는 일이 결코 쉽지만은 않을 터. 우리는 이미 겪어온 세계이지만 우리 아이들은 앞으로 겪어가야 할 세계이고 모든 것들을 걸고서라도 투쟁해야 할 세계인 것이다.

다나의 숲은 이러한 문제에 직면한 아이들에게 하나의 창이 되어주지 않을까 하는 것이 나의 개인적인 바램이다. 치열한 입시경쟁과 성공에 대한 질주로 인해 낙엽이 떨어지는 인상, 저 멀리 해가 저무는 모습, 가족 간의 또는 친구간의 사랑, 우정과 같은 소중한 가치들과 수많은 세계들이 충돌할 때에 무엇이 더 중요하고 값진가를 판단해야 할 수많은 어린 아이들에게 이 책을 선물하고 싶다. 비록 한 사람의 어른으로서 이러한 세계를 온전히 바꾸어가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는 없지만, 20년 후의 청년들의 가슴속에 이제는 개인의 사유와 철학이 꽃피는, 기성세대와는 다른 시대를 이끌어가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줄 아는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우리의 숲에 있는 구슬을 손에 꼭 쥐어야 한다. 이 책을 읽는 모든 어린이들에게, 당신의 숲에서 그 소중한 구슬을 꼭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



나는 어떤 사과일까?

장려

진민경

경기도 수원시

동네 과일 가게에 놓인 평범한 사과 한 개가 있다. 이 사과를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제 각기 다른 생각과 시선으로 사과를 바라본다. 그래서 보는 사람이 늘어 날 때마다 하나라도 백 개인 사과가 된다.

이 책은 하나의 동일한 사물이지만 보는 사람이나 관점에 따라 하나지만 백 개, 천 개로도 확장되고 달라 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그림책이다. 유아나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의 경우 자기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있어 다른 사람들도 자신과 같은 시선으로 사물을 바라본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과 다름을 틀 린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자신의 잣대로만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게 된다. 이런 아이는 독단적이고 고집이 센 아이로 자라기 쉽다.

이런 아이들에게 이 책은 하나의 빨간 사과를 보며 회사원, 농부 아저씨, 화가, 의사 선생님, 목수 아저씨가 사과를 바라보는 생각이 모두 제 각기 다름을 보여 준다. 이를 통해 아이들에게 나를 사과에 비유하며 나는 어떤 사과일까? 라는 질문을 통해 내가 생각하는 나와 부모님, 친구 등 주변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 하며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과 타인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을 이야기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를 통해 아이들에게 나의 관점과 주변 친구들의 관점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해주며 내 이야기만을 옳다고 주장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친구들의 이



하나라도 백 개인 사과

이노우에 마사지 지음, 정미영 옮김.
문학동네어린이, 2001.

야기도 귀 기울여 들어주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일깨워 줄 수 있다.

이 책을 계기로 다양한 시각으로 사물을 바라 볼 수 있는 습관을 길러 준다면 아이들의 생각의 폭을 넓히고 더 나아가 하나의 사물을 백 가지, 천 가지로 바라 볼 수 있는 헵타드적 사고를 기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아이와 함께 현재를 살아가는 어른들에게 자신만의 아집에 빠져 자신의 생각만이 옳고 타인의 생각과 방식은 틀렸다고 말하는 우리들에게도 틀림이 아닌 다름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해주는 책이다.



그래도 난 내가 좋아!

장려

전 정 민

경기도 용인시

‘사람들은 저마다 재능이 담긴 그릇을 가졌다. 하지만 내 그릇은 텅 비었다.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다. 나는 왜 나로 태어났을까?’

2008년도에 출판된 이 책은 열등감에 사로잡힌 아이들에게 남을 부러워하기 보다는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스스로의 소중함을 깨닫기를 바라는 작가의 마음이 잘 드러난 작품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올빼미 마스크, 만들기를 잘하는 햄스터 마스크, 작지만 힘이 센 장수풍뎡이 마스크, 노래를 잘하는 개구리 마스크, 멋쟁이 해달 마스크, 성실한 토끼 마스크, 이 사이에서 주인공 치킨 마스크는 자신이 한없이 초라해 보이기만 합니다. 슬픔에 빠져 자신만의 비밀장소에서 마음을 달래고 있던 치킨 마스크는 우연히 다른 마스크들을 좁게 되고 모든 마스크를 한 번씩 써보게 됩니다. 치킨 마스크가 생각했던 대로 모두 대단한 마스크들이지만 생각과 달리 치킨마스크의 머릿속은 엉망진창이 됩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나’의 모습이 헛갈리게 된 것입니다.

이 때 치킨 마스크인 자신을 아무도 찾지 않고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치킨 마스크에게 나무 동산 식구(꽃, 나무)들이 말을 겁니다. 다른 마스크가 되지 말아달라고, 마음이 예쁜 치킨 마스크로 남아 우리에게 물을 달라고. 이 부분에서 ‘너는 단지 너라는 이유만으로 특별하단다.’라고 말해주는 맥스 루케이도의 『너는 특별하단다』가 생각났습니다.



치킨 마스크

우쓰기 미호 지음, 장지현 옮김.
책읽는곰, 2008.

이 책을 접하기 전에는 단순히 친구들의 장점을 발견하고 칭찬해줄 수 있는 아이는 큰 장점을 갖춘 아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을 보면서 그것이 자신의 장점을 파악하지 못하고 자신과 비교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것이라면 제가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그 부분이 자신에게는 스트레스와 열등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교하지 않기, 자신의 장점 찾기. 우리 친구들이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나는 왜 나로 태어났을까요? 이 책을 읽으면서 나의 장점을 생각해보고 나 스스로의 가치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813.8 사서, 어린이 책을 말하다 2015

부록 추천도서목록

- ◆ 그림책 목록
- ◆ 동화책 목록
- ◆ 지식정보책 목록



그림책 목록



*표시는 서평 수록 도서입니다.

no	서명	저자	삽화	역자	출판사	년도
1	7년 동안의 잠 *	박완서			어린이 작가정신	2015
2	가방 안에 든게 뭐야? *	김상근			한림출판사	2015
3	가을 비빔밥 *	매이 봄	김윤영		어썸키즈	2014
4	걸었어	이정덕	우지현		청어림주니어	2015
5	고슴도치의 생일	이상교	김정선		재능교육	2014
6	곧 이방으로 사자가 들어올거야	아드리앵 파를랑주	아드리앵 파를랑주		정글짐북스	2015
7	곰돌이 팬티!	투페라 투페라	투페라 투페라	김미대	북극곰	2014
8	곰아 자니?	조리 존	벤지 데이비스	이순영	북극곰	2015
9	곰의 노래 *	뱅자맹 쇼		염명순	여유당	2014
10	구덩이에서 어떻게 * 나가지?	기무라 유이치	기무라 유이치	김숙	북뱅크	2011
11	귀신 선생님과 진짜 아이들	남동윤			사계절	2014
12	그게 바로, 너야 *	라스칼	만다나 사다트	여은경	지식나이트	2014
13	그림 동물원	안젤스 나바로	카르멘 케랄트		현북스	2014
14	그림자가 사는 마을 *	마이클 바틀로스	마이클 바틀로스	김영미	키즈엠	2014
15	까불지마!	강무홍	조원희		논장	2015
16	까치가 물고 간 * 할머니의 기억	상드라 푸아로 셰리프			한겨레아이들	2015
17	꽃살문 *	김지연			느림보출판사	2014
18	꿈꾸는 민들레 씨앗	조셉 안토니	크리스 알보	포	어썸키즈	2015
19	꿈에서 맛 본 똥파리 *	백희나	백희나		책읽는곰	2014

no	서명	저자	삽화	역자	출판사	년도
20	꼬적이와 쓱쓱이	예단 룡	예단 룡	지혜연	사파리	2014
21	나는 누구일까? *	박상은	박상은		현복스	2013
22	나는 아빠랑 왜 달라?	변지율	변지율		슬슬	2015
23	나는 혼자가 아니예요 *	콘스탄체 외르벡 닐센		정철우	분홍고래	2015
24	나무 : 죽음과 순환에 대한 작지만 큰 이야기	대니 파커	매트 오틀리		도토리숲	2014
25	나무 위에 올라간 아주 별난 꼬마 얼룩소	제마 메리노	제마 메리노	노은정	사파리	2015
26	나와 우리 *	이선미			글로연	2014
27	난, 책이 참 좋아 *	레오니드 고어	레오니드 고어	김상미	베들북	2014
28	내 마음 *	천유주			창비	2015
29	내 생일은 몇 밤 남았어요?	마크 스페링	세바스티앙 브라운	김영미	키즈엠	2015
30	누가나무를심었을까요? *	제리 팔로타	톨레오나드	포	어썸키즈	2014
31	누구 안경일까?	민트래빗 플래닝	민트래빗 플래닝		민트래빗	2015
32	누구세요? *	엠마누엘레 베르토시			북극곰	2014
33	늙은쥐와 할아버지	이상교	김세현		봄봄	2015
34	다 내 거야!	제라 힉스	제라 힉스	서남희	다림출판사	2014
35	달	이승환			studio 11am	2014
36	달님의 모자	다카기 상고	구로이 켄	최윤영	천개의바람	2014
37	대단한 밥 *	박광명	박광명		고래뱃속	2015
38	대추 한 알 *	장석주	유리		이야기꽃	2015
39	도서관에 도깨비가 * 으히히히	싱자휘	양완징	심윤섭	국민서관	2008
40	도서관에서 만나요	가제키 가즈히토	오카다 치야키	김소연	천개의바람	2015

no	서명	저자	삽화	역자	출판사	년도
41	도서관이 키운 아이 *	칼라 모리스	브래드 스니드		그린북	2015
42	도시에 사는 우리 * 할머니	로렌 카스티요			재능교육	2015
43	독수리와 굴뚝새	제인 구달	알렉산더 라이히슈타인	최재천	토토북	2015
44	동물원 가는 길 *	존 버닝햄		이상희	시공주니어	2014
45	동생만 예뻐해! *	제니 데스몬드		이보연	다림	2014
46	동생을 드립니다	하마다 케이코	하마다 케이코	김윤정	키다리	2015
47	동생이 미운걸 어떡해 *	로렌 차일드	김난령		국민서관	2015
48	돼지 이야기 *	유리			이야기꽃	2013
49	두더지의 고민	김상근	김상근		사계절	2015
50	똑똑똑	나일성	나일성		파란자전거	2015
51	러브	안드레아 페트릭	안드레아 페트릭	이구용	정인출판사	2015
52	롤라와나 *	키아라 발렌티나 세그레	파올로 도메니코니	길상호	씨드북	2015
53	린드버그 하늘을 나는 생쥐	토르벤 쿨만	토르벤 쿨만	윤혜정	책과콩나무	2015
54	마법처럼 문이 열리고	케이트 디카밀로	배그램 이바틀린	서석영	책속물고기	2015
55	마음아, 작아지지 마 *	신혜은	김효진		시공주니어	2015
56	마음의 집 *	김희경	이보나		창비	2011
57	만약에 *	러디어드 키플링	조반지 만나	최영진	살림어린이	2015
58	만약에 꼬리가 있다면?	올리아 호르스트	다리아 리치코바		푸른숲 주니어	2015
59	머나먼 여행	에런 베커			웅진주니어	2014
60	머리가 좋아지는 약	히라타 아키코	다카바 타케 준	김숙	북뱅크	2014
61	모두 나를 쳐다봐요!	요한 우닝에	마리아 닐손 토레	황덕령	그린북	2015

no	서명	저자	삽화	역자	출판사	년도
62	모래 언덕에서의 * 특별한 모험	막스 뒤코스	막스 뒤코스		국민서관	2014
63	무슨 생각하니	로랑 모로	로랑 모로		로그프레스	2015
64	무엇이든 삼켜버리는 * 마법상자	코키루니카	코키루니카	김은진	고래이야기	2007
65	무엇일까?	레베카 곱	레베카 곱	엄혜숙	상상스쿨	2014
66	문을 열어!	황동진			낮은산	2014
67	미영이 *	전미화	전미화		문학과지성사	2015
68	미용실에 간 사자 *	브라타 테켄트럽			키즈엠	2014
69	민들레는 민들레	김장성	오현경		이야기꽃	2014
70	바보 야쿠프	울프 스타르크	사라 룬드베리	이유진	한겨레아이들	2014
71	바삭바삭갈매기 *	전민걸	전민걸		한림출판사	2014
72	발이 더러운 왕 *	김중철	신지수		웅진주니어	2013
73	밤이 무서워?	강보나	강보나		책내음	2014
74	방긋 아기씨 *	윤지희			사계절	2014
75	봄을 찾는 할아버지 *	한태희	한태희		한림출판사	2014
76	복적복적 시장나들이	안선모	조현주		엔이키즈	2015
77	비클의 모험	댄 샌택		고정아	아르볼	2015
78	사막의 아이 *	김수련	송송이		주니어 이서원	2015
79	사자가 작아졌어! *	정성훈			비룡소	2015
80	사쿠라	다바타 세이이치	다바타 세이이치	박종진	사계절	2014
81	샘과 데이브가 * 땅을 팠어요	맥 바넷	존 클라센	서남희	시공주니어	2014
82	생각하느라 그랬어요	샌돌 스토다드 워버그	이반 체르마예프	천미나	책과콩나무	2015

no	서명	저자	삽화	역자	출판사	년도
83	생태 통로	김황	안은진		논장	2015
84	선생님은 몬스터 *	피터 브라운	피터 브라운	서애경	사계절	2015
85	세상을 바꾼 씨앗	젠 클레튼 존슨	소니아 린 새들러	신재일	도토리숲	2015
86	소나무 씨 뭐 하세요?	레너드케슬러	레너드 케슬러	서애경	길벗어린이	2014
87	수박 수영장	안녕달			창비	2015
88	수박씨를 삼켰어!	그렉 피줄리	그렉 피줄리		토토북	2014
89	숲으로 간 꼬끼리 *	하재경			보림	2007
90	쉬이잇! 조용! 책 읽거든!	코엔 반 비젠	코엔 반 비젠	김경연	은나팔	2014
91	슈퍼거북 *	유설화	유설화		책읽는곰	2014
92	스티나의 여름 *	레나 안데르손	레나 안데르손		청어람아이	2015
93	시계의 여행	후타미 마사나오	후타미 마사나오	김윤정	키다리	2015
94	시작 다음	안느 마르고 랑스타인 마티아스 아르귀	안느 마르고 랑스타인 마티아스 아르귀		한솔수북	2015
95	심술쟁이 애완동물 * 앵그리	상기타 바드라	마리온 아보나	이태영	키다리	2015
96	싱크 홀이 우리 집을 * 삼켰어요!	김수희	이경국		미래아이	2015
97	싸움에 관한 위대한 책 *	다비드 칼리	세르주 블로크	정혜경	문학동네	2015
98	쌀 한 톨	데미	데미	이향순	북뱅크	2015
99	아빠가 좋아요! *	한은선	천필연		지경사	2015
100	아빠를 버렸어요 *	소중애	고우리		봄봄	2015
101	아빠와 함께라면	코리 브룩	주세페 폴리	김현경	엔이키즈	2015
102	안경쓰기 싫어요!	구스노키 시게노리	다루이시 마코	전선영	애플 트리태일즈	2014
103	안녕! 만나서 반가워	한성민	한성민		파란자전거	2015

no	서명	저자	삽화	역자	출판사	년도
104	안돼 내 과자야 *	백주희	백주희		책읽는곰	2014
105	알록 달록 카멜레온	다시로 치사토	다시로 치사토	김영진	아이세움	2014
106	양숙	하일권	하일권		소담주니어	2015
107	애벌레는 어디에 숨은 거야	에드워드 하디	알리 파이	김영선	상상스쿨	2015
108	앤서니 브라운 코끼리 *	앤서니 브라운	앤서니 브라운	하빈영	현복스	2015
109	앵그리 맨	그로 달레	스베인 니후스		내인생의책	2014
110	어느 날	방글	정림		책고래	2015
111	어린 도시농부 소피 *	제르다 뮐러	제르다 뮐러		내인생의책	2015
112	어쩌다 여왕님 *	다비드 칼리	마르코 소마 그림	루시드 풀	책읽는곰	2014
113	얼음 땡!	강풀	강풀		웅진주니어	2014
114	엄마, 잠깐만! *	앙트아네트 포티스		노경실	한솔수북	2015
115	엄마가 섬 그늘에 * 굴 따라 가면	이상교	김재홍		봄봄	2013
116	엄마가 오는 길 *	모토시타 이즈미	오카다 치아키	김소연	천개의바람	2015
117	엄마가 정말 좋아요	미야니시 다쓰야		이기웅	길벗어린이	2015
118	엄마는 회사에서 * 내 생각 해?	김영진	김영진		길벗어린이	2015
119	엄마의 말	최숙희			책읽는곰	2014
120	엄마의 품 *	박철	김재홍		바우솔	2015
121	에드워드도 *	존 버닝햄	존 버닝햄	조세현	비룡소	2006
122	여우모자 *	김승연	김승연		로그프레스	2014
123	옆집 할아버지 관찰 일기 *	알리스 뒤마	마르틴 라퐁	양진희	교학사	2007
124	오늘 피어난 애기똥풀 꽃	윤재인	오승민		느림보	2015

no	서명	저자	삽화	역자	출판사	년도
125	오늘은 5월 18일 *	서진선			보림	2013
126	오늘처럼 비 오는 날	김순이	황정하		시공주니어	2015
127	오리 가족의 * 떠들썩한 나들이	예바 무어	낸시 카펜터	마음 물고기	국민서관	2013
128	오스카의 비밀	디터 마이어	프란치스카 부르크하르트	김경연	다림	2015
129	외톨이 꿈	이노루	이노루		책읽는곰	2015
130	우디의 엄청 큰 엉덩이	스티브 스몰맨	엠마 야렛	강형복	키즈엠	2014
131	우리 가족의 비밀 *	아나 만소	수사나 델 바뇨	박지영	북스토리 아이	2015
132	우리 할머니는 비싸요!	김인자	문보경		씨줄북스	2015
133	우리는 엄마와 딸 *	정호선	정호선		창비	2014
134	웃음은 힘이 세다	허은미	윤미숙		한울림 어린이	2015
135	위를 봐요! *	정진호			은나팔 (현암사)	2014
136	은이의 손바닥	윤여림	노인경		웅진주니어	2015
137	이건 내 모자가 아니야 *	존 클라센	존 클라센		시공주니어	2013
138	이봐요, 까망 씨!	데이비드 위즈너			비룡소	2014
139	일기 몬스터 *	김해등	경하		주니어 김영사	2015
140	작은 발견	이보나 흐미엘레프스카	이보나 흐미엘레프스카		사계절	2015
141	잠자고 싶은 토끼	칼 요한 포센 엘린		이나미	브가하	2015
142	점과 선이 만나면	베로니크 코시	로랑 시몽	김유진	국민서관	2014
143	정말 완벽해!	스티브 스몰맨	팀 원스	정은미	키즈엠	2015
144	제주 해녀 간난이	현기영	정용성		현북스	2015
145	주먹바위	송하나	송하나		비움과채움	2014

no	서명	저자	삽화	역자	출판사	년도
146	짧은 귀 토끼와 눈치 없는 친구	다원시	탕탕	심윤섭	고래이야기	2015
147	참새의 빨간 양말	조지 센던	피터 리프먼		비룡소	2014
148	책 읽는 유령 크니기	벤야민 죤머할더	루시드 폴		토토북	2015
149	책이 꿈지락꿈지락	김성범	이경국		미래아이	2011
150	천천히 도마뱀 *	윤여림	홍정선		웅진주니어	2015
151	축구치 하람이, 나이스!	윤여림	이갑규		천개의바람	2015
152	춤추고 싶어요 *	김대규			비룡소	2012
153	친구를 사귀는 * 아주 특별한 방법	노튼 저스터	G.브라이언 카라스	천미나	잭과콩나무	2012
154	코끼리 왕 바바의 모험	장 드 브루노프	장 드 브루노프	미술 연필	보물창고	2015
155	공쥐	임영희	마리 카유		키즈엠	2014
156	키이의 가출 *	다네무라 유키코	다네무라 유키코	강방화	한림출판사	2014
157	탄 빵	이나래			킨더랜드	2015
158	택배 왔어요!	토 프리먼	토 프리먼	아이 생각	키즈엠	2015
159	텔레비전을 끌 거야! *	제임스 프로이모스	제임스 프로이모스	강미경	두레아이들	2014
160	파도가 바닷가에 남긴 것	앨리스 제이	앨리스 제이	김영미	키즈엠	2015
161	파란 거위	낸시 태퍼리	낸시 태퍼리	이상희	비룡소	2014
162	파란하늘 *	안드레아 페트릭	안드레아 페트릭	이구용	정인출판사	2015
163	파티에 간 사자	브리타 테큰트럽	브리타 테큰트럽	박재욱	키즈엠	2014
164	팔랑팔랑 *	천유주			이야기꽃	2015
165	팔고물 시루떡 *	이월	홍우리		키즈엠	2014
166	팔죽한그릇	오은영			느림보	2014

no	서명	저자	삽화	역자	출판사	년도
167	펭귄 랄라라	구신애	구신애		반달	2015
168	포씨의위대한여름	안선모	장경혜		청어람 주니어	2014
169	풀꽃 *	나태주 시, 위정현 윤문영 글	윤문영		계수나무	2014
170	하늘꽃이 내 동생을 * 데려옵니다	잉거 마이어	마리아 보가데	길상효	씨드북	2015
171	학교에 간 공룡 앨리스아우루스	리처드 토리	리처드 토리		책과콩나무	2015
172	한 입에 꿀꺽!	카이오 히터	로랑 카르동	이은주	느림보	2015
173	한밤의 선물 *	홍순미			봄봄	2015
174	할머니 사진첩 *	김영미			책먹는 아이	2014
175	할머니는 1학년 *	김인자			내인생의책	2014
176	할머니를 기다립니다 *	세베린 비달			푸른숲 주니어	2014
177	할머니의 할머니의 * 할머니의 옷	홍선주			책읽는 꿈	2009
178	함께 걷는 길 *	김서정	한성옥		웅진주니어	2010
179	해적 : 바다에 살던 * 한 해적의 이야기	다시마 세이조	시오자와 후미오	박종진	한림출판사	2015
180	행복한 색깔 도둑	가브리엘 알보로조	가브리엘 알보로조	김혜진	국민서관	2014
181	호랑나비와 달님	장영복	이혜리		보림	2015
182	혼자 집 보는 날 *	모리요코	모리요코	김영주	북스토리	2014
183	흑설공주 *	이경혜	주리		뜨인돌 어린이	2015
184	희망의 샘물	에릭 월터스	유진 페르난데스	김선희	꿈터	2015



동화책 목록



*표시는 서평 수록 도서입니다.

no	서명	저자	삽화	역자	출판사	년도
1	가방 속 책 한 권	버지니아 리드 에스코발	루시아 스포르자	김정하	도토리숲	2014
2	강아지가 아니어서 * 미안해	이상교			현북스	2015
3	거짓말 경연대회	이지훈	송혜선		거북이북스	2015
4	건방이의 건방진 수련기	천효정	강경수		비룡소	2014
5	고래가 뛰는 이유 *	최나미	신지수		창비	2014
6	고작해야 364일 *	황선미	김수정		포북차일드	2015
7	곰슬머리 화랑 야나	박신식	오윤희		청어람 주니어	2015
8	공룡 신발	김하늬	장선환		키큰도토리	2015
9	광대 달문 *	김영주	홍선주		문학과 지성사	2015
10	꿀까닥꿀까닥, * 내 명줄 줄어든다!	신니우	장경혜		낮은산	2015
11	꿀뚜기 *	진형민	조미자		창비	2013
12	꿀찌 없는 운동회	고정욱	우연이		내인생의책	2015
13	나는 버터넬 거야	발레리 홉스		모난돌	내인생의책	2015
14	나랑 밥먹을 사람	신순재	율마		책읽는 꿈	2015
15	나리야 미안해 *	유지은	오정림		봄봄출판사	2014
16	날아라 삼겹살 *	배봉기	장연주		별숲	2015
17	납작 개구리 사건	잉그리드 올손	샬롯 라멜	황윤진	우리나비	2015
18	내 이름은 아임소리 *	장수명	김품창		한림출판사	2007
19	너 딱 걸렸어 *	이상권	박영미		단비어린이	2015

no	서명	저자	삽화	역자	출판사	년도
20	달빛도시 동물들의 * 권리 투쟁기	김향금	이갑규		사계절	2015
21	담장을 넘는 할머니	현성은			콘텐츠하다	2015
22	따라쟁이 물고기	아만다스테르			삼성출판사	2015
23	마지막 이벤트 *	유은실	강경수		비룡소	2015
24	(부자가 되는 어린이 * 경제동화) 또봉이 통장	박종기			알에이치 코리아	2015
25	막난 할미와 * 로봇 곰 덜덜	안오일	조경규		뜨인돌 어린이	2014
26	멋진 화요일	데이지 드라즈코바			노란상상	2015
27	모두 잠언 *	김종미			창비	2015
28	모르는 아이 *	장성자	김진화		문학과 지성사	2015
29	바빠가족	강정연	한지아		바람의 아이들	2011
30	반쪽엄마 *	백승자	정지혜		밝은미래	2015
31	블랙아웃	박효미			한겨레 아이들	2014
32	빨간여우	김기정	김홍모		별숲	2014
33	빨리 놀자 삼총사 *	채인선	한지선		논장	2015
34	사랑은 어려워	박정애	김진화		웅진주니어	2015
35	삼촌은 길박사 *	양연주	권민정		킨더랜드	2014
36	선생님도 한번 봐 봐요	이숙현	김무연		우리교육	2015
37	소년 명탐정 정약용 *	한이			청어람 주니어	
38	수상한 로봇 가게 *	정재은	김중석		주니어 김영사	2014
39	시골 꼬마 만복이 *	안도현	정호선		한솔수북	2014
40	아기 반달곰 친구 불곰	박경선	주세영		지식산업사	2015

no	서명	저자	삽화	역자	출판사	년도
41	아베 히로시와 아사히야마* 동물원 이야기	아베 히로시		엄혜숙	돌베개	2014
42	앉을자리	박선미	장경혜		보리	2015
43	어느 작은 사건	루쉰		전형준	두레아이들	2014
44	엄마 나를 포기하세요! *	박현숙	김호진		좋은책 어린이	2015
45	엄마~ 5분만~ *	노경실	최정인		좋은책 어린이	2009
46	엄마사용 설명서	이토미쿠	조윤주	고향옥	우리교육	2015
47	영동한 동물 백과	뽀또와 친또	뽀또와 친또	최지영	산하	2015
48	여름이 반짝	김수빈	김정은		문학동네 어린이	2015
49	왜 내 동생이죠?	레베카 오로스코	로사나 파리아	유아 가다	고래이야기	2015
50	외톨이 꿈	이노루	이노루		책읽는곰	2015
51	욕대장	박현숙	김미진		생각하는 책상	2015
52	용훈아, 도서관 가져!	노경실	김창희		생각하는 책상	2015
53	우리 엄마 바꾸기 *	정임조	김예지		킨더랜드	2015
54	우리도 철학이 필요해	김병규	조신애		좋은꿈	2015
55	우리집 위층엔 킹콩이 * 산다	심은경	권송이		라임	2015
56	우산 도서관	최은옥	오정림		창비	2015
57	우정 지속을 위한 * 법칙 11가지	설흔			창비	2014
58	이대로그가 아닌 이대로 *	안오일	김선배		크레용 하우스	2015
59	이상한 게임 마니또	선자은	고상미		푸른숲 주니어	2015
60	이상한편지 *	구쓰기 쇼	사사메야 유키	김윤정	키다리 출판사	2015
61	인어의 노래	황선미	이보나 흐미엘레프스카		비룡소	2015

no	서명	저자	삽화	역자	출판사	년도
62	장자뭉이이야기 *	김수정			꿈꾸는 꼬리연	2015
63	지붕을 달리는 아이들	캐서린 린델		김진희	천개의바람	2015
64	짜구 할매 손녀가 왔다	신지영	정문주		한겨레 아이들	2015
65	꼭지 전쟁	전은지	이경석		책읽는곰	2015
66	쫄쫄이내강아지	이민혜	김민준		문학동네 어린이	2014
67	창문 하나 달고 싶다	초록손가락	강나래		섬아이	2015
68	청국장, 똥국장 *	윤재중	한주리		소나무	2015
69	친애하는 악몽 도둑	안경미	이민혜		문학동네 어린이	2015
70	카시탄카	안톤 체호프	타티야나 코르메르		살림어린이	2015
71	코끼리는 내일 온다	남상순	김다정		해와나무	2015
72	택시 소년	데보라 엘리스		윤정숙	천개의바람	2014
73	푸른 사자 와니니	이현	오윤희		창비	2015
74	피카이야 *	권윤덕	권윤덕		창비	2013
75	하늘나라 풀밭으로	우봉규	양상용		중앙출판사	2013
76	할머니가 사라졌다 *	박현숙	김현영		시공주니어	2014
77	할머니의 마지막 손님	임정자	권정선		한겨레 아이들	2015
78	햄버거랑 피자랑 * 맛있는 것만 먹으래	박현숙	안경희		팜파스	2015
79	호두껍질 속의 에디	안네 가우스	안네 가우스	함미라	주니어 김영사	2015
80	희망을 부르는 소녀 * 바리	김선우	양세은		단비어린이	2014



지식정보책 목록



*표시는 서평 수록 도서입니다.

no	서명	저자	삽화	역자	출판사	년도
1	2030년에는 투명 망토가 나올까	얀 파울 스튀턴		이가영	다른	2015
2	(지구촌얼굴)가면 *	정해영	정해영		논장	2013
3	강아지야, 내 동생이 돼 줄래?	김아랑	윤은		책빛	2015
4	고종 시대의 과학이야기 *	김연희	김효진		사계절	2015
5	궁궐에 나무보러 갈래?	노정임	안경자		웃는돌고래	2014
6	꼬마 손자병법 *	문경민	민은정		비룡소	2015
7	나 오늘부터 일기 쓸 거야	방미진	김진화		청어람 주니어	2015
8	나는 무슨 씨앗일까? *	황병기	유준재		샘터	2014
9	나도 권리가 있어! *	인권교육센터 들	윤정주		책읽는곰	2011
10	나무가 자라야 * 사람도 살지	김남길	마이신		풀과바람	2015
11	내 동생도 알아듣는 쉬운 경제	김경락	윤지희		사계절	2015
12	내 마음에게 물어봐요	박남희	정원재		종이책	2015
13	내가 가게를 만드다면?	김서윤	서영아		토토북	2015
14	누구의 알일까?	리넷 에반스	가이 트라우턴	윤소영	주니어 RNK	2015
15	동물원 친구들은 * 어떻게 지낼까?	아베 히로시		햇살과 나무꾼	논장	2013
16	똑똑한 우리 몸 설명서	황근기	신동민		살림어린이	2015
17	마티스의 빨간 물고기	상드린 앤드류	줄리아 쇼송		톡	2015
18	명작 안에 고사성어 있다!	강영주	최승훈, 김태형		지에밥	2015
19	모험가를 위한 세계탐험 지도책	사라 세퍼드			머스트비	2014

no	서명	저자	삽화	역자	출판사	년도
20	문화재 이름도 모르면서	이재정			나는책	2015
21	물은 살아있다	주잔네 오로츠	라우라 모모	김희상	홍익출판사	2015
22	미술관에서 놀자	미술관에서 놀자	네오넷코리아	박윤선	네오넷 코리아	2014
23	미술관에서 읽는 세계사	김영숙			휴먼어린이	2015
24	바람개비 의사 이길여 *	백은하	이영림		상수리	2015
25	바르샤바 게토의 마지막 공연	아담 야로미르	가브리엘라 치호프스카	박종대	평화를 품은책	2015
26	별 아저씨의 별난 우주이야기	이광식			블메나무	2015
27	부와 가난은 어떻게 * 만들어지나요?	모니크 팽송- 샤를로, 미셸 팽송	에티엔 레크로아트	목수정	레디앙 어린이	2015
28	빠앗긴 문화재에도 봄은 오는가	서해경	이선주		풀빛미디어	2015
29	삐뚤삐뚤 가도 좋아	이남석			사계절	2015
30	(세상을 바꾼 상상력) * 사과 한 알	정연숙	크리스티나 립카 슈타르바워		논장	2015
31	상상력 스케치 노트	김충원 창의력 발전소	김충원 창의력 발전소		진선아이	2015
32	생각이 커지는 수학 퍼즐	샘 로이드			바이킹	2015
33	생명, 알면 사랑하게 * 되지요	최재천	권순영		더큰아이	2015
34	선생님이 들려주는 분쟁이야기2	차은숙	정지원		생각하는 책상	2015
35	소녀의 눈물 *	박정연			버튼박스	
36	신나는 과학 놀이터	어린이동아 취재팀			어린이동아	2015
37	씩어가는 환경 *	장수하늘소			해솔	
38	애들아, 학교가자 *	안 부앵	상드린, 알랭모레노		푸른숲	2006
39	어린 도시농부 소피	제르다 뮐러	제르다 뮐러	이효숙	내인생의책	2015
40	어린이 인문학여행 3	노경실			생각하는 책상	2015

no	서명	저자	삽화	역자	출판사	년도
41	어린이들의 한국사 *	역사교육연구소	이경석		휴먼어린이	2015
42	어디까지나 우리소리에 풍덩싹뻗어보자	최상일	이진경		꼬마이실	2014
43	여기는 대한민국푸른섬 * 독도리입니다	장지혜	문종훈		개암나무	2015
44	여자들은 똑똑해	캐서린 티메시	멀리사 스위트	최지현	보물창고	2015
45	역사 속 우리 법 이야기	홍경의	이진우		스콜라	2014
46	왜 용서 * 안 하면 안 되나요?	이아연	유명희		참돌어린이	2014
47	우당탕탕 세상을 바꾼 과학	김용준	이창우		봄별	2015
48	우리 마을 도서관에 와 볼래?	유은실	신민재		사계절	2015
49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 물 속 생물이야기	한영식	김명길		아이세움	2015
50	인성이 자라는 오류행실도	김은의	김용철		학고재	2015
51	자연을 배우는 만화 텃밭 백과	석동연	석동연		스콜라	2014
52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 작은 노력)적정기술	임정진	심성엽		미래아이	2014
53	전쟁을 평화로 바꾸는 방법	루이즈 압스트롱	서현		평화를 품은책	2015
54	좋은 돈, 나쁜 돈, 이상한 돈	권재원			창비	2015
55	지구를 살리는 힘, 녹색 화학	에밀리라멜, 카롤린윌레	로랑 클링		주니어 김영사	2015
56	지글지글 행성을 구출 하는 짜릿한 지구 교실	잔루카 렌티니	조에스터	황지민	길벗어린이	2015
57	책임지는 용기, 징비록 *	최지운	조윤주		상상의집	2015
58	처음만나는수학그림책	미야니시 다쓰야	미야니시 다쓰야		북뱅크	2015
59	천사의 마음을 가진 * 오드리 햅번	장경원	김정진		한국톨 스토이	2007
60	초등생을 위한 인권특강	윤해운			나무처럼	2015
61	캠핑장 생태도감	우종영	김종민		스콜라	2015

no	서명	저자	삽화	역자	출판사	년도
62	코비토 신종발견	나바타 토시타카		김난주	멜론	2015
63	콩 농사짓는 마을에 * 가 볼래요?	노정임	안경자		아이세움	2013
64	패션세계를만나다	정해영			창비	2014
65	평화학교	김영미	김보라		책숲	2015
66	프랭클린 피뢰침으로 * 번개를 길들이다	캐슬린 크럴	보리스 쿨리코프		초록개구리	
67	학교 가는 길	한태희	한태희		한림출판사	2015
68	핵발전소의 비밀 *	강양구	소복이		리젬	2014
69	행복지수 1위, * 덴마크의 비밀	오연호	김진화		사계절	2015
70	행복한 대통령 호세 무히카	우현옥	강혜영		책고래	2015
71	현대미술이란 무엇일까?	재키 클라인, 수지 클라인		김주영	큐리어스	2015



813.8 사서, 어린이책^을 말하다₂₀₁₅

색인 찾아보기

- ◆ 저자별
- ◆ 출판사별
- ◆ 서평대상도서 제목별
- ◆ 서평자별



저자별

강양구	344	노경실	261
구쓰기 쇼	269	노정임	340
권윤덕	275	노튼 저스터	166
기무라 유이치	24	다네무라 유키코	168
김남길	296	다비드 칼리	118, 130
김대규	163	다시마 세이조	194
김상근	18	라스칼	26
김서정	192	러디어드 키플링	76
김선우	287	레나 안데르손	110
김수련	96	레오니드 고어	43
김수정	271	로렌 차일드	66
김수희	114, 116	로렌 카스티요	60
김승연	142	마이클 바틀로스	28
김연희	298	막스 뒤코스	78
김영미	184	매이 봄	20
김영주	214	맥 바넷	100
김영진	136	모니크 팡송-샤를로, 미셸 팡송	312
김인자	186	모리요코	197
김종미	281	모토시타 이즈미	136
김종철	90	문경민	300
김지연	32	네오넛코리아	308
김해등	158	박광명	51
김향금	232	박상은	36
김희경	74	박완서	16
나태주 시, 위정현 윤문영 글	178	박정연	319
		박종기	234
		박철	203
		박철화	271
		박현숙	258, 277, 279
		배봉기	224

백승자	243	유리	68
백은하	310	유설화	107
백주희	124	유은실	236
백희나	34	유지은	222
벵자맹 쇼	22	윤여림	161
브라타 테켄트럽	86	윤재중	273
상기타 바드라	112	윤지희	92
상드라 푸아로 세리프	30	이경혜	199, 201
서진선	146	이상교	134, 208
설흔	284	이상권	229
세베린 비달	188	이선미	41
소중애	122	이아연	330
신니우	217	이월	176
신혜은	72	인권교육센터 들	304
심은경	265	임정진	334
싱자휘	55	잉거 마이어	180
아나 만소	150	장경원	338
아베 히로시	255, 306	장석주	53
안 부앵	323	장성자	240
안도현	253	장수명	226
안드레아 페트릭	173	장수하늘소	321
안오일	238, 267	장지혜	328
알리스 뒤마	144	전미화	82, 84
앙트아네트 포티스	132	전민걸	88
앤서니 브라운	126	정성훈	98
양연주	247	정연숙	314
에바 무어	148	정임조	263
엠마누엘레 베르토시	49	정재은	251
역사교육연구소	325	정진호	154
오연호	347	정해영	294

정호선	152
제니 데스몬드	64
제르다 뮐러	128
제리 팔로타	47
제임스 프로이모스	170
존 버닝햄	62, 140
존 클라센	156
진형민	219
채인선	245
천유주	45
최나미	210
최재천	317
최지운	336
칼라 모리스	57
캐슬린 크렐	342
코키루니카	80
콘스탄체 외르벡 닐센	38
키아라 발렌티나 세그레	70
피터 브라운	102
하재경	105
한영식	332
한은선	120
한이	249
한태희	94
홍선주	190
홍순미	182
황병기	302
황선미	212

출판사별

개암나무	328
계수나무	178
고래뱃속	51
고래이야기	80
교학사	144
국민서관	55, 66, 78, 148
그린북	57
글로연	41
길벗어린이	136
꿈꾸는 꼬리연	271
낮은산	217
내인생의책	128, 186
네오넷코리아	308
논장	245, 294, 306, 314
느림보	32
다림	64
단비	287
단비어린이	229
더큰아이	317
돌베개	255
두레아이들	170
뜨인돌어린이	199, 201, 238
라임	265
레디앙어린이	312
로그프레스	142

리젬	344	은나팔(현암사)	154
문학과지성사	82, 84, 214, 240	이야기꽃	45, 53, 68
문학동네	118	재능교육	60
미래아이	114, 116, 334	책과콩나무	166
바우솔	203	정인출판사	173
밝은미래	243	좋은책어린이	261, 258
버튼북스	319	주니어김영사	158, 251
베틀북	43	주니어이서원	96
별숲	224	지경사	120
보림	105, 146	지식나이트	26
봄봄	122, 134, 182, 222	참돌어린이	330
북극곰	49	창비	45, 74, 152, 210, 219, 275
북뱅크	24		281, 284
북스토리아이	150, 197	책먹는 아이	184
분홍고래	38	책읽는곰	34, 107, 124, 130, 190, 304
비룡소	98, 140, 163, 236, 300	천개의바람	136
사계절	92, 102, 232, 298, 347	청어람아이	110
살림어린이	76	청어람주니어	249
상상의집	336	초록개구리	342
상수리	310	크레용하우스	267
샘터	302	키다리	112, 269
소나무	273	키즈엠	28, 86, 176
시공주니어	62, 72, 100, 156, 277	킨더랜드	247, 263
씨드북	70, 180	팜파스	279
아이세움	332, 340	포북차일드	212
알에이치코리아	234	푸른숲	323
어린이작가정신	16	푸른숲주니어	188
어썸키즈	20, 47	풀과바람	296
여유당	22	한겨레아이들	30
웅진주니어	90, 161, 192	한국툴스토리	338

한림출판사	18, 88, 94, 168, 194, 226
한솔수북	132, 253
해솔	321
현복스	36, 126, 208
휴먼어린이	3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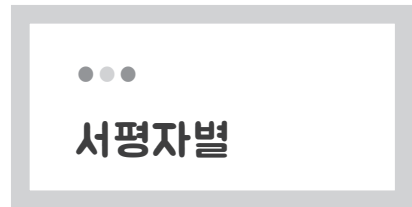
서평대상도서 제목별

7년 동안의 잠	16
(지구촌 얼굴) 가면	294
가방 안에 든게 뭐야?	18
가을 비빔밥	20
강아지가 아니어서 미안해	208
고래가 뛰는 이유	210
고작해야 364일	212
고종시대의 과학이야기	298
곰의 노래	22
광대 달문	214
구덩이에서 어떻게 나가지?	24
그게 바로, 너야	26
그림자가 사는 마을	28
까치가 물고 간 할머니의 기억	30
꼬마 손자병법	300
꿀까닥꿀까닥, 내 명줄 줄어든다!	217
꿀뚜기	219

꽃살문	32
꿈에서 맛 본 동파리	34
나는 누구일까?	36
나는 무슨 씨앗일까?	302
나는 혼자가 아니예요	38
나도 권리가 있어!	304
나리아 미안해	222
나와 우리	41
난, 책이 참 좋아	43
날아라 삼겹살	224
내 마음	45
내 이름은 아임소리	226
너 딱 걸렸어	229
누가 나무를 심었을까요?	47
누구세요?	49
달빛도시 동물들의 권리 투쟁기	232
대단한 밥	51
대추 한 알	53
도서관에 도깨비가 으히히히	55
도서관이 키운 아이	57
도시에 사는 우리 할머니	60
동물원 가는 길	62
동물원 친구들은 어떻게 지낼까?	306
동생만 예뻐해!	64
동생이 미운걸 어떡해	66
돼지 이야기	68
(부자가 되는 어린이 경제동화)	234
또봉이 통장	
롤라와 나	70
마음아, 작아지지 마	72

마음의 집	74	슈퍼거북	107
마지막 이벤트	236	스티나의 여름	110
막난 할미와 로봇 곰 덜덜	238	시골 꼬마 만복이	253
만약에	76	심술쟁이 애완동물 앵그리	112
모두 갇힌	281	싱크 홀이 우리 집을 삼켰어요!	114, 116
모래 언덕에서의 특별한 모험	78	싸움에 관한 위대한 책	118
모르는 아이	240	씩어가는 환경	321
무엇이든 삼켜버리는 마법상자	80	아베히로시와	255
미술관에서 놀자	308	아사히야마 동물원 이야기	
미영이	82, 84	아빠가 좋아요!	120
미용실에 간 사자	86	아빠를 버렸어요	122
바람개비 의사 이길여	310	안돼 내 과자야	124
바삭바삭갈매기	88	앤서니 브라운 코끼리	126
반쪽엄마	243	애들아, 학교가자	323
발이 더러운 왕	90	어린 도시농부 소피	128
방긋 아기씨	92	어린이들의 한국사	325
봄을 찾은 할아버지	94	어쩌다 여왕님	130
부와 가난은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312	엄마 나를 포기하세요!	258
빨리 놀자 삼총사	245	엄마, 잠깐만!	132
(세상을 바꾼 상상력) 사과 한 알	314	엄마~ 5분만~	261
사막의 아이	96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134
사자가 작아졌어!	98	엄마가 오는 길	136
삼촌은 길박사	247	엄마는 회사에서 내 생각 해?	136
샘과 데이브가 땅을 팠어요	100	엄마의 품	203
생명, 알면 사랑하게 되지요	317	에드와르도	140
선생님은 몬스터	102	여기는 대한민국 푸른 섬 독도리입니다	328
소녀의 눈물	319	여우모자	142
소년 명탐정 정약용	249	옆집 할아버지 관찰 일기	144
수상한 로봇 가게	251	오늘은 5월 18일	146
숲으로 간 코끼리	105	오리 가족의 떠들썩한 나들이	148

왜 용서 안 하면 안 되나요?	330	피카피아	275
우리 가족의 비밀	150	하늘꽃이 내 동생을 데려옵니다	180
우리 엄마 바꾸기	263	한밤의 선물	182
우리는 엄마와 딸	152	할머니 사진첩	184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332	할머니가 사라졌다	277
물 속 생물이야기		할머니는 1학년	186
우리집 위층엔 킹콩이 산다	265	할머니를 기다립니다	188
우정 지속의 법칙	284	할머니의 할머니의 할머니의 옷	190
위를 봐요!	154	함께 걷는 길	192
이건 내 모자가 아니야	156	해적 : 바다에 살던 한 해적의 이야기	194
이대로가 아닌 이대로	267	핵발전소의 비밀	344
이상한 편지	269	햄버거랑, 피자랑, 맛있는 것만 먹을까!	279
일기 몬스터	158	행복지수 1위, 덴마크의 비밀	347
장자못이야기	271	혼자 집 보는 날	197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작은 노력)	334	흑설공주	199, 201
적정기술		희망을 부르는 소녀 바리	287
책임지는 용기, 징비록	336		
천사의 마음을 가진 오드리 햅번	338		
천천히 도마뱀	161		
청국장, 똥국장	273		
춤추고 싶어요	163		
친구를 사귀는 아주 특별한 방법	166		
콩 농사짓는 마을에 가 볼래요?	340		
키이의 가출	168		
텔레비전을 끌 거야!	170		
파란하늘	173	강동연	92
팔랑팔랑	45	공정자	78, 124, 203, 302, 306, 334
팔고물 시루떡	176	권혜림	130
풀꽃	178	김보라	32, 53
프랭클린 피뢰침으로 번개를 길들이다	342	김선옥	18



김정옥	192	정은영	136
김혜진	182	조수연	134, 222, 308, 314
박지원	88, 112, 116, 156, 224, 226 249, 253, 258, 261, 269, 275 279, 298, 310, 317, 319, 321 328, 330, 336, 342	최미송	219
손셋별	62, 100, 150	한선영	107
송은희	214, 229, 255, 344	홍미정	60, 161
유옥환	26, 34, 55, 72, 148, 236 267, 296, 347		
유향숙	20, 22, 24, 43, 47, 80, 94 140, 142, 144, 166, 190, 251 323, 332, 338		
유현미	163, 210, 281, 284		
이가영	51, 74, 110, 128, 146, 168, 176 232, 277, 304, 312, 340		
이민혜	38, 90, 243, 300		
이수경	45, 84, 98, 105, 118, 132 154, 194, 240, 287		
이시영	16, 30, 41, 49, 57, 70 178, 184, 186, 188, 271		
이연수	66, 96, 102, 114, 122, 152 197, 201, 208, 238, 245, 247, 263		
이영	86, 294		
이은주	36, 76, 82, 120, 126, 173 199, 212, 234, 265, 325		
이은희	64		
이현아	180, 217, 273		
장현명	28, 68, 170		
정영춘	158		

발 간 등 록 번 호

71-6410000-000581-10



공공누리



중재표시



상업영금지



변경금지

공공 저작물 자유이용허락

813.8 사서,
어린이책^을
말하다²⁰¹⁵



9 788993 395532

ISBN 978-89-93395-53-2

비매품
13020